시정연 2004 특별정책과제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연구책임 : 조권중 연구위원

연구원 : 김위정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김경욱 서울문화재단

류문수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양종회 성균관대학교

유연식 서울시 문화과

이병혁 서울시립대학교

이보아 추계예술대학교

장미혜 여성개발원

정준영 동덕여자대학교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3. 문화격차에 대한 논의 ····· 7
4. 연구 내용의 구성 ····· 17
5. 조사개요 ····· 22

제 II 장 서울시민의 문화 향수 실태 ····· 29
1. 여가생활 ····· 29
2. 미디어 문화 향수 및 취향 ····· 38
3. 공연 및 전시 예술 관람 ····· 54
4. 여가 및 문화시설 이용 ····· 62
5. 문화예술교육경험 및 동호회 활동 ····· 68
6.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및 의견 ····· 74

제 III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1: 경제자본과 문화 자본 ····· 83
1.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의한 분류 ····· 83
2.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 84
3. 문화적 우위집단 ····· 86
4. 경제적 우위집단 ····· 87
5.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 89
6. 집단간의 문화격차 :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효과 ····· 92

제 IV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2 : 주관적 계층 ····· 101
1. 주관적 계층의 특성 ····· 101
2. 여가 활동과 태도 ····· 103
3. 미디어 문화 향수 ····· 105
4. 문화예술 경험 ····· 106

5. 주관적 계층의 문화격차 ····· 109

제 V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3 : 세대 ····· 113
1. 세대별 특성 ····· 113
2. 여가 활동과 문화향수 ····· 113
3. 문화예술과 생활에 대한 태도 ····· 117

제 VI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4 :지역 ····· 123
1. 지역별 시민의 문화향수 ····· 123
2. 시민의 지역 문화시설 이용 ····· 128
3. 지역과 문화향수 ····· 130

제 VII 장 시민의 문화수요와 욕구 ····· 133
1.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욕구 파악 ····· 133
2. 문화향수 비용에 대한 지원 ····· 143
3. 문화 체험 및 문화 예술 교육 강화 ····· 149
4. 지역문화시설의 역할 강화 ····· 152

제 VIII 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57
1. 문화향수 저변 확대 ····· 157
2. 문화비용에 대한 지원과 보조 ····· 159
3. 공공예술교육강화 ····· 161
4. 지역문화시설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 163
5. 소외지역 우선 지원 ····· 165
6.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호와 신장 ····· 166

표 차례

<표 1-1> 문화격차의 요인 및 대안 ····· 17
<표 1-2>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경험적 지표 ····· 19
<표 1-3> 자치구별 표본 할당 ····· 23
<표 1-4> 설문지의 구성 ····· 24
<표 1-5> 표본의 특성 ····· 25
<표 2-1> 여가활동 빈도 ····· 32
<표 2-2> 여가활동의 요인분석에 의한 분류 ····· 33
<표 2-3> 여가활동 참여율 ····· 34
<표 2-4> 휴가 중 레져/관광 경험 여부 ····· 36
<표 2-5>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 37
<표 2-6> 드라마 시청일수 ····· 39
<표 2-7> TV 시청 습관 ····· 40
<표 2-8>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 41
<표 2-9> 선호하는 영화 장르 ····· 42
<표 2-10> 영화 관람 방식 ····· 43
<표 2-11> 영화관 영화 선택 기준 ····· 44
<표 2-12> 지난 1년간 영화 관람 횟수 ····· 45
<표 2-13> 개봉영화의 요인분석에 의한 분류 ····· 46
<표 2-14> 종류별 평균 영화 관람 횟수 ····· 47
<표 2-15> 흥행류 외 영화 관람 횟수 ····· 48
<표 2-16> 좋았던 영화 ····· 49
<표 2-17> 지난 1년간 구독 서적 수 ····· 50
<표 2-18> 주로 읽은 서적 분야 ····· 50
<표 2-19> 즐겨보는 잡지 종류 ····· 51
<표 2-20> 선호하는 음악장르 ····· 52
<표 2-21>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률(평생) ····· 55
<표 2-22>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률(지난1년) ····· 57
<표 2-23> 여가유형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 58

<표 2-24> 여가활동 빈도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 59
<표 2-25> TV 시청습관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 60
<표 2-26> 독서 서적수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 60
<표 2-27> 고졸 응답자들의 독서 서적수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 60
<표 2-28> 취향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 61
<표 2-29>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횟수 ····· 63
<표 2-30> 지역문화시설 인지율 ····· 65
<표 2-31> 지역문화시설 이용률 ····· 66
<표 2-32> 지역문화시설 만족도 ····· 67
<표 2-33> 문화예술 강습 분야(성인 이전) ····· 68
<표 2-34> 문화예술 강습 장소(성인 이전) ····· 69
<표 2-35> 문화예술 강습 분야(지난1년) ····· 70
<표 2-36> 문화예술 강습 장소(지난1년) ····· 70
<표 2-37>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 70
<표 2-38> 연주가능한 악기 및 보유악기 ····· 72
<표 2-39> 참여 동호회 ····· 73
<표 3-1>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의한 집단 분류 ····· 83
<표 3-2>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분포에 따른 집단별 특성 ····· 84
<표 3-3>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분포에 따른 문화향수실태 ····· 90
<표 3-4> 변수설명 ····· 93
<표 3-5> 문화예술행사 관람 로짓분석 ····· 94
<표 3-6> 선호하는 음악장르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 96
<표 4-1> 주관계층별 특성 ····· 102
<표 4-2> 주관계층별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 104
<표 4-3> 주관계층별 여가활동 만족도 ····· 104
<표 4-4> 주관계층별 1일 평균 TV시청 시간 ····· 105
<표 4-5> 주관계층별 TV 시청습관 ····· 105
<표 4-6> 주관계층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 106
<표 4-7> 주관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107
<표 4-8> 주관계층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 108
<표 4-9> 예술교육경험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 108

<표 4-10> 주관계층별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 108
<표 5-1> 세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평가 ····· 115
<표 5-2> 세대별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 115
<표 5-3> 세대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 116
<표 5-4> 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116
<표 5-5> 세대별 성인 이전 예술교육 경험 ····· 118
<표 5-6> 세대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 118
<표 5-7> 세대별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 120
<표 6-1> 지역별 여가생활 만족도 ····· 125
<표 6-2> 지역별 1일 평균 TV시청 시간 ····· 125
<표 6-3>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126
<표 6-4> 지역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 126
<표 6-5> 지역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 127
<표 6-6> 지역별 여가 및 문화시설 수 ····· 128
<표 6-7> 지역별 지역문화시설 인지율 및 이용률 ····· 129
<표 6-8> 지역별 지역문화시설 비이용 이유 ····· 130
<표 7-1> 여가활동 만족도 ····· 133
<표 7-2> 여가활동 유형과 만족도 간의 교차분석 ····· 134
<표 7-3>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도 ····· 135
<표 7-4> 선호하는 여가활동 장소와 주로 하는 여가활동 ····· 137
<표 7-5> 선호하는 여가활동 공유대상 ····· 137
<표 7-6>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 138
<표 7-7> 예술행사 관람 이유 ····· 139
<표 7-8>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 142
<표 7-9> 문화예술관련 최대 지출분야 ····· 144
<표 7-10>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 ····· 145
<표 7-11> 문화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 146
<표 7-12> 문화예술행사 최대 지불가능금액 ····· 148
<표 7-13> 예술교육 경험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 149
<표 7-14> 예술교육경험과 클래식 음악 친숙도 간의 교차분석 ····· 150
<표 7-15> 가정내 예술관련 경험과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 150

<표 7-16> 악기이용과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 151
<표 7-17> 참여 동호회와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 151
<표 7-18> 지역문화시설 비이용 이유 ····· 152

그림 차례

<그림 1-1> 분석틀 ····· 21
<그림 2-1> 주중 주로하는 여가활동 ····· 29
<그림 2-2> 주말 주로하는 여가활동 ····· 29
<그림 2-3> 교육수준별 주중 여가활동 ····· 30
<그림 2-4> 교육수준별 주말 여가활동 ····· 31
<그림 2-5> 여가활동 종류별 참여율 ····· 33
<그림 2-6> 소득수준별 휴가 참여율 ····· 35
<그림 2-7> 교육수준별 휴가 참여율 ····· 35
<그림 2-8> 교육수준별 TV시청시간 ····· 38
<그림 2-9> 소득수준별 TV시청시간 ····· 38
<그림 2-10> 교육수준별 드라마 매일시청률 ····· 39
<그림 2-11> 소득수준별 드라마 매일시청률 ····· 39
<그림 2-12>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 41
<그림 2-13> 소득수준별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 41
<그림 2-14>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영화장르 ····· 42
<그림 2-15> 교육수준별 영화관람횟수 ····· 45
<그림 2-16> 소득수준별 영화관람횟수 ····· 45
<그림 2-17> 교육수준별 독서권수 ····· 50
<그림 2-18> 소득수준별 독서권수 ····· 50
<그림 2-19> 교육수준별 주로 읽은 서적 분야 ····· 51
<그림 2-20> 교육수준별 즐겨보는 잡지 종류 ····· 52
<그림 2-21>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 53
<그림 2-22> 소득수준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 53
<그림 2-23>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률(평생) ····· 55
<그림 2-24>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률(평생) ····· 55
<그림 2-25>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지난1년) ····· 57
<그림 2-26>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지난1년) ····· 58
<그림 2-27> 여가 및 문화시설 방문 횟수 ····· 63

<그림 2-28> 교육수준별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률 ····· 64
<그림 2-29> 소득수준별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률 ····· 64
<그림 2-30> 지역문화시설 만족도 ····· 67
<그림 2-31> 교육수준별 성인 이전 예술교육 경험률 ····· 68
<그림 2-32> 성장지별 성인 이전 예술교육 경험률 ····· 68
<그림 2-33> 교육수준별 지난1년간 예술교육경험 ····· 69
<그림 2-34> 직업별 지난1년간 예술교육경험 ····· 69
<그림 2-35> 교육수준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 71
<그림 2-36> 소득수준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 71
<그림 2-37> 교육수준별 악기관련 비율 ····· 72
<그림 2-38> 소득수준별 악기관련 비율 ····· 72
<그림 2-39> 교육수준별 동호회 참여율 ····· 73
<그림 2-40> 소득수준별 동호회 참여율 ····· 73
<그림 2-41> 문화향수수준에 대한 태도 ····· 74
<그림 2-42> 교육수준별 예술향수수준 평가 ····· 75
<그림 2-43> 교육수준별 클래식 음악 친숙도 ····· 75
<그림 2-44>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 76
<그림 2-45> 교육수준별 뮤지컬 선호도 ····· 76
<그림 2-46> 교육수준별 여유시간 중요성에 대한 태도 ····· 77
<그림 2-47> 문화 일반에 대한 태도 ····· 78
<그림 2-48> 문화향수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의 관계 ····· 78
<그림 4-1> 주관계층별 주중 여가활동 ····· 103
<그림 4-2> 주관계층별 주말 여가활동 ····· 103
<그림 4-3> 주관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107
<그림 5-1> 세대별 주중 여가활동 ····· 114
<그림 5-2> 세대별 주말 여가활동 ····· 114
<그림 5-3> 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 117
<그림 5-4> 세대별 예술향수수준에 대한 남들과의 비교 태도 ····· 118
<그림 5-5> 세대별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적 성공에 대한 태도 ····· 119
<그림 6-1> 지역별 주중 여가활동 ····· 124
<그림 6-2> 지역별 주말 여가활동 ····· 124

<그림 6-3> 지역별 여가 및 문화시설 이용률 ····· 127
<그림 7-1> 교육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 ····· 134
<그림 7-2> 소득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 ····· 134
<그림 7-3> 교육수준별 여가문화 관심도 ····· 135
<그림 7-4> 소득수준별 여가문화 관심도 ····· 135
<그림 7-5> 교육수준별 선호 주말여가장소 ····· 136
<그림 7-6> 소득수준별 선호 주말여가장소 ····· 136
<그림 7-7> 향후 하고싶은 주중 여가활동 ····· 138
<그림 7-8> 향후 하고싶은 주말 여가활동 ····· 138
<그림 7-9>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 이유 ····· 140
<그림 7-10>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 이유 ····· 140
<그림 7-11> 교육수준별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 142
<그림 7-12> 소득수준별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 142
<그림 7-13> 교육수준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없음 비율 ····· 144
<그림 7-14> 소득수준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없음 비율 ····· 144
<그림 7-15>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 ····· 145
<그림 7-16>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 ····· 145
<그림 7-17>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 147
<그림 7-18> 직업별 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 147
<그림 7-19> 소득수준별 지역문화시설 비이용 이유 ····· 152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문화격차에 대한 논의
4. 조사의 개요
5. 연구내용의 구성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수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영화를 제외하고 나면 불행하게도 해가 갈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향수층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계층간 격차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이런 현상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이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을 따라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단기간 안에 투입을 늘려 산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문화 부분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정책의 우선성에 있어서 삶의 질이나 어메니티 제고 등은 늘 하위로 밀려났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문화는 사치쯤으로 치부되었을 뿐이다.

물질적인 풍요가 증대함에 따라 문화적 욕구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문화가 산업으로 인식되었을 때 정책적 관심은 고조되었지만, 문화가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반이 되는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1) 문화복지와 지방분권화

최근에 중앙정부는 참여복지 정책 기조하에 문화복지를 문화정책에 주요한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불균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시설 설립과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지, 전체 국민의 문화적 수요를 고찰하지 않고, 복지를 특정 소외 계층에 대한 한정된 개념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가 일반 국민의 전체적인 문화향수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립되려면 국민의 문화향수 실태와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화격차의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지방분권화 방향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로 지역 문화정책의 특성을 띄는 공간이 되었었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 단체로써 서울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서울의 문화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문화정책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서울은 서울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와 관련하여 서울의 특성은 바로 문화를 향수하는 서울 시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은 단순히 자치 단체가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정책이라는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필요로 한다.

2)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의 의미

문화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존재하지만 문화 자원의 공공재적인 특성은 문화 영역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거가 되고 있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시장과는 달리 공급과 수요가 문화 자원의 확대재생산을 초래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시장적인 기제하에 문화가 공급되었을 때 수요가 제한된다면 문화자원은 전체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문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 시장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면 경쟁적인 상황에서 시장성을 가진 분야의 문화 영역에 대한 집중이 초래되어 전체적인 문화의 다양성은 훼손될 수 있게 된다.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가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의 근거가 되어 왔으며, 이것은 더 나아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자원의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의 일반적인 향상이라는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논거가 되어 왔다.

3) 문화수요에 대한 관심의 필요

이러한 문화에 대한 공공재적인 성격에서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문화자원에 대한 공급자적인 시각에 집중되어 왔다.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문화를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현재까지 문화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주요 정책의 지향이었다. 이러한 정책 지향에는 문화 자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문화 시설이 있으면 문화수요가 있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문화수요는 문화 공급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은 개선되지 아니하고, 문화수요에 대한 개발이나 지원 없이 문화에 대한 공급이 괴리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수요에 대한 보다 절실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수요에 대한 관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문화수요에 대한 고려는 문화를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자원이 가지는 공공재적인 특성에서 문화에 대한 시장적인 접근은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문화적인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문화수요에 대한 욕구의 파악은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문화 자원의 생산을 풍부하게 하는 문화의 저변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적인 차원에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4) 문화격차 현상

문화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서 주요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은 문화수요에서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격차 현상이 있다는 현실이다. 문화격차 현상은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화향수의 격차가 체계적으로 발생한다면, 공공 지원은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수하는 층에게로 문화자원의 역진적인 재분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격차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화격차는 두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한 측면에서는 사회계층적인 속성에 따라 문화를 향수하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문화격차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 계층화의 결과로써 문화격차를 볼 수 있다. 즉, 수입이나. 교육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문화향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불평등 문제는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문화격차라는 문제의식은 경제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독점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자본을 취득하는 데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이와 관련 레식(Lessig)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와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가 창조・혁신・생산능력에서 많은 차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자본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돈이 생긴다고 해서 단시간에 쉽게 획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문화적 체험과 문화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미래의 중요한 자원 획득 기회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컨대 문화와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등장한 마당에 문화와 정보로부터의 소외는 장기적인 빈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문화를 향수하는 양상이 사회적인 과정의 결과로써 계층화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집단간의 문화향수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위계화되어 계층적인 특성을 띤다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을 전제하는 문화정책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문화격차 현상은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문화정책에서 문화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전환의 필요성, 문화정책의 분권화 경향과 그리고 문화향수에 있어 문화격차의 사회적 문제의 개연성을 배경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문화 도시를 향한 서울의 문화정책에서 시민의 문

화향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화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서울시민의 문화격차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기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향후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는 서울시민의 계층별, 학력별, 지역별 문화격차(Cultural Divide)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문화격차로 초래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와 문화격차의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시민의 문화적 수요의 확대보다는 시설확충과 행사에 치중하고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소비문화가 밀려옴에 따라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화 변화와 정책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나 문화격차(cultural divide)나 문화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대단히 미약했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과 시민 수요에 대한 강조를 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화격차 해소의 정책적인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3. 문화격차에 대한 논의

1) 문화격차의 개념

(1) 문화와 문화향수

문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문화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임학순, 2003:20-21), ⅰ)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ⅱ)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서의 문화, ⅲ)상징체계로서의 문화가 그것이다. 먼저,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란 광의의 개념에는 사회나 집단에서 공유되는 태도, 가치관, 관습,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 19세기 인류학자 테일러(Tylor)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다른 능력 및 습관'이라고 문화를 규정하여 인간의 유형화된 생활양식 총체로서의 문화 개념을 일반화하였다. 두 번째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화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문화유산, 예술, 문화콘텐츠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상징체계로서의 문화개념은 문화는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이나 문화콘텐츠는 모두 생활세계를 상징적 의미로 재해석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임학순, 2003:20). 소위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념인 문화복지, 문화권, 생활문화 등이 이러한 문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활양식은 예술창작활동이나 문화산업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화는 매우 강조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문화와 창의성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문화와 지식, 정보가 가장 지배적인 가치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물질적 풍요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로써 문화향수는 삶의 질을 좌우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예술교육이 아이들의 지능이나 창의력, 사교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문화적 측면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문화격차

문화격차란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향수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박용치, 2003:125)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수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문화격차 현상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도가 개개인의 구매력과 여가시간에 기초하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성간, 세대간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 둘째, 문화교육의 시장화 경향에 따라 부모의 사적 투자에 의한 문화자본의 세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셋째, 문화예술분야의 생산과 소비 집중으로 말미암아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 지역적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 넷째, 문화자본을 이미 획득한 특정계층이 표현수단과 상징세계를 독점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른 계층은 표현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요컨대 문화격차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문화소외계층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낮은 학력, 장애, 취약지역 거주, 소수민족 출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주류문화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제되거나 독자적인 자신의 문화를 생산하고 발표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나아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거나 불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화로부터 소외되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약 당하게 된다. 문화와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소외되면 장기간의 빈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격차는 문화격차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2) 문화격차의 요인

(1) 접근성(Access)

문화격차에 대한 문제는 문화에 대한 접근이 여러 차원에서 형성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지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크게 보면 문화해득력도 이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앞의 세 부분이 지원정책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반면 문화해득력은 교육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지리적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문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문화행사장까지 찾아가기 힘든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포함으로써 문화격차를 낳는다는 지역간 문화격차 현상을 설명한다. 주로 지방과 서울, 서울의 강남북 격차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도서산간지방의 문화소외현상을 설명할 때 많이 언급된다.

② 물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문제는 신체장애인를 위한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신체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문화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것은 신체장애라는 개인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③ 경제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문제는 가격장벽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감상하는 것 등은 그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저소득층에게 있어

서 이러한 문화비는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저렴하더라도 생계비와 상쇄관계에 있기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관객지원 프로그램, 관객개발 프로그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공공장소 등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인 여러 제약과 이유로 예술감상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욕구나 흥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문화해득력(Cultural Literacy)

앞서도 지적했듯이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것이다. 흔히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많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들 하지만 문화시설을 많이 짓고 전시와 공연 횟수를 늘려도 이를 관람하는 인구 중 교육받은 중류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 일정하다면 실질적인 접근성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문화해득력의 제고는 따라서 실질적인 문화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해득력은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당대의 문화예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대중과 예술을 문화교육이라는 매개 없이 직접 만나게 해서는 문화향수층의 저변을 넓힐 수 없다. 값이 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물관이나 공연장을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 소외계층의 문화해득력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교육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

1) 프랑스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12월 14일 문화통신부와 교육부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문화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지

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3) 문화적 성찰성(Cultural Reflexivity)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상호이해를 돕는 소통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예술은 때로는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언어로 칭송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생산하는 도구로 이해되기도 한다.

문화적 성찰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문화적 성찰성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화가 거의 불가능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문화, 빈곤층의 문화, 이민노동자의 문화, 노인의 문화 등 주류문화에 의해 사실상 사회의 타자로 취급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와 존재방식을 포용하고 이들의 표현능력 제고와 표현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사회정책이 아닌 문화정책으로서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3) 문화격차 해소의 원칙

(1)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적 권리는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적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로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의 개념은 전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모색되었으며 오늘날 세계는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문화적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고자 하는 이론적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김문환,1998:132)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

원을 받는 모든 기존의 문화예술기관에 대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술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인력양성과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이르기까지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은 이미 폭넓게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및 낙후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배정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문예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문화적 권리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소수집단의 정체성 및 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필요하다.

(2) 문화적 공공성 강화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정체성과 사회적 귀속감을 갖게 되고, 삶의 가치나 윤리적 규범을 익히며, 창조적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는 반드시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삶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강내희, 2003:20).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의 이런 공공재적 성격을 지켜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독점하기보다는 공유하고 향유할 때 문화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정책은 소수의 능력있는 개인들만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최근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에서도 기존의 '문화예술의 후원자로서의 정부'라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의 사회화'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을 시장에만 맡겨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 국민의 소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성 제고 정책이라든가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도 문화에 공적 개념을 더 적극 도입하여, 문화에 대한 대중의 참여, 향유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 강화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문화복지의 실현

문화복지는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확보를 추구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는 주로 생계보장이나 고용촉진과 같은 경제적·물질적 복지 부분에 치우쳐 왔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가 가지는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다. 문화는 단지 잔여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재충전의 기회와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창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혹은 사회적으로 만남의 기회, 나눔의 기회, 협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이고 예방적이며, 완성적인 문화복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문화복지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미에서 생산적 복지이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범죄 등 각종 사회병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복지이다. 또한 문화복지는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복지사회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완성적 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김민정, 1999:63).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술과 사회정책을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재소자나 지역사회재생을 다루는 문화정책 등이 가능하다.

(4) 종합: 문화격차의 요인 및 대안

문화격차의 요인을 크게 둘로 나누면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요인은 스스로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 욕망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애로 인해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말하며 주관적 요인은 문화활동을 할 필요나 유인을 느끼지 못하거나 문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로 낯설음을 느끼는 경우를 뜻한다. 객관적 요인들은 문화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객관적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시민들은 문화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돈이 없어서”를 들고 있다. 문화비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도 기본적인 생계비와 저축 등을 제하고 난 뒤에 오는 지출항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지리적 요인이 제시된다. 경제적 요인이 문화향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가용한 자원의 제한에 초점을 둔다면 지리적 요인은 문화 시설에 대한 보급과 관련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문화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 시설들이 제한되어 있다면 문화향수의 기회는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이 자체가 문화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리적 요인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전제하고 있다.

문화격차를 만들며 접근성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신체적 장애이다. 이것은 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개인적 속성이면서 동시에 신체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를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사회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계층의 양극화와 소외 계층의 존재는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격차를 산출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배적인 문화의 생성은 소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게 한다. 동시에 이들을 위한 적절한 문화콘텐츠가 결여되어 있다면 문화향수에 제한을 가져오게 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

주관적 요인은 문화향수자의 내면적 특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할 수 있는 데 하나는 문화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요인이다.

교육적 과정을 통한 문화체험의 결여로 인한 문화해득력과 문화에 대한 관심부족은 문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될 때 문화격차가 재생산된다. 심리적 요인은 문화향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소외감에서 또는 문화 소비에 대한 거부감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특정 사회적 집단에서 구조화될 때 문화격차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화적 성찰성에

서 제기되는 문화에 있어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개개인의 문화격차를 만드는 심리적 요인을 극복하는 방향이다.

다음의 표는 문화격차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하고 있다. 문화소득비 공제제도나 관람, 입장료 할인제도 등은 문화격차를 초래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문화격차의 지리적 대안들은 문화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 우선지원, 문화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의 직접적인 대처와 지역 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한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기타 교통수단의 제공 등은 신체적 장애로 초래되는 접근성의 제한에 대한 대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화적 자원에 대한 형평적인 배분에는 쿼터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소수 집단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는 대안은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이다.

문화 해득력의 향상은 문화체험 기회 및 문화예술교육 강화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격차를 초래하는 주관적 요인이 개개인 내부의 속성이지만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은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과 체험확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문화향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이다. 참여를 통해 사회적 포용이 이루어지고, 참여의 가운데에서 문화가 생성되어 진다. 참여는 문화에 대한 단순한 소비나 관망을 넘어 문화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향수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참여하는 문화에서 문화격차 해소의 적극적인 대안이 발견된다.

<표 1-1> 문화격차의 요인 및 대안

문화격차의 요인	발생원인	대안의 예
객관적 요인		
경제적 요인	• 빈곤으로 인해 문화비 지출 여유가 없음 • 생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	• 문화비 소득공제제도 • 관람·입장료 할인 제도
지리적 요인	• 물리적 거리 • 집적 효과 •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문화시장 부재	• 취약지역 인프라 우선지원 •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균형발전
신체적 요인	• 신체적 장애	• 장애인 접근성 제고
사회적 요인	• 사회적 소수자 • 적절한 문화콘텐츠 부재	• 쿼터제 등 적극적 조치 • 표현 기회 확대
주관적 요인		
문화적 요인	• 과거의 문화체험 부족 • 문화해득력 부족 • 관심 부족	•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강화
심리적 요인	• 심리적 부담 • 소외감 • 문화적 소비에 대한 거부감	• 참여 프로그램 확대

4. 연구 내용의 구성

1) 분석틀

앞에서 문화격차를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향수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개념적으로 여기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로 생활양식 총체를 가리킬 수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적·정신적·예술적 산물로서의 문화로 범위를 한정한다. 따라서 문화활동은 주로 여가활동, 문화예술 행사 관람, 문화콘텐츠 이용, 취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화산물의 향수로 한정된다.

문화격차의 요인은 지리적,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과 문화해득력, 문화적 성찰성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신체조건과 관련된 물리적 접근성은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애인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문화적 성찰성은 이번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격차의 직접적 요인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문화자본과 경제자본과 긴밀히 연관되어 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대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연령이나 세대가 직접적인 문화격차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급격한 경제변화를 겪은 우리사회의 특성상 세대별로 성장한 시대에 따라서 다른 문화적·경제적 배경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문화향수나 취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인식 또한 문화격차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변수이다. 문화향수수준이나 취향은 경제력과 같은 객관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계층귀속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문화향수수준이나 취향이 주관적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도 개인적인 취향과 문화활동들이 사회계급을 유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회적 기제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성민, 2004:13). 주관적 계층인식에는 부친의 직업과 학력, 본인학력과 소득, 직업[2], 주택소유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격차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경제력, 문화 해득력, 주관적 계층인식, 세대,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력과 문화해득력은 부르디외의 분석틀을 빌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부르디외는 기존 맑스의 자본개념을 확장하여 생산수단뿐 아니라 사회적 경쟁에서 동원되는 다양한 자원들-소득, 학력, 사회관계 등-을 모두 자본개념으로 포괄하였다.

경제자본은 돈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소유권의 형식 속에 제도화되어 있는 자본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소유되는 모든 물질적 자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과 주택의 소유여부를 가지고 경

2) 학력이 직업에, 직업이 소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1999:55-56)는 자신의 논문에서 고급문화취향에 대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학력이 직업에, 직업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제자본을 측정하였다. 소득은 직접적으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크기를 말해주며, 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재산목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화자본은 정보자본의 일종으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각종 정보와 성향의 저장물이다(홍성민, 2004:62-63). 대개 세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먼저 자연스런 말투나 몸짓처럼 지속적인 성향으로서 '체화된 상태'이다. 다음으로 책, 미술품 등의 다양한 문화재화로서 '대상화된 상태'이며, 끝으로 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승인된 형식인 학위 속에 '제도화된 상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화자본은 가정 내 사회화 과정 속에서 습득되거나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부르디외는 이에 대해서 상속자본과 획득자본이라고 표현했다.

<표 1-2>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경험적 지표

<table>
<tr><th>학자</th><th>종류</th><th>경험적 지표</th></tr>
<tr><td rowspan="2">Bourdieu
(1984)</td><td>Inherited Capital</td><td>부모의 직업</td></tr>
<tr><td>Acquired Capital</td><td>본인이 정규교육을 받은 년수</td></tr>
<tr><td rowspan="5">Achaffenburg
&Maas
(1997)</td><td>음악(기악과 성악)</td><td rowspan="5">12세 이전, 13-17세, 18세 이후의
다섯가지 장르에 대해
참여했는가의 여부</td></tr>
<tr><td>시각예술(조각, 회화, 사진,
영화제작 등)</td></tr>
<tr><td>연극이나 발레</td></tr>
<tr><td>미술감상이나 미술사에 대한 학습</td></tr>
<tr><td>음악감상이나 음악사에 대한 학습</td></tr>
<tr><td>Holt(1998)</td><td colspan="2">부의 교육정도, 부의 직업, 본인의 교육정도, 본인의 직업</td></tr>
<tr><td rowspan="2">De Graaf, De
Graaf&
Kraaykamp
(2000)</td><td>Parental beaux arts participation</td><td>응답자가 15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1)박물관 2)역사박물관
3)오페라나 발레 공연 4)클래식
음악 공연 5)연극공연에 1년에
몇회나 참여했는가</td></tr>
<tr><td>Parental reading behavior</td><td>부모의 독서형태</td></tr>
</table>

자료 : 장미혜, 2001:50

이러한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첫 번째 흐름은 부모의 출신계급이나 직업이 어린시절의 사회화과정을 결정짓는다는 가정하에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계급과 같은 부모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린시절의 사회화과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경험적 지표를 개발해서 그것을 본인의 문화자본의

경험적 지표로 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전자가 가정에서 습득한 문화자본이라면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문화자본은 학력[3]을 통해서 측정한다(장미혜, 2001:49-52).

이번 조사에서는 포괄적으로 부모의 학력, 직업, 본인의 학력, 아동기의 가정내 예술관련 사회과 과정, 예술교육 경험 여부로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다.

세대[4]는 한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특정한 시대의 문화적 풍토가 일생을 거쳐 개개인의 생활 및 사회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연구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류방식을 따라 2035, 386, 기성세대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2035세대는 70년대 이후에 출생해 90년대와 200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로 고도경제 성장 속에서 높은 소비성향과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기존의 연구들은 특성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적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 연령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20-35세의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386세대는 통상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로 민주화 투쟁 경험으로 높은 사회의식을 갖고 있다고 특성화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 이 세대가 가로지르는 연령대가 동일한 시대의 문화적 풍토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연령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36-45세의 집단

---

3) 학력은 정기교육을 받은 년수나 각 단계별로 학교를 졸업했는가의 여부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인적자원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격증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김병조,2000:17) 교육년수보다는 졸업여부가 소비양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장미혜, 2001: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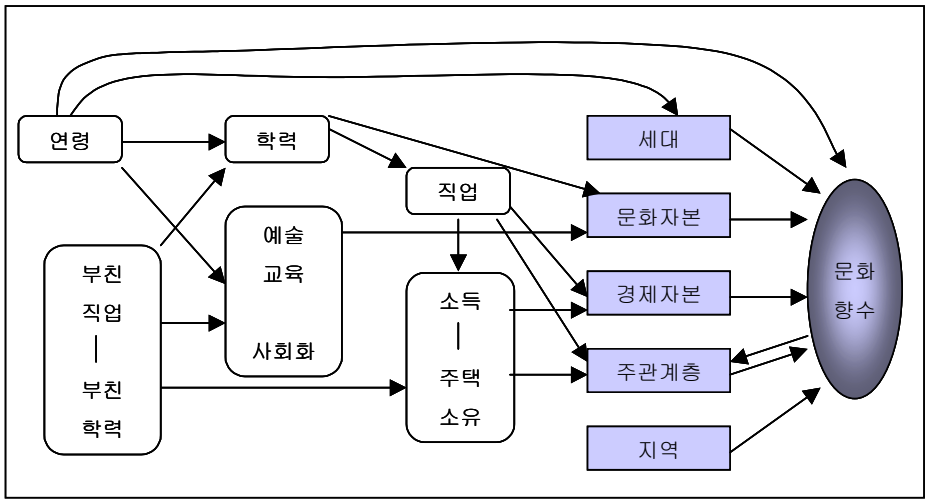
4) 현대 사회과학에서 세대는 1)조부모-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에서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2)비슷한 시기에 내어나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cohort), 3)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에 있는 사람들, 4)1914년 세대, 전쟁 전·후 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이라는 용법으로 쓰인다(Kertzer, 1983; 박재흥, 2003:3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코호트’로서의 세대와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세대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 공유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밀접히 관련되며, 연령효과를 강조하는 ‘생애주기’로서의 세대의 경우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비슷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박재흥, 2003:3-4).
이번 연구에서 세대는 코호트적 관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동일한 역사적·문화적 경험에 기인한 태도와 행태의 유사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 여기에 속한다.

기성세대는 해방 후 전통과 근대적 가치관의 혼란 및 산업화·도시화의 격변 상황을 청·장년기에 맞은 세대로 46세 이상의 집단을 말한다.

지역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도시계획상 대생활권으로 간주되는 5개 권역으로 정했다[5].

분석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분석틀

2) 연구의 구성

조사 분석을 기초로 한 본 연구의 구성은 여러 장으로 구분하여, 서울시민의 문화격차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고 문화정책방향으로 제기되는 시민들의 문화 수요와 욕구 그리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 Ⅱ장에서는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활동, 미디어 문화 향수 및 취향,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 예술교육경험, 문화

5) 도심권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동북권에는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서북권에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동남권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서남권에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가 속한다.

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제 III 장에서 제 VI 장까지는 문화격차의 양상을 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적 속성에 의해 문화향수의 실태를 봄으로써, 집단들 간에 나타나는 문화격차를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향수에 있어 두 자본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제 III 장)

두 번째는 문화격차의 계층적 특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 구별되는 사회 계층에서 나타나는 문화향수의 차이 및 격차를 제시하고자 한다.(제 IV 장)

셋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세대간의 문화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V 장)

넷째는 서울의 권역별 지역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문화향수 실태 및 격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VI 장)

제 VII장은 시민의 문화수요와 욕구에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방향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시민 일반의 수요에 초점을 두고, 문화수요에 격차가 나는 제 요소들을 추가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제 VIII장은 문화격차 해소의 정책과제에 제기되는 다양한 차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사항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이 조사에 함의하는 모든 내용을 보고하기 보다는 본 연구의 주제인 문화격차와 관련된 분야로 하여 제한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격차를 분석하여 문화격차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기제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는 또한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시민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설계

<표 1-3> 자치구별 표본 할당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종로구	3	3	3	3	3	3	3	4	25
중구	2	2	2	2	2	2	3	3	18
용산구	3	4	4	4	3	3	4	5	30
성동구	5	5	6	6	5	4	6	7	44
광진구	6	7	7	6	5	5	6	6	48
동대문구	7	6	6	6	5	5	7	8	50
중랑구	7	7	7	7	6	6	7	8	55
성북구	7	7	8	7	6	6	8	10	59
강북구	6	6	6	6	5	5	7	8	49
도봉구	5	5	6	6	6	6	6	7	47
노원구	8	8	10	10	10	10	9	11	76
은평구	7	7	8	8	6	7	8	10	61
서대문구	5	6	6	6	5	5	6	8	47
마포구	6	7	7	6	5	5	6	8	50
양천구	7	7	7	7	8	8	7	8	59
강서구	8	9	9	8	8	8	8	10	68
구로구	7	6	7	6	6	6	7	8	53
금천구	4	4	5	4	4	4	4	5	34
영등포구	6	6	7	6	6	6	7	8	52
동작구	7	7	7	6	5	5	7	8	52
관악구	10	10	10	8	6	6	9	10	69
서초구	6	7	6	6	5	6	7	7	50
강남구	9	9	7	8	7	9	8	10	67
송파구	10	10	10	10	9	10	10	10	79
강동구	7	7	7	7	7	8	7	8	58
계	158	162	168	159	143	148	167	195	1300

2004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와 데이터 정리는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위탁하여 이 기관에 의해 수행하였다.

표집은 25개 자치구별로 층화한 후 성별/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하고, 1300개 가구단위 표집 후 가구내 1인을 조사하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 2.7%이다. 구별 표본 할당은 위와 같다.

<표 1-4> 설문지의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①여가생활	· 여가활동 빈도 · 주로하는 여가활동 · 여가시설 이용 빈도 · 휴가기간 및 문화시설 방문 · 여가생활 관심도/만족도
②문화예술향수 실태 및 태도	· 문화예술행사 관람빈도 · 만족한 예술행사의 관람 방식 등 · 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 지불 최대 금액 · 연주 가능 악기 및 보유 악기 · 참여 동호회 · 문화시설 이용 빈도 · 지역문화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및 의식
③취향	· TV 시청시간 및 습관 ·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 좋아하는 영화 장르 · 영화 고르는 기준 · 독서 서적수 및 주로 읽은 책의 분야 · 즐겨보는 잡지 · 선호하는 음악장르
④문화예술 교육 및 경험	·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 · 강습 분야 및 장소 · 향후 배우고 싶은 분야 · 성인 이전 부모를 통한 가정내 문화예술 관련 경험

설문은 본 문항 51개(하위문항 포함 153개)와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배경 문항 11개로 구성하였다. 본 문항은 크게 ①여가생활, ②문화예술향수 실태 및 태도, ③취향, ④문화예술 교육 및 경험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 향수는 여가와 문화예술의 향수를 포괄하고 있다. 설문의 구성은 이러한 의미를 전제하고 문화향수에 두 분야를 구분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표본의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300	100.0
성별	남자	636	48.9
	여자	664	51.1
연령별	20대	320	24.6
	30대	327	25.2
	40대	291	22.4
	50대이상	362	27.8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1	7.8
	고졸	651	50.1
	대재	114	8.7
	2년제대졸	153	11.8
	4년제대졸이상	279	21.4
	모름/무응답	2	0.2
응답자직업별	전문직	63	4.9
	관리직	40	3.1
	사무직	362	27.8
	자영업	375	28.8
	판매서비스직	170	13.1
	생산직	51	3.9
	학생	99	7.6
	주부	123	9.5
	무직/기타	13	1.0
	모름/무응답	4	0.3

월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7
	101-150만원	93	7.2
	151-200만원	124	9.5
	201-300만원	359	27.6
	301-400만원	433	33.3
	401-500만원	155	11.9
	501만원이상	86	6.6
	모름/무응답	15	1.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6.8
	중하층	487	37.5
	중중층	604	46.5
	중상층	120	9.2
	모름/무응답	1	0.1
거주지역별	도심권	73	5.6
	동북권	428	32.9
	서북권	158	12.2
	서남권	387	29.8
	동남권	254	19.5
18세 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51.6
	광역시	187	14.4
	중소도시	204	15.7
	농어촌지역	238	18.3
주택유형별	아파트	468	36.0
	단독주택	502	38.6
	다세대주택	322	24.7
	기타	8	0.6
점유형태별	자가	942	72.5
	전세	314	24.1
	전월세	15	1.2
	월세	26	2.0
	기타	3	0.2

제 II 장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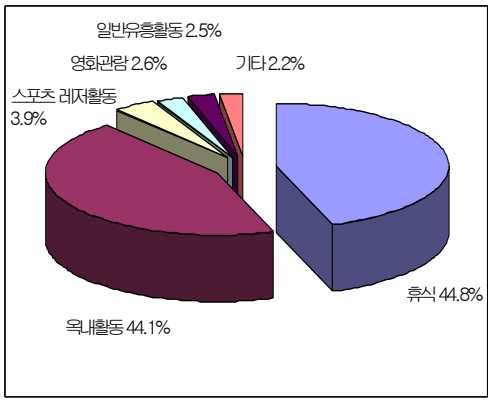
1. 여가생활
2. 미디어 문화향수 및 취향
3.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
4. 여가 및 문화시설 이용
5.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동호회 활동
6.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및 의견

제 II 장　서울시민의 문화 향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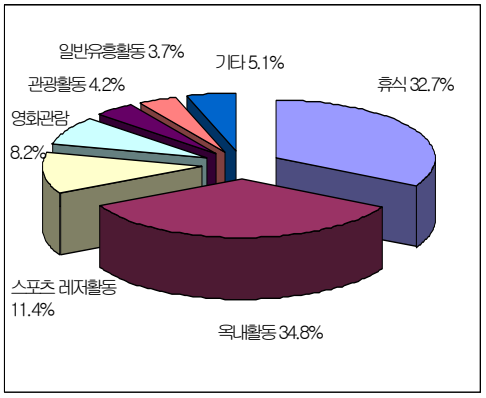
1. 여가생활

1) 주로 하는 여가활동

현재 서울시민이 주로 하고 있는 여가활동(1순위)은 주말과 주중 모두 휴식과 옥내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중에는 휴식과 옥내활동의 비율이 88.9%로 매우 높았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레저활동과 영화관람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말에는 이외에 관광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주중 주로하는 여가활동



<그림 2-2>주말 주로하는 여가활동

(1) 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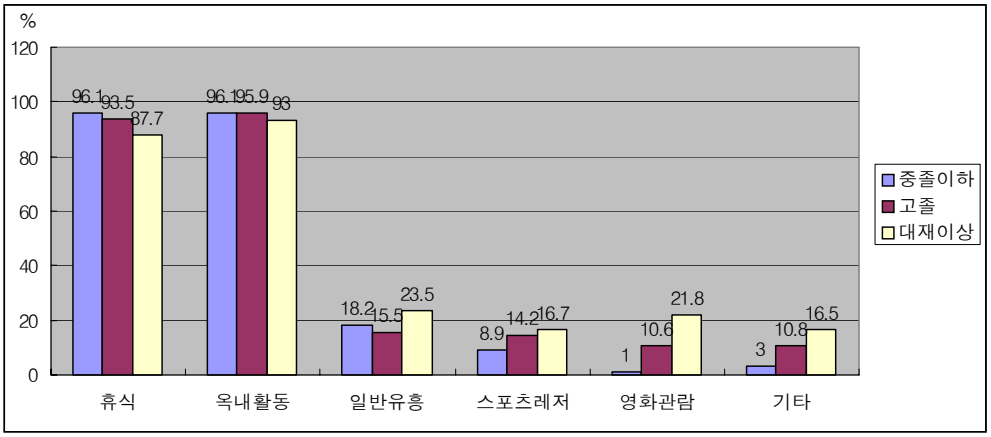
현재 주로하고 있는 여가활동 1, 2, 3순위를 모두 합친 경우에도 옥내활동과 휴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먼저, 주중에는 옥내활동과 휴식이 각각 94.7%와 91.2%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일반유흥활동(19.0), 스포츠 레저활동(14.8), 영화관람(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는데,

- 연령이 높으면 휴식이나 옥내활동을 많이 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다른 적극적인 활

동들을 더 많이 하며,

- 특히 20대의 경우 영화관람(30.8), 자기계발 교육프로그램 참여(9.3), 공연관람(7.8) 등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다.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와 고졸보다는 대학재학생(이하 대재)[6], 2년제 대졸자와 4년제 대졸이상이 더 적극적 유형의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 직업별로는 전문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화관람(33.3)과 공연관람(9.5)의 비율이 높고 관리직은 일반유흥활동(45.0)의 비율이 높은 반면 주부는 휴식(94.3)과 옥내활동(98.4)의 비율이 높았다.
-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는 스포츠 레저활동(23.1)과 영화관람(18.8), 공연관람(10.3)의 비율이 높았다(<부록표 1>참고).



<그림 2-3> 교육수준별 주중 여가활동

(2)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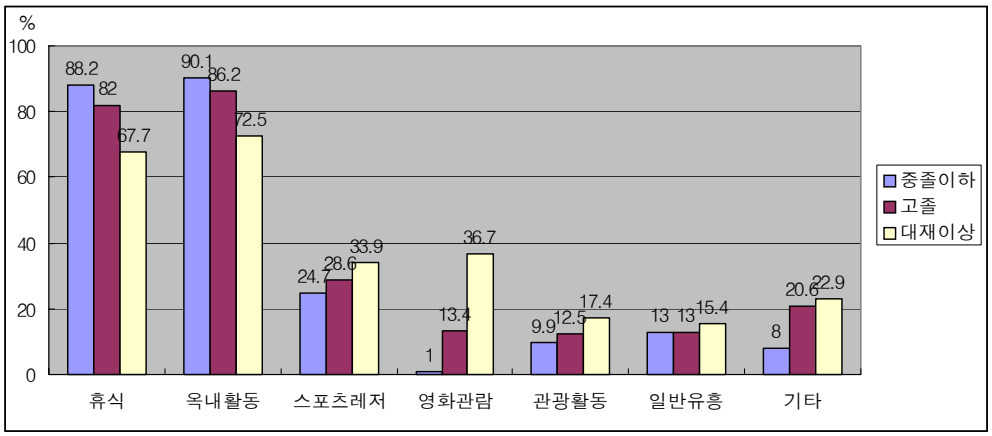
주말 여가활동(1+2+3순위)의 경우도 옥내활동(80.7)과 휴식(76.5)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스포츠 레저활동(30.5)과 영화관람(22.3), 관광활동(14.3)이 그 뒤를 이어 주중보다는 좀더 적극적 형태의 여가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중과 마찬가지로 연령, 학력, 소득 등에 따라서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서 차이가 나

6) 대재의 경우는 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합쳐져서 거의 모든 여가활동과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있어서 가장 높은 향수수준을 보여준다.

타나는데, 주중활동에서보다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 연령이 높을수록 휴식과 옥내활동을 더 많이 하며, 스포츠레저활동과 관광활동은 비교적 많이 하되 다른 활동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졸이하는 옥내활동과 휴식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2년제 대졸자와 4년제 대졸이상은 영화관람과 관광활동 등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 전문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화관람(31.7), 놀이시설방문(17.4), 공연관람(11.0)을 더 많이 하고 관리직의 경우는 스포츠레저(42.5)와 관광활동(30.0)을 더 많이 한다.
- 반면, 자영업(79.4)과 주부(77.4)의 경우는 휴식과 옥내활동의 비율이 높다.
- 또한 소득이 400만원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중층 이상, 동남권 거주자들이 휴식과 옥내활동보다는 영화관람, 스포츠레저활동, 관광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표 2>참고).



<그림 2-4> 교육수준별 주말 여가활동

2)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중에서 컴퓨터 게임, 등산, 조깅/마라톤/산책이 50%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래방이 62.5%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복권 구입/경마가 33.4%, 종교/봉사활동은 30%의 참여율을 나타내었고,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 타기, 홈페이지 관리/인터넷 클럽 활동, 고스톱/카드가 30%미만의 참여율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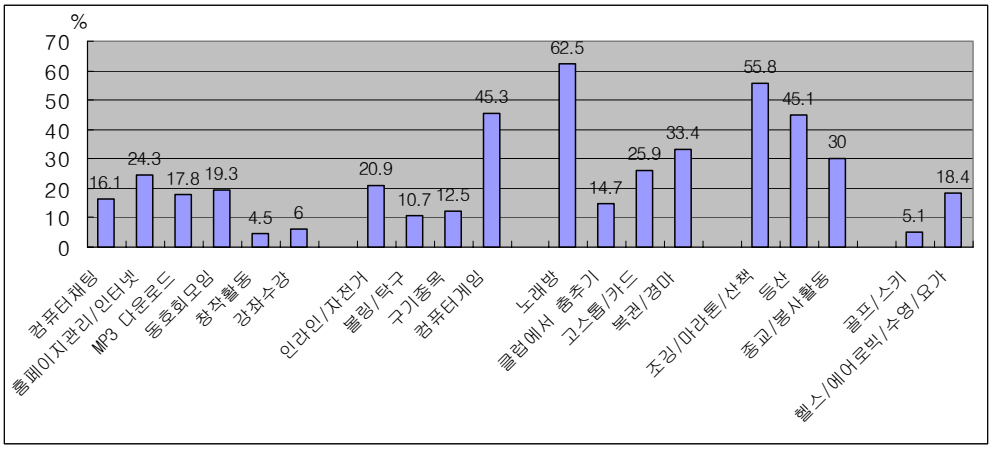
였다. 그 다음으로는 클럽에서 춤추기, 볼링/탁구, 구기종목, 헬스/수영/요가/에어로빅, 컴퓨터 채팅, MP3 다운로드, 동호회 모임 참가가 20%미만이 참여율을 나타내었고, 골프/스키와 창작활동, 강좌수강은 10% 미만의 참여율을 보여 가장 저조했다.

대부분의 활동이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조깅/마라톤/산책과 등산, 노래방, 복권 구입/경마, 창작활동 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권 구입/경마는 교육수준별, 직업별,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거의 없지만,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는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활동이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깅/마라톤/산책과 등산은 연령이 높을수록 빈도가 높아지며, 골프/스키와 종교/봉사활동은 연령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여가활동 빈도

(단위:%)

구 분		없다	월1-2회	주1회	거의 매일
참여형	컴퓨터 채팅	83.9	8.1	4.4	3.5
	홈페이지 관리/인터넷 클럽 활동	75.7	9.2	7.8	7.2
	MP3 다운로드	82.2	8.2	6.8	2.8
	동호회 모임 참가	80.7	14.5	3.7	1.1
	창작활동(그림,사진,서예,글쓰기 등)	95.5	2.7	1.1	0.7
	강좌수강(영어회화, 컴퓨터 등)	94.0	2.4	2.6	1.0
레저A형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타기	79.1	11.7	6.4	2.8
	볼링/탁구	89.3	8.0	2.3	0.3
	구기종목(축구/농구 등)	87.5	7.9	4.0	0.5
	컴퓨터 게임	54.7	15.4	15.9	13.8
오락형	노래방	37.5	54.9	6.2	1.4
	클럽에서 춤추기(나이트클럽 등)	85.3	13.1	1.2	0.3
	고스톱/카드	74.1	18.5	5.6	1.7
	복권 구입/경마	66.6	21.9	11.2	0.3
운동・사회형	조깅/마라톤/산책	44.2	27.8	18.4	9.6
	등산	54.9	31.8	11.8	1.5
	종교, 봉사활동	70.0	10.0	18.1	1.7
레저B형	골프/스키	94.9	2.9	1.5	0.7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	81.6	6.0	4.2	8.1



<그림 2-5> 여가활동 종류별 참여율

이러한 여가활동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표 2-2> 여가활동의 요인분석에 의한 분류

	요소				
	1	2	3	4	5
컴퓨터 채팅	.523	.335	.246	-.023	-.260
홈페이지 관리/인터넷 클럽 활동	.668	.413	.054	-.080	-.049
MP3 다운로드	.626	.401	.148	-.131	-.073
동호회 모임 참가	.408	.292	.079	.261	.147
창작활동(그림,사진,서예,글쓰기 등)	.577	-.069	.032	.076	.191
강좌수강(영어회화, 컴퓨터 등)	.620	-.018	.007	.090	.066.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타기	.141	.538	.068	.178	.141
볼링/탁구	.017	.721	-.011	.048	.067
구기종목(축구/농구 등)	.080	.665	.085	-.009	.047
컴퓨터 게임	.390	.437	.300	-.287	-.099
노래방	.307	.067	.567	.007	.042
클럽에서 춤추기(나이트클럽 등)	.312	.013	.562	.030	.084
고스톱/카드	.012	.065	.712	.070	-.010
복권 구입/경마	-.161	.080	.626	-.034	-.064
조깅/마라톤/산책	.044	.208	.044	.715	.099
등산	-.058	-.060	.098	.805	-.068
종교, 봉사활동	.205	-.012	-.160	.304	.177
골프/스키	-.071	.143	.142	.088	.692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	.181	.059	.012	.018	.720

주) 추출방법: 주요인분석, 회전방법: 카이저 정규화에 의한 배리맥스
5회 반복 후 회전 수렴

요인분석결과, 여가활동은 1)컴퓨터 채팅, 홈페이지 관리/인터넷 클럽활동, MP3 다운로드, 동호회 모임 참가, 창작활동, 강좌수강 2)인라인 스케이트/자전거 타기, 볼링/탁구, 구기종목, 컴퓨터 게임 3)노래방, 클럽에서 춤추기, 고스톱/카드, 복권 구입/경마 4)조깅/마라톤/산책, 등산, 종교/봉사활동 5)골프/스키,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의 다섯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집단을 참여형, 레져A형, 오락형, 운동·사회형, 레져B형라고 명명하고 참여율(각 집단에 속하는 활동 중 하나라도 한달에 한번이상 참여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2-3> 여가활동 참여율

(단위:%)

		참여형	레져A형	오락형	운동·사회형	레져B형
전 체		42.4	54.5	75.6	76.9	20.9
연령별	20대	79.6	85.3	88.4	71.6	29.1
	30대	45.9	71.7	77.7	73.4	22.7
	40대	30.2	45.7	76.3	82.1	21.0
	50대이상	16.3	19.1	61.9	80.7	12.2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9.9	16.8	59.8	82.2	5.9
	고졸	29.2	44.7	75.7	75.1	18.3
	대재	93.0	93.9	86.8	80.5	25.4
	2년제대졸	60.1	69.9	77.8	71.2	28.1
	4년제대졸이상	55.0	66.9	75.5	80.9	26.9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4.3	41.2	60.0	68.6	31.4
	101-150만원	35.5	47.3	73.1	79.6	18.3
	151-200만원	35.5	47.6	77.4	71.8	18.3
	201-300만원	34.9	51.8	76.0	74.7	16.5
	301-400만원	47.6	58.7	78.1	77.5	21.7
	401-500만원	52.3	60.0	73.4	83.1	23.9
	501만원이상	52.3	59.3	70.9	81.2	31.4

- 먼저, 참여형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가 많이 참여하며, 대재이상이 고졸이하보다, 소득 300만원 이상이 그 이하보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한다.
- 레져A형도 참여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30대와 고졸이하의 참여율이 참여형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차이가 있다.
- 오락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참여한다는 것 외에는 교육수준별, 월소득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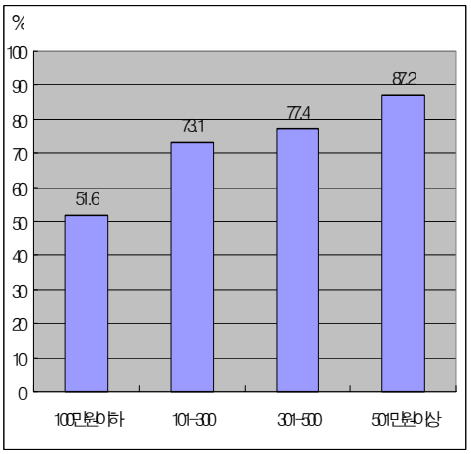
주관적 계층인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중졸이하와 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다른 집단보다 참여율이 약간 낮다.

- 운동·사회형의 경우는 40대이상이 40대이하보다 참여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나 월소득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소득 401만원이상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인 경우 참여율이 약간 더 높다.
- 레져B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100만원 이하와 소득 501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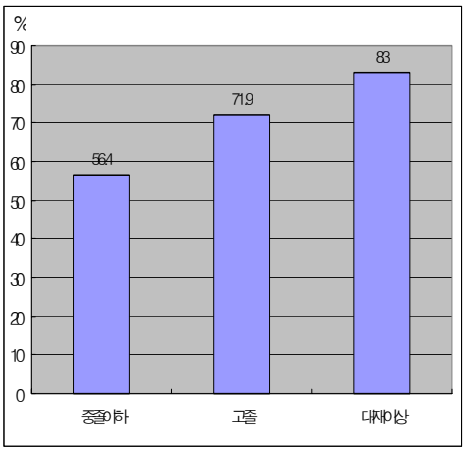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참여형과 레져A형, 레져B형에서 집단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50대이상, 중졸이하, 월소득 100만원이하,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인 경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3) 휴가

2003년 휴가여행 일수로는 '2박3일'(28.2%)과 '3박4일'(21.5%)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24.7%로 응답자의 1/4정도를 차지한다.



<그림 2-6>소득수준별 휴가 참여율



<그림 2-7>교육수준별 휴가 참여율

- 특히, 50대이상(34.9), 중졸이하(43.6), 소득 100만원이하(48.4),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52.3)인 경우 휴가를 가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 반면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가고, 휴가일수도 대체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14.2)과 사무직(16.7)은 휴가를 가지 않은 비중이 낮은 반면, 생산직(47.0)과 주부(33.5)는 휴가를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표 3>참고).

<표 2-4> 휴가중 레져/관광 경험 여부

(단위:%)

		휴가중 문화유적/시설방문	지방축제 참여	해외여행
전 체		33.6	16.7	9.2
연령별	20대	27.8	15.3	7.5
	30대	35.5	19.3	8.0
	40대	38.8	17.9	8.6
	50대이상	33.1	14.6	12.4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35.2	9.9	7.9
	고졸	30.8	16.0	5.8
	대재	25.3	12.2	6.2
	2년제대졸	33.1	21.5	11.1
	4년제대졸이상	42.1	19.8	18.0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16.7	16.9	8.6
	101-150만원	34.3	16.0	10.9
	151-200만원	33.7	9.7	6.4
	201-300만원	31.9	13.7	6.1
	301-400만원	35.5	18.9	8.0
	401-500만원	30.8	18.1	12.9
	501만원이상	39.9	28.0	22.1

지난 2003년 휴가를 1박2일 이상 다녀온 979명 중 33.6%가 문화유적/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년제 대졸 이상(42.1)이, 전문직(44.4)과 관리직(42.3), 사무직(41.1)이, 월소득이 501만원 이상(39.9)이, 동남권 거주자(40.9)가 더 많이 방문하였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문화유적/시설에 대해서는 절/서원(42.8%), 고궁/성/능/정원(22.8%), 박물관/미술관/기념관(2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방축제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6.7%이고, 2년제(21.5)와 4년제 대졸 이상(19.8)이, 전문직(30.3)과 관리직(22.5)이, 소득이 501만원이상(28.0)이, 주관적 계층인

식이 중상층이상(22.6)이, 동남권 거주자(21.0)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9.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이상(12.4)과 4년제 대졸이상(18.0), 관리직(17.5), 월소득 501만원이상(22.1),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25.8)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소득과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격차가 다른 여가활동보다 큼을 알 수 있다.

4)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가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건강(54.9%), 자녀교육(50.9%) 부분이 매우 높게 응답된 반면, 레져/스포츠/여행(23.2%), 문화활동(8.0%)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결국 건강이나 교육문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문화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단위:%)

구 분		건강	자녀 교육	외식	레져/ 스포츠 /여행	외모 가꾸기	본인 교육	문화 예술 활동	기타/ 없음
전 체		54.9	50.9	30.1	23.2	19.0	10.3	8.0	0.4
성별	남자	53.5	46.9	33.1	32.0	11.5	11.0	7.7	0.3
	여자	56.2	54.7	27.2	14.8	26.3	9.6	8.3	0.5
연령별	20대	31.5	9.6	38.0	31.5	42.0	24.3	19.7	0.9
	30대	51.5	65.8	30.0	23.5	11.3	8.9	6.1	0.3
	40대	58.1	83.5	25.8	14.8	8.6	4.1	3.4	0.0
	50대이상	76.0	47.7	26.7	22.3	14.2	4.1	3.0	0.3

종합하면,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향수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하는 여가활동이 주중과 주말 모두 휴식과 옥내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특히 주중에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에서도 건강과 자녀교육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해 아직 여가활동은 필수적인 분야로 여겨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여가생활 향수수준은 대체로 연령간, 교육수준간, 소득수준간, 직업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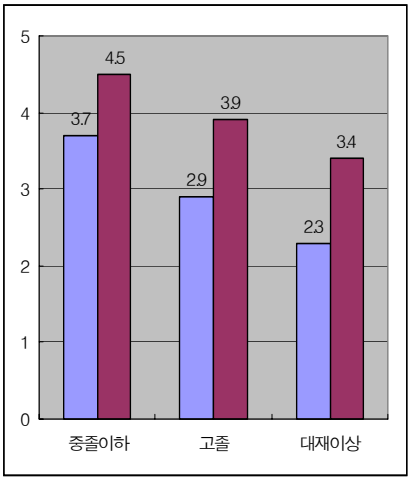
주관적 계층간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며,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휴가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디어 문화 향수 및 취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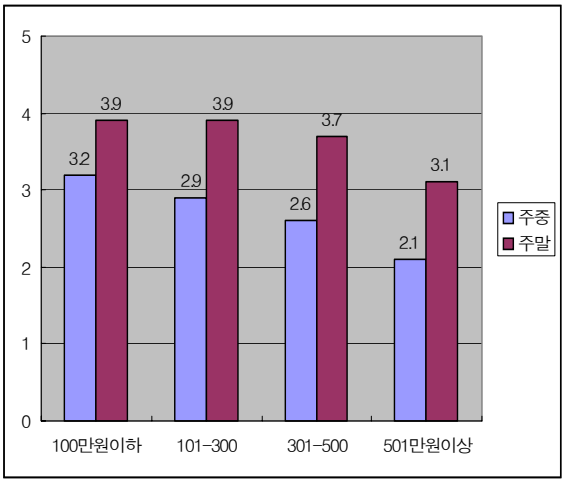
1) TV 시청

응답자의 86.8%가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 또는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중파 외 방송시청이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시간은 주중에는 1일 평균 2.7시간, 주말에는 3.7시간으로 주말에는 주중보다 1시간 가량 TV를 더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고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TV 시청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교육수준별 TV시청시간



<그림 2-9>소득수준별 TV시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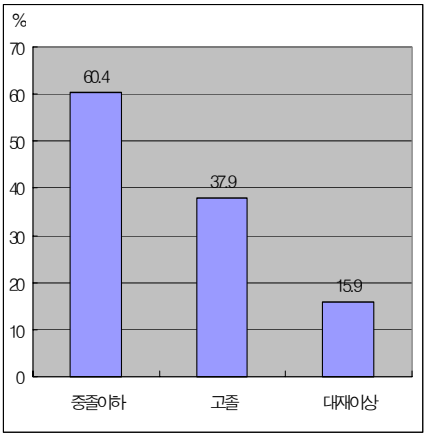
드라마 시청일수는 매일 본다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일주일에 3-4일로 25.8%, 1-2일 24.6%, 거의 보지 않는다는 19.2%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고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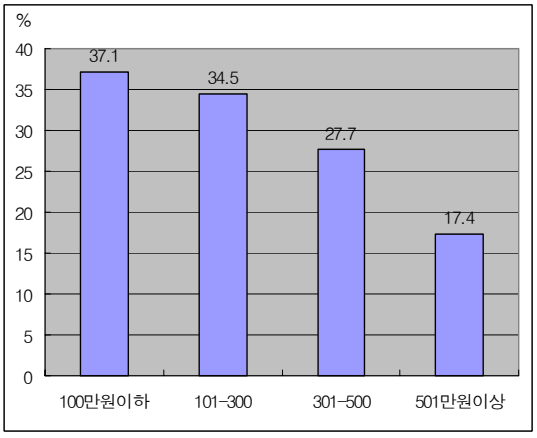
- 특히, 중졸이하는 1일 평균 TV 시청시간(주중 3.7, 주말 4.5)도 길고, 드라마도 매일본다(60.4)는 비율이 높았다.
- 성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본다'는 응답이 3배 가까이 많았다.

<표 2-6> 드라마 시청일수

	사례수	거의 보지 않음	1-2일	3-4일	매일 봄
전 체	1300	19.2	24.6	25.8	30.4



<그림 2-10>교육수준별 드라마 매일 시청률



<그림 2-11>소득수준별 드라마 매일 시청률

TV 시청습관에 대해서는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가 32.9%, '집에 가면 늘 TV를 켜 놓는다'가 17.8%이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절반정도는 습관적으로 TV를 본다고 말할 수 있다.

- 대체로 연령이 낮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 보는 경우가 많았다.
-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소득 100만원 이하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보는 경우가 68.8%로 가장 많았고, 소득 501만원 이상이 61.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표 2-7> TV 시청 습관

(단위: %)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	집에가면 늘 TV를 켜 놓는다	TV를 안본다	모름/ 무응답
전 체		48.8	32.9	17.8	0.1	0.5
연령별	20대	55.1	31.6	12.7	0.3	0.3
	30대	51.8	30.0	17.6	-	0.6
	40대	46.0	35.1	18.2	-	0.7
	50대이상	42.7	34.8	22.2	-	0.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33.5	43.5	23.0	-	-
	고졸	46.3	33.1	20.3	-	0.3
	대재	59.5	28.2	10.6	0.9	0.9
	2년제대졸	56.7	33.2	10.2	-	-
	4년제대졸이상	51.1	30.3	17.5	-	1.1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68.8	11.5	19.7	-	-
	101-150만원	35.5	39.9	24.6	-	-
	151-200만원	51.6	28.1	20.3	-	-
	201-300만원	46.6	36.2	16.4	-	0.8
	301-400만원	46.4	35.1	18.0	0.2	0.2
	401-500만원	53.6	31.7	14.0	-	0.6
	501만원이상	61.7	18.6	18.6	-	1.2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으로는 뉴스/시사프로그램(40.7), 드라마(29.1), 쇼/오락프로그램(15.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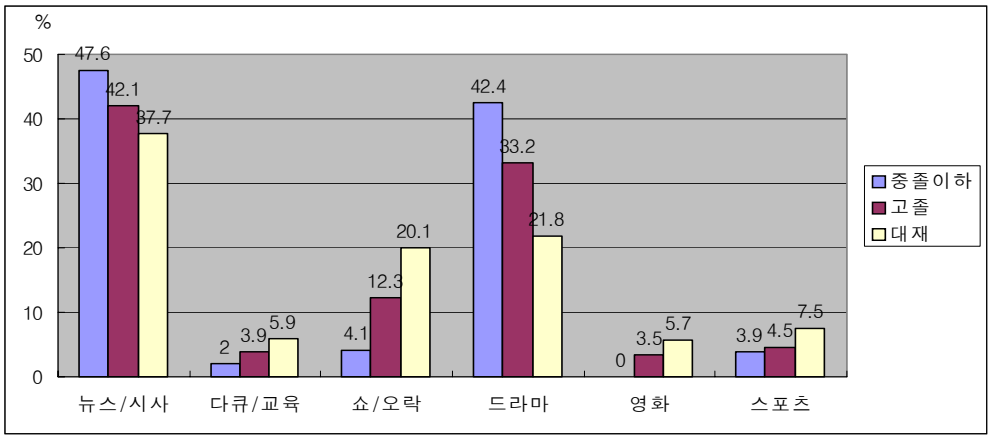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선호차이가 크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뉴스/시사프로그램(56.5), 쇼/오락프로그램(15.0), 스포츠(10.8) 순인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드라마(46.9), 뉴스/시사프로그램(25.6), 쇼/오락프로그램(15.0)순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이 높을수록 뉴스/시사프로그램, 드라마를 선호하는 반면 쇼/오락프로그램은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드라마를 선호하나 중졸이하가 뉴스/시사프로그램(47.8)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로는 관리직(62.5), 자영업(58.1), 생산직(52.9)이 뉴스/시사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며, 전문직과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다큐멘터리/교육프로그램과 쇼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드라마는 판매서비스직(32.3)과 주부(68.3)가 더 선호한다.

- 월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이상 계층보다 드라마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뉴스/시사프로그램은 선호하고 다큐멘터리/교육프로그램은 덜 선호한다(<부록표 9>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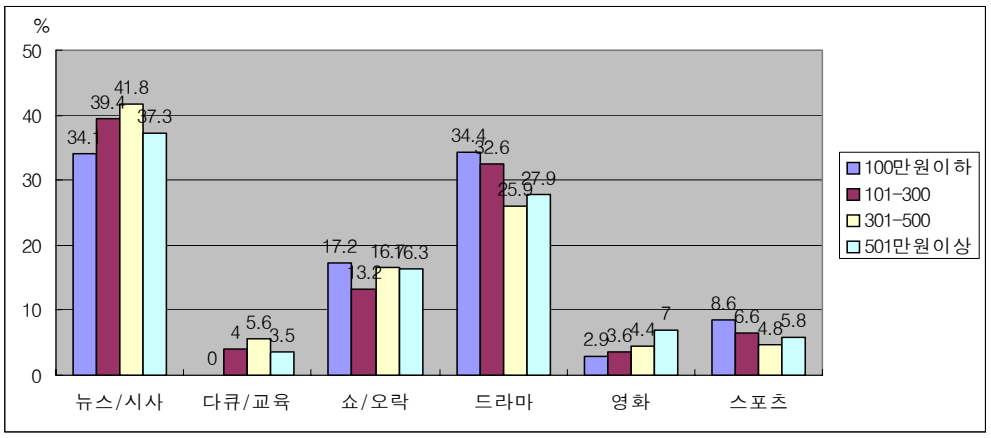
<표 2-8>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단위:%)

	뉴스/시사	다큐멘터리/교육	쇼/ 오락	드라마	영화	홈쇼핑	스포츠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40.7	4.5	15.0	29.1	4.1	0.2	5.7	0.3	0.3



<그림 2-12>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그림 2-13> 소득수준별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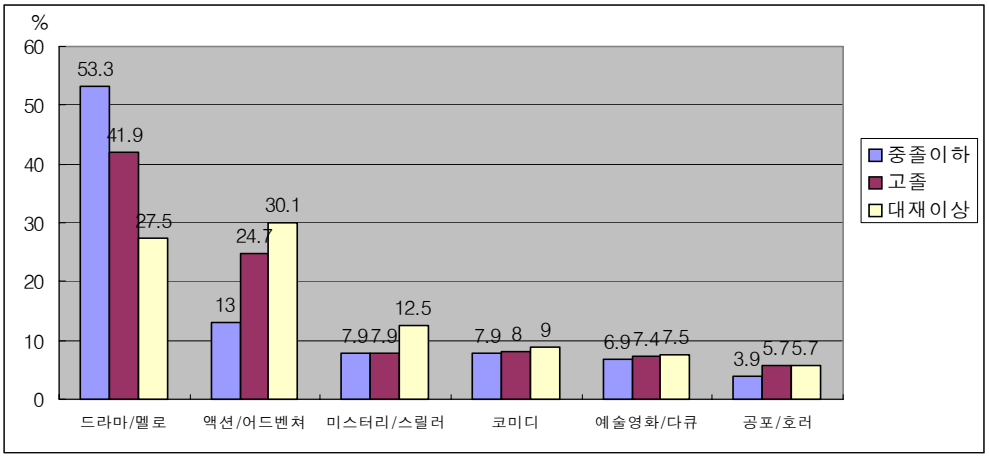
2) 영화 관람

선호하는 영화장르로는 '드라마/멜로'(36.7%), '액션/어드벤쳐'(26.2%), '미스테리/스릴러'(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선호하는 영화 장르

(단위:%)

	드라마/멜로물	액션/어드벤쳐	미스테리/스릴러	코미디	예술영화/다큐멘터리	공포/호러	기타	없음
전 체	36.7	26.2	9.8	8.4	7.4	5.5	5.9	0.2



<그림 2-14>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영화장르

- 남성의 경우는 '액션/어드벤쳐'(41.5%), 여성은 '드라마/멜로'(59.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20대는 '미스테리/스릴러'(14.7%), 30대는 '액션/어드벤쳐'(33.7%), 40대는 '예술영화/다큐멘터리'(12.0%), 50대 이상은 '드라마/멜로'(48.4%)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로 볼 때, 전문직은 '예술영화/다큐멘터리'(14.4%), 관리직은 '코미디'(25.0%), 사무직은 '미스테리/스릴러'(13.5%), 생산직은 '액션/어드벤쳐'(31.4%), 학생은 '액션/어드벤쳐'(33.4%)와 '미스테리/스릴러'(13.1%), 주부는 '드라마/멜로'(72.2%)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스테리/스릴러와 예술영화/다큐멘터리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반면 드라마/멜로에 대한 선호는 낮아졌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인에 의해서 선호하는 영화장르에 대해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부록표 10>참고).

영화 관람방식에 대해서는 TV를 통해서 본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비디오/DVD로 25.0%, 영화관 24.9%, 인터넷/컴퓨터는 2.8%로 나타났다.

-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TV보다는 영화관을 통해서 영화를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해서 50대이상(78.4)과 중졸이하(86.2),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67.1)의 경우는 TV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직업별로 볼 때, 주부(64.3%), 생산직(62.7%), 자영업(61.9%)에서는 TV를, 전문직은 비디오/DVD(38.1%)를, 학생(61.5%), 판매서비스직(34.2%)에서는 영화관을 상대적으로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0> 영화 관람 방식

(단위:명, %)

		사례수	영화관	비디오/ DVD	인터넷/컴퓨터	TV
전 체		1300	24.9	25.0	2.8	47.3
연령별	20대	320	55.8	24.6	4.4	15.2
	30대	327	21.4	36.1	5.8	36.6
	40대	291	15.1	27.8	1.0	56.0
	50대이상	362	8.5	13.0	-	78.4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5.9	7.9	-	86.2
	고졸	651	16.6	23.3	2.2	57.9
	대재	114	63.9	17.6	6.2	12.3
	2년제대졸	153	36.4	34.5	5.2	23.9
	4년제대졸이상	279	28.7	33.1	2.5	35.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2.9	20.1	-	57.0
	101-150만원	93	18.2	19.4	1.1	61.4
	151-200만원	124	17.8	18.6	1.6	62.0
	201-300만원	359	18.9	24.5	2.8	53.8
	301-400만원	433	26.0	28.4	3.2	42.4
	401-500만원	155	33.5	29.7	5.2	31.5
	501만원이상	86	48.8	20.9	1.2	29.2

영화관에 가기 전에 영화를 고르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TV/신문의 영화소개 프로그램(40.3), 주변사람들의 의견(32.8), 주연배우(15.9), 평론가들의 의견(7.1) 순으로 대답하였다.

- 2년제대졸자(20.2)와 서비스판매직(21.7)이 주연배우를 상대적으로 더 고려하며,
- 20대(10.8)와 대재(16.5), 월소득 501만원이상(10.5)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10.0)일 경우는 평론가들의 의견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4년제 대졸이상(45.0)과 전문직(52.4), 월소득 100만원이하(51.3)인 경우는 TV/신문의 영화소개 프로그램을 더 고려하며,
- 50대이상(40.1), 종졸이하(44.8), 관리직(42.5)은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영화관 영화 선택 기준

(단위:%)

		주연배우	평론가들의 의견	TV/신문의 영화소개 프로그램	영화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변 사람들 의견	감독	기타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15.9	7.1	40.3	2.6	32.8	0.5	0.2	0.5	0.2
연령별	20대	15.3	10.8	36.5	5.3	30.9	0.6	0.3	0.3	-
	30대	18.9	5.5	40.8	3.1	29.9	0.9	0.3	-	0.6
	40대	16.8	6.9	44.3	1.4	29.2	0.7	-	0.7	-
	50대이상	12.9	5.3	40.1	0.8	40.1	-	-	0.8	-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9.8	3.9	38.6	1.0	44.8	-	-	2.0	-
	고졸	15.8	5.5	41.6	0.8	35.2	0.2	0.3	0.5	0.2
	대재	12.3	16.5	29.8	2.6	37.0	0.9	-	0.9	-
	2년제대졸	20.2	4.5	35.1	6.5	32.3	0.7	-	-	0.7
	4년제대졸이상	17.6	9.3	45.0	5.0	21.6	1.4	-	-	-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14.3	5.7	51.3	5.7	20.1	-	-	2.9	-
	101-150만원	16.1	7.4	35.5	2.2	37.8	-	-	1.1	-
	151-200만원	16.0	6.5	40.2	-	36.5	-	-	0.8	-
	201-300만원	19.1	7.0	39.1	1.6	31.5	0.6	0.3	0.6	0.3
	301-400만원	15.3	7.6	40.2	2.1	34.0	0.7	-	0.2	-
	401-500만원	13.6	5.2	44.6	6.5	28.9	0.6	-	-	0.6
	501만원이상	10.5	10.5	38.5	4.6	33.7	1.2	1.2	-	-

서울시민의 지난 1년간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4.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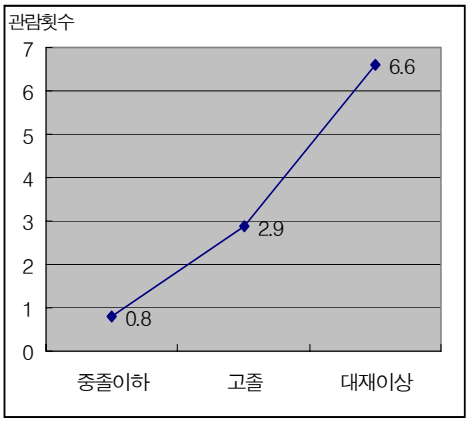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영화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률은 73.9%로 서울시민의 3/4이 적어도 영화 한편은 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0대 이상(53.0)과 중졸이하(63.6), 월소득 100만원이하(42.7),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46.7)인 경우, 절반 또는 절반 가까이 영화를 한편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1>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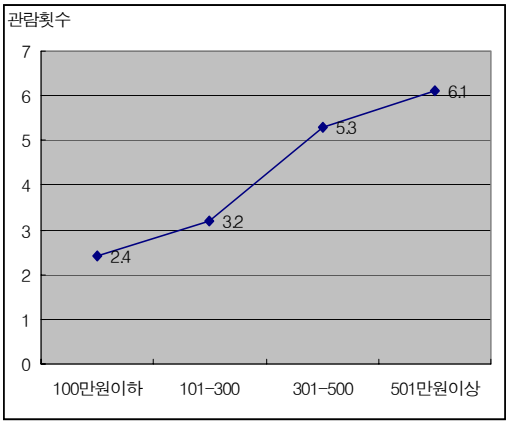
<표 2-12> 지난 1년간 영화 관람 횟수

(단위:%, 회)

	0회	1회	2-3회	4-5회	6-11회	12회 이상	평균
전 체	26.1	9.5	26.6	15.7	15.1	7.0	4.3



<그림 2-15>교육수준별 영화관람횟수



<그림 2-16>소득수준별 영화관람횟수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실제로 서울시민들은 어떤 영화들을 봤을까? 지난1년간 개봉한 영화들 중 개봉성적과 장르를 고려하여 16개의 영화들을 선정한 후 이 중 관람한 영화와 좋았던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6개의 영화는 1)반지의 제왕, 살인의 추억, 매트릭스 3, 올드보이, 태극기 휘날리며, 선생 김봉두, 장화홍련, 2)냉정과 열정사이, 니모를 찾아서, 영웅, 디아워스, 도그빌, 3)굿바이 레닌, 질투는 나의 힘, 볼링 포 콜럼바인, 송환, 이렇게 3그룹으로 나뉜다.

<표 2-13> 개봉영화의 요인분석에 의한 분류

		요인		
		1	2	3
흥행류	반지의 제왕	.682	.105	.027
	살인의 추억	.705	.172	.044
	매트릭스	.630	.200	.136
	올드보이	.593	.224	.192
	태극기 휘날리며	.637	-.097	.061
	선생 김봉두	.566	.278	.068
	장화,홍련	.489	.403	-.043
드라마류	니모를 찾아서	.224	.588	-.118
	영웅	.370	.450	.111
	냉정과 열정사이	.107	.519	.158
	디아워스	.171	.586	.075
	도그빌	.014	.677	.124
다큐류	볼링 포 콜럼바인	.043	.025	.533
	송환	.130	-.069	.646
	질투는 나의 힘	.108	.409	.519
	굿바이 레닌	.086	.160	.592

주) 추출방법: 주요인분석, 회전방법: 카이저 정규화에 의한 배리맥스
5회 반복 후 회전 수렴

1그룹의 경우 흥행성적이 우수한 영화들이 많다는 점에서 흥행류, 2그룹은 드라마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드라마류, 3그룹은 사회성이 짙거나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다큐류라고 명명하자.

전체적으로 흥행류는 7편 중에 평균 2.03편을, 드라마류는 5편 중에 평균 0.27편을, 다큐류는 4편 중에 0.07편을 보았으며, 흥행류를 제외하고는 평균 관람편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표 2-14> 참고).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큐류를 약간 더 본다는 것 외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흥행류, 드라마류, 다큐류 모두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지난 1년간 영화 관람 횟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4> 종류별 평균 영화 관람 횟수

(단위:회)

		흥행류	드라마류	다큐류
전 체		2.03	0.27	0.07
연령별	20대	3.90	0.68	0.18
	30대	2.22	0.28	0.07
	40대	1.38	0.10	0.02
	50대이상	0.70	0.03	0.01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0.42	0.04	0.01
	고졸	1.46	0.14	0.05
	대재	4.22	0.89	0.19
	2년제대졸	2.85	0.39	0.08
	4년제대졸이상	2.58	0.34	0.0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1.20	0.12	0.06
	101-150만원	1.28	0.22	0.03
	151-200만원	1.40	0.15	0.03
	201-300만원	1.81	0.18	0.04
	301-400만원	2.21	0.33	0.09
	401-500만원	2.53	0.42	0.12
	501만원이상	3.24	0.36	0.07

영화 1편 이상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행류 외의 다른 영화를 본 횟수를 분석하여 보면(<표 2-15> 참고),

-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흥행류 외의 영화를 더 많이 관람하였으며,
-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학생이 다양한 영화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에 50대이상(90.5)과 중졸이하(89.3)의 경우는 90%가 흥행류의 영화만을 관람하였다.

<표 2-15> 흥행류 외 영화 관람 횟수

(단위:명,%)

		사례수	0회	1-2회	3회 이상
전 체		882	69.5	26.0	4.5
연령별	20대	304	49.7	41.1	9.2
	30대	259	70.7	25.9	3.5
	40대	182	85.2	13.7	1.1
	50대이상	137	90.5	8.8	0.7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28	89.3	7.1	3.6
	고졸	377	78.8	19.6	1.6
	대재	112	42.0	45.5	12.5
	2년제대졸	131	60.3	35.1	4.6
	4년제대졸이상	233	70.8	23.6	5.6
직업별*	전문직	51	62.7	29.4	7.8
	관리직	24	70.8	20.8	8.3
	사무직	279	71.0	25.8	3.2
	자영업	184	81.5	16.8	1.6
	판매서비스직	130	68.5	27.7	3.8
	생산직	32	75.0	15.6	9.4
	학생	98	39.8	48.0	12.2
	주부	72	79.2	19.4	1.4

*무직/기타(8)와 모름/무응답(4)은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음

위의 표에서 보면 흥행류만 보았던 사람이 69.5%인데, 좋았던 영화 두편 모두 흥행류라고 응답한 사람이 90.5%로 흥행류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16> 참고).

좋았던 영화 두편 중에 한편이라도 흥행류 외의 영화를 지목한 경우는

- 연령이 낮을수록 많았고, 전문직과 학생이 많았다.
- 성과 교육수준, 월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6> 좋았던 영화

(단위:명,%)

		사례수	흥행류	흥행류 외
전 체		842	90.5	9.5
연령별	20대	299	86.6	13.4
	30대	246	89.4	10.6
	40대	169	94.1	5.9
	50대이상	128	96.9	3.1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24	100.0	-
	고졸	357	92.9	7.8
	대재	111	84.7	15.3
	2년제대졸	126	89.7	10.3
	4년제대졸이상	223	90.1	9.9
직업별*	전문직	48	81.3	18.8
	관리직	24	95.8	4.2
	사무직	267	91.4	8.6
	자영업	173	92.5	7.5
	판매서비스직	125	91.2	8.8
	생산직	30	100.0	-
	학생	97	83.5	16.5
	주부	66	92.4	7.6

*무직/기타(8)와 모름/무응답(4)은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음

3)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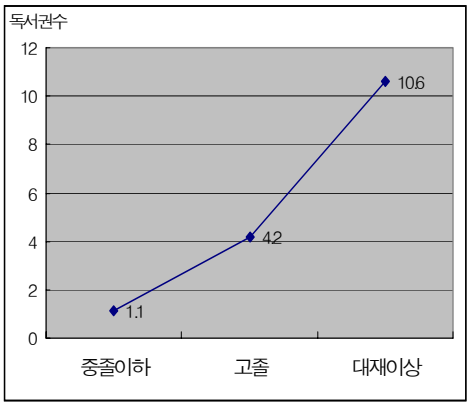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읽은 서적수는 평균 6.7권이고, 전체의 27.9%는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14.1권)과 학생(14.0권)이 많이 읽는다.
- 반면에 50대이상(46.7), 중졸이하(59.4), 생산직(48.9), 소득 100만원이하(57.0),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53.4)인 경우는 절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12>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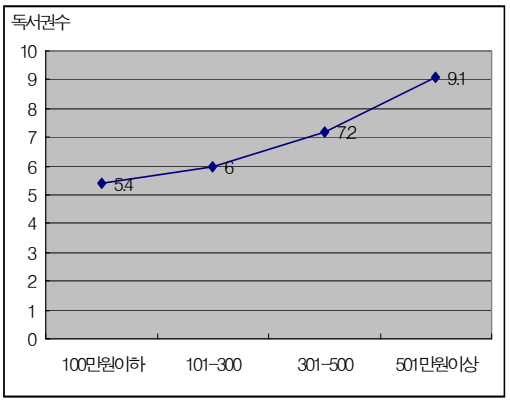
<표 2-17> 지난 1년간 구독 서적 수

(단위:%, 권)

	0권	1-2권	3-5권	6-11권	12-23권	24권 이상	평균
전 체	27.9	22.9	26.6	11.2	6.4	4.9	6.7



<그림 2-17>교육수준별 독서권수



<그림 2-18>소득수준별 독서권수

주로 읽은 서적의 분야를 살펴본 결과, 문학/소설/수필(59.6%), 역사/예술/철학/종교 등 교양서적(20.1%), 건강/취미/여성/생활(13.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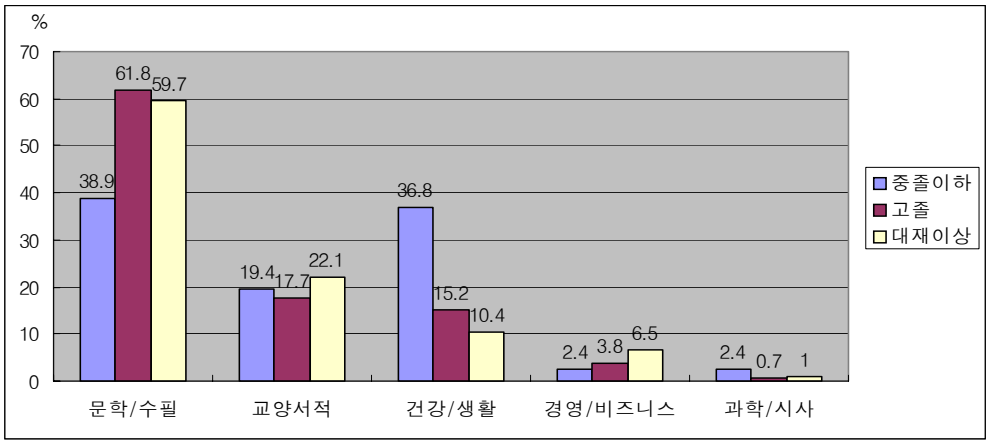
<표 2-18> 주로 읽은 서적 분야

(단위:%)

구 분	문학/소설/수필	역사/예술/철학/종교 등 교양서적	건강/취미/여성/생활	경영/비즈니스	과학/시사	모름/무응답
전 체	59.6	20.1	13.7	5.1	1.0	0.4

- 성별로 볼 때, 남성은 교양서적(26.1%), 여성은 건강/취미/여성/생활(18.2%)을 상대적으로 더 본 것으로 조사되었고,
- 연령이 낮을수록 문학/소설/수필 분야를, 연령이 높을수록 교양서적, 건강/취미/여성/생활 분야를 더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졸이하는 건강/취미/여성/생활(36.8%) 분야를, 4년제 대졸이상자(29.3%)는 교양서적을 더 많이 읽었으며,
-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72.1%)과 학생(68.0%)층에서 문학/소설/수필 분야를, 관리직에서는 교양서적 분야(46.7%)를, 주부층에서는 건강/취미/여성/생활 분야

(32.0%)를 더 많이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표 13>참고).



<그림 2-19> 교육수준별 주로 읽은 서적 분야

즐겨보는 잡지로는 여성 월간지가 20.4%, 시사교양주간지 11.8%, 영화/연예 주간지 4.6%, 생활문화정보지 4.6%, 육아/유아지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9> 즐겨보는 잡지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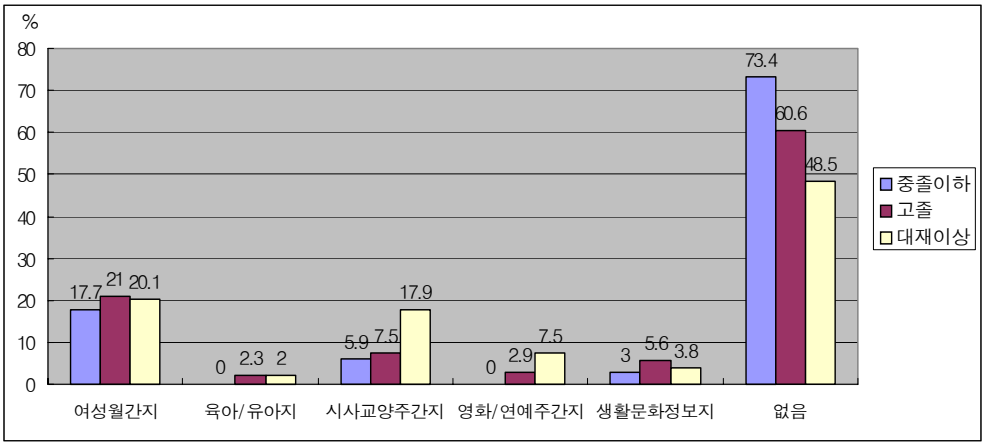
(단위:%)

	여성 월간지	육아/ 유아지	시사교양 주간지	영화/ 연예 주간지	생활문화 정보지	즐겨보는 잡지가 없다
전 체	20.4	2.0	11.8	4.6	4.6	56.6

- 남성(20.6)은 시사교양주간지를, 여성은 여성월간지(37.9)를,
- 20대(12.7)는 영화/연예주간지를,
- 4년제대졸이상(23.4), 전문직(22.1)과 관리직(22.5),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20.8)은 시사교양주간지를 상대적으로 더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14> 참고).

즐겨보는 잡지가 없는 경우는 전체의 56.6%로

-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즐겨보는 잡지가 없다.



<그림 2-20> 교육수준별 즐겨보는 잡지 종류

4) 음악 및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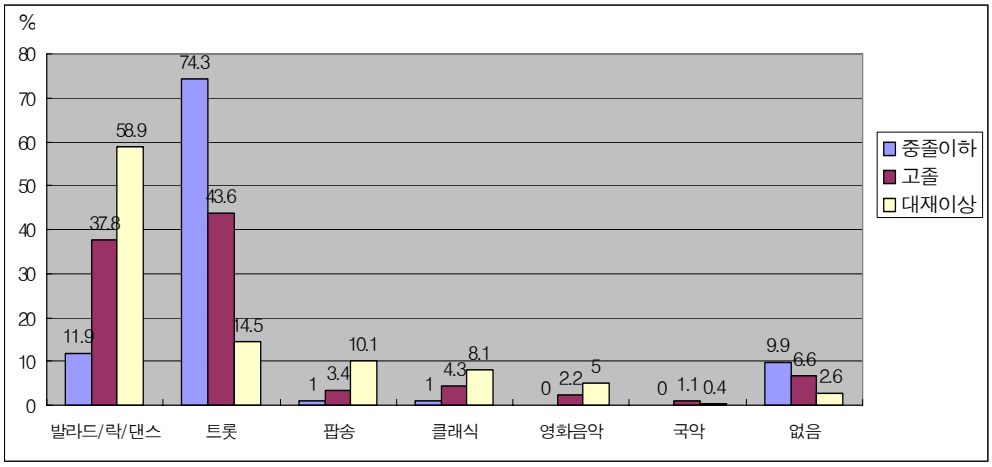
선호하는 음악장르로는 가요(트롯트)가 33.8%, 가요(발라드)가 27.7%, 가요(댄스)가 13.0%, 팝송 6.1%, 클래식/오페라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0> 선호하는 음악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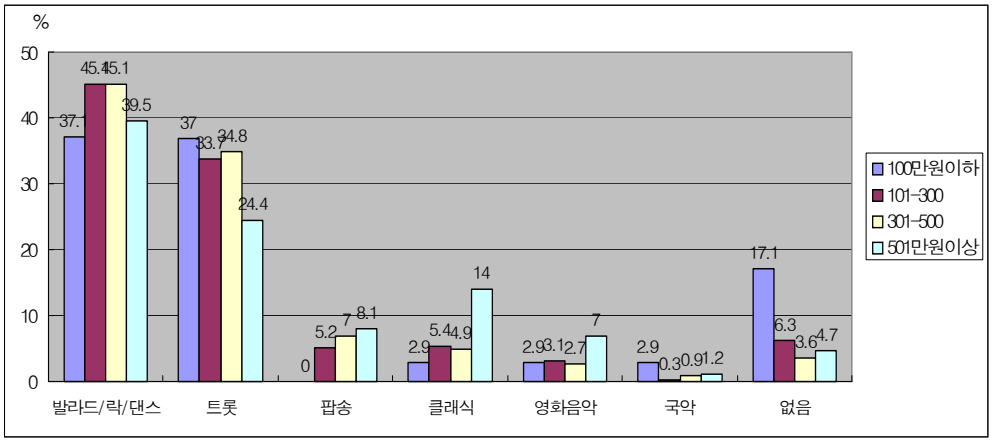
(단위:%)

	클래식/오페라	가요(댄스)	가요(락)	가요(발라드)	가요(트롯)	팝송	영화음악	국악	기타	없음
전 체	5.6	13.0	3.8	27.7	33.8	6.1	3.2	0.7	0.9	5.2

- 연령이 낮을수록 가요 댄스와 발라드, 팝송을 선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트롯트를 좋아하며 선호하는 장르가 없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 중졸이하, 생산직, 자영업, 소득 100만원이하,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트롯트를 선호하거나 선호하는 장르가 없으며,
- 4년제대졸이상, 전문직, 소득 501만원 이상,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클래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표 15>참고)



<그림 2-21> 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그림 2-22> 소득수준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지난 1년간 콘텐츠가 들어있는 비디오테이프, VCD, DVD 등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6.1%이다.

-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구매한 비율이 높다.

구입한 콘텐츠의 종류는 영화가 52.2%로 가장 많았고, 교육용이 19.1%. 애니메이션이 15.3%, 음악이 13.9% 순으로 나타났다(사례수가 적어 집단별 분석하기 어려움).

미디어 문화의 경우 참여율이 매우 높다. TV를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0.1%에 불과하였고, 지난 1년간 영화를 한편이라도 본 비율이 73.9%, 책을 한권이라도 읽은 비율이 62.1%로 높은 편이다. 이것은 이러한 문화가 그만큼 저렴하고 이용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집단간 차이도 나타나는데, 독서와 영화관람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하는 반면, TV 시청은 그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취향은 좀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TV 프로그램의 경우, 저학력층은 뉴스/시사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고학력은 쇼/오락 프로그램과 영화를 선호하며, 저소득층은 드라마와 쇼/오락 프로그램을 고소득층은 영화를 선호한다. 영화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변인에 의해서 선호하는 장르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흥행류 이외의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였다. 음악장르에 대해서는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이 트롯을 선호하고 선호하는 장르가 없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고학력층과 고소득층은 클래식과 팝음악을 더 선호하였다.

3. 공연 및 전시 예술 관람

1)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

(1) 평생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 경험률(평생)을 살펴보면. 연극 관람률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22.0%, 무용공연은 1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층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동남권 지역 거주자가 경험률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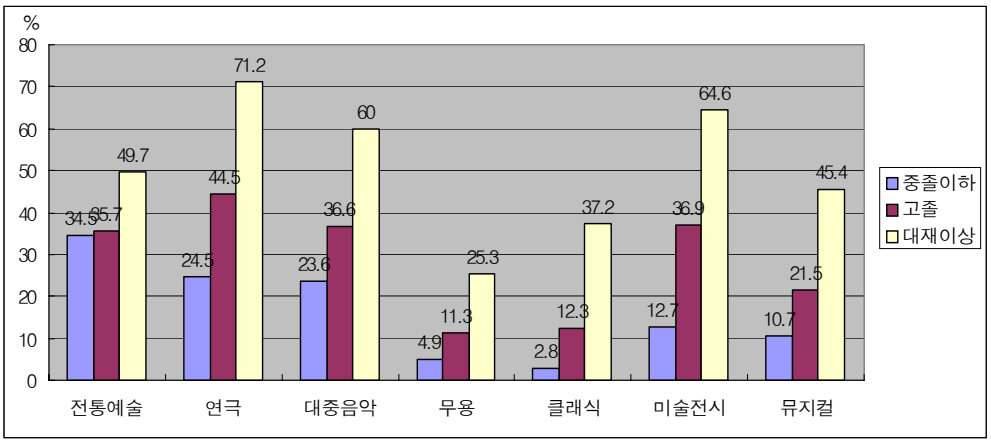
특히, 무용, 클래식, 오페라, 미술전시회, 뮤지컬 등의 순수예술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며,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라 그 차이가 가장 잘 나타난다.

한편, 평생 공연 및 전시예술 공연을 보지 못한 경우가 26.1%에 달해 상당수가 관람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부록표 16>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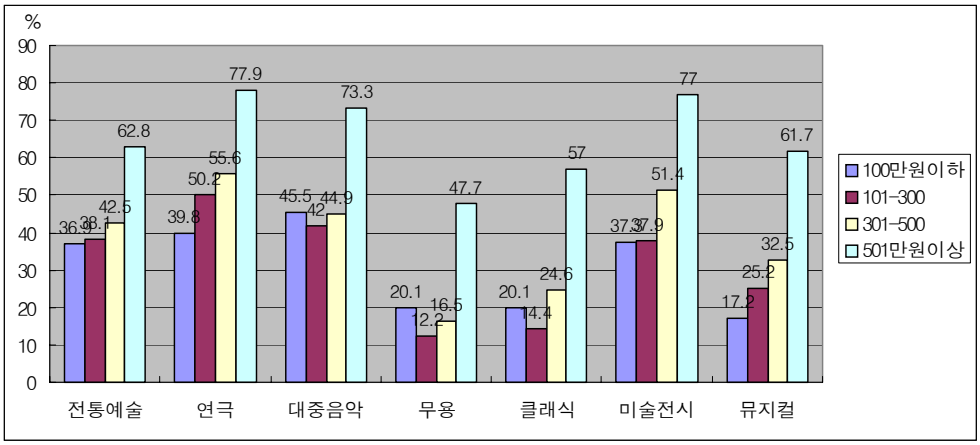
<표 2-21>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률(평생)

(단위:%)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경험없음
전 체	41.4	54.1	45.4	16.6	22.0	46.5	30.7	26.1



<그림 2-23>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률(평생)



<그림 2-24>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률(평생)

(2) 지난 1년간

지난 1년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먼저 전통예술의 경우, 전체의 14.7%가 관람한 경험이 있고,

-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36.9)과 생산직(27.8)의 관람률이 높고,
- 동남권 거주자들의 관람률도 높다.

연극은 전체의 24.6%가 관람한 경험이 있다.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38.2)과 사무직(26.2)이,
- 18세이전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28.1) 관람률이 높다.

대중음악공연은 전체의 19.5%가 관람해본 경험이 있으며,

-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다.

무용은 전체의 3.2%만이 관람해본 경험이 있으며,

- 직업별로 전문직(9.5)과 생산직(7.9)의 관람률이 높은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클래식・오페라 공연의 관람률은 7.5%이고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12.8)과 사무직(10.8)이, 소득수준은 401만원이상일때 관람률이 높다.

미술전시회의 관람률은 23.8%이고,

-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47.7)의 관람률이 높은 반면, 관리직(12.5)과 주부(11.3), 자영업(15.7)의 관람률은 낮다.
- 또한 동남권 거주자의 관람률이 높다.

뮤지컬의 관람률은 11.1%이고,

-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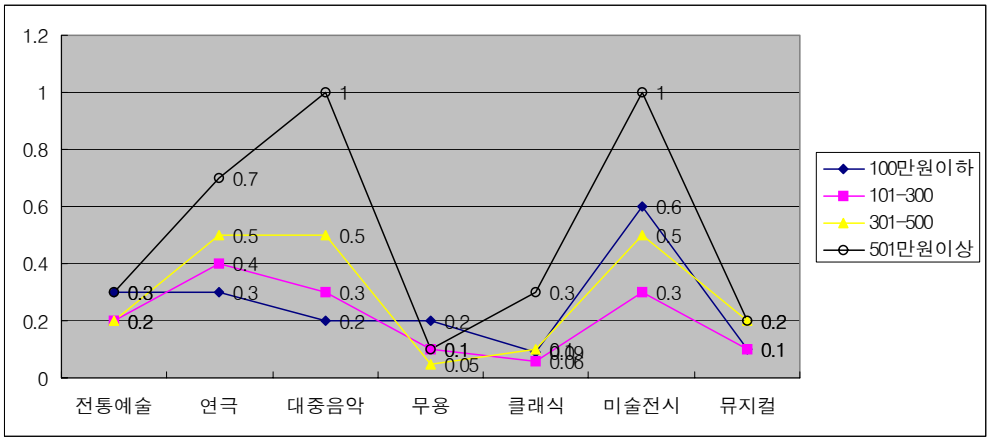
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으며, 전문직(28.8)의 관람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람률은 낮은 편으로 56.4%가 지난 1년간 단 한번의 공연도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이 관람률이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중졸이하에 비해 4년제대졸이상의 경우 관람률이 연극과 대중음악 공연은 3배 가까이, 뮤지컬은 5배이상, 미술전시회는 8배,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가 50대보다 3~6배,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이 하층보다 2~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 17>참고).

<표 2-22>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률(지난1년)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전체		13.7	0.2	23.6	0.5	19.5	0.4	3.2	0.1	7.5	0.1	23.8	0.5	11.1	0.2
성별	남자	13.4	0.2	21.5	0.4	19.8	0.4	3.6	0.1	7.4	0.1	20.6	0.4	9.7	0.2
	여자	14.0	0.2	25.5	0.5	19.1	0.5	2.7	0.0	7.5	0.1	26.9	0.5	12.3	0.2
연령별	20대	20.3	0.3	42.4	0.9	34.6	1.0	6.6	0.1	13.4	0.2	37.7	0.7	18.7	0.3
	30대	12.0	0.2	22.6	0.5	16.9	0.3	2.4	0.0	7.7	0.1	27.0	0.6	14.0	0.2
	40대	13.1	0.2	21.0	0.4	17.2	0.3	2.7	0.2	5.8	0.1	22.7	0.4	7.6	0.1
	50대이상	10.0	0.2	10.0	0.2	10.2	0.3	1.1	0.0	3.3	0.1	9.7	0.2	4.4	0.1

<그림 2-25>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지난1년)



<그림 2-26>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지난1년)

2) 여가생활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

그렇다면,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와 다른 여가활동, 미디어문화향수, 취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먼저, 여가활동 유형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를 비교하여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 유형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적극적 유형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공연 및 전시예술도 더 많이 관람할 여건이 되어서 일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태도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23> 여가유형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단위:명, 회)

여가유형		사례수	관람횟수	t 값
주중	소극	1156	1.67	-4.421***
	적극	144	4.33	
주말	소극	879	1.47	-5.299***
	적극	421	2.99	

*** p< .001 **p< .01 *p< .05

앞에서 분류한 다섯가지 여가활동을 한달동안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와 한번이상 해

본 경우에 관람횟수를 비교해보면, 다섯가지 활동 모두에서 해본 경우가 해보지 않은 경우보다 관람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따라서 다른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 공연 및 전시 예술 관람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24> 여가활동 빈도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단위:명, 회)

여가활동		사례수	관람횟수	t 값
참여형	안해봤음	746	0.95	-9.041***
	해봤음	552	3.34	
레져A형	안해봤음	590	0.90	-8.606***
	해봤음	707	2.86	
오락형	안해봤음	316	1.21	-4.627***
	해봤음	983	2.21	
운동・사회형	안해봤음	299	0.99	-6.227***
	해봤음	998	2.26	
레져B형	안해봤음	1027	1.54	-5.712***
	해봤음	272	3.57	

*** p< .001 **p< .01 *p< .05

3) 미디어 문화향수와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

TV 시청시간과 관람 횟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TV 시청습관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거나 '집에 가면 늘 TV를 켜 놓는다'는 사람보다는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는 사람들이 공연 및 전시 예술관람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TV 시청시간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가 반드시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TV 시청이 다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TV 시청습관에 따라 관람횟수가 달라지는 것은 일종의 태도문제인 것 같다. 습관적으로 TV를 보는 것은 여가시간에 대해서 그만큼 소극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표 2-25> TV 시청습관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단위:명, 회)

TV 시청습관	사례수	평균	F 값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	634	2.32	6.003**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	427	1.61	
집에 가면 늘 TV를 켜 놓는다	232	1.56	

*** p< .001 **p< .01 *p< .05

독서한 서적수와 행사 관람 횟수도 상관이 있어, 책을 많이 읽을수록 공연관람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독서 서적수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단위:명, 회)

독서 서적수	사례수	관람횟수	F 값
0권	363	0.62	36.224***
1-5권	644	2.01	
6권이상	293	3.53	

*** p< .001 **p< .01 *p< .05

중간에 학력이 매개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학력이 고졸인 응답자만 이용하여 아노바 분석을 해 본 결과, 독서 서적수와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고졸 응답자들의 독서 서적수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단위:명, 회)

독서 서적수	사례수	관람횟수	F 값
0권	235	0.51	12.878***
1-5권	319	1.78	
6권이상	97	2.34	

*** p< .001 **p< .01 *p< .05

4) 취향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

취향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관계가 드러난다.

<표 2-28> 취향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단위:명, 회)

취향		사례수	관람횟수	F 값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뉴스/시사	529	1.69	5.717***
	다큐멘터리/교육	59	2.70	
	쇼/오락	195	3.25	
	드라마	378	1.43	
	영화	54	2.98	
	홈쇼핑	3	2.00	
	스포츠	74	1.14	
선호하는 음악 장르	클래식・오페라	73	3.41	8.838***
	가요(댄스)	169	2.75	
	가요(락)	50	2.56	
	가요(발라드)	359	1.98	
	가요(트롯)	440	0.82	
	국악	9	4.67	
	영화음악	41	3.07	
	팝송	79	4.49	
	기타	12	2.67	
	없음	67	1.25	
선호하는 잡지	여성월간지	265	1.77	18.623***
	육아/유아지	26	4.38	
	시사교양주간지	154	2.72	
	영화/연예주간지	60	6.45	
	생활문화정보지	60	2.71	
	즐겨보는 잡지 없음	735	1.36	

*** p< .001 **p< .01 *p< .05

먼저 선호하는 TV 프로그램별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쇼/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뉴스/시사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스포츠를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관람횟수가 유의미하게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연령이 매개한 것으로, 예술 관람을 가장 많이 하는 20대가 쇼/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령을 통제하기 위하여 20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선호하는 TV 프로그램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952).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악장르별로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국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수가 너무 적고 표준편차(7.94)가 커서 사후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가장 많은데, 사후검증 결과 가요(발라드), 가요(트롯)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선호하는 장르가 없는 사람들보다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트롯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가장 적은데, 클래식, 가요(댄스), 팝송을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이다.

선호하는 잡지별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영화/연예주간지를 즐겨보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가장 많다. 사후검증 결과, 이들은 여성월간지, 시사교양주간지, 생활문화정보지를 선호하거나 선호하는 잡지가 없는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관람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호하는 잡지가 없는 경우에 관람횟수가 가장 낮은데, 시사교양주간지와 육아/유아지를 선호하는 사람들보다 관람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영화장르와 관람횟수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및 전시 예술에 대한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서울시민의 26.1%는 평생동안 전통예술, 연극, 대중음악공연,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공연, 무용공연 미술전시회를 한 번도 관람하지 않았으며, 지난 1년간 이중에 하나라도 관람한 사람은 43.7%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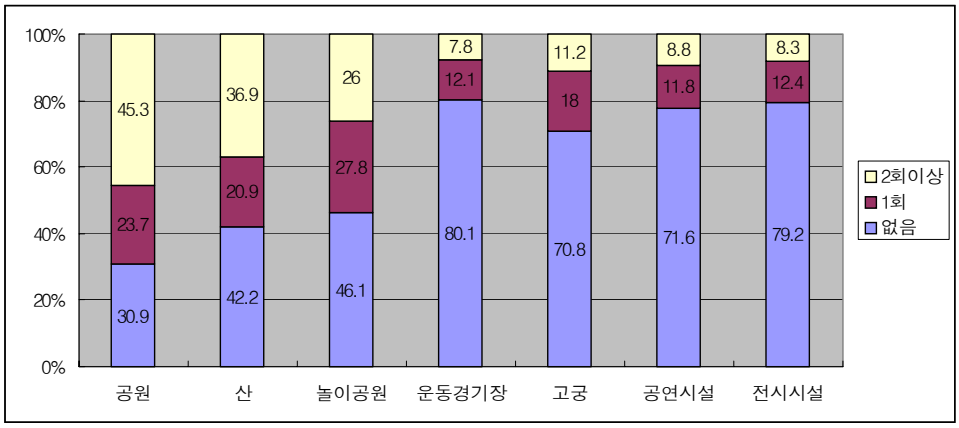
이러한 공연 및 전시예술도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주로하는 여가활동과도 관련이 있는데, 적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더 많다. 이것은 그들 집단의 경제적 여건이나 여가생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다. 취향과도 부분적인 관련을 보이는데, 음악장르 중에 팝송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잡지 중에 영화/연예 주간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더 많다.

4. 여가 및 문화시설 이용

1) 여가 및 문화시설

공원과 산, 놀이공원은 50%이상이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고궁과 공연시설은 30%정도, 운동경기장과 전시시설은 20%정도만 방문경험이 있다.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과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방문횟수가 증가하지만, 산과 고궁은 그 차

이가 적고, 특히, 산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참고).



<그림 2-27> 여가 및 문화시설 방문 횟수

공연 및 전시시설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전부 20%미만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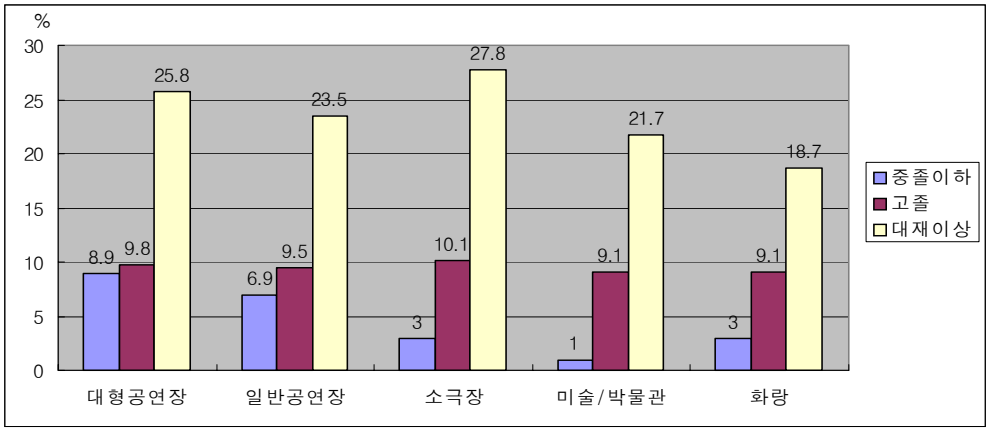
-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용하며,
- 전문직과 사무직, 소득 301만원 이상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공연 관람 횟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부록표 23>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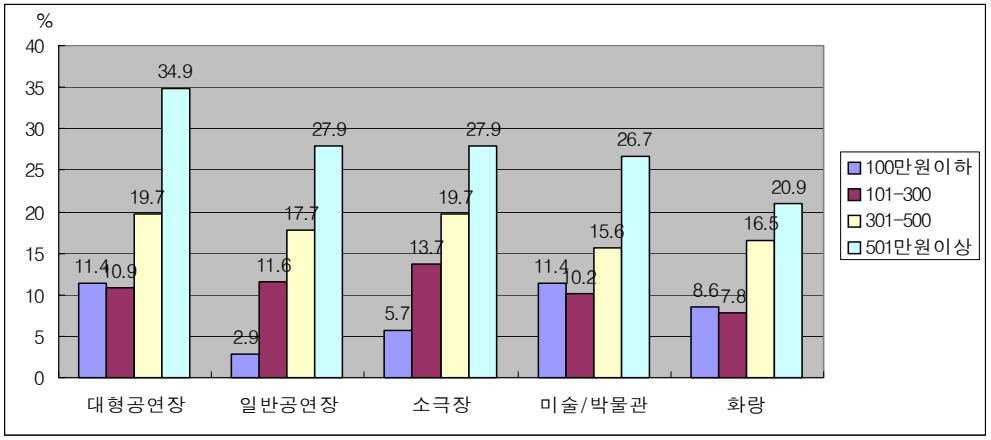
<표 2-29>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횟수

(단위:%)

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대형공연장(세종문화회관/예술의 전당/ LG 아트센터/국립극장)	83.5	12.1	3.2	1.2
일반공연장(정동극장/연강홀/호암아트홀)	84.8	11.0	2.8	1.2
인사동/안국동 미술관 혹은 화랑	87.4	9.4	1.7	1.3
공공미술관/박물관(과천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서울역사박물관)	86.3	10.0	3.0	0.6
대학로 소극장	82.9	11.8	3.5	1.8



<그림 2-28> 교육수준별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률



<그림 2-29> 소득수준별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률

2) 지역문화시설

지역문화시설 인지율은 구민회관이 74.5%, 사설문화센터가 69.2%, 구민체육센터가 66.4%, 공공도서관이 64.9%로 비교적 높고,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 47.1%, 문예회관 44.4%, 문화원 30.3% 순으로 나타났다.

-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알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 직업별로는 주부와 사무직이 많이 알고 있으며,
- 소득은 101-150만원, 501만원 이상 계층이 많이 알고 있다.

-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 이상이 대체로 많이 알고 있으나 구민회관과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와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하층의 인지율도 높다.
- 거주지역별로는 동남권 거주자와 동북권 거주자가 많이 알고 있으며, 문예회관을 제외하고는 도심권 거주자들의 인지율이 특히 낮다.

<표 2-30> 지역문화시설 인지율

(단위:%)

		문예회관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주민자치 센터	공공 도서관	사설 문화센터	구민 체육센터
전 체		44.4	75.4	30.3	47.1	64.9	69.2	66.4
연령별	20대	33.4	61.9	24.4	38.7	63.5	65.6	52.0
	30대	48.2	78.1	30.7	49.1	66.7	75.3	70.3
	40대	46.7	78.4	31.6	48.5	66.7	73.2	72.5
	50대이상	48.8	82.5	34.0	51.5	63.0	63.6	70.8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43.4	78.3	26.5	43.3	56.2	53.7	70.2
	고졸	43.4	78.2	30.9	48.9	63.8	70.4	67.9
	대재	31.7	60.5	27.3	32.5	64.9	62.2	55.3
	2년제대졸	42.5	71.4	28.1	47.7	61.8	75.3	63.5
	4년제대졸이상	53.3	76.3	32.8	49.8	71.9	72.0	68.4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45.9	77.1	31.5	48.4	68.8	71.3	65.9
	101-150만원	45.1	83.9	39.8	50.4	71.0	68.8	76.3
	151-200만원	40.2	71.0	29.7	45.9	65.3	62.0	65.2
	201-300만원	43.4	71.0	26.2	45.7	55.0	68.0	61.0
	301-400만원	45.1	76.2	29.4	46.3	67.2	70.2	65.5
	401-500만원	42.7	77.5	29.1	43.3	63.9	70.3	69.7
	501만원이상	52.4	81.4	45.3	60.4	85.9	80.3	75.6

지역문화시설 이용율은 구민회관이 22.3%, 사설문화센터 21.6%, 공공도서관 19.1%, 구민체육센터 15.2%,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 9.2%, 문예회관 7.0%, 문화원 4.1% 순으로 나타났다.

- 다른 문화향수 실태와 다르게 20대보다는 30대이후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다.
- 또한 문화원과 공공도서관, 사설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4년제대졸이상의 이용률이 높았으나 문예회관과 구민회관,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중졸이하

의 이용률이 높았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무직이,
- 거주지역별로는 동북권과 서남권 거주자의 이용률이 높다.
- 또한 주관적 계층인식별로는 중하층의 이용률이 높고, 하층의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지역문화시설의 경우, 연령간, 학력간, 소득간 격차가 작고, 또 다른 문화향수 수준이 낮았던 계층의 이용률이 오히려 높아 다른 문화향수 실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역문화시설이 일종의 복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인지율이나 이용률이 매우 낮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표 2-31> 지역문화시설 이용률

(단위:%)

		문예회관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주민자치 센터	공공 도서관	사설 문화센터	구민 체육센터
전 체		7.0	22.3	4.1	9.2	19.1	21.6	15.2
연령별	20대	5.0	19.0	4.1	7.1	17.8	15.2	13.0
	30대	8.9	25.4	4.1	11.3	20.5	27.7	17.3
	40대	6.3	17.5	4.1	7.5	30.2	27.4	13.7
	50대이상	7.1	26.6	5.0	10.1	21.4	23.6	16.2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7.2	23.0	4.1	10.7	18.6	22.7	14.8
	고졸	7.5	22.0	3.3	8.8	7.8	13.8	16.0
	대재	3.9	19.8	2.0	6.9	1.0	8.9	13.8
	2년제대졸	6.5	23.2	3.7	8.8	13.4	21.8	16.2
	4년제대졸이상	5.3	15.8	5.3	5.3	45.7	22.9	16.6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6.6	18.3	4.0	9.2	19.6	29.8	11.1
	101-150만원	10.5	25.6	5.4	13.0	28.0	21.0	15.1
	151-200만원	2.9	25.8	5.7	11.5	11.5	20.1	17.2
	201-300만원	10.9	33.6	9.7	10.8	11.8	20.4	21.5
	301-400만원	4.0	20.2	1.6	4.9	13.7	20.0	14.5
	401-500만원	8.4	20.3	1.7	8.3	14.7	22.3	15.0
	501만원이상	6.3	22.2	5.1	10.0	20.3	20.3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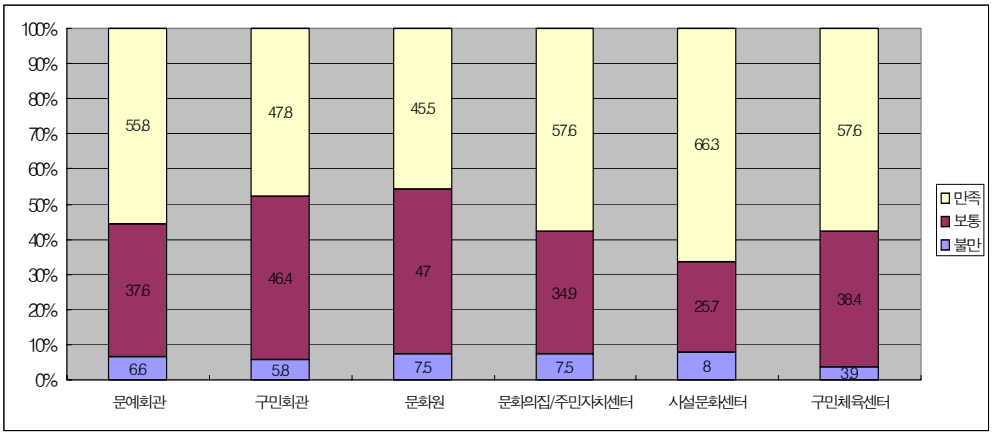
지역문화시설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의 비율이 더 높지만, 평균점수는 60점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중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만족도가 59.5점으로 가장 낮았고, 사설문화센터가 66.2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차이는 별로 없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사설문화센터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용자수가 적어 집단간 분석 불가)

<표 2-32> 지역문화시설 만족도

(단위:명,%)

	문예회관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	사설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사례수	91	289	53	120	249	281
평균(점)	63.7	59.5	61.9	63.8	66.2	64.5



<그림 2-30>지역문화시설 만족도

녹지공원, 놀이공원, 운동경기장, 전시시설, 공연시설 등의 여가와 문화시설 이용률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여가활동 빈도와 예술행사 관람횟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시설의 경우, 연령간, 학력간, 소득간 격차가 작고, 또 다른 문화향수수준이 낮았던 계층의 이용률이 오히려 높아 다른 문화향수 실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역문화시설이 일종의 복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완해야 할 점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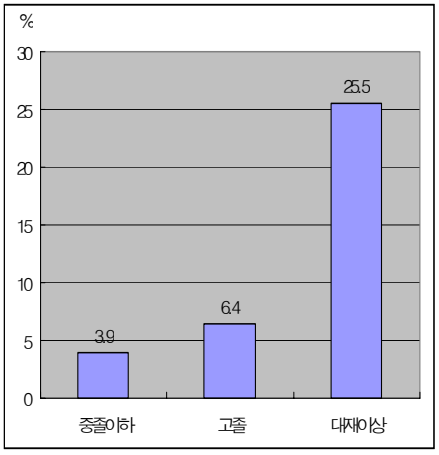
5. 문화예술교육경험 및 동호회 활동

1) 문화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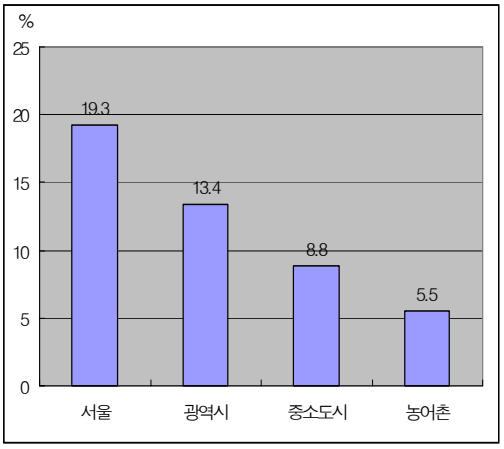
(1) 성인 이전(만18세 이전)

만18세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전체의 14.3%로,

-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받아본 경험이 더 많다.
- 전문직(28.6)과 소득 401만원 이상, 18세이전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19.3)도 교육경험이 더 많다(<부록표 25>참고).



<그림 2-31>교육수준별 성인 이전 예술교육 경험률



<그림 2-32>성장지별 성인 이전 예술교육 경험률

강습을 받아본 분야로는 서양음악(5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술(21.5), 문학(6.5), 생활취미(6.5) 순이다. 서양음악과 미술 분야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3> 문화예술 강습 분야(성인 이전)

(단위:명,%)

사례수	서양음악	미술	문학	생활취미	무용	영상/영화	전통예술	연예	연극	만화
186	58.9	21.6	6.5	6.5	4.3	3.8	3.2	3.2	2.7	1.6

교육받은 장소로는 사설학원(71.0)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레슨(13.5)과 공공단체 부설기관(13.4)이 그 뒤를 잇는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201만원 이상이 개인레슨보다는 사설학원에서 더 많이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가 지나면서 예능사설학원이 대중화되어 갔다는 것을 반영하는 듯 하다.

<표 2-34> 문화예술 강습 장소(성인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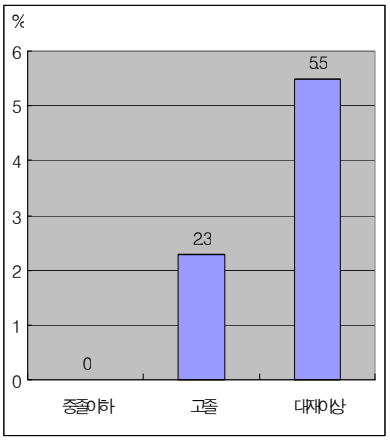
(단위:명,%)

사례수	사설학원	개인레슨	공공단체 부설기관	사설기관 문화센터	기타
186	71.0	13.5	13.4	3.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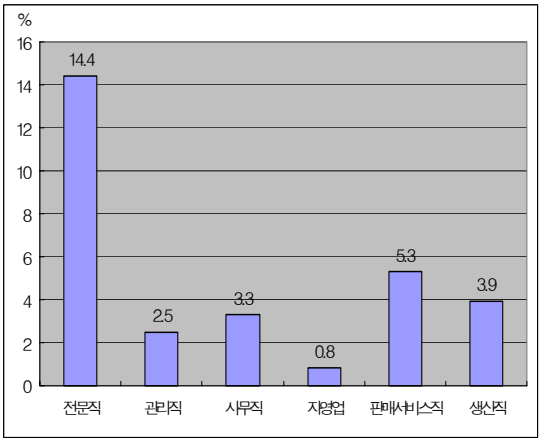
(2) 지난 1년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련된 강습을 받아본 사람은 전체의 3.5%로,

- 2,30대 층이, 2년제 대졸이상이, 전문직(14.4)이, 소득 401만원이상이, 주관적 계층인식이 중상층이상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표참고).



<그림 2-34>교육수준별 지난1년간 예술교육경험



<그림 2-33>직업별 지난1년간 예술교육경험

지난 1년간 강습을 받아본 분야로는 생활취미(4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술(17.9), 연예(11.1), 서양음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예술교육이 주로 생활취미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5> 문화예술 강습 분야(지난1년)

(단위:명,%)

사례수	서양 음악	미술	문학	생활 취미	무용	영상/ 영화	전통 예술	연예	연극	만화
45	8.8	17.9	4.4	42.2	2.2	4.4	4.4	11.1	6.6	2.2

지난 1년간 교육받은 장소로는 사설기관 문화센터(35.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공단체 부설기관(31.4), 사설학원(24.3), 개인레슨(8.8)이 차지했다. 따라서 성인들의 예술교육 중 1/3을 공공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6> 문화예술 강습 장소(지난1년)

(단위:명,%)

사례수	사설학원	개인레슨	공공단체 부설기관	사설기관 문화센터	기타
45	24.3	8.8	31.4	35.4	-

2) 예술 관련된 가정 내 사회화

예술과 관련한 가정 내의 사회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나 가정 내의 성인이 집에서 때때로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 등을 들은 적이 있는가, 공연이나 전시회에 데려간 적이 있는가, 서점에서 책을 사준 적이 있는가 등을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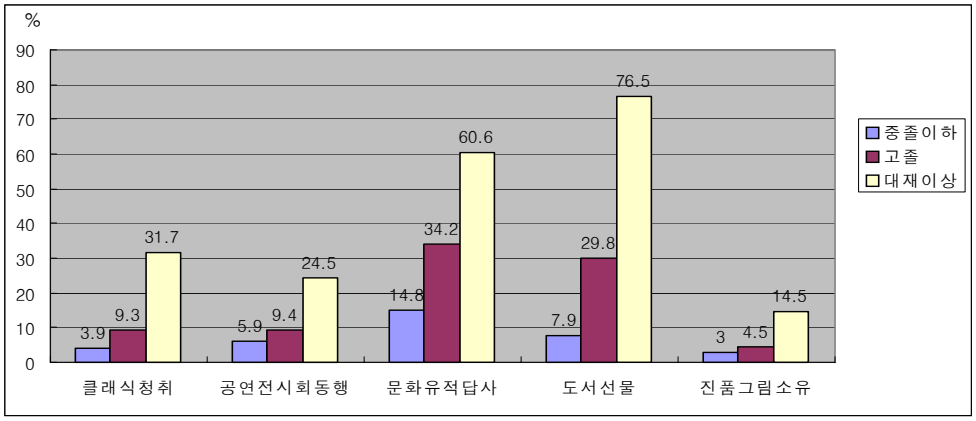
-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또 화이트칼라층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가정환경을 통해서 문화자본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부록표 26>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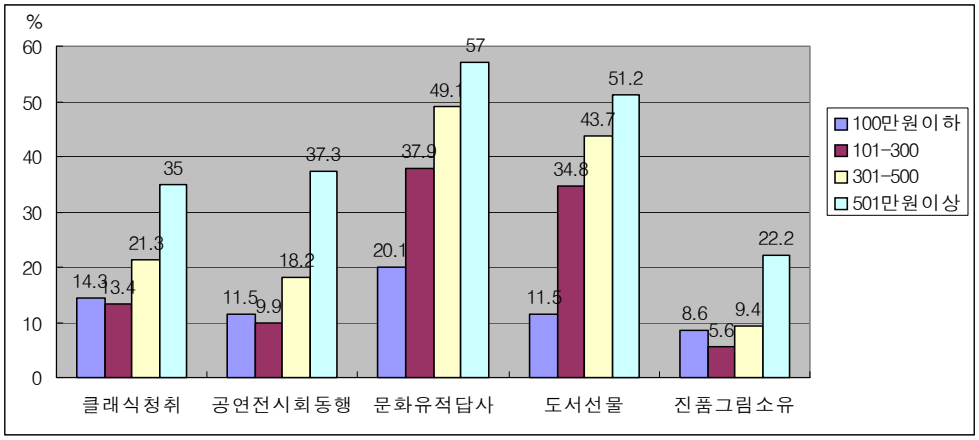
<표 2-37>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단위:%)

	클래식 청취	공연·전시회 동행	여행 중 문화유적 답사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화가의 진품그림 소유
전 체	18.3	15.5	43.8	39.3	8.5



<그림 2-35> 교육수준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그림 2-36> 소득수준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3) 악기 연주 및 보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의 34.3%이고 한곡이라도 연주가 가능한 악기로는 피아노(17.0), 리코더(13.2), 하모니카(10.6), 기타(10.2) 순으로 나타났다.

- 연주 가능한 악기가 있는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58.7)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남권 거주자의 경우에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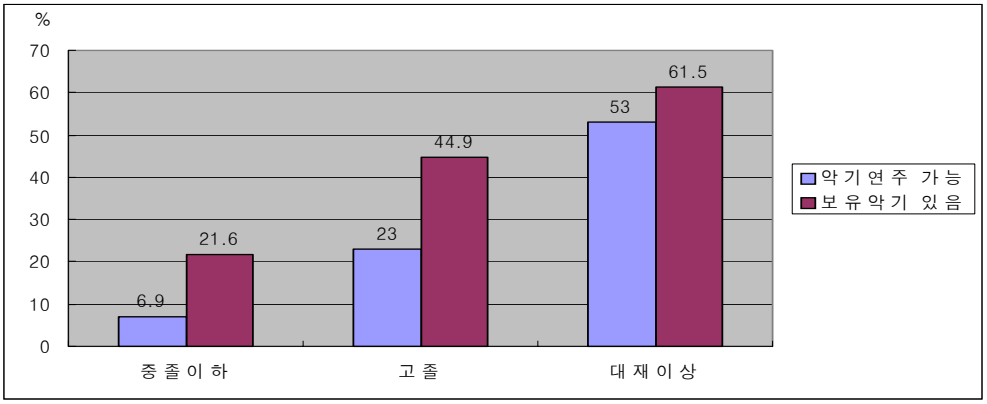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49.9%이고 피아노(30.7), 리코더(19.8), 하모니카(16.9), 기타(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교육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악기를 보유한다.
- 또한 화이트칼라 계층이, 동남권 거주자가 더 많이 악기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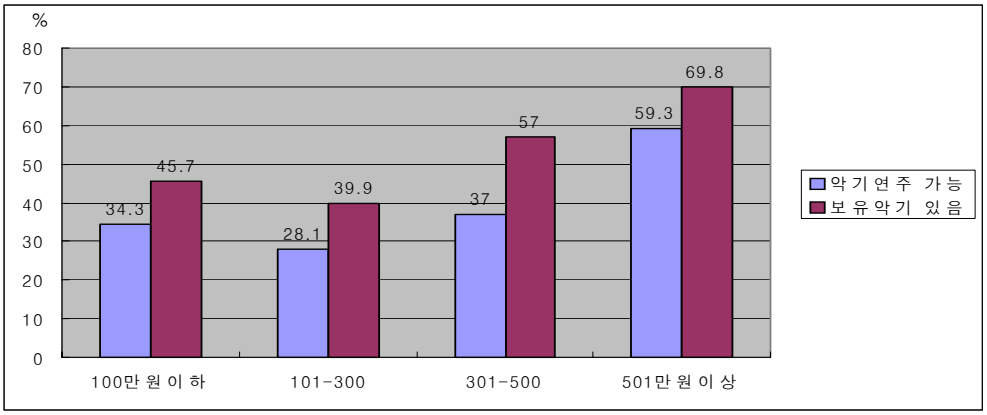
<표 2-38> 연주가능한 악기 및 보유악기

(단위:명,%)

	사례수	해당사항 없음	피아노	리코더	하모니카	기타 Guitar	단소/대금	플루트	바이올린/첼로	기타
연주가능한 악기	1300	65.7	17.0	13.2	10.6	10.2	2.8	1.3	1.2	0.9
보유악기	1300	50.0	30.7	19.8	16.9	11.9	7.9	2.8	3.8	1.5



<그림 2-37> 교육수준별 악기관련 비율



<그림 2-38> 소득수준별 악기관련 비율

한곡이라도 연주가 가능한 악기와 집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있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력이 더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데, 이것도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4) 동호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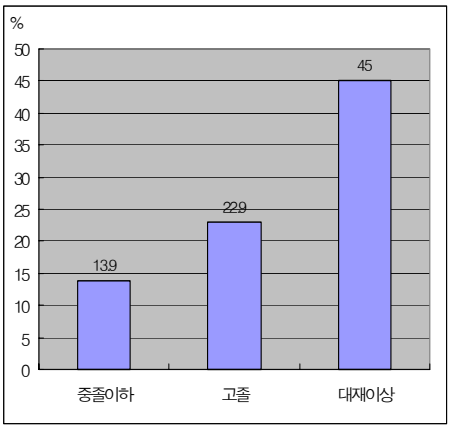
모두 31.5%의 사람들이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운동(14.0), 인터넷, 컴퓨터(8.8), 등산(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 전문직(43.0)과 관리직(55.0)이, 동남권 거주자와 18세이전 거주지가 서울(35.9)인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
-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계층이 101-300만원인 계층보다 동호회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록표 27>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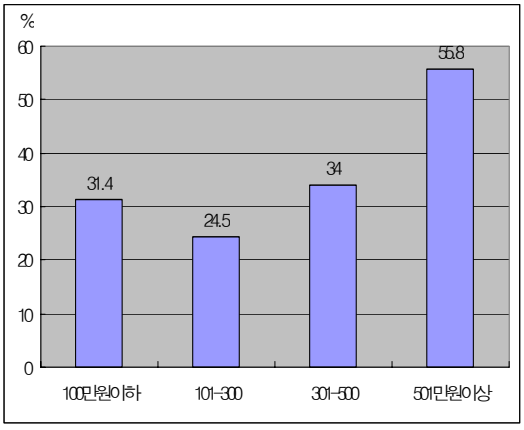
<표 2-39> 참여 동호회

(단위:%)

	해당사항 없음	운동	인터넷, 컴퓨터	등산	오락/ 게임	여행	영화/ 비디오	기타
전 체	68.5	14.0	8.8	7.5	3.8	3.0	2.5	11.2



<그림 2-39>교육수준별 동호회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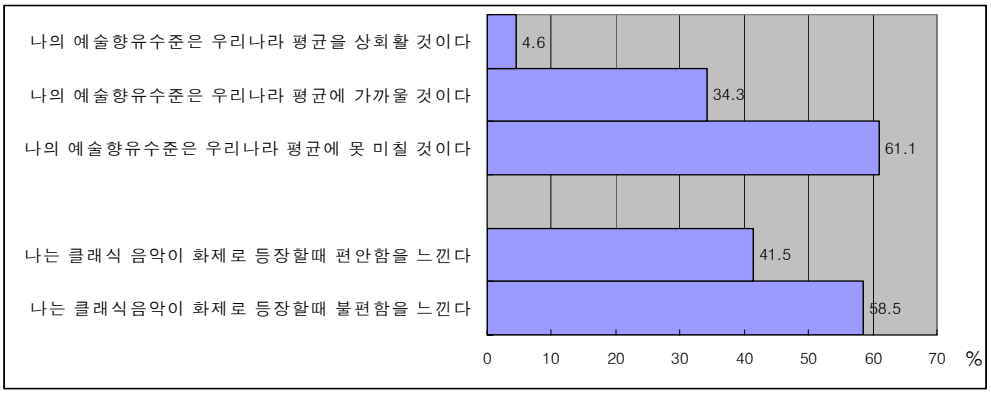
<그림 2-40>소득수준별 동호회 참여율

18세 이전의 교육경험과 가정 내 사회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력을 높여줄 수 있고, 지난1년의 교육경험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교육 경험률과 사회화 정도는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 참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들 집단의 경제적 여건이나 적극적 생활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다.

6.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및 의견

1) 문화향수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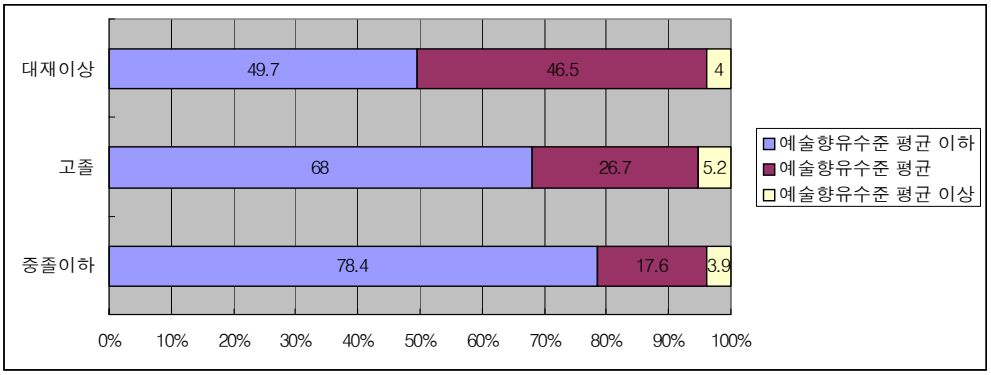
먼저, 자신의 문화향수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게 해 본 결과, 우리나라 평균에 못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만족도가 낮은 것과 관계있어 보인다. 또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 아직까지 순수예술에 대한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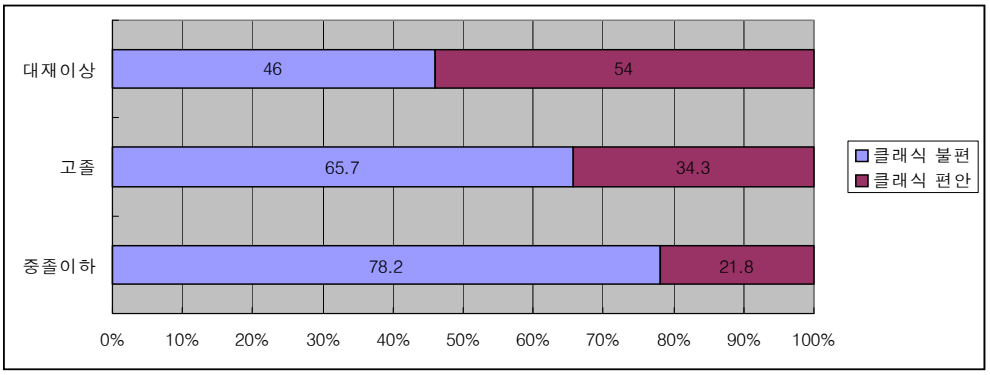
<그림 2-41> 문화향수수준에 대한 태도

이러한 태도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인식, 직업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이 블루칼라층보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의 문화향수수준이 평균을 상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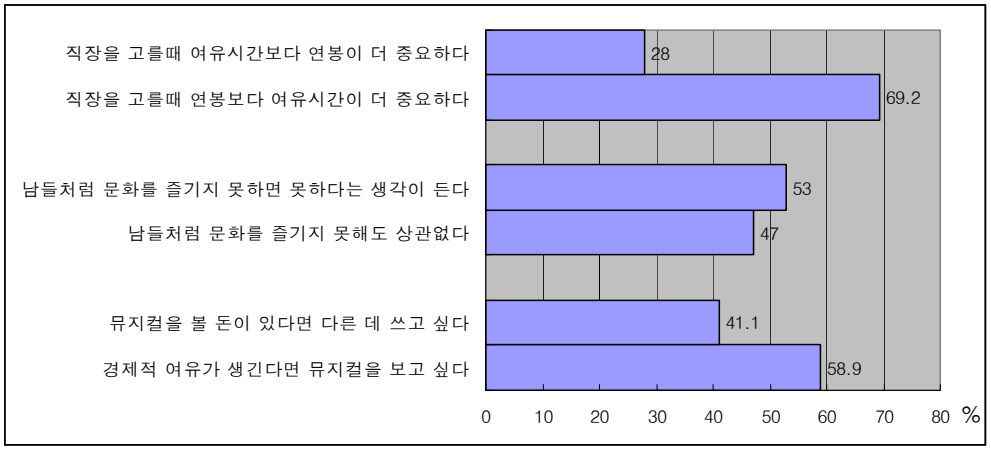
<그림 2-42> 교육수준별 예술향수수준 평가



<그림 2-43> 교육수준별 클래식 음악 친숙도

2)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고를 때 연봉보다는 여유시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이며,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53.0%,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데 보다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향수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4>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 연령이 낮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집단별로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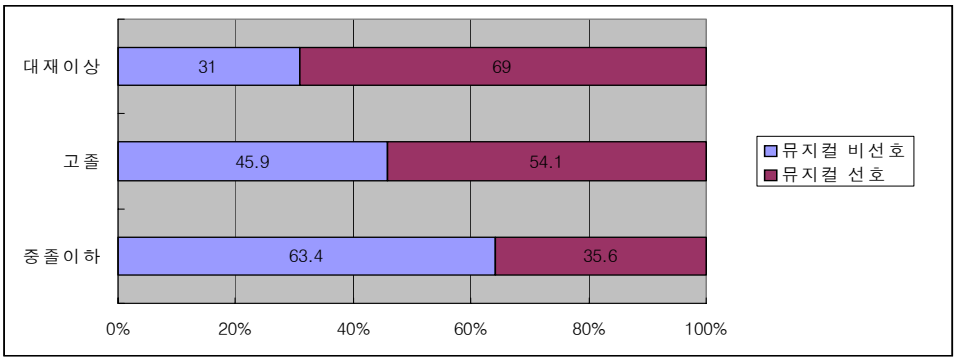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뮤지컬을 보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이 블루칼라층보다 동의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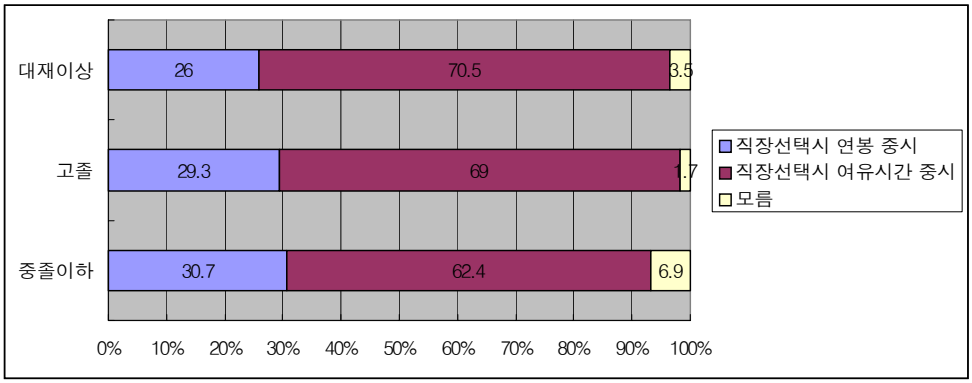
또한 직장을 고를 때 여유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일 높을수록 더욱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부록표 39>참고).

따라서 대체로 학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5> 교육수준별 뮤지컬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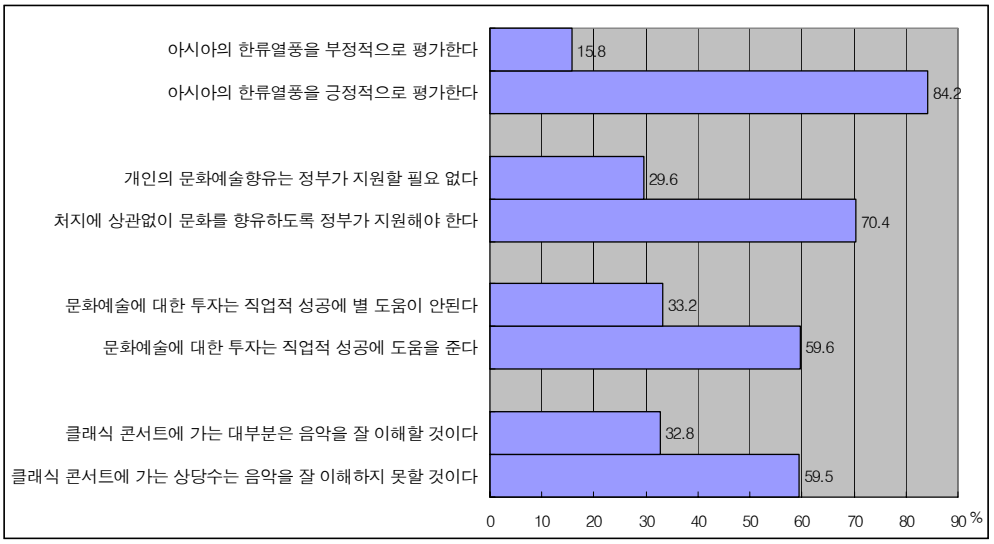


<그림 2-46> 교육수준별 여유시간 중요성에 대한 태도

3) 문화일반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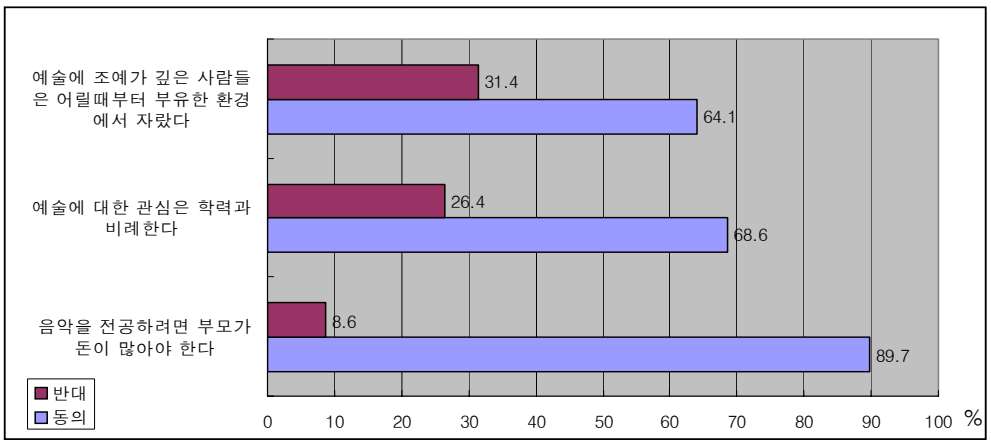
문화일반에 대한 태도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다수가 한류열풍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84.2), 처지에 상관없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70.4),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나 자신의 직업적 성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점(59.6)은 대다수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클래식 콘서트에 가는 상당수는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장에 59.5%가 동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화(특히, 순수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교양'있거나 '부유'해야 하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음악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교양있거나 부유해 보이고 싶어서 클래식 음악회에 간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향수와 사회경제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2-47> 문화 일반에 대한 태도

'음악을 전공하려면 부모가 돈이 많아야 한다'(89.7), '예술에 대한 관심은 학력과 비례한다'(68.6),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64.1) 등에 관해 대다수가 동의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향수 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연령, 학력, 소득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어 사회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8> 문화향수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의 관계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문화예술 향수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며, 클래식 음악과 같은 순수예술에 대해 거리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욕구는 큰 편이다. 대부분이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며 더 많이 향수하고 싶어 한다. 반면에 대부분이 문화향수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 간의 상관성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통념인 듯 하다. 따라서 저렴하게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III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1: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1.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의한 분류
2.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3. 문화적 우위집단
4. 경제적 우위집단
5.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6. 집단간의 문화격차: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효과

제 III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1: 경제자본과 문화 자본[7)]

1.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의한 분류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들 수 있다. 소득과 같은 경제력은 개인이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며 문화자본은 개인의 문화해득력과 관심, 취향을 결정하여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개인의 문화향수에 가지는 효과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인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을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한 뒤 집단별 문화향수 실태를 비교하여 보았다.

문화자본은 학력을, 경제자본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 학력이 대재이상이며 소득은 300만원 이상[8)]일 경우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 학력은 대재이상이나 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문화적 우위집단,
- 학력은 고졸이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경제적 우위집단,
- 학력은 고졸이하, 소득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경제적·문화적 비우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3-1>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에 의한 집단 분류

		경제자본	
		소득 300만원 이상	소득 300만원 이하
문화자본	대재이상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문화적 우위집단
	고졸이하	경제적 우위집단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7) 이 장에서는 '소비양식에 미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상대적 효과'(장미혜, 2001)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8) 소득 중간값으로 평균을 구한 결과 306만원이 나와 3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3-2>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분포에 따른 집단별 특성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경제적 우위집단	문화적 우위집단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사례수(명)		430	312	180	361
평균연령(세)		44.53	44.42	33.03	33.93
소득수준		197.1만원	382.1만원	221.7만원	412.8만원
직업 (%)	전문/관리/사무직	20.5	23.9	56.1	54.7
	자영업	26.9	17.7	11.1	7.5
	판매서비스/생산직	35.7	44.8	10.6	16.1
주관적 계층 인식 (%)	하층	16.3	1.3	3.9	0.8
	중하층	54.7	29.5	47.2	19.1
	중중층	27.0	58.3	46.7	60.4
	중상층이상*	2.1	10.9	2.2	19.7
거주 지역 (%)	도심권	8.4	4.8	6.1	2.8
	동북권	37.0	36.2	26.7	29.2
	서북권	13.7	11.2	13.9	10.3
	서남권	30.0	27.9	28.3	31.9
	동남권	10.9	19.9	25.0	25.8
주택 유형 (%)	아파트	20.5	40.4	41.7	48.9
	단독주택	48.4	39.1	27.8	31.5
	다세대주택	30.0	20.2	30.6	19.1
점유형태(%)		자가 57.7	자가 82.1	자가 65.6	자가 85.6
성장지(%)		서울 38.7	서울 50.0	서울 57.8	서울 65.7
15세때 가장 직업 (%)	전문/관리/사무직	11.5	13.8	37.6	38.4
	자영업	29.8	35.3	37.1	41.8
	판매서비스/생산직	12.4	13.1	10.7	7.2
	농어민	45.9	37.8	14.6	12.6
부친 학력 (%)	중졸이하	71.3	62.8	32.8	24.0
	고졸	25.3	34.0	52.2	51.5
	대재이상	3.3	3.2	15.0	24.4
사회화		0.15	0.18	0.32	0.40
예술교육경험(%)		있음 6.7	있음 5.4	있음 20.0	있음 28.3

*상층의 경우 사례수가 3개에 불과하여 중상층과 상층을 하나로 묶음

2.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1) 집단의 특성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은 구성원이 소득은 300만원 이상, 학력은 대재이상인 집단

으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가장 풍부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평균연령은 33.9세로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과 경제적 우위집단보다 젊다.
-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사무직이 54.7%로 많으며, 이중에서 특히 전문직이 10.3%로 가장 많다. 반면에 판매서비스/생산직의 비율이 7.5%로 가장 낮으며 자영업의 비율이 16.1%로 낮은 편이다.
- 이에 따라 주관적 계층인식도 가장 높아 중중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상층이상의 비율도 19.7%로 가장 높다.
-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동남권(25.8)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심권(2.8)에 가장 적게 거주한다.
- 주거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으며, 85.6%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7%가 서울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세때 가장의 직업은 전문/관리/사무직이 38.4%로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생산직, 농어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 부친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76.0%로 가장 높아 부모의 문화자본도 가장 풍부함을 알 수 있다.
- 18세 이전 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비율도 28.3%로 가장 높고, 가정내 예술경험을 통한 사회화 정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향수 실태

이러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은 문화예술향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의 경우 예술행사 관람도 가장 자주 하고,
- 연주가능한 악기도 0.97개로 가장 많으며,
- 독서권수도 가장 많아 가장 풍부한 문화생활을 향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의 경우도

- 휴식이나 옥내활동과 같이 소극적인 활동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 특히 주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영화관람이나 관광활동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영화관람횟수도 가장 많지만 TV보다는 영화관이나 비디오를 통하여 영화를 관람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TV 시청시간은 가장 짧고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는 응답이 많은 점과도 관련된다.

선호하는 음악장르로는 상대적으로 클래식/오페라와 팝송이 많았으며, 클래식 음악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더 많아 순수예술에 좀더 친숙한 것으로 보인다.

3. 문화적 우위집단

1) 집단의 특성

문화적 우위집단은

- 평균 연령이 33.0세로 가장 젊다.
- 직업구성은 전문/관리/사무직의 비중이 56.1%로 가장 높지만, 이중에서 사무직이 46.1%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높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무직이 가장 전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관적 계층인식은 중하층과 중중층에 몰려있어 경제적 우위집단보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다.
- 거주지역은 동남권이 25.0%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 주택유형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다.
- 소득이 낮은 집단이라 자가의 비율이 65.6%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 15세때 가장의 직업은 전문/관리/사무직이 37.6%로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생산직과 농어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과 유사하며 부친의 학력도 고졸이상이 67.2%로 높다.
- 부모의 문화자본은 또한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다음으로 풍부한데, 사회화와

예술교육 유경험자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주택 점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문화적 우위집단이 경제적 우위집단보다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향수 실태

문화예술향수에서도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보다는 약간 적지만, 다른 집단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 연주가능한 악기 개수도 0.94개로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 영화관람은 더 많이 하되,
- 스포츠레저와 관광활동은 경제적 우위집단보다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이 적은 집단인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여가활동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 영화관람방식도 마찬가지로 TV보다는 영화관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며, TV 시청시간은 짧다.
- 선호하는 음악장르도 마찬가지로 클래식/오페라와 팝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트롯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은 반면 다른 장르(댄스/락/발라드)의 가요에 대한 선호도 높았다.

이것은 문화적 우위집단의 연령이 낮은 것과 관련있다.

4. 경제적 우위집단

1) 집단의 특성

경제적 우위집단은

- 평균 연령이 44.4세로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과 문화적 우위집단보다 높다.

- 직업은 자영업이 4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관리/사무직의 비율은 23.9%로 상대적으로 낮다.
- 이것은 이 집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주관적 계층은 중하층과 중중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상층이상도 10.9%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이 집단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주관적 계층인식을 결정하는 데 학력보다는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암시한다.

- 거주지역은 동북권이 36.2%로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 주택은 아파트의 비율도 높지만 단독주택의 비율도 비교적 높다.
- 또한 82.1%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15세때 가장은 대부분 자영업(35.3)이나 농어업(37.8)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62.8%가 부친학력이 중졸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과 문화적 우위집단보다 부모의 문화자본이 덜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정내 사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적 우위집단의 경우 점수가 0.18로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의 0.40의 절반이하 수준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향수 실태

- 예술행사 관람횟수의 경우는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보다는 많지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주 가능한 악기 개수도 0.35개로 문화적 우위집단의 1/3수준이고
- 독서권수도 0.84권으로 낮은 편이다.
- 반면에 TV 시청시간은 긴 편이고,
-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거나 집에 가면 늘 TV를 켜 놓는다는 응답도 많다.
- 특히, 드라마를 거의 매일 본다는 응답이 비우위집단과 더불어 높았다.
-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은 드라마와 뉴스/시사 프로그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 음악장르로는 트롯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가 없다는 응답도 상

대적으로 많았다.

- 또한 클래식 음악이 화제로 등장할 때 불편하다는 응답이 66.3%로 더 많아 순수예술에 친숙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뮤지컬을 보기 보다는 다른 데 쓰고 싶다는 응답도 44.6%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여가활동의 경우는 문화적 우위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다.

- 주로 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휴식이나 옥내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더 높기는 했지만,
- 스포츠레저나 관광활동 등은 더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문화적 우위집단보다 높았다.

5. 경제적 · 문화적 비우위집단

1) 집단의 특성

경제적 · 문화적 비우위집단은

- 연령이 평균 44.5세로 가장 높았으며,
- 직업은 판매서비스/생산직(26.9)과 자영업(35.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주관적 계층은 중하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하층의 비율이 16.3%로 상대적으로 높다.
- 거주지역은 도심권이 8.4%로 상대적으로 많고, 동남권은 10.9%로 상대적으로 적다.
- 주택의 유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가의 비율은 57.7%로 가장 낮다.
- 성장지가 서울인 비율도 38.7%로 가장 낮았다.
- 15세때 가장의 직업으로는 농어민이 45.9%로 가장 많았고, 부친 학력이 중졸이하가 71.3%로 가장 낮았다.

2) 문화향수 실태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은 문화예술향수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먼저 예술행사 관람횟수가 가장 적었다.
- 연주가능한 악기도 0.26개로 가장 적었으며
- 독서권수도 0.68권에 불과했다.
- 영화 관람횟수도 가장 적었으며 66.7%가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TV 시청시간은 가장 길고, 습관적으로 TV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드라마를 선호하고 있으며, 42.1%가 거의 매일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악장르로는 트롯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선호가 없다는 응답도 8.1%로 높았다.
- 클래식 음악이 화제로 등장할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가장 많아 역시 순수예술에 대해 친숙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여가생활도

- 주로 휴식이나 옥내활동 등 소극적 활동에 머물러 있으며,
- 주말에도 집밖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21.4%에 불과하다.
- 이에 따라 여가활동 만족도도 매우 낮아 만족한다는 응답이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분포에 따른 문화향수실태

(단위 : %)

		경제적·문화적 비우위집단	경제적 우위집단	문화적 우위집단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
주로하는 여가활동 (주중)	휴식/옥내활동	91.4	90.7	88.9	84.2
	스포츠레저	3.0	4.2	3.9	4.7
	일반유흥	3.0	1.3	0.6	4.2
	영화관람	1.9	1.6	3.3	3.9
	기타	0.6	2.2	3.5	3.0
주로하는 여가활동	휴식/옥내활동	78.6	70.1	68.3	52.5
	스포츠레저	10.9	11.9	6.1	13.8

(주말)	일반유흥	3.0	3.9	4.4	3.9
	영화관람	2.3	5.1	13.3	14.9
	관광활동	1.6	4.5	2.8	7.7
	기타	3.5	4.5	5.0	7.2
여가생활 만족도	만족못함	71.2	57.7	58.9	42.7
	보통	19.3	24.0	28.3	34.6
	만족함	9.5	18.3	12.8	22.7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본인교육	3.7	1.6	10.6	9.9
	자녀교육	43.0	48.7	32.2	36.5
	외식	11.2	9.3	15.6	11.6
	문화예술활동	2.1	1.9	3.3	6.9
	건강	30.0	25.6	17.2	11.3
	스포츠 레저/여행	4.2	5.8	10.0	12.2
	외모 가꾸기	5.3	7.1	11.1	11.0
TV 시청시간(주중)		3.10	2.92	2.35	2.23
TV 시청시간(주말)		4.01	3.93	3.57	3.38
TV 시청습관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	43.5	46.0	56.4	54.1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	34.8	34.7	31.8	30.5
	집에 가면 늘 TV를 켜놓는다	21.7	19.3	11.7	15.4
드라마 시청일수	거의 보지 않음	14.4	14.1	25.0	25.4
	1-2일	19.1	19.6	34.4	30.9
	3-4일	24.4	26.9	23.3	28.5
	매일 봄	42.1	39.4	17.2	15.2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뉴스/시사	39.9	45.7	37.4	38.2
	다큐멘터리/교육	3.0	4.5	5.6	6.2
	쇼/오락	10.0	13.2	21.8	19.7
	드라마	37.8	30.9	21.2	22.5
	영화	3.0	3.2	5.0	6.2
	홈쇼핑	0.5	-	-	0.3
	스포츠	5.8	2.6	8.9	7.0
선호하는 음악 장르	클래식/오페라	4.0	3.9	8.3	8.0
	가요(댄스,락,발라드)	37.0	31.6	63.3	56.5
	가요(트롯)	44.2	52.1	8.9	17.5
	국악	0.5	1.6	0.6	0.3
	영화음악	2.6	1.0	4.4	5.3
	팝송	2.8	3.5	10.0	10.0
	기타	0.9	1.6	0.6	0.6
	없음	8.1	5.8	3.9	1.9
영화 관람횟수		1.27	1.72	2.62	3.00

영화관람 방식	영화관	12.6	18.9	33.9	40.6
	비디오/DVD	19.3	24.4	29.4	30.7
	인터넷/컴퓨터	1.4	2.6	3.9	4.1
	TV	66.7	54.2	32.8	24.6
독서권수		0.68	0.84	1.16	1.26
예술행사 관람횟수	전통예술	0.14	0.20	0.26	0.24
	연극	0.26	0.28	0.58	0.64
	대중음악	0.21	0.27	0.43	0.48
	무용	0.05	0.04	0.03	0.08
	클래식/오페라	0.03	0.06	0.16	0.21
	미술전시	0.21	0.32	0.53	0.68
	뮤지컬	0.09	0.12	0.19	0.30
연주가능한 악기 갯수		0.26	0.35	0.94	0.97
클래식 음악 친숙도	대화시 불편함을 느낌	68.1	66.3	48.9	44.2
	대화시 편안함을 느낌	31.9	33.7	51.1	55.8
뮤지컬 감상 선호도	다른 데 쓰고 싶다	50.5	44.6	34.4	28.7
	뮤지컬을 보고 싶다	49.3	55.4	65.5	71.3

종합하면, 예술행사 관람횟수나 선호하는 음악장르 등 문화예술향수에 있어서는 문화적 우위집단과 경제적·문화적 우위집단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문화적 우위집단이 문화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순수예술에 더 친숙하거나 분명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본인교육이나 문화예술활동, 스포츠레저활동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향수에 있어서 문화자본이 경제자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여가활동에서는 경제적 우위집단과 문화적 우위집단의 차이가 적어, 여가활동에서는 경제자본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집단간의 문화격차 :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대적 효과

1) 다항로짓 분석의 구성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들 수 있다. 소득과 같은 경제력은 개인이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며 문화자본은 개

인의 문화해득력과 관심, 취향을 결정하여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독립변수들을 통제하는 다항로짓분석을 통하여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자본으로는 평균 월소득과 주택소유여부, 본인의 문화자본으로는 교육수준, 18세이전 예술교육경험, 가정내 성인을 통한 예술경험(사회화), 18세이전 성장지, 부모의 문화자본으로는 부친의 학력, 15세때 가장의 직업을 들 수 있다.

종속변수는 지난1년간의 영화, 연극, 대중음악,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전통예술, 미술전시회, 무용공연 **관람횟수**이다. 또한 취향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를 설정하였다.

<표 3-4> 변수설명

변수		변수설명
성		남성:1 여성:0
연령		- 세
경제자본	소득	300만원 이상:1 300만원 이하:0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1 주택비소유:0
본인의 문화자본	교육수준	중졸이하:0 기준으로 고졸과 대재이상을 더미변수로 처리
	예술교육경험	있음:1 없음:0
	사회화	각 항목 (있음:1, 없음:0)의 평균
	18세이전 거주지역	서울:1, 서울외지역:0
부모의 문화자본	부친의 학력	중졸이하:0을 기준으로 고졸과 대재이상을 더미변수로 처리
	15세때 부친의 직업	농어민:0을 기준으로 블루칼라(자영업・생산직・판매서비스직), 화이트칼라(전문직・관리직・사무직)을 더미변수로 처리
예술행사관람횟수		- 회

2) 문화 향수의 측면: 문화예술행사 관람

모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통합모델 4에서 보면, 독립변수 중에서 연령, 소득300만원이상, 주택소유여부, 예술교육경험, 사회화, 부친학력(대재이상)이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이 낮을수록,
- 소득 300만원 이상이 이하보다 문화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하며,
- 주택 소유자가 비소유자보다,
- 18세이전 예술교육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 또한 가정 내 성인을 통하여 문화예술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 부친의 학력이 대재이상인 경우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더 많이 관람한다.
- 그러나 본인의 교육수준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문화예술행사 관람 로짓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β)	B(β)	B(β)	B(β)
상수		13.515***	15.977***	13.948***	13.882***
성		.222(.012)	.078(.004)	.383(.021)	.292(.016)
연령		-.238(-.309)***	-.306(-.397)***	-.262(-.338)***	-.261(-.338)***
경제자본	소득 300만원이상		1.655(.091)***	1.488(.081)**	1.383(.076)**
	주택소유		1.236(.060)*	.969(.047)	1.053(.076)*
본인의 문화자본	교육수준				
	고졸	-.326(-.018)		-1.168(-.064)	-.883(-.048)
	대재이상	.422(.023)		-.742(.483)	-.620(-.567)
	예술교육경험	2.222(.086)**		2.331(.089)***	2.173(.084)**
	사회화	5.030(.151)***		5.177(.155)***	4.781(.144)***
	성장지 서울	1.042(.057)*		.665(.036)	.768(.042)
부모의 문화자본	부친 학력				
	고졸	.391(.681)	.740(.039)		.247(.428)
	대재이상	2.243(.076)*	3.626(.124)***		1.887(.064)*
	부친직업				
	화이트칼라	-.871(-.040)	.034(.002)		-.701(-.032)
	블루칼라	-.523(-.029)	-.012(-.019)		-.493(-.027)
F값		37.194***	45.830***	47.048***	32.478***
조정된 R^2		.238	.219	.244	.245
모델4와의 조정된 R^2의 차이		-.007	-.026	-.001	

*** p< .001 **p< .01 *p< .05

경제자본과 본인의 문화자본, 부모의 문화자본을 각각 제외시킨 모델들을 비교하여 보면, 먼저 경제자본의 효과를 보여주는 독립변수들을 제외시킨 모델1의 경우 조정된 결정계수가 0.238이고 본인의 문화자본 효과를 보여주는 독립변수들을 제외시킨 모델2의 경우는 조정된 결정계수가 0.219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문화자본 효과를 보여주는

독립변수들을 제외시킨 모델3의 경우는 종속변수의 분산을 24.4% 설명해주고 있다.

각 모델1,2,3,과 모델4와의 조정된 결정계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결정계수의 값은 부모의 문화자본을 제외시킨 모델, 경제자본을 제외시킨 모델, 본인의 문화자본을 제외시킨 모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반대로 모델2>모델1>모델3 이다.

즉 본인의 문화자본>경제자본>부모의 문화자본의 순으로 관람횟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9].

3) 문화 취향의 측면: 선호하는 음악장르

선호하는 음악장르에 대해서 위와 같은 변수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국악과 영화음악, 기타는 사례수가 적어서 분석시 오류가 발생하여 제외하였고, 발라드, 댄스, 락은 하나로 묶어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 성별은 트로트에 대한 선호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남성보다 트로트를 좋아할 확률이 낮다.
- 연령은 모든 장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연령이 높을수록 가요(발라드/댄스/락)보다는 클래식/오페라, 팝송, 트로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요(발라드/락/댄스)를 선호하는 연령층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
- 소득은 트로트에 대한 선호도에만 영향을 미쳐 소득 300만원이상인 계층이 소득 300만원이하인 계층보다 트로트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의 교육정도는 트로트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쳐 대재이상에 비해 중졸이하와 고졸인 경우 트로트를 좋아할 확률이 더 높다.
- 사회화는 클래식/오페라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내 사회화 경험이 많을수록 클래식/오페라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

9) 장미혜(2001:181-183)의 연구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종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본인의 경제자본>본인의 문화자본>부모의 문화자본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예술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문화자본을 본인의 학력만 가지고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와 정확히 비교하기는 힘들다.

-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나 고졸인 경우가 대재 이상인 경우보다 클래식/오페라나 팝송을 덜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
- 부친의 직업은 트로트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친의 직업이 농어민인 경우 다른 직업군인 경우에 비해 트로트를 더 선호할 확률이 높다.

<표 3-6> 선호하는 음악장르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클래식/오페라	팝송	트로트
성			
남성			
여성	-.324	-.394	-.740***
연령	.009***	.004*	.156***
소득			
300만원이하			
300만원이상	-.008	.282	.584**
주택소유여부			
소유			
비소유	-.638	.515	-.256
본인학력			
중졸이하	-1.640	-1.116	1.065*
고졸	-.340	-.643*	.772**
대재이상			
예술교육경험			
있음			
없음	-.452	-.316	.511
사회화	1.464**	-.009	-.140
성장지			
서울			
서울외	.575	.204	.331
부친학력			
중졸이하	-.956*	-1.019*	.010
고졸	-.863*	-1.236**	.230
대재이상			
부친직업			
화이트칼라	-.891	-.160	-.842*
블루칼라	-.589	.123	-.535*
농어민			
-2 Log Likelihood	1706.438***		
Cox and Snell R^2	.459		

*** p< .001 **p< .01 *p< .05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사회화 경험이 많을수록 가요보다는 클래식/오페라나 팝송을 선호하며, 본인의 학력이 낮고 부친의 직업이 농어민인 경우 트로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음악장르에 대해서도 경제자본보다는 본인의 학력이나 부모의 학력과 같은 문화자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클래식/오페라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부모의 학력과 사회화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향을 형성함에 있어서 부모에게서 전승된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0].

10) 장미혜(2001:183-185)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중가요에 비해서 클래식 음악 및 팝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미혜는 대중가요를 기준으로 하여 클래식, 국악, 경음악, 팝송에 대하여 다항로짓분석을 하는 등 본 연구와는 약간 다른 분석틀을 이용하여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제 IV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2 : 주관적 계층

1. 주관적 계층의 특성
2. 여가 활동과 태도
3. 미디어 문화 향수
4. 문화예술 경험
5. 주관적 계층의 문화격차

제 IV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2 : 주관적 계층

1. 주관적 계층의 특성

1) 주관적 계층과 문화향수

주관적 계층인식은 많은 부분 소득이나 직업, 교육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동시절 예술교육 경험이나 현재 문화향수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소비문화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 이제 어떠한 형태의 소비에 대한 취향을 지니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의 일원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장미혜, 2001:1-2), 그러한 소비양식 중에서 문화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주관적 계층인식은 문화향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합당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계층인식으로 파악된 주관적 계층과 문화향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2) 주관적 계층의 특성

대표적인 주관적 계층별 특성을 알아보자.

하층의 경우는

- 평균연령이 50.8세로 다른 계층보다 10세 가량 많고,
-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하가 91.7%로 대부분이고,
- 교육수준은 대재이상이 11.4%로 가장 낮다.
- 직업은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 주거형태는 다세대주택, 전세의 비율이 높다.
- 15세때 가장의 직업으로는 농어민이 가장 많고 부친은 81.8%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층 이상의 경우는

- 소득수준은 300만원 이상이 89.1%로 대부분이고,

- 교육수준은 대재이상이 63.9%로 가장 높다.
- 직업별로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주거형태는 아파트, 자가가 가장 많으며,
- 64.2%가 서울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세때 가장 직업으로는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친 학력도 고졸이상이 60.8%로 가장 높았다.

<표 4-1> 주관계층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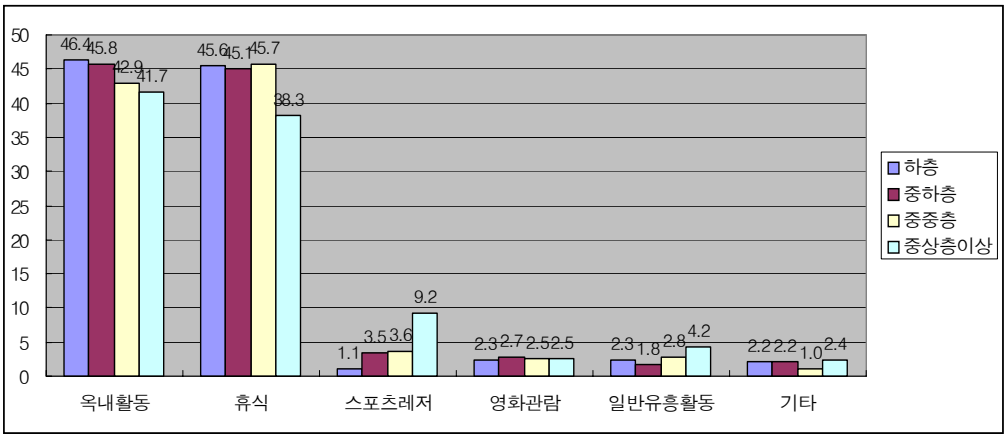
		하층	중하층	중중층	중상층이상*
사례수(명)		88	487	604	120
평균연령(세)		50.0세	39.9세	39.0세	40.0세
소득수준		300만원이상 8.3%	300만원이상 33.5%	300만원이상 66.6%	300만원이상 89.1%
교육수준		대재이상 11.4%	대재이상 32.0%	대재이상 50.1%	대재이상 63.9%
직업 (%)	전문/관리/사무직	21.5	34.7	38.0	40.8
	판매서비스/생산직	34.1	20.3	13.6	9.1
거주 지역 (%)	도심권	12.5	6.4	4.6	2.5
	동북권	34.1	39.3	35.1	35.8
	서북권	9.1	14.3	11.6	9.2
	서남권	35.2	28.5	28.1	39.2
	동남권	9.1	21.5	20.5	13.3
주거유형(%)		아파트 17.0	아파트 29.0	아파트 41.4	아파트 51.7
점유형태(%)		자가 37.5	자가 61.8	자가 81.8	자가 94.2
성장지(%)		서울 33.0	서울 44.6	서울 57.5	서울 64.2
15세 때 가장 직업 (%)	전문/관리/사무직	13.7	16.9	26.9	37.0
	자영업	19.5	34.6	39.6	30.3
	판매서비스/생산직	8.0	16.9	7.6	4.2
	농어민	56.3	31.5	25.4	28.6
부친학력(%)		중졸이하 81.8	중졸이하 57.9	중졸이하 43.9	중졸이하 29.2
사회화		0.11	0.19	0.30	0.38
예술교육경험(%)		있음 8.0	있음 9.9	있음 16.6	있음 25.8

*상층의 경우 사례수가 3개에 불과하여 중상층과 상층을 하나로 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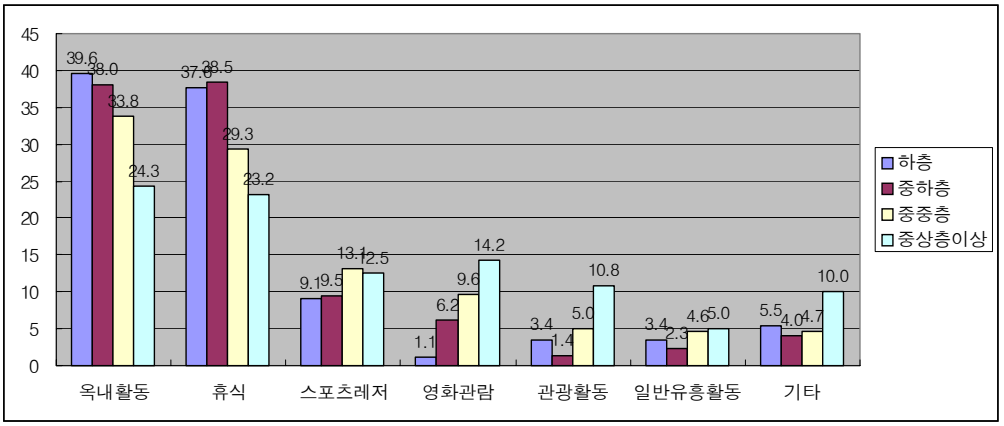
2. 여가 활동과 태도

1)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경우,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휴식이나 옥내활동과 같은 소극적 활동보다 스포츠레저활동, 영화관람, 관광활동 등 적극적 유형의 여가를 더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x^2=54.389**)보다는 주말(x^2=98.164***)에 통계적 유의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소득이나 시간적 여유와 같은 여건이 허락해서 가능하겠지만,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삶에 있어서 여가나 문화생활에 가치를 더 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림 4-1> 주관계층별 주중 여가활동



<그림 4-2> 주관계층별 주말 여가활동

2) 문화 생활에 대한 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레져/스포츠와 문화예술활동, 본인교육과 같은 여가분야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4-2>주관계층별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단위:%)

구 분	본인교육	자녀교육	외식	문화예술 활동	건강	레져/스포츠/여행	외모 가꾸기	x^2
하층	2.3	31.0	9.2	1.1	40.2	5.7	10.3	
중하층	4.7	42.5	12.5	3.3	24.8	5.3	6.8	
중중층	6.6	41.2	10.6	4.0	19.3	9.6	8.0	42.378***
중상층이상	9.3	40.8	12.3	4.2	13.3	9.2	10.8	
전체	5.9	41.0	11.4	3.5	22.2	7.7	8.3.	

*** p< .001 **p< .01 *p< .05

이러한 실태는 곧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연결되는데,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인 경우 전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37.6)은 상대적으로 많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하여 여가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계층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주관계층별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여가활동 만족도 평가					계	x^2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하층	37.5	46.6	10.2	4.5	1.1	100.0	
중하층	15.8	51.7	21.8	9.9	0.8	100.0	
중중층	8.3	42.2	30.5	17.1	2.0	100.0	114.051***
중상층	7.5	33.3	30.8	25.0	3.3	100.0	
전체	13.0	45.3	25.9	14.2	1.6	100.0	

*** p< .001 **p< .01 *p< .05

3. 미디어 문화 향수

1) TV 시청 양태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중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말의 경우 주관적 계층간 TV 시청시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사후검증 결과 중하층과 중상층이상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관계층별 1일 평균 TV시청 시간

	주중	주말
하층	2.9	3.9
중하층	2.8	3.9
중중층	2.7	3.7
중상층이상	2.5	3.2
F값	1.469	4.732**

*** p< .001 **p< .01 *p< .05

TV 시청습관은 주관계층별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할 일이 없으면 TV를 켜 놓거나 집에 가면 늘 TV를 켜 놓기보다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중상층이상 계층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표 4-5> 주관계층별 TV 시청습관

(단위:%)

	보고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	집에가면 늘 TV를 켜 놓는다	x^2
하층	43.2	35.1	21.7	14.370*
중하층	45.7	36.2	16.4	
중중층	49.7	32.5	17.8	
중상층이상	63.9	22.7	13.4	

*** p< .001 **p< .01 *p< .05

2) 선호 음악 장르

선호하는 음악장르를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클래식/오페라와 팝송을 선호하며, 트롯은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롯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과 관련있는 것 같다. 또한 선호하는 장르가 없다는 응답이 하층의 경우 10.4%로 그런 응답이 전혀없는 중산층이상과 대조적이다.

<표 4-6> 주관계층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단위:%)

	클래식/오페라	가요(댄스)	가요(락)	가요(발라드)	가요(트롯)	팝송	영화음악	국악	기타	없음	x^2
하층	4.5	5.7	2.3	21.6	48.7	3.4	1.1	1.1	1.1	10.4	68.093 ***
중하층	3.5	12.1	3.7	31.0	35.0	6.0	2.9	0.4	0.4	5.1	
중중층	6.6	14.2	4.3	27.9	30.7	6.1	3.5	0.5	0.7	5.5	
중상층이상	10.1	15.8	3.3	17.4	34.2	8.3	4.2	2.5	4.2	-	
전체	5.6	13.0	3.8	27.7	33.8	6.1	3.2	0.7	0.9	5.2	

*** p< .001 **p< .01 *p< .05

4. 문화예술 경험

1) 관람과 참여

주관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관람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예술공연과 대중음악공연, 무용공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뮤지컬은 사후검증결과 계층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 통계적 검증 결과,

- 연극의 경우는 중상층이상과 하층의 관람횟수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 클래식/오페라는 중상층이상이 하층과 중하층에 비해서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술전시회는 중상층이상이 하층, 중하층, 중중층에 비해서 더 많이 관람하며, 하

층, 중하층, 중중층 간에 차이는 없다.

- 영화는 하층과 중하층에 비해서 중중층과 중상층이 더 많이 관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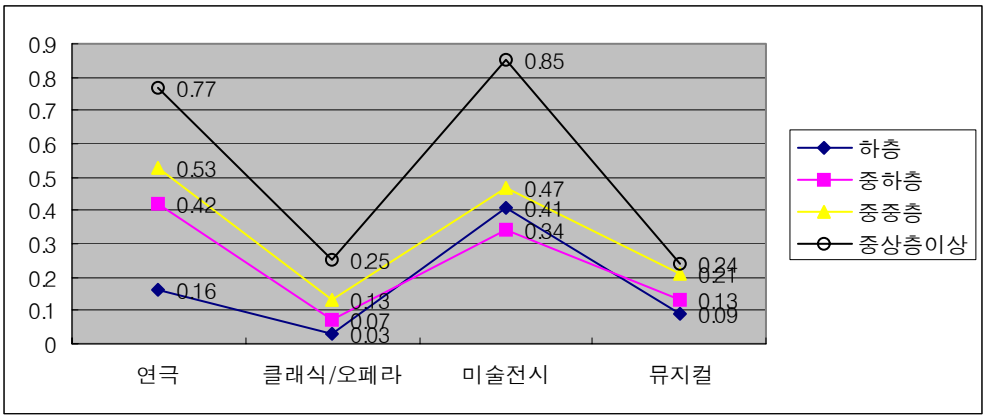
따라서 중상층이상의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주관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회)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영화
하층	0.32	0.16	0.25	0.08	0.03	0.41	0.09	1.92
중하층	0.17	0.42	0.46	0.03	0.07	0.34	0.13	3.47
중중층	0.22	0.53	0.44	0.12	0.13	0.47	0.21	4.81
중상층이상	0.37	0.77	0.54	0.08	0.25	0.85	0.24	6.40
전체	0.22	0.48	0.44	0.08	0.11	0.45	0.17	4.26
F값	2.135	3.734*	0.281	0.512	5.178***	7.179***	2.814*	11.106***

*** p< .001 **p< .01 *p< .05



<그림 4-3> 주관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2) 예술 체험

연주가능한 악기 개수를 살펴보면, 역시 주관계층이 높을수록 연주가능한 악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중상층이상이 하층과 중하층보다 더 많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며, 중중층은 하층보다 더 많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이것은 18세이전 예술교육경험이 있는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예술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표 4-8> 주관계층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하층	중하층	중중층	중상층이상	전체	F값
악기개수	0.31	0.49	0.64	0.78	0.6	5.990***

*** p< .001 **p< .01 *p< .05

실제로 18세이전 예술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은 연주가능한 악기개수가 1.41개, 경험이 없는 사람은 0.44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9> 예술교육경험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연주가능한 악기 개수	t값
교육경험 있음	1.41	9.881***
교육경험 없음	0.44	

*** p< .001 **p< .01 *p< .05

또한 주관계층이 높을수록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끼며,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 쓰기보다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주관계층별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단위:%)

		하층	중하층	중중층	중상층이상	x^2
클래식 음악 친숙도	대화시 불편함을 느낌	70.5	61.0	57.1	46.7	13.816**
	대화시 편안함을 느낌	29.5	39.0	42.9	53.3	
뮤지컬 감상 선호도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 쓰고 싶다	63.6	44.6	38.1	25.0	37.081***
	뮤지컬을 보고 싶다	36.4	55.4	61.8	75.0	

*** p< .001 **p< .01 *p< .05

5. 주관적 계층의 문화격차

1) 문화향수의 차이

주관적 계층별로 문화향수에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하고 적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며, 클래식음악과 팝송을 선호한다. 주관적 계층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많고 학력이 높은 것과 일관성을 지니는데, 이것은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에 영향을 끼쳐 더 높은 수준의 문화향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2) 계층의식과 문화격차

또한 주관적 의식이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상류층은 어떠한 취향을 가지며,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러한 계층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합당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그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스스로를 그러한 계층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주관적 계층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제 V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3 : 세대

1. 세대별 특성
2. 여가활동과 문화향수
3. 문화예술과 생활에 대한 태도

제 Ⅴ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3 : 세대

1. 세대별 특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대를 2035, 386, 기성세대로 분류하였다. 87민주화 항쟁을 대학생으로서 경험하였느냐를 기준으로 386세대를 분류한 것이다.

기성세대는 대부분 빈곤한 아동시절을 보내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을 청·장년기에 경험한 세대로, 오직 경제발전이 화두였던 세대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386세대는 어느 정도 경제발전의 열매를 나누어가진 세대로 88올림픽 이후 문화적으로 자유로워진 분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세대의 문화향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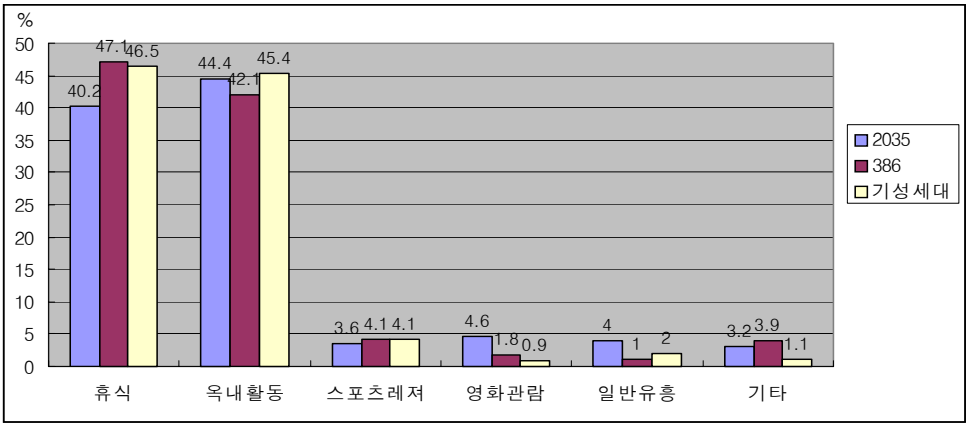
2035세대는 고도경제성장 속에서 높은 소비성향과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지닌 세대다. 사회나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삶, 개인적인 것을 매우 중시한다(중앙일보, 2004년 10월 4일자). 아동기에 예술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한국영화의 붐이나 게임산업, 한류열풍 등 문화 콘텐츠의 파워를 경험한 이들에게 문화는 매우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2. 여가 활동과 문화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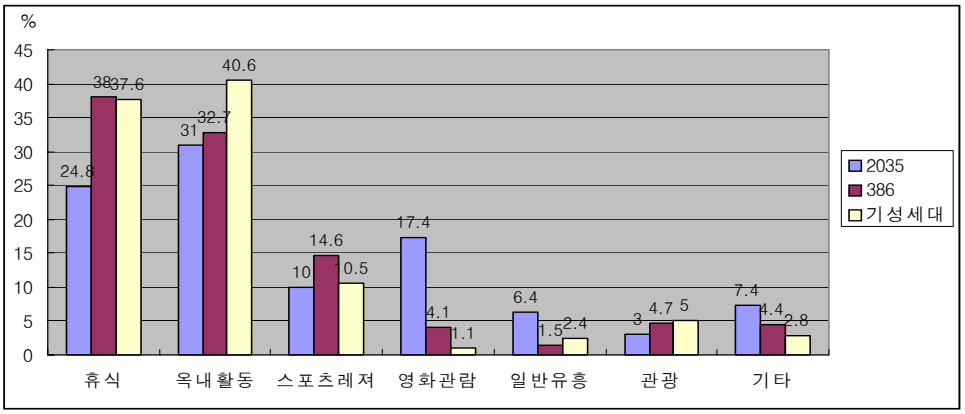
1) 여가활동과 만족도

주로 하는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젊은 2035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휴식이나 옥내활동과 같은 소극적 활동보다 적극적 활동을 더 많이 하며 그 차이는 주중(χ^2=37.345*) 보다 주말(χ^2=158.336***)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35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영화관람과 일반유흥활동을 더 즐기고 있으며,
- 386세대는 휴식과 스포츠레져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성세대는 옥내활동을 약간 더 많이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인다.



<그림 5-1> 세대별 주중 여가활동



<그림 5-2> 세대별 주말 여가활동

여가생활 만족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서 세대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대보다는 각자의 개별적인 경제적·시간적 여건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여가생활에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기성세대가 가장 많은 반면에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도 기성세대에서 가장 많았다.
- 2035세대의 경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적은 반면에 만족이라는 응답도 적고 대신 보통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 386세대의 경우는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불만족의 응답이 기성세대와 같은 61.1%이고 대신에 만족 응답은 가장 낮은 12.9%에 그쳐 전체적으로 만족도

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세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평가

(단위:%)

	여가생활 만족도 평가					x^2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35세대	8.8	43.4	30.8	15.8	1.2	34.548***
386세대	13.7	49.4	24.0	12.6	0.3	
기성세대	17.2	43.9	22.1	13.8	3.1	
전체	13.0	45.3	25.9	14.2	1.6	

*** p< .001 **p< .01 *p< .05

2) 문화에 대한 취향

문화에 대한 취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대별로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386세대나 기성세대가 2035세대보다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 2035세대는 쇼/오락 프로그램과 영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세대별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단위:%)

	뉴스/시사	다큐멘터리/교육	쇼/오락	드라마	영화	홈쇼핑	스포츠	없음	모름/무응답	x^2
2035세대	26.8	4.6	30.6	24.4	6.6	0.2	6.4	0.2	0.2	197.423***
386세대	47.1	4.7	6.1	31.9	2.3	0.3	6.1	0.6	0.9	
기성세대	51.1	4.4	4.6	32.1	2.8	0.2	4.6	0.2	-	

*** p< .001 **p< .01 *p< .05

선호하는 음악장르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 젊은 2035세대는 댄스, 락, 발라드와 같은 종류의 가요를 선호하고, 영화음악과 팝송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86세대는 발라드와 트로트, 클래식 음악을 더 선호하며, 기성세대는 66.2%가 트로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세대별 선호하는 음악장르

(단위:%)

	클래식/오페라	가요(댄스)	가요(락)	가요(발라드)	가요(트롯)	팝송	영화음악	국악	기타	없음	x^2
2035세대	4.8	23.0	9.0	41.0	4.6	0.2	5.2	0.4	0.8	2.0	547.396***
386세대	7.3	11.4	0.6	32.7	33.3	0.6	3.5	4.4	-	6.1	
기성세대	5.2	3.5	0.7	9.2	66.2	1.3	0.7	3.7	1.7	7.9	

*** p< .001 **p< .01 *p< .05

3)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전통예술공연과 무용공연을 제외하고는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사후검증 결과,

- 연극과 영화, 뮤지컬은 2035세대가 가장 많이 관람하고 다음이 386세대, 그 다음이 기성세대로, 기성세대의 관람횟수가 가장 적다.
- 대중음악과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2035세대의 관람횟수가 386이나 기성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술전시회에는 2035세대와 386세대가 기성세대 보다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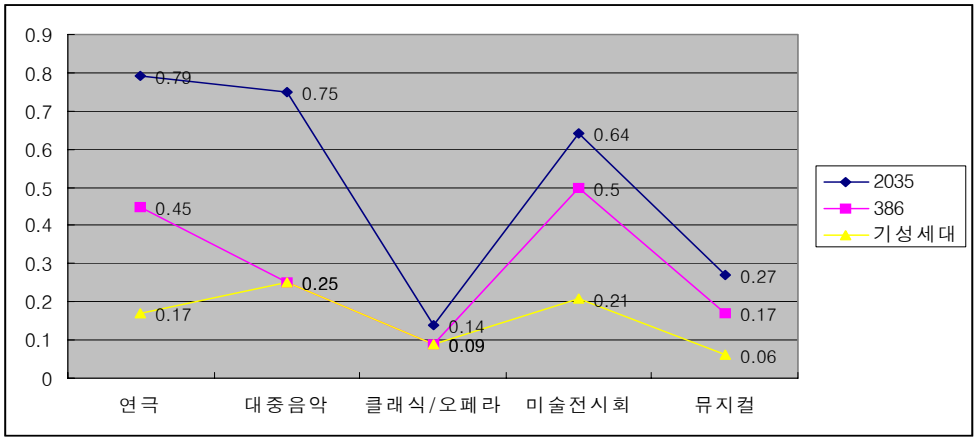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볼 때, 2035세대, 386세대, 기성세대의 순으로 관람횟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5-4> 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회)

	전통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공연	무용공연	클래식오페라공연	미술전시회	뮤지컬	영화
2035세대	0.23	0.79	0.75	0.08	0.14	0.64	0.27	7.85
386세대	0.24	0.45	0.25	0.16	0.09	0.50	0.17	2.90
기성세대	0.19	0.17	0.25	0.03	0.09	0.21	0.06	1.38
F값	2.489	42.235***	24.295***	2.203	3.574*	27.255***	16.460***	300.207***

*** p< .001 **p< .01 *p< .05



<그림 5-3> 세대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이렇게 세대별로 여가활동이나 취향, 문화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여가나 문화생활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생애주기에 의해서 각 연령 대에 삶의 다른 분야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문화예술과 생활에 대한 태도

1) 문화예술의 경험과 교육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발전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즐기고 풍요롭게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88 올림픽 등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 인재를 키우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는 아동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서양악기나 미술 등을 가르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가정 내에서도 자연스레 예술교육이 행해졌다. 세대별 18세 이전 예술교육 경험이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세대일수록 가정 내에서나 외에서 예술을 체득할 기회가 많았다.

<표 5-5> 세대별 성인 이전 예술교육 경험

(단위:%)

	없음	있음	x^2
2035세대	74.8	25.2	81.528***
386세대	90.1	9.9	
기성세대	94.3	5.7	

*** p< .001 **p< .01 *p< .05

<표 5-6> 세대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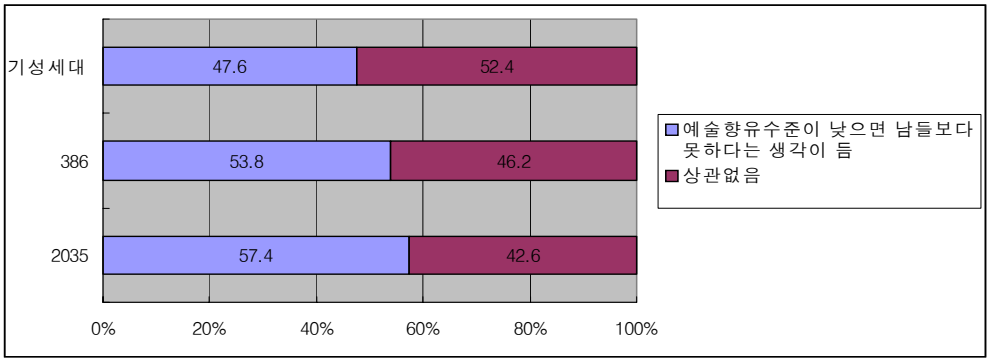
	클래식 청취		공연·전시회 동행		여행 중 문화유적 답사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화가의 진품그림 소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2035세대	71.0	29.0	74.8	25.2	41.5	58.5	43.8	56.2	88.6	11.4
386세대	81.3	18.7	86.0	14.0	54.4	45.6	62.3	37.7	91.2	8.8
기성세대	93.7	6.3	94.1	5.9	73.6	26.4	77.9	22.1	94.8	5.2
x^2	87.178***		68.977***		100.570***		117.327***		11.647**	

*** p< .001 **p< .01 *p< .05

2)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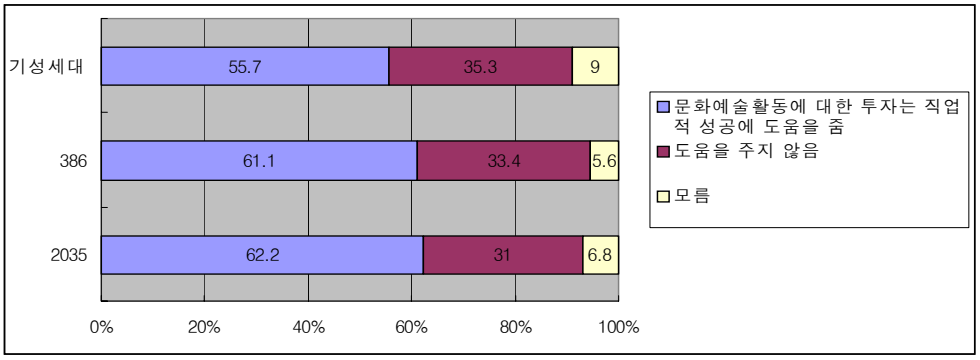
이러한 예술교육경험은 젊은 세대들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다.

-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 2035세대는 57.4%가 동의하는 데 비해서 기성세대는 47.6%가 동의하고 있다(x^2=9.339**).



<그림 5-4> 세대별 예술향수수준에 대한 남들과의 비교 태도

-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적 성공에 대해서도 2035세대가 '관련있다'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62.2%로 가장 높다(x2=17.977*).



<그림 5-5> 세대별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적 성공에 대한 태도

-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편안하다는 비율도 2035세대(45.8%)와 386세대(45.9%)가 높다.
- 그러나 선호하는 음악장르에 대해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5세대가 가장 낮았다.

이것은 세대가 공유하는 시대적 배경뿐 아니라 연령이라는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035세대는 상대적으로 댄스와 락 음악을 선호하고 쇼/오락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더 선호할지는 미지수이다.

3) 생활에 대한 투자의향

상대적으로 생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에서는 연령대별 특징들이 드러난다.

- 2035세대는 아직 미혼이거나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고, 대신에 외식이나 문화예술활동, 레져/스포츠/여행, 외모 가꾸기 등에 많이 투자하는 양상을 보인다.
- 386세대는 자녀가 보통 학생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며, 자연스레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 기성세대의 경우도 아직 자녀가 아직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투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나이가 듦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5-7> 세대별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단위:%)

구 분	본인교육	자녀교육	외식	문화예술 활동	건강	레져/스포츠/여행	외모 가꾸기	x^2
2035세대	12.0	22.2	16.0	7.8	12.4	12.0	17.0	400.927***
386세대	2.3	67.8	5.8	1.5	14.6	5.0	2.9	
기성세대	2.0	41.3	10.5	0.4	38.2	5.0	2.6	
전체	5.9	41.0	11.4	3.5	22.2	7.7	8.3.	

*** p< .001 **p< .01 *p< .05

젊은 세대일수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나 외모가꾸기가 많지만,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그 분야에 이만큼 투자를 계속할지는 알 수 없다. 아마 그 전 세대보다는 문화예술활동이나 여가생활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지만, 자녀교육이나 건강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될 것이다.

종합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적극적 유형의 여가활동을 즐기며 문화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5세대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사나 뉴스 프로그램보다 쇼/오락 프로그램과 영화를 선호하며, 음악장르로는 댄스나 락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나 레져/스포츠/여행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한다. 2035세대는 성장기의 물질적 풍요에 힘입어 다른 세대보다 어린시절 예술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향수수준이나 취향이 시대적 변화뿐 아니라 생애주기 단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연령효과를 분리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VI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4 : 지역

1. 지역별 시민의 문화향수
2. 시민의 지역 문화시설 이용
3. 지역과 문화향수

제 VI 장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4 :지역

1. 지역별 시민의 문화향수

1) 지역과 문화격차

서울시라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면, 거주지에 따라 문화향수가 달라지는가는 중요한 하나의 연구주제이다. 지역별로 문화시설과 같은 문화 자원이 다르게 분포하고 그것이 거주자들의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구별 또는 권역별 문화시설 자원의 격차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었고(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강남북 격차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슈화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 자원의 종류에 따라서, 가령 대규모 공연예술시설인지 소규모의 생활기반시설인지 등에 따라서 그 자원이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하고, 지역별로 문화향수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자원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의 계층 구성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구별해내 하는 것 등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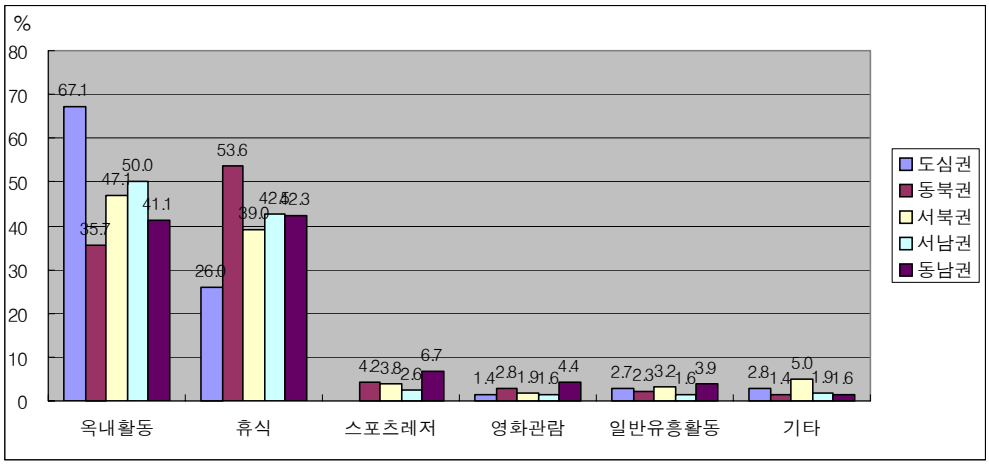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도시계획상 대생활권으로 간주되는 5개권역으로 정하고, 지역별로 시민의 특성을 보이는 것과 지역의 문화시설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여 문화향수실태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2) 지역 시민의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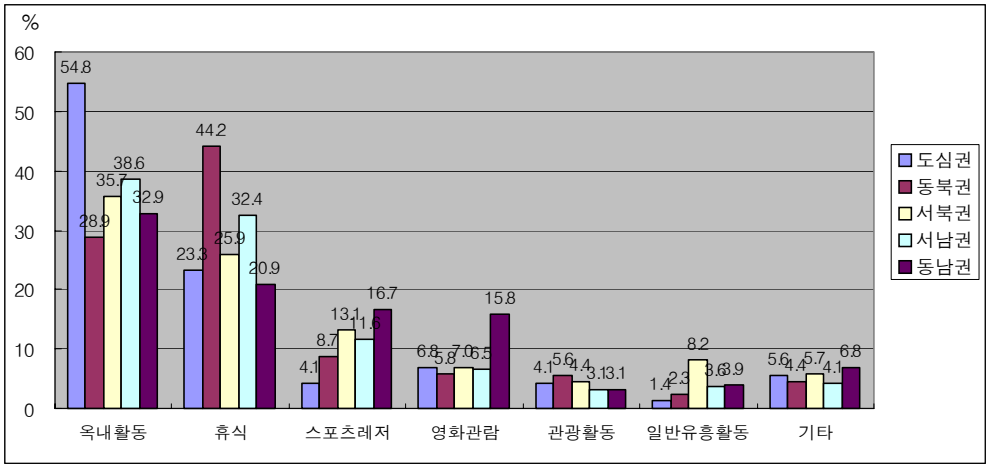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 특히 동남권 거주자들이 옥내활동과 휴식은 적게 하는 반면 스포츠레저활동이나 영화관람 등 더 적극적 유형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말의 경우는 서북권 거주자들도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서 적극적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특히 일반유흥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x^2=85.863***)에 비해서 주말(x^2=113.905***)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난다.



<그림 6-1> 지역별 주중 여가활동



<그림 6-2> 지역별 주말 여가활동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도

- 동남권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
-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만족비율은 비슷하나
- 도심권의 경우 만족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서북권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친 불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1> 지역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x^2
도심권	17.8	49.3	26.0	4.1	2.7	89.138***
동북권	12.9	44.4	29.4	11.2	2.1	
서북권	13.9	56.3	15.7	11.4	2.5	
서남권	15.5	47.0	25.7	10.3	1.3	
동남권	7.9	35.2	26.4	30.0	0.4	
전체	13.1	45.1	25.9	14.2	1.6	

*** p< .001 **p< .01 *p< .05

3) 미디어 문화에 대한 향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 도심권과 서북권 거주자들은 TV를 오래 시청하는 반면,
- 서남권과 동남권 거주자들은 비교적 짧게 시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 통계적 검증 결과

- 주중에는 서남권과 동남권 거주자들이 도심권과 서북권 거주자들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시간을 시청하며,
- 주말에에는 서남권 거주자들의 서북권 거주자들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시간을 시청하는 것이 밝혀졌다.

<표 6-2> 지역별 1일 평균 TV시청 시간

(단위: 시간)

	주중	주말
도심권	3.3	4.0
동북권	2.8	3.7
서북권	3.1	4.2
서남권	2.6	3.5
동남권	2.4	3.7
F값	7.834***	3.154*

*** p< .001 **p< .01 *p< .05

4) 문화예술 관람

지역별로 거주자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 대체로 도심권 거주자들의 관람횟수는 적은 반면
- 동남권 거주자들의 관람횟수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연극, 무용공연, 뮤지컬은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사후통계적 검증 결과 대중음악공연에서 동남권과 서남권만이, 영화에서 서남권과 동북권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거주자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가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표 6-3>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회)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미술 전시회	뮤지컬	영화
도심권	0.16	0.33	0.26	0.03	0.04	0.41	0.04	3.36
동북권	0.22	0.53	0.44	0.04	0.09	0.42	0.18	3.74
서북권	0.13	0.69	0.17	0.07	0.07	0.34	0.24	3.77
서남권	0.17	0.40	0.30	0.14	0.12	0.42	0.14	5.22
동남권	0.36	0.45	0.88	0.07	0.19	0.64	0.21	4.28
전체	0.22	0.48	0.44	0.08	0.11	0.45	0.17	4.26
F값	2.848*	1.592	3.314**	0.441	2.521*	2.561*	1.965	3.074*

*** p< .001 **p< .01 *p< .05

5) 문화 활동의 경험

지역별 거주자들의 연주가능한 악기개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동남권 거주자들이 0.84개로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 거주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지역별 연주가능한 악기개수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F값
악기개수	0.45	0.51	0.46	0.55	0.84	6.060***

*** p< .001 **p< .01 *p< .05

지역별로 18세이전 예술교육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정내 사회화 경험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경험을 제외하고는 동남

권 거주자들의 사회화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가의 진품그림 소유여부를 제외하고는 도심권 거주자들의 사회화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지역별 성인 이전의 문화예술 관련 가정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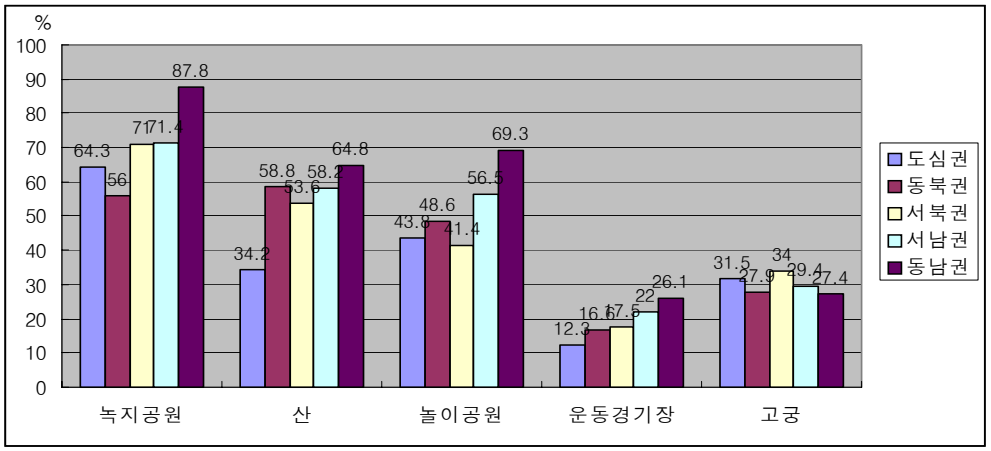
(단위:%)

	클래식 청취		공연·전시회 동행		여행 중 문화유적 답사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화가의 진품그림 소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도심권	93.2	6.8	93.2	6.8	72.6	27.4	69.9	30.1	91.8	8.2
동북권	80.4	19.6	86.0	14.0	57.5	42.5	59.1	40.9	93.0	7.0
서북권	88.0	12.0	88.6	11.4	60.1	39.9	51.9	48.1	96.8	3.2
서남권	81.4	18.6	85.3	14.7	53.5	46.5	64.1	35.9	89.1	10.9
동남권	76.8	23.2	76.0	24.0	50.8	49.2	61.0	39.0	89.0	11.0
x^2	15.156**		21.204***		13.427**		10.019*		11.797*	

*** p< .001 **p< .01 *p< .05

6) 지역별 시민의 여가 및 문화시설 이용의 차이

지역별 시민의 여가 및 문화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녹지공원, 산, 놀이공원, 운동경기장 모두 동남권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궁의 경우는 서북권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높았다.



<그림 6-3> 지역별 여가 및 문화시설 이용률

공연 및 전시시설의 경우도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 대체로 동남권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관람횟수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대형공연장의 경우는 서남권 거주자가
- 소규모 미술관/화랑의 경우는 도심권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2. 시민의 지역 문화시설 이용

1) 지역 여가 문화시설의 분포

지역별 여가 및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면,

- 사설예능학원 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도심권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설예능학원이 경우는 동남권에 집중해 있으며, 전시시설이나 영화관, 체육시설도 도심권 다음으로 동남권에 많이 공급되어 있다.
- 반면에 동북권과 서남권의 문화시설은 매우 빈약하게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6> 지역별 여가 및 문화시설 수

	1인당공원면적(m2)	만명당 체육시설*수	만명당 체육경기장**수	인구만명당 공연시설수	인구만명당 전시시설수	인구만명당 영화관수	인구만명당 사설예능학원수
도심권	27.6	5.81	0.09	0.96	3.13	0.46	0.48
동북권	17.1	4.06	0.04	0.04	0.07	0.04	0.61
서북권	21.1	4.36	0	0.11	0.16	0.07	0.49
서남권	8.9	4.41	0.02	0.03	0.04	0.05	0.75
동남권	13.5	5.70	0.08	0.10	0.49	0.12	1.15

자료:서울시 통계연보

*종합체육시설+테니스장+수영장+체육도장+볼링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실내체육관+종합경기장

2) 지역 여가 문화시설의 인지와 이용

지역문화시설의 경우,

- 인지율은 모두 동남권 거주자들이 더 높지만,

- 이용률은 동북권이나 서남권 거주자들이 더 높다.

동남권 거주자들이 그만큼 관심은 더 많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고, 다른 사설 기관들이 많아 굳이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 동북권 거주자들은 문예회관을,
- 서남권 거주자들은 구민회관과 문화의 집/주민자치센터, 사설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를
- 동남권 거주자들은 문화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지역별 지역문화시설 인지율 및 이용률

(단위:%)

		문예회관	구민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사설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인지율	도심권	38.4	52.1	23.3	27.4	49.3	49.3	42.5
	동북권	37.9	81.2	30.9	49.1	64.7	73.7	72.1
	서북권	34.6	59.7	26.4	39.7	53.3	61.7	56.5
	서남권	46.4	71.9	27.3	44.8	61.3	62.0	64.2
	동남권	60.1	87.4	38.1	57.4	82.2	83.0	73.5
이용률	도심권	9.0	24.7	5.0	11.1	23.0	23.5	16.8
	동북권	13.4	21.8	5.0	11.7	25.0	25.8	16.8
	서북권	1.4	15.1	1.4	2.7	6.8	20.5	8.2
	서남권	6.6	25.8	6.1	13.1	22.4	26.0	17.3
	동남권	7.0	16.3	7.0	6.9	15.6	21.2	15.6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 도심권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안 맞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 동북권 거주자들은 거리가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
- 서북권 거주자들은 그럴 필요를 못느껴서/관심이 없어서,
- 서남권 거주자들은 그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 동남권 거주자들은 거리가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와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관심이 없어서를 더 많이 응답하였다.

<표 6-8> 지역별 지역문화시설 비이용 이유

(단위:%)

	사례수	시간이 없어서/ 안 맞아서	그런 시설/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거리가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관심이 없어서
도심권	48	64.6	8.3	8.3	4.2	14.6
동북권	217	45.3	9.3	7.3	13.0	25.2
서북권	84	52.5	4.8	3.6	6.8	32.3
서남권	229	53.9	15.7	7.4	5.6	17.4
동남권	118	49.1	5.2	3.4	11.0	31.4

3. 지역과 문화향수

지역별로 문화향수차이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시(2003)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남지역 거주자들이 거주지역 주변 문화공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북, 동북, 서남지역 순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도심권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 예능학원, 공연시설, 전시시설,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이 동남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향수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도심권에 문화시설이 집중해 있지만 거주자들의 행사관람횟수나 문화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한 만족도에는 각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기반시설 등 다른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역문화시설의 경우는 공간적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문화시설과 이용률, 만족도 등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제 VII 장 시민의 문화수요와 욕구

1.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욕구 파악
2. 문화향수 비용에 대한 지원
3. 문화 체험 및 문화 예술 교육 강화
4. 지역문화시설의 역할 강화

제 VII 장 시민의 문화수요와 욕구

1.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욕구 파악

1)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1)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5.8%에 불과한데 비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8.3%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도 13.1%나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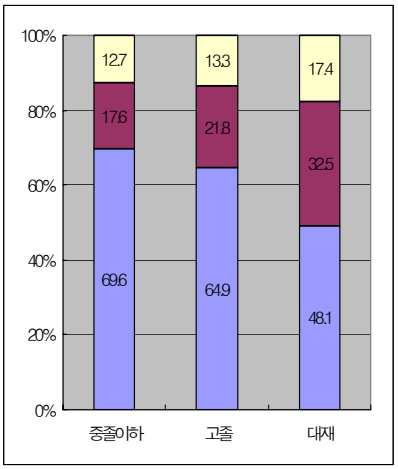
<표 7-1>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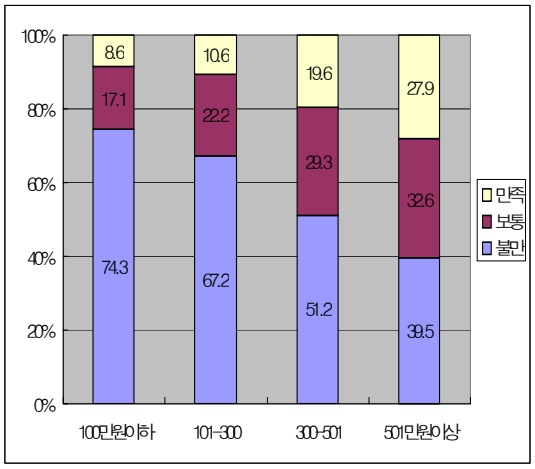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3.1	45.2	25.9	14.2	1.6

- 연령별로는 20대의 만족도 수준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고,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 소득수준이 낮고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직업별로는 자영업(67.5), 판매서비스직(68.9), 생산직 종사자(68.8)들이 불만이 큰 반면, 전문직과 관리직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특히, 중졸이하(35.0), 생산직(25.8), 월소득 100만원이하(51.6),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37.6)안 경우 전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가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집단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1>교육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



<그림 7-2>소득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유형과 만족도 간에 교차분석을 해보면, 주중이나 주말 모두 휴식이나 옥내활동보다는 옥외활동을 주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 이렇게 볼 때, 상당수가 여건이 안 되어서 여가활동으로 휴식이나 옥내활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거나 옥외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가 더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7-2> 여가활동 유형과 만족도 간의 교차분석

(단위:%)

		여가활동 만족도				x^2
		부정적	보통	긍정적	계	
주중 여가 활동	휴식·옥내활동	60.3	25.5	14.1	100.0	28.116***
	옥외활동(스포츠 레저, 관광 등)	41.7	28.5	29.9	100.0	
주말 여가 활동	휴식·옥내활동	66.6	22.8	10.7	100.0	87.562***
	옥외활동(스포츠 레저, 관광 등)	41.0	32.5	26.5	100.0	
전체		58.3	25.9	15.8	100.0	

*** p< .001 **p< .01 *p< .05

(2) 여가생활의 관심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에,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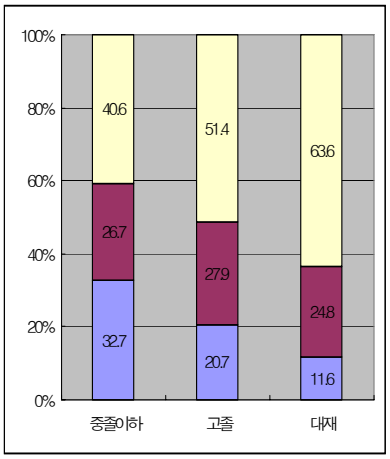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55.7%가 '관심있다'고 응답하였고, '관심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에 불과하였다. 대체적으로

- 연령이 낮을수록,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중졸이하(10.8)와 소득 100만원이하(14.3),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8.0)인 경우 여가문화에 대해 전혀 관심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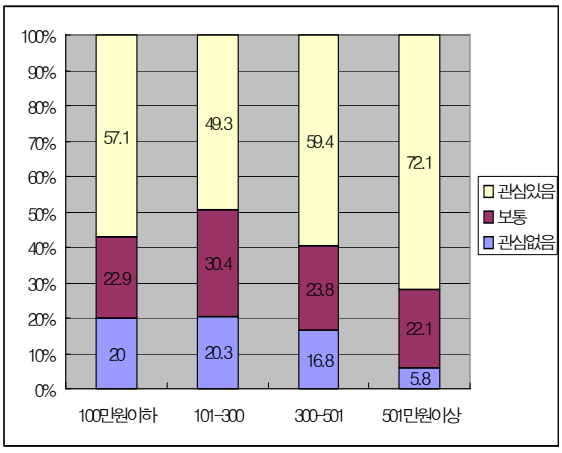
<표 7-3>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도

(단위:%)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보통	약간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전체	2.2	15.4	26.4	39.5	15.9



<그림 7-3>교육수준별 여가문화 관심도



<그림 7-4>소득수준별 여가문화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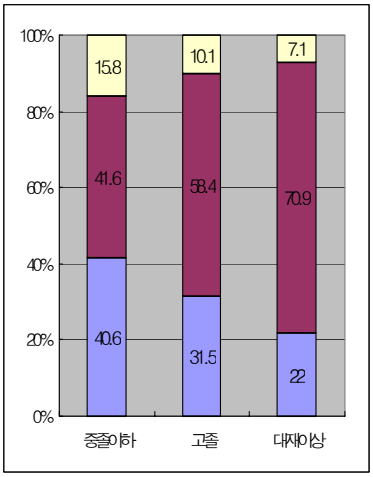
(3) 여가활동과 장소

선호하는 여가활동 장소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응답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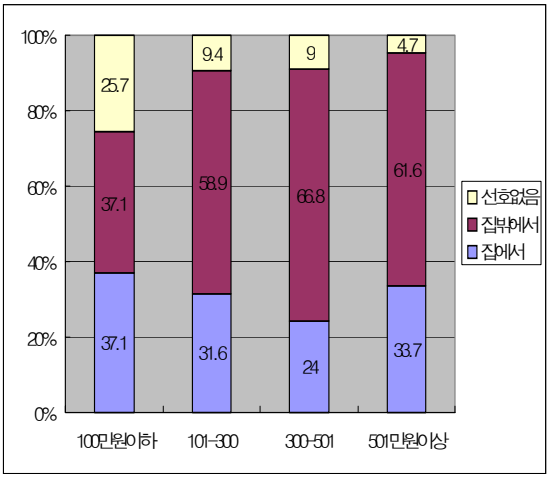
- 주중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57.4)하고,
- 주말에는 집밖에서 하는 활동을 선호(62.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소에 대해서

- 주중에는 학력, 소득, 계층,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나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 주말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71.4)과 사무직(68.9)이, 동남권 거주자(71.1)들이 집밖에서 하는 활동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5>교육수준별 선호 주말여가장소



<그림 7-6>소득수준별 선호 주말여가장소

이러한 결과는 실제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 주중에 집밖에서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의 76.7%는 휴식과 옥내활동을 주중 주로 하는 여가활동 1순위로 꼽았다.
- 주말에 집밖에서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의 59.5%는 주말 주로 하는 여가활동 1순위로 휴식과 옥내활동을 들었다.

선호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가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소극적 유형의 여가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표 7-4> 선호하는 여가활동 장소와 주로 하는 여가활동

(단위:%)

		선호하는 여가활동 장소				x^2
		특별한 선호 없음	집에서 하는 활동 선호	집 밖에서 하는 활동 선호	전체	
주중 여가 활동	휴식・옥내활동	90.7	93.2	76.7	88.9	56.461***
	옥외활동(스포츠 레저, 관광 등)	9.3	6.8	23.3	11.1	
주말 여가 활동	휴식・옥내활동	81.1	80.7	59.5	67.5	63.752***
	옥외활동(스포츠 레저, 관광 등)	18.9	19.3	40.5	32.5	
계		100.0	100.0	100.0	100.0	

*** p< .001 **p< .01 *p< .05

'여가시간에 누구와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중과 주말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중에는 친구(22.8), 배우자/연인(16.1), 혼자서(1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친구(23.8), 배우자/연인(22.0), 혼자서(5.3) 순으로 나타나 주중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 소득, 주관적 계층,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나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주5일제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말에 가족들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표 7-5> 선호하는 여가활동 공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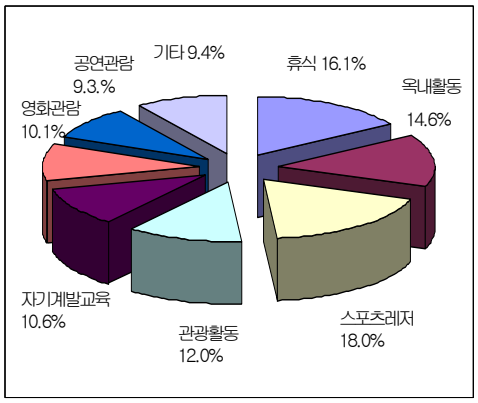
(단위:%)

구 분	특별한 선호 없음	혼자서	배우자/연인	가족	친구
주 중	11.1	15.9	16.1	34.2	22.8
주 말	4.1	5.3	22.0	44.7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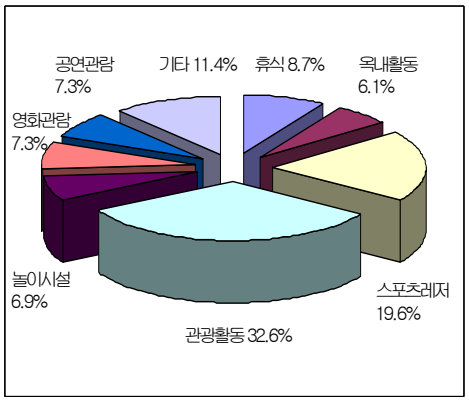
(4) 여가활동 욕구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1+2+3순위)으로 주중에는 스포츠레져활동(47.5%), 옥내활동(41.4%), 휴식(36.5%) 등이, 주말에는 관광활동(67.4%), 스포츠레져활동(52.3%), 영

화관람(27.6%)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여전히 휴식과 옥내활동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비율이 많이 낮아졌고, 기타 옥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7>향후 하고싶은 주중 여가활동



<그림 7-8>향후 하고싶은 주말 여가활동

<표 7-6>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구 분		스포츠레저 활동	휴식	옥내 활동	관광 활동	자기계발 교육	영화 관람	공연 관람	일반 유흥 활동	특정 테마 유흥 활동	동호회 활동	놀이 시설 방문	없음
주중	1순위	18.0	16.1	14.6	12.0	10.6	10.1	9.3	3.4	2.5	1.8	1.7	0.0
	1+2+3 순위	47.5	36.5	41.4	27.2	29.9	30.1	22.5	15.8	11.5	10.3	10.1	0.0
주말	1순위	19.6	8.7	6.1	32.6	5.0	7.3	7.3	1.6	2.6	2.2	6.9	0.1
	1+2+3 순위	52.3	22.4	24.6	67.4	19.0	27.6	21.2	8.1	10.6	10.3	25.4	0.1

전체적으로 여가향수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레져스포츠활동이나 관광활동과 같이 야외에서 즐기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수록 이러한 욕구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증가될 것인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예술행사 관람에 대한 욕구

(1) 가장 만족한 예술행사

지난 1년간 관람한 예술행사 중 가장 만족한 예술행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다. 행사 중에는 대중음악공연(12.7)과 연극(10.4)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만족한 공연이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 전문직과 학생, 무직,
- 소득 501만원이상,
- 동남권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예술 관람을 더 많이 하는 집단으로 공연을 많이 봤거나 자기가 선택한 공연이거나 양질의 공연을 봐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만족한 행사에 대해서 입장권을 구입했다는 경우는 55.0%이고 초대권을 받은 경우는 30.8%, 무료행사였던 경우는 14.2%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가 초대권이나 무료행사보다는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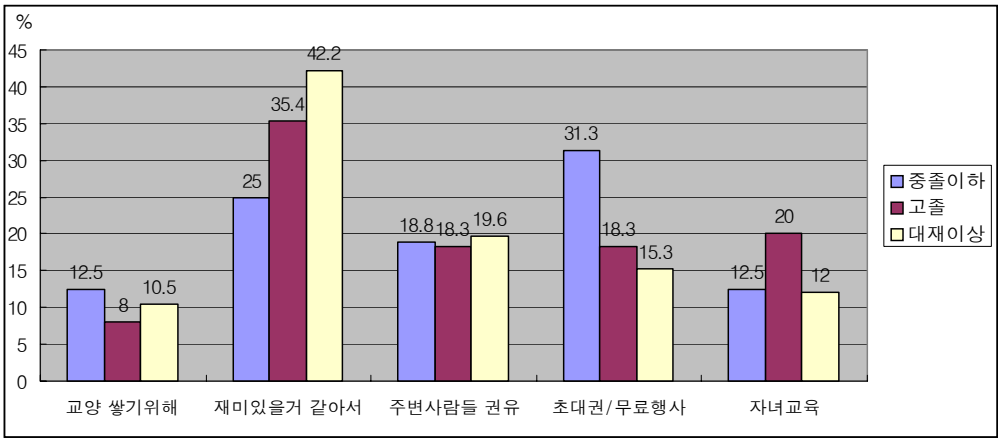
그 예술행사를 관람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변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19.3%, 초대권이 생겨서/무료여서가 16.9%이다.

<표 7-7> 예술행사 관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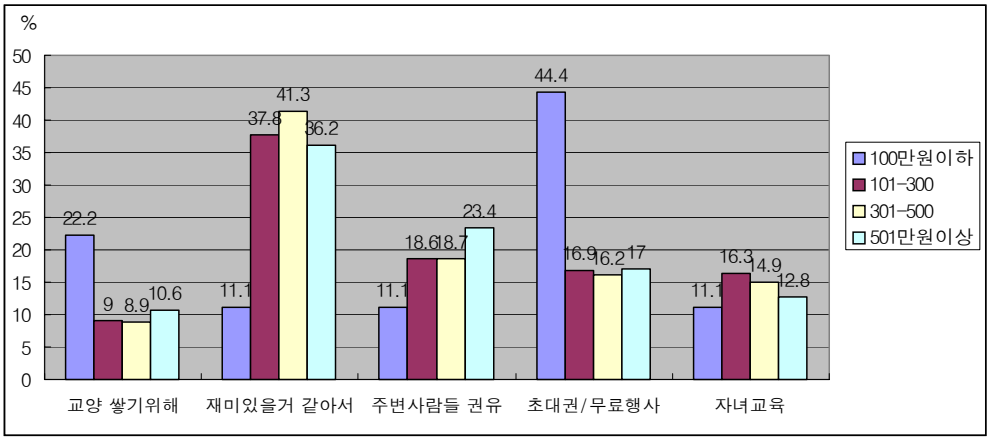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초대권이 생겨서/ 무료여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모름/ 무응답
전 체	467	9.6	38.9	19.3	16.9	15.1	0.2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학력에 따른 관심과 흥미의 차이를 반영하며,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의 경우 '초대권이 생겨서/무료여서'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그들의 관람이 능동적이지 못한 것과 관심은 있되 비용부담 때문에 관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9>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 이유



<그림 7-10>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 이유

(2) 문화예술행사의 관람과 참여

공연 및 전시 예술에 대한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 서울시민의 26.1%는 평생동안 전통예술, 연극, 대중음악공연,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공연, 무용공연 미술전시회를 한번도 관람하지 않았으며,
- 지난 1년간 이중에 하나라도 관람한 사람은 43.7%에 불과하다.
- 문화예술관련 최대 지출분야에서도 주로 영화, 서적, 음반, 비디오테이프 등 미디어 문화 관련한 지출이 많으며 공연 및 전시예술에 대한 지출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예술도 관람도

- 연령이 낮을수록,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또한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도 관련이 있는데, 적극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더 많다.

이것은 그들 집단의 경제적 여건이나 여가생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다.

(3) 관람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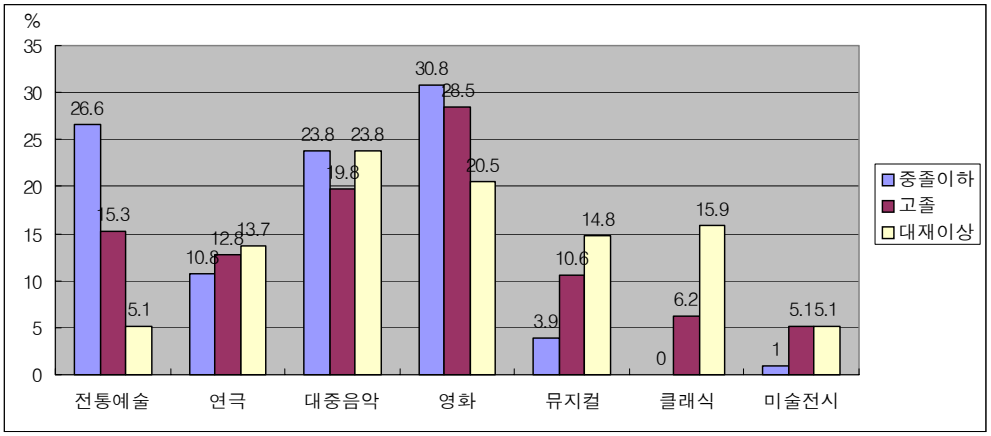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영화(25.3), 대중음악공연(21.8), 연극(13.0)의 순으로 나타나 순수예술보다는 대중예술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예술공연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비해서 클래식/오페라 공연에 대한 욕구는 낮다.
-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통예술과 영화에 대한 욕구는 높고 클래식/오페라공연과 뮤지컬에 대한 욕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직과 관리직은 미술전시회와 뮤지컬에 대한 욕구가 높고,
- 사무직은 클래식/오페라에 대한 욕구, 자영업과 생산직, 주부는 전통예술공연에 대한 욕구가 높다.
- 또한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은 영화에 대한 욕구가 높다.
- 소득 200만원 이하는 전통예술공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반면에 클래식/오페라공연과 뮤지컬에 대한 욕구는 낮으며,
- 주관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전통예술에 대한 욕구는 낮은 반면 연극, 클래식/오페라, 뮤지컬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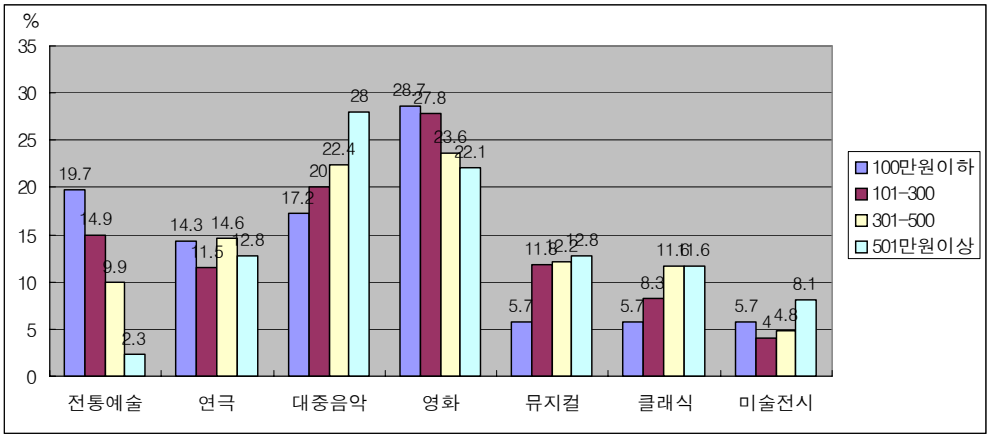
<표 7-8>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단위:%)

	전통 예술 공연	연극	대중 음악 공연	영화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모름/ 무응답
전 체	12.0	13.0	21.8	25.3	1.0	9.8	4.8	11.8	0.5



<그림 7-11> 교육수준별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그림 7-12> 소득수준별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4) 서울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 '직장을 고를 때 연봉보다는 여유시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이며,

-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53.0%,
-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데 보다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향수하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다.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만 나타났지만, 대체로 학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이며, 특히 영화, 대중음악공연, 연극과 같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 양질의 저렴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고, 다른 전통예술,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은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문화향수 비용에 대한 지원

1) 문화예술관련 지출

문화예술관련 최대지출분야(1+2순위)는 영화관람(37.1), 책, 잡지 구입 및 대여(36.4), 음반, 테이프 및 CD 구입(21.3), 비디오테이프 구입 및 대여(17.7), 연극관람(3.1), 대중음악·연예쇼 관람(2.9), 각종 전시회 관람(1.2), 예술관련 교육비/강습비(0.7), 전통예술관람(0.5), 서양고전음악회 관람(0.3), 무용관람(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사항없음이 3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로 영화, 서적, 음반, 비디오 테이프 등 미디어 문화 관련한 지출이 많으며 공연예술에 대한 지출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것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거의 지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 1/3정도 된다는 뜻이다.

- 연령이 높을수록,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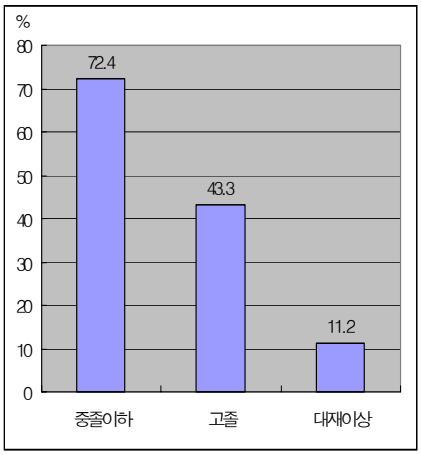
-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해당사항 없음' 응답 비율이 높아진다.

중졸이하의 경우는 72.4%가, 소득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54.1%가 문화예술관련 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생산직(47.2), 자영업(47.5), 주부(44.6)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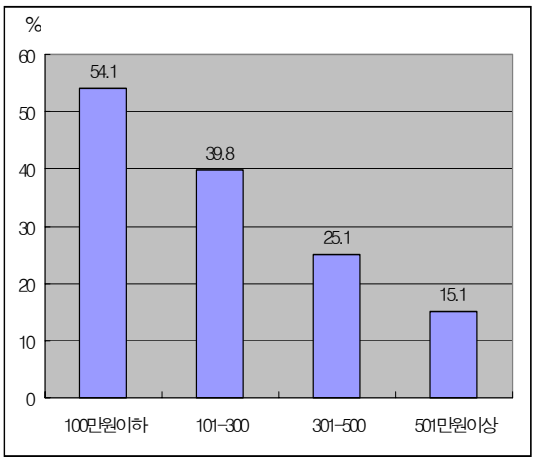
<표 7-9> 문화예술관련 최대지출분야

(단위:%)

	영화 관람	책, 잡지 구입/대여	음반, 테이프 및 CD 구입	비디오 테이프 구입/대여	연극 관람	대중음악, 연예 관람	각종 전시회 관람	예술 관련 교육/강습	기타 공연 관람/기타	해당 사항 없음
전 체	37.1	36.4	21.3	17.7	3.1	2.9	1.2	0.7	1.1	32.1



<그림 7-13>교육수준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없음 비율



<그림 7-14>소득수준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없음 비율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의 낮은 관람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공연 및 전시예술을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65.7%, 소득 101-300만원의 경우는 62.8%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501만원 이상의 경우는 37.2%만이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예술관련 지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비용의 중요성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예술행사의 내용(34.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비용(31.1), 주위 사람들의 평가(1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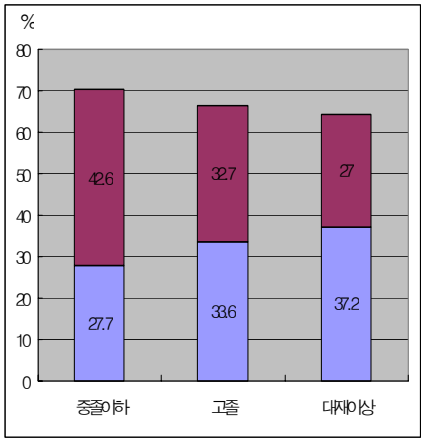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예술행사의 내용보다는 비용을 많이 고려한다.
- 전문직(63.5)은 비용보다는 내용을 고려하며,
- 반면, 학생(40.4)과 생산직(39.1)은 비용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결국,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내용보다는 비용을 더 고려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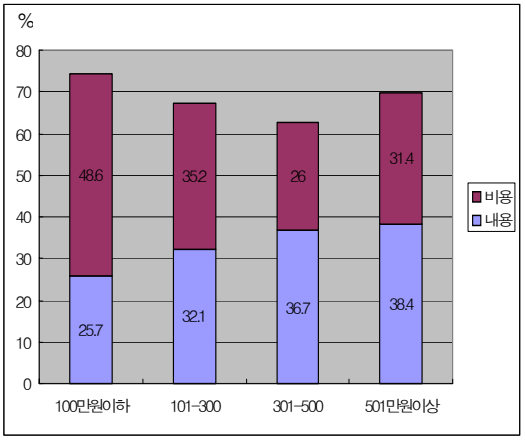
<표 7-10>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

(단위:%)

	예술 행사의 내용	비용	유명도	행사 개최 장소	교통 편의	주위 사람의 평가	비평가 들의 평가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34.6	31.1	8.1	5.6	7.2	11.8	1.4	0.2	0.2



<그림 7-15>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



<그림 7-16>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

3) 예술행사 비관람 이유

예술행사를 관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 시간이 없다가 44.8%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이 관심/이해능력이 부족하다(21.9)와 돈이 없다(21.7)를 들었다.

<표 7-11> 문화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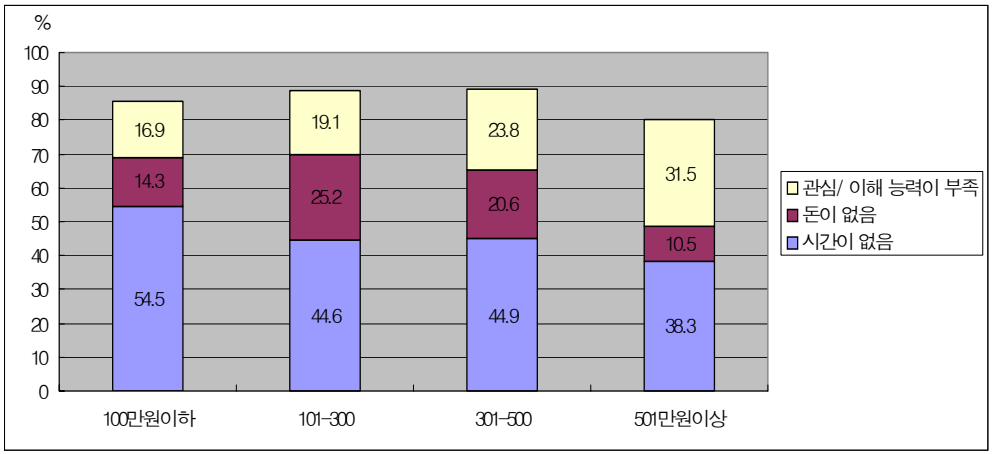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관심/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행사장 까지 가기가 불편하다	자녀/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44.8	21.7	21.9	6.8	2.5	2.1	0.3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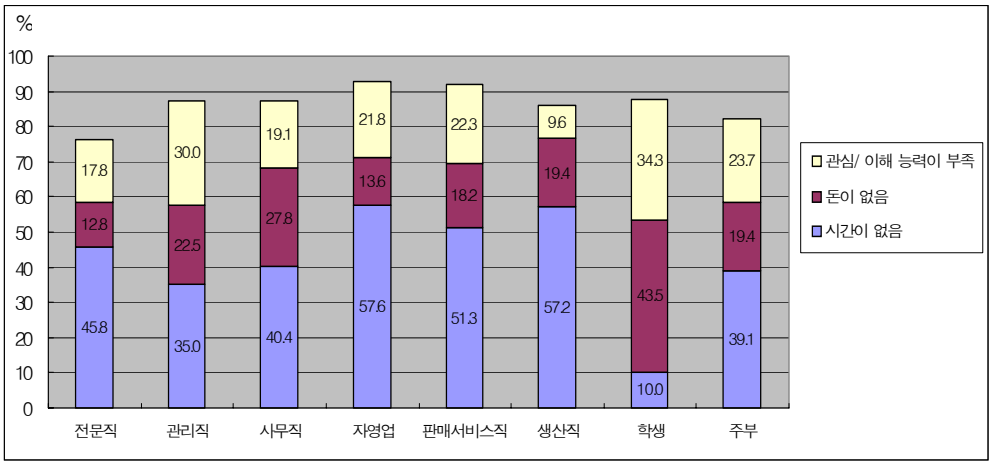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 직업별로는 자영업(57.6), 생산직(57.2), 판매서비스직(51.3)이 많았다.
- 또한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 그리고 상층인 경우 많았다.

반면에

- 돈이 없다는 응답은 중졸이하, 사무직(27.8), 학생(43.5) 월소득 101-150만원,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층인 경우 많았다.
- 관심/이해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50대이상과 대재, 학생, 관리직(30.0), 소득 401만원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약이 덜해 관심/이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은 듯하다.



<그림 7-17>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그림 7-18> 직업별 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시간이 없다는 것과 돈이 없다는 것은 서로 관련된 얘기다. 시간이 없다는 층을 보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자영업,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주로 생업 때문에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문화비를 보조해주는 것 외에도 문화시설 운영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정하거나 행사장소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일터나 거주지 근처로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4) 예술행사 지불의향

예술행사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21.2%가 1만원 이내, 43.2%가 3만원 이내, 23.1%가 5만원 이내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87.5%가 **5만원 이내** 지불용의를 보인다.

- 학력이 낮을수록,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지불가능액이 작아지며,
- 생산직이나 자영업이 전문직이나 관리직 보다 지불가능액이 더 작다.

<표 7-12> 문화예술행사 최대 지불가능금액

(단위:%)

		1만원 이내	3만원 이내	5만원 이내	5만원 초과
전 체		21.2	43.2	23.1	12.4
연령별	20대	11.9	47.3	24.3	16.5
	30대	16.7	44.1	26.3	12.9
	40대	24.1	39.2	26.1	10.6
	50대이상	31.1	41.9	16.8	10.0
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4.3	37.1	17.1	11.5
	101-300	26.7	45.0	18.6	9.5
	301-500	16.3	44.0	26.0	13.7
	501만원이상	11.6	27.9	37.2	24.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36.4	42.0	17.0	4.6
	중하층	25.5	46.0	20.1	8.2
	중중층	16.6	42.4	25.3	15.7
	중상층이상	15.8	35.8	29.2	19.2
문화자본/ 경제자본 분포 집단별	비우위	32.8	43.5	17.9	5.6
	경제우위	19.3	48.2	21.9	10.6
	문화우위	13.3	47.2	20.0	19.5
	경제·문화우위	12.7	36.5	32.3	18.5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 예술행사 관람료 현황과 관련하여 보면 지불의사의 측면에서 문화저변의 확보에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문화 체험 및 문화 예술 교육 강화

1) 예술교육의 영향

교육의 경험은 문화예술의 향수에 영향을 미친다. 예술교육 경험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18세 이전과 지난1년 모두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관람횟수가 유의미하게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통계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하는데, 18세 이전 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예술교육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2.173회 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예술교육 경험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명, 회)

		사례수	관람횟수	t값
18세이전 교육경험	없음	1114	1.57	-5.413***
	있음	186	4.33	
지난1년 교육경험	없음	1255	1.70	-3.920***
	있음	45	9.14	

*** p< .001 **p< .01 *p< .05

18세이전의 교육경험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력을 높여주어 더 많은 관람을 유도했을 수 있고, 지난1년의 교육경험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보다 받아본 사람 중에 클래식 음악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13> 참고).

<표 7-14> 예술교육경험과 클래식 음악 친숙도 간의 교차분석

(단위:%)

		클래식 음악 친숙도			x^2
		불편함	편안합	계	
18세이전 교육경험	없음	61.3	38.7	100.0	26.025***
	있음	41.4	58.6	100.0	
지난1년 교육경험	없음	59.2	40.8	100.0	8.212**
	있음	37.8	62.2	100.0	
전체		58.5	41.5	100.0	

*** p< .001 **p< .01 *p< .05

2) 문화예술체험의 영향

가정 내에서 부모나 다른 성인을 통한 문화예술관련 경험들도 예술행사 관람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전 부모나 가정 내의 성인이 집에서 때때로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 등을 들은 적이 있는가, 공연이나 전시회에 데려간 적이 있는가, 서점에서 책을 사준 적이 있는가, 화가 진품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가 모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기 없는 경우보다 예술행사 관람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7-15> 가정내 예술관련 경험과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명, 회)

		사례수	관람횟수	t값
클래식 청취	없음	1062	1.55	-5.270***
	있음	238	3.79	
공연 및 전시회 동행	없음	1099	1.42	-6.388***
	있음	201	4.91	
여행중 문화유적 답사	없음	731	1.19	-7.004***
	있음	569	2.96	
서점에서의 도서선물	없음	789	1.45	-5.079***
	있음	511	2.75	
화가 진품그림 소유	없음	1189	1.70	-3.845***
	있음	111	4.79	

*** p< .001 **p< .01 *p< .05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아동 사회화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아동 사회화 경험이 한 단위 많을 때, 예술 행사를 4.781회(β=.144)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교육(β=.084)보다도 약 두 배 정도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곡이라도 연주가 가능한 악기가 있는지 여부와 집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있는지 여부도 간접적으로 문화예술체험정도를 반영하는데, 실제로 연주가능한 악기와 보유악기가 있는 경우,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6> 악기이용과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명, 회)

		사례수	관람횟수	t값
연주가능한 악기	없음	853	1.17	-7.543***
	있음	447	3.47	
보유 악기	없음	650	1.20	-6.223***
	있음	650	2.73	

*** p< .001 **p< .01 *p< .05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참여횟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2.3회 정도 더 많은 공연을 관람한다.

<표 7-17> 참여 동호회와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

(단위:명, 회)

		사례수	관람횟수	t값
참여 동호회	없음	891	1.24	-7.007***
	있음	408	3.54	

*** p< .001 **p< .01 *p< .05

18세 이전에 학교이외에서 예술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는 14.3%로 낮은 편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졌다. 예술교육경험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성인 이전에 부모와 함께 공연을 보러가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 등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가정환경도 관람횟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화 정도도 마찬가지로 문화자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동호회 참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동호회를 참여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행사를 더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문화자본으로 작용한다기보다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 태도나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교육을 사적 시장에만 맡길 경우 문화격차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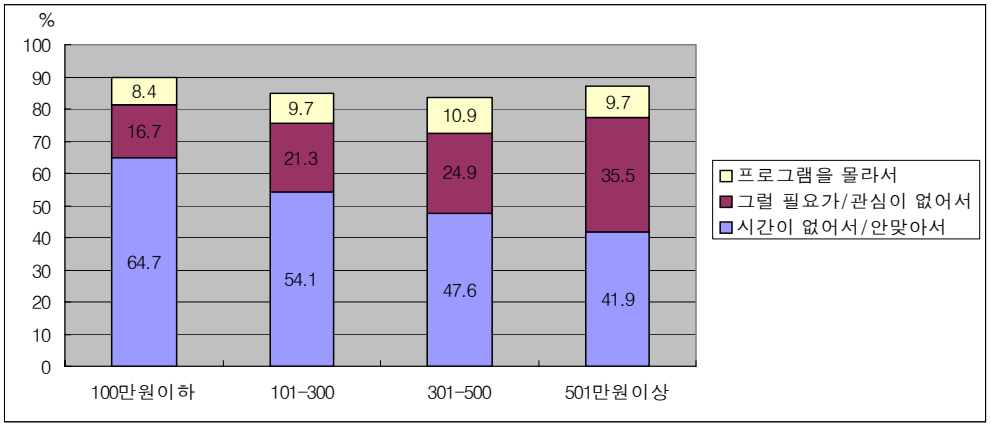
4. 지역문화시설의 역할 강화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안 맞아서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관심이 없어서(23.8), 그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10.1), 거리가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8.9), 프로그램이 빈약해서(6.3)로 나타났다.

<표 7-18> 지역문화시설 비이용 이유

(단위:명,%)

	사례수	시간이 없어서/안 맞아서	그런 시설/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거리가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관심이 없어서
전 체	696	51.0	10.1	6.3	8.9	23.8



<그림 7-19> 소득수준별 지역문화시설 비이용 이유

전체적으로 접근성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안 맞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시간이 없어서/안맞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주민 가까이로 직접 찾아가거나 시간대를 융통성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기획하다보면 주민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저렴한 행사나 강습이 아니라,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지역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던가, 지역 고유의 전설이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한다던가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제 VIII 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문화향수 저변 확대
2. 문화비용에 대한 지원과 보조
3. 공공예술교육강화
4. 지역문화시설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5. 소외지역 우선 지원
6.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호와 신장

제 VIII 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문화향수 저변 확대

1) 여가 기반시설 조성

현재 서울시민의 여가향수수준이나 만족도는 낮은 반면에 욕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야외에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5일제의 실시와 더불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령,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보면, 주말과 주중 모두 스포츠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 및 다양성 제고

휴식과 옥내활동, 스포츠레저활동과 관광활동을 제외하면 영화와 공연관람이 다음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활동이다. 대부분이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며 더 많이 향수하고 싶어 한다. 반면에 대부분이 문화향수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 간의 상관성에 동의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향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통념인 듯 하다. 특히,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등 순수예술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관심이 많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클래식, 뮤지컬, 미술전시 등의 순수예술에 대해서 관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클래식이나 무용과 같은 순수예술도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요자 중심의 방향 전환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주로 예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문화를 공급하려 노력하였다면, 이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시민들이 소비에서부터 직접 생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가령, 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가꾸기' 사업이 좋은 예이다. '우리동네문화가꾸기' 사업은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 및 직접 참여 기회 확충을 위해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과 자치구별 시민참여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pc 통신 하이텔을 통해서 결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필넷'은 올해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포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4)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수요자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단순히 관람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기획하거나 스태프로 참여하는 등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 직접 문화활동을 체험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다.

- 가령, 어떤 극단이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연극학교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배우나 스태프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미술단체가 학교를 순회하며 미술전시회를 열면서 한쪽에서는 작품을 직접 만들 기회를 준다던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 예를 들어, 시민미술단체 늦바람은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동네 숨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성수동의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및 이주노동자 어린이들과 함께 경동초등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현판식 행사에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5) 해외사례

○ 영국의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New Audience Program) 중 일반관객 부문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관객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소수집단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였다.

이 중에 일반 관객과 관련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Ambassador marketing이라는 전략은 표적 집단이나 개인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 모으는 방법이다. 표적집단에서 대사(ambassador)를 모집해서 그 대사가 홍보역할을 하며 자신의 집단에게 할인된 단체표를 제공하거나 예술가들과의 리셉션과 같은 행사를 마련해서 새로운 관객을 개발한다.
- 관공서 대기실, 쇼핑몰, 지하철역과 같은 새로운 일상적 공간에서 예술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시간을 유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Love Art Later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런던의 갤러리들이 전시회 오픈 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하고 이와 함께 바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2. 문화비용에 대한 지원과 보조

1) 소외 계층에 대한 여건 고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와 문화활동이 상쇄(trade-off)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과 높은 비용이 큰 장벽이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간이 없다'와 '돈이 없다'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저소득층의 경우,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내용보다 비용을 더 많이 고려하는 등 비용이 행사 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생업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은 근본적으로 적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변화해야 하므로 문화정책에서만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문화시설 운영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문화비를 보조해주는 것 외에도 문화시설 운영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정하거나 행사장소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 일터나 거주지 근처로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2) 문화 비용에 대한 지원

높은 비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할인제도, 리펀드 제도, 바우처 제도, 좌석의무할당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화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티켓을 할인해준다던가, 문화행사 티켓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좌석 의무할당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좌석 의무할당제는 일정한 비율의 좌석을 소외계층을 위한 쿼터로 남기는 방안이다.

이때, 정책 대상이나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외계층만을 따로 모아 행사를 여는 것은 일종의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낫다.

특히, 문화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처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해 소외계층에게 문화비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해외사례

○ 프랑스의 다양한 할인제도

- 파리의 국공립 공연장에서는 공연 당일 남은 표를 시작 15분전에 싼 값에 판매하

는 제도. 학생, 실업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 가장 비싼 좌석이 많이 남아 있어 정상가의 약 5분의 1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 사설극장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할인제도 가운데 하나로 개막공연의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제도도 있다.
- 18시-18프랑은 2월에 18시 대의 영화를 보면 18프랑에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 파리 콘서트 :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무료로 주는 것으로 연극의 경우도 '무대 위의 파리'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운영한다.

○ 뉴욕시 공연예술 발전 기금 공연티켓 할인 프로그램

- 뉴욕시에서는 우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외계층에게 뉴욕에서 공연되는 공연예술을 홍보하고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편명부에는 학생, 교사, 노조원, 퇴직자, 공연예술전문가, 성직자, 군인, 장애인 등만 등록할 수 있다.

3. 공공예술교육강화

1) 문화자본의 중요성

문화자본이 개인의 문화향수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보다는 성인이전에 예술교육을 받은 경험, 가정 내에서 예술과 관련된 사회화 정도가 더 큰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예술교육경험은 성인의 문화향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IQ 등의 아동발달과 사교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토론토 대학, 연합뉴스, 2004년 7월 14일자) 문화적 빈곤이 다른 빈곤을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문화자본의 공공적 형성

현재 사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을 공적 수준에서 커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교육은 일반학교 내에서 예술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과 학교 밖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무상 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내에 예술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모두 마련되기 어렵다면,

- 예술단체와 학교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순회공연이나 강습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초반에는 소외지역 학교나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예술교육에 먼저 투자해야 할 것이다.
- 프랑스의 경우처럼 모든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에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교육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 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 등을 통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민의 83.2%도 '문화예술관련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이에 대한 정책들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사례

○ 영국의 창조적 파트너십

- 5~18세의 취학 아동 및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관련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관, 아트센터, 웹 디자이너 등의 문화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관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패션디자인, 방송작가, 안무, 연극연출 등을 배우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들로부터 시작하여 15~25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다.

○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Act

- 미국에서는 2002년 예술이 "핵심적인 교육 과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

과시켜,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핵심적인 교육 과목에 대해서 교사 훈련, 학교 개혁, 기술적 프로그램 등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지역문화시설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1) 문화시설의 공간적 분포의 적절성 유지

공연 및 전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문화지구 등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지역문화시설의 경우는 보통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자치구별로 인구밀도나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당 시설수나 면적당 시설수에서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 행정구역상이 아닌 인구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체계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지역 사회 프로그램의 강화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특성화하고 단순한 강습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가령, 지역주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던가, 지역사회의 예술행사 등을 기획하고 모니터하는 등 생산자로서의 활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광진주민연대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광진구내의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모임(문화패, 지역동호회)에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을 위한 문화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마당-우리마을 푸르고 건강하게').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시설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더 큰 사회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고유의 전설이나 특성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고유한 지역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가령, 지역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사진전이나 지역사회 내 문화재 또는 명소 투어와 같은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주말 여가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말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전체의 62.2%가 주말에는 집 밖에서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 중 59.5%는 실제로는 휴식이나 옥내활동을 주로하고 있어 괴리가 있으며, 연령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주로 하는 여가활동 유형이 주중보다 주말에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말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해외사례

○ 영국 밀튼킨즈시의 지역사회 예술 향수 체계

밀튼킨즈시는 67년부터 시작하여 30여 년간 현재도 계속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하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예술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 먼저, 도시계획상에서 근린주구 마다 만남의 장소(meeting place)라고 불리는 건물들을 하나씩 건립하여 주민 회의의 장소로 혹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여가활동 단체나 봉사단체의 근거지로 다용도로 활용하게 하였다.
- 또한 문화예술관련 기반시설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공원을 지을 때 야외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잔디밭이라던가,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을 지을 때 이것들을 주민들의 예술활동이나 예술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자생적으로 지역공동체 운동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가령, 지역사회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강습을 하고 배운 것을 발표하는 공연을 하거나, 이러한 공연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예술단체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예술활동을 일류 예술가들의 공연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예술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며 도시 내 주요 행정건물, 철도역 등에 비치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포하고 있다.

5. 소외지역 우선 지원

1) 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 고려

이번 연구에서는 자치구별, 지역별로 다루고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소외지역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울 내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분명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외계층들이 지역적으로 밀집하여 거주지 격리가 발생하는 현상은 또 다른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가령,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던가, 소외지역 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동아리 활동 등에 가칭 문화도우미나 예비교사를 파견하여 멘토(mento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 또한 영상, 건축, 도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컴퓨터 음악,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으로 예술교육의 장을 넓혀 이들의 취미생활이 진로나 장래의 직업과 연관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문화재단 등에서 이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여 소외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내 6개 지역 60개 학교와 부산지역 2개지역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해외사례

○ 미국의 Creative Communities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국립예술진흥원(NEA)과 주택도시 개발부가 협력하여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 가령, 시카고의 메릿 음악학교는 매우 토요일 오후 시카고 공공주택 거주 청소년에게 악기 연주, 음악사, 음악 이론 등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6.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호와 신장

1) 고령층에 대한 문화정책

(1) 노인의 문화 참여 확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연령간 문화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이상 노인층의 경우는 문화향수수준이 매우 낮다. 노인을 동질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노인의 욕구나 기호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먼저,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층을 위한 문화공간 확대가 필수적이다.

-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취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공연 리허설 무료관람, 유적 방문 및 새로운 문화현장에 대한 견학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또한 노인전용 문화레저공간도 필요하지만 극장,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센터 등 기존 공간에서 노인들이 젊은이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

-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와 노동부와 협의하여 서울에서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문화관련 일자리를 보급하는 것도 방안이다. 지역문화유산 해설, 공예품 제작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문화의 집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해외사례

○ 영국의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New Audience program) 중 노인부분

- Hackney Music Development는 Hackney Music Development Trust라는 단체가 주관한 프로젝트로, 런던시내 노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집단'을 구성하였다. 사회계획집단은 전문 예술가 집단과 함께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음악행사를 기획하거나 모니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 Silverscreen 은 극장과 노인단체, 대학 등이 연합하여 마련한 프로젝트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멤버십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영화홍보메일을 보내고, 시사회에 참여시키고 할인티켓을 제공하는 등 영화관람을 장려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이고 영화 교육을 받는 등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 향상

(1) 장애인을 위한 문화 시설 확충과 지원

이번 연구에서 장애인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화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태어나서 한번도 영화관에 가보지 못했다는 장애인이 37.2%였고, 49.2%는 지난 1년간 한편의 영화도 본적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향수가 어려운 이유로 38.8%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으며, 19.8%는 편의시설 미비, 8.7%는 교통불편을 지적하였다.

- 이러한 물리적 장벽에 대해서 모든 문화예술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 사설기관에 대해서

는 시설개선 비용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것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시설수용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여가생활 및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 또 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장애인의 자기표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2) 해외 사례

○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예술사업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영국의 장애인 예술 순회공연

- 새로운 관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장애인 배우나 무용가가 속한 극단이 전국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있다.

○ 뉴욕의 Theatre Access Project(TAP) 프로그램(미국)

- TAP는 장애인들이 공연관람이 편리한 좌석을 예약하도록 도와주고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예술평의회와 협력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공연 제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극장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소수집단의 정체성 및 다양성 보호

우리 사회 안의 소외계층, 소수집단, 비주류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권리, 나아가 자신들의 욕구와 의미체계, 삶의 양식을 통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집단 스스로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와 장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소수집단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기회, 공연장이나 방송매체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인종 사회에서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더 풍요롭게 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령,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 존재하는 쉼터나 교류장소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1.국내 단행본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00

라도삼,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_____,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수실태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것인가」, 시지락, 2002

박명진 외, 「문화향유체계」, 한국학술진흥재단. 1998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자료집)」. 2003

양건열, 「주요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이호영, 「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정갑영 외, 「국민문화지수개발연구」,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정갑영,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조현성,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_____ ,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최종철 역, 새물결, 1995

홍성민,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살림, 2004

2. 국내 논문

강현수, “80년대 후반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와 서울의 산업 재구조화-유연화의 확대와 지역불균등의 심화”,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서울연구」, 한울, 1993

강홍빈, “근대화의 도시풍경: ‘신주작대로’기행’, 한국도시연구 편「한국도시론」, 박영사, 1998

고광만, 서울시 공간구조변화의 정치경제학적 해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민정, 한국청소년 문화복지지표체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원배, “개발이념과 거품도시’, 한국도시연구소 편「한국도시론」, 박영사, 1998

김재현,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박승희, 한국직장인의 수동적 여가생활의 원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36(2). 1997
박용치,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제10권, 2003
박재흥,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제37집 3호, 2003
신현택, 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강수, “문화자원의 분배구조”, 「철학사상」 2(1), 1992
이종호, “문화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장미혜, 소비양식에 미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상대적 효과: 서울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정민아, 소비문화의 분화와 공간화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홍준 외, “서울 도시경관의 이해’,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서울연구」, 한울, 1993
한형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계보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서울의 삶의 역사와 그 공간지리의 변모”, 「서울학연구」 14(1), 2000
황익주, “신도시의 문화향유체계와 시민의 삶의 질: 영국 밀튼킨즈 시의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2

3.기타 국내 문헌

강내희, 경제적 이성 비판과 사회발전:문화적 권리,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2003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서울시민의 여가생활과 공원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2003

4. 외국 문헌

Allison Burgg Bawden, *Access and the Cultural Infrastructure,* Center for the Art and Culture, 2002
Andreasen, Alan R. "Expanding Audiences for the Performing Arts", NEA, 1991
Andy Feist, *Comparative Arts Profiles for Selected World Cities*, The Arts Council of England, 2001

Belfiore, E. "Art as a Means of Alleviating Social Exclusion:Does It Really Work? A Critique of Instrumental Cultural Policies and Social Impact Studies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8(1), 2002 DCMS, DCMS Annual Reoprt 2003

Evelyn Carpenter, *The Arts and Inclusion*, London Arts Board, 1999

GLA, *The Mayor's Annual Report 2003*

Government Office for London, *London's Local Cultural Strategies,* 2002

Helen Jermyn, *The Arts and Social Exclusion*, The Arts Council of England, 2001

Johnson, G et al, *New Audiences for the Arts: The New Audiences Programme 1998-2003,* Arts Council England, 2003

Lodnon Arts, *London Arts Annual Report 2001/02*

_____, *Cultural Diversity Action Plan, 2001*

NEA, *1997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___, *2001 Annual Report*

___, *2002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___,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rts Attendance 2002*

___, *Learning through the Arts*, 2002

The Arts Council of England, *Arts in England; attendance, participation and attitude in 2001,* 2002

_____, *Focus on cultural diversity: Arts in England; attendance, participation and attitude*, 2003.

부 록

[부록1] 설문지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및 의식 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가 시민친화적인 문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시민들의 문화생활 전반에 관해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8조에 근거한 일반통계로 응답내용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 건설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위정 / 코리아리서치센터 김창영
연락처: 3415-5170(서연희 과장)

응답자	SQ1. 이름		SQ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3. 연령	만( )세
	SQ4. 연락처		SQ5. 주소			
	SQ6. 거주지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면접원	이름	(코드 :)	면접일시	2004년 월 일 (: ~ :)		
검증원	이름		검증일시	2004년 월 일		
	검증결과	(1) 합격 (2) 보완 (3) 불합격	불합격이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I. 여가생활

1. 귀하께서는 현재 여가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높다

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서울 및 인근지역에 있는 다음의 장소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가본 적 없다	1회	2~3회	4회 이상
1) 한강시민공원/여의도공원/남산공원/월드컵공원/올림픽공원	①	②	③	④
2) 북한산/도봉산/청계산/우면산/관악산	①	②	③	④
3) 놀이공원(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등)	①	②	③	④
4) 축구경기장/야구경기장/농구경기장	①	②	③	④
5) 고궁(경복궁/창경궁/비원/덕수궁 등)	①	②	③	④

3. *지난 한 달간* 귀하께서는 다음의 여가활동들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한 적 없다	월1~2회 정도	주1 회 정도	거의 매일
01) 조깅/마라톤/산책	①	②	③	④
02)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타기	①	②	③	④
03) 볼링/탁구	①	②	③	④
04) 구기종목(축구/농구 등)	①	②	③	④
05) 등산	①	②	③	④
06) 골프/스키	①	②	③	④
07) 헬스/에어로빅/수영/요가	①	②	③	④
08) 노래방	①	②	③	④
09) 클럽에서 춤추기(나이트클럽 등)	①	②	③	④
10) 고스톱/카드	①	②	③	④
11) 컴퓨터 게임	①	②	③	④
12) 복권 구입/경마	①	②	③	④
13) 컴퓨터 채팅	①	②	③	④
14) 홈페이지 관리/인터넷 클럽 활동 (게시판 글 올리기 등)	①	②	③	④
15) MP3 다운로드	①	②	③	④
16) 종교,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17) 동호회 모임 참가	①	②	③	④
18) 창작활동(그림,사진,서예,글쓰기 등)	①	②	③	④
19) 강좌수강(영어회화, 컴퓨터 등)	①	②	③	④

4. 작년(2003년)에 1박 2일 이상의 휴가를 떠나셨다면, 가장 오랜 휴가를 갔을 때는 얼마 기간으로 가셨습니까?

① 휴가를 가지 않았다(☞문7로)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5박 이상

문5는 작년(2003년)에 휴가를 다녀온 경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5. 작년 휴가 도중 역사문화유적이나 문화시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문7로) ② 있다(☞문6으로)

6. 휴가 도중 역사문화유적이나 문화시설을 방문했다면,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① 절/서원 ② 고궁/성/능/정원 ③ 고택/위인의 생가
④ 박물관/미술관/기념관 ⑤ 박람회(Expo) ⑥ 기타( )

7. 귀하께서는 지방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8.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9. 귀하는 다음 시간대에 주로 어떤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다음 항목 중 자주 체험하는 활동을 세 가지 선택해 우선순위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면접원은 <보기카드 1> 제시할 것)

1) 주중 야간시간대(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2) 주말 (주간 및 야간)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10. 귀하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다음 시간대에 어떠한 여가활동을 해보고 싶습니까? <보기 1>에서 세 가지를 선택해 우선순위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면접원은 <보기카드 1> 제시할 것)

1) 주중 야간시간대(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2) 주말 (주간 및 야간)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보기 1>

① 휴식
② TV , 라디오, 비디오 시청, 음악감상, 게임, 독서, 인터넷 등 옥내활동
③ 공연 관람 (음악, 오페라, 연극, 무용, 뮤지컬 등)
④ 영화 관람
⑤ 일반 유흥 활동(pub, 바, 주점, 카페, 클럽)
⑥ 특정 테마 유흥 활동 (라이브카페, 테마카페, 테마클럽 방문 등)
⑦ 자기계발 교육프로그램 참여 (어학, 기술, 문화교육 등)
⑧ 동호회 활동
⑨ 스포츠, 레저 활동
⑩ 놀이 시설 방문 (테마파크, 놀이공원 등)
⑪ 관광 활동 (여행, 명소방문, 유적지 방문, 축제관람 등)

11. 그럼 귀하께서는 전체적으로 여가를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이번에는 여가생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문12~문14)

12.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이 생기면 대체로 어느 장소에서 보내십니까?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주중 : _____ ▶ 주말 : _____

① 특별한 선호는 없다
②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TV 시청, 독서, 집안일)
③ 집밖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13. 그러면, 여가시간에는 누구와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주중 : _____ ▶ 주말 : _____

① 특별한 선호가 없다
② 혼자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③ 배우자/연인과 함께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④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⑤ 친구들과 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14. 귀하가 상대적으로 돈을 아끼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우선순위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본인 교육 ② 자녀교육
③ 외식 ④ 문화예술활동
⑤ 건강 ⑥ 레저/스포츠/여행
⑦ 외모가꾸기(의류구입, 피부관리, 미장원 등) ⑧ 기타 ( )

II. 문화예술향수 실태 및 태도

1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기 2>	있다	없다
1) 전통예술공연(사물놀이, 국악 등)	①	②
2) 연극	①	②
3) 대중음악공연	①	②
4) 영화	①	②
5) 무용공연	①	②
6) 클래식・오페라 공연	①	②
7) 미술전시회(유물, 그림, 조각 등)	①	②
8) 뮤지컬	①	②

16. 귀하께서는 <u>지난 1년간(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u>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행사를 몇 번이나 관람하셨습니까? (관람한 적이 없다면 0회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2>	관람 회수
1) 전통예술공연(사물놀이, 국악 등)	( )회
2) 연극	( )회
3) 대중음악공연	( )회
4) 영화	( )회
5) 무용공연	( )회
6) 클래식・오페라 공연	( )회
7) 미술전시회(유물, 그림, 조각 등)	( )회
8) 뮤지컬	( )회

문17, 18은 문16에서 한 가지 행사라도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해주십시오

17. 지난 1년간 관람한 예술행사 건수는 이전에 비해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① 줄었다 ② 비슷하다 ③ 늘었다

18. 그러면 지난 1년간 관람한 예술행사 중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화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전통예술공연 ② 연극 ③ 대중음악공연
④ 무용공연 ⑤ 클래식・오페라 공연 ⑥ 미술전시회
⑦ 뮤지컬 ⑧ 없었다(☞문19로)

문18.a～문18.c는 만족할만한 예술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답해주십시오

18.a. 그 예술행사는 어떻게 관람하게 되었습니까?

① 입장권 구입 ② 초대권을 받음 ③ 무료행사
④ 기타( )

18.b. 그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양을 쌓기 위해서 ② 재미있을 것 같아서
③ 주변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④ 초대권이 생겨서/무료여서
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⑥ 기타 ( )

18.c. 그 문화예술 행사는 누구와 함께 가셨습니까?

① 혼자서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와 함께
④ 동호회원과 함께 ⑤ 동료와 함께 ⑥ 기타 ( )

19.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술행사를 관람하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간이 없다 ② 자녀/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
③ 돈이 없다 ④ 관심/이해능력이 부족하다
⑤ 행사장까지 가기가 불편하다. ⑥ 함께 갈 사람이 없다
⑦ 기타( )

20. 그럼,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어떤 예술행사를 가장 관람하고 싶으십니까? (면접원은 <보기카드 2> 제시할 것)

① 전통예술공연(사물놀이, 국악 등) ② 연극
③ 대중음악공연 ④ 영화
⑤ 무용공연 ⑥ 클래식・오페라 공연
⑦ 미술전시회(유물, 그림, 조각 등) ⑧ 뮤지컬

21. 귀하가 예술행사를 관람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예술행사의 내용 ② 비용 ③ 유명도
④ 행사 개최 장소 ⑤ 교통편의 ⑥ 주위 사람의 평가
⑦ 비평가들의 평가 ⑧ 기타( )

22. 귀하께서 꼭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1만원 이내 ② 3만원 이내 ③ 5만원 이내
④ 7만원 이내 ⑤ 10만원 이내 ⑥ 10만원 초과

23. 귀하께서 한곡이라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피아노 ② 바이올린/첼로 ③ 기타(Guitar)
④ 가야금 ⑤ 하모니카 ⑥ 리코더
⑦ 단소/대금 ⑧ 플루트 ⑨ 기타( )
⑩ 해당사항 없음

24. 귀하의 댁에는 어떤 악기가 있습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피아노 ② 바이올린/첼로 ③ 기타(Guitar)
④ 가야금 ⑤ 하모니카 ⑥ 리코더
⑦ 단소/대금 ⑧ 플루트 ⑨ 기타( )
⑩ 해당사항 없음

2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문학(독서회, 우리말동호회 포함) ② 서양음악 ③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④ 전통예술 ⑤ 무용 ⑥ 연극
⑦ 만화(캐릭터, 애니메이션 포함) ⑧ 영화/비디오 ⑨ 방송/연예
⑩ 생활취미활동(원예, 바둑, 장기) ⑪ 인터넷, 컴퓨터 ⑫ 오락/게임
⑬ 역사유적지 탐방 ⑭ 여행 ⑮ 낚시
⑯ 운동(스포츠) ⑰ 등산 ⑱ 기타( )
⑲ 해당사항 없음

26. 지난 1년간 귀하께서는 다음 문화시설에 공연 혹은 전시를 보기 위해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1) 대형공연장(세종문화회관/예술의 전당/ LG 아트센터/국립극장)	①	②	③	④
2)일반공연장(정동극장/연강홀/호암아트홀)	①	②	③	④
3) 인사동/안국동 미술관 혹은 화랑	①	②	③	④
4) 공공미술관/박물관(과천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서울역사박물관)	①	②	③	④
5) 대학로 소극장	①	②	③	④

27. 귀하께서는 거주지역내 다음 문화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나 이용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7.a. 인지여부		**27.b. 이용여부**	
	모른다	알고 있다	이용경험 없다	이용경험 있다
1) 문예회관(구립문예회관)	①	②	①	②
2) 구민회관	①	②	①	②
3) 문화원(지방문화원)	①	②	①	②
4)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	①	②	①	②
5) 공공도서관	①	②	①	②
6) 사설 문화센터(백화점/신문사/시민단체)	①	②	①	②
7) 구민 체육센터	①	②	①	②

27.c. (27.b에서 이용경험이 한 가지 경우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문예회관(구립문예회관)	①	②	③	④	⑤
2) 구민회관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원(지방문화원)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	①	②	③	④	⑤
5)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6) 사설 문화센터(백화점/신문사/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7) 구민 체육센터	①	②	③	④	⑤

27.d. (27.b에서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지역 문화시설을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안 맞아서
② 그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③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④ 거리가 멀어서/교통이 불편해서
⑤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관심이 없어서
⑥ 기타 ( )

28 서울에 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공공문화 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공공 도서관 ② 문화센터 ③ 체육시설
④ 공원 ⑤ 공연시설 ⑥ 기타( )

29. 귀하께서는 결혼 전에 비해, 결혼 이후 문화예술행사에 더 적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참여하십니까?

① 더 적게 참여한다 ② 비슷하다 ③ 더 많이 참여한다
④ 미혼이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문30～문31)

30. 두 의견 중 귀하의 의견에 더 가까운 쪽을 말씀해주십시오.

1)	① 나는 클래식 음악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② 나는 클래식 음악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2)	①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뮤지컬을 보고 싶다 ② 뮤지컬을 볼 돈이 있다면 다른 데 쓰고 싶다
3)	① 더 많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데 반대한다. ② 더 많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데 동의한다
4)	① 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낫다 ② 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게 낫다
5)	①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내고 싶지 않다 ②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
6)	① 아시아의 한류열풍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② 아시아의 한류열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7)	① 문화예술향유는 개인적인 일이므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② 처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8)	① 나의 예술 향유 수준은 우리나라 평균에 못 미칠 것이다 ② 나의 예술 향유 수준은 우리나라 평균에 가까울 것이다 ③ 나의 예술 향유 수준은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할 것이다
9)	①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②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해도 상관없다

31. 귀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매우 동의	모름
1) 음악을 전공하려면 부모가 돈이 많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아이가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것을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에 대한 관심은 학력과 비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①	②	③	④	⑤
5)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클래식 콘서트에 가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투자는 나 자신의 직업적 성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사회는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변화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장을 고를 때 연봉보다는 여유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III. 취향

먼저 TV 시청에 대한 질문입니다(문32~문36)

32. 귀댁에서는 유선이나 케이블 TV/위성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33. 귀하께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TV를 시청하십니까?

▶ 주중 : _____시간　　▶ 주말 : _____시간

34. 귀하가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 뉴스/시사 프로그램 ② 다큐멘터리/교육 프로그램
③ 쇼/오락 프로그램 ④ 드라마
⑤ 영화 ⑥ 홈쇼핑
⑦ 스포츠 ⑧ 기타( )

35. TV 드라마는 1주일에 몇 일 정도 보십니까?

① 거의 보지 않는다 ② 1~2일 ③ 3~4일 ④ 매일 본다

36. 귀하의 TV 시청 습관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쪽에 대답해 주십시오.

①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본다 ② 할일이 없으면 주로 TV를 본다
③ 집에 가면 늘 TV를 켜 놓는다

이번에는 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문37~문40)

37. 다음 중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를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① 공포/호러 ② 미스테리/스릴러 ③ 예술영화/다큐멘터리
④ 드라마/멜로물 ⑤ 애니메이션 ⑥ 무협영화
⑦ 액션/어드벤쳐 ⑧ 코미디 ⑨ SF/판타지
⑩ 기타( )

38. 영화는 주로 무엇을 통하여 보십니까?

① 영화관 ② 비디오/DVD ③ 인터넷/컴퓨터 ④ TV

39. 귀하께서 영화관에 가기 전에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주연배우 ② 평론가들의 의견
③ TV/신문의 영화소개 프로그램 ④ 영화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주변 사람들의 의견 ⑥ 감독
⑦ 기타( )

40. 다음 중 최근 영화관에서 본 모든 영화를 체크하시고, 그 중 좋았던 영화를 2편 골라 주십시오.

	40.a. 본 영화	40.b. 좋았던 영화
반지의 제왕(2편 혹은 3편)	①	①
살인의 추억	②	②
매트릭스(2편 혹은 3편)	③	③
냉정과 열정 사이	④	④
올드보이	⑤	⑤
태극기 휘날리며	⑥	⑥
선생 김봉두	⑦	⑦
장화, 홍련	⑧	⑧
굿바이 레닌	⑨	⑨
니모를 찾아서	⑩	⑩
영웅	⑪	⑪
질투는 나의 힘	⑫	⑫
디 아워스	⑬	⑬
도그빌	⑭	⑭
볼링 포 콜럼바인	⑮	⑮
송환	⑯	⑯

이번에는 도서 및 음반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문41～문46)

41. 귀하께서는 <u>지난 1년 동안</u> 서적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단, 만화/잡지/학습/업무용 제외)

_____권

42. <u>지난 1년 동안</u> 업무나 학습을 위해 읽은 것을 제외하고 주로 읽은 분야의 책은 무엇입니까?

① 문학/소설/수필
② 역사/예술/철학/종교 등 교양서적
③ 경영/비즈니스
④ 건강/취미/여성/생활
⑤ 과학/시사
⑥ 기타(　　)

43. 다음 중 즐겨보시는 잡지는 무엇입니까?

① 여성월간지 ② 육아/유아지 ③ 시사교양 주간지
④ 영화/연예주간지 ⑤ 생활문화정보지 ⑥ 기타( )
⑦ 즐겨보는 잡지가 없다

44.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① 클래식 ② 가요(댄스) ③ 가요(락)
④ 가요(발라드) ⑤ 가요(트롯) ⑥ 국악
⑦ 오페라 ⑧ 영화음악 ⑨ 팝송
⑩ 기타( ) ⑪ 없음

45. 최근 1년간 내용(콘텐츠)이 들어 있는 비디오테이프, VCD, DVD 등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문46으로) ② 있다(☞문45.a로)

45.a. 구매한 적이 있다면 어떤 종류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다큐멘터리 ② 영화 ③ 애니메이션(만화영화)
④ 교육용 ⑤ 음악(콘서트 실황) ⑥ 건강(헬스, 요가)
⑦ 기타( )

46. 다음과 같은 항목 중에서 귀하가 가장 많이 지출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면접원은 <보기카드 3> 제시할 것) 1순위: 2순위:

① 책, 잡지 구입 및 대여 ② 음반, 테이프 및 CD 구입
③ 비디오테이프 구입 및 대여 ④ 각종 전시회 관람
⑤ 서양고전음악회 관람 ⑥ 전통예술 관람
⑦ 무용관람 ⑧ 연극(뮤지컬 포함) 관람
⑨ 영화관람 ⑩ 대중음악 공연, 연예(쇼) 관람
⑪ 예술관련 교육비・강습비 ⑫ 기타( )
⑬ 해당사항 없음

IV. 문화예술 교육 및 경험

문화예술은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기, 영화, 생활취미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47. 귀하께서는 만 18세(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관련 강습을 받아 보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48.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문화예술과 관련된 강습을 받아보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문49는 문47, 48에서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49. 귀하께서 강습을 받아보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8세 이전 : _____ ▶ 지난 1년 : _____

① 문학 ②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③ 서양음악(악기, 성악, 작곡 포함) ④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⑤ 무용 ⑥ 연극(뮤지컬 포함)
⑦ 영상·영화(비디오 포함) ⑧ 연예(연기, 노래)
⑨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포함) ⑩ 생활취미
⑪ 기타( ) ⑫ 없음

49.a. 귀하께서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8세 이전 : _____ ▶ 지난 1년 : _____

① 사설학원 ② 공공단체 부설기관 ③ 사설기관 문화센터
④ 개인레슨 ⑤ 기타 ( )

50. 자신이 꼭 배우고 싶었던 예술교육 장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문학 ②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③ 서양음악(악기, 성악, 작곡 포함) ④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⑤ 무용 ⑥ 연극(뮤지컬 포함)
⑦ 영화(비디오 포함) ⑧ 연예(연기, 노래)
⑨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포함) ⑩ 생활취미
⑪ 기타( ) ⑫ 없음

51. 귀하께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부모님이나 가정 내의 성인이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있음
1) 집에서 때때로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 등을 들었다	①	②
2) 연극(뮤지컬 포함), 대중음악공연, 클래식·오페라 공연, 무용공연, 전통예술공연(사물놀이, 국악 등), 미술전시회(유물, 그림, 조각 등) 등에 데려간 적이 있다	①	②
3) 여행하던 중 문화유적을 보러 간 적이 있다	①	②
4) 부모가 함께 서점에 가서 책(학습 관련된 책 이외)을 사준 적이 있다	①	②
5) 화가가 그린 그림(진품)을 집에 걸어놓았다	①	②

V. 사회 인구학적 특성

52. 귀하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_____ 명

53.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직장에 다녀본 적이 있는 경우 직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었던 경우, 가장 오래 가졌던 직업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직업코드> 참고]
▶(　　)

54. 귀하 가족의 주요 소득원인 실질적 가장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코드> 참고]
▶(　　)

55. 귀하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한달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300만원　⑤ 301-400만원　⑥ 401-500만원
⑦ 501만원 이상

56. 귀하가 만 18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지방 대도시(광역시)　③ 지방 중소도시
④ 농어촌 지역

57. 귀댁의 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③ 다세대주택(빌라, 연립)
④ 기타( )

58. 귀댁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월세 ④ 월세 ⑤ 기타

59.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재
④ 2년제 대졸 ⑤ 4년제 대졸 이상

60. 귀하의 부친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2년제 대졸
④ 4년제 대졸 이상

61. 귀하가 만15세였을 때 부모님(가정경제를 책임지던 분)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직업코드> 참고)

▶( )

62.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중층 ④ 중상층 ⑤ 상층

▶ 직업코드 보기 ◀

【전문직】
⑪ 의사
⑫ 약사
⑬ 변호사·판사·검사·회계사
⑭ 대학교수
⑮ 작가·예술가
⑯ 언론인·방송인
⑰ 종교인
⑱ 교사·학원강사
⑲ 간호사
⑳ 건축사
㉑ 연구원
㉒ 엔지니어
㉓ 기타 기술 전문직

【관리직】
㉛ 중소기업체(10인 이상 고용)
㉜ 중소기업체(10인 이하 고용)
㉝ 대기업·은행간부(부장 이상)
㉞ 고급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
㉟ 사회단체 간부(부장이상)
㊱ 군인(영관급 이상)·경찰(경정이상)
㊲ 기타 관리직

【사무직】
㊶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과장)
㊷ 일반사무직 회사원(계장·대리이하)
㊸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과장)
㊹ 일반사무직 은행원(대리·행원)
㊺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㊻ 일반 공무원(5급 사무관이하)
㊼ 전화교환수·집배원
㊽ 군경(위관 이하, 경감이하)
㊾ 기타 사무직

【자영업】
㊶ 도·소매 상점주인
㊷ 음식점·여관 등의 주인
㊸ 부동산중개인
㊹ 개인택시
㊺ 기타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㊶ 백화점·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
㊷ 음식점·여관 등의 종업원
㊸ 소규모 상점 점원·외판원
㊹ 이·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㊺ 행상·노점상
㊻ 수위·경비원
㊼ 청소부·파출부
㊽ 기타 서비스 판매직

【생산직】
㊶ 생산감독(주임·반장)
㊷ 공장근로자(숙련공·기능공)
㊸ 공장근로자(반숙련공)
㊹ 공장근로자(견습공·비숙련공)
㊺ 막 노동자·단순노무직
㊻ 고용운전사(자동차·중장비)
㊼ 회사택시·화물차 운전사
㊽ 광원
㊾ 기타 생산직

【농어민】
㊶ 농어민(어부, 수산·양식업자, 선주 등)
㊷ 축산·낙농업자
㊸ 기타 농어민

【미취업】
㊶ 학생
㊷ 주부
㊸ 의무복무 군인(사병·전경)
㊹ 무직(실업자)
㊺ 정년퇴직·연금생활자
㊻ 기타

[부록 2] 문항별 교차표

<부록표 1a> 주로하는 여가활동 1순위(주중)

		사례수	휴식	옥내활동	공연관람	영화관람	일반 유흥활동	특정테마 유흥활동
			%	%	%	%	%	%
전 체		1300	44.8	44.1	0.8	2.6	2.5	0.3
성별	남자	636	44.2	44.1	0.8	2.0	3.9	0.3
	여자	664	45.3	44.2	0.8	3.0	1.2	0.3
연령별	20대	320	36.0	47.4	1.3	5.3	4.4	0.3
	30대	327	48.6	40.3	1.2	3.1	2.1	0.9
	40대	291	49.1	42.3	0.3	0.7	2.4	
	50대이상	362	45.5	46.2	0.3	1.1	1.4	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5.6	49.4			1.0	
	고졸	651	45.6	44.8	0.8	2.0	2.5	
	대재	114	31.5	50.0	1.8	7.0	2.6	
	2년제대졸	153	49.2	38.3		2.7	2.0	1.3
	4년제대졸이상	279	45.7	41.0	1.1	2.9	3.6	0.7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52.3	33.4	4.7	3.3	3.2	
	관리직	40	45.0	42.5			12.5	
	사무직	362	45.8	43.1	0.3	4.2	1.9	0.8
	자영업	375	49.7	42.1	0.3	0.5	1.9	0.3
	판매서비스직	170	41.2	44.1	0.6	4.1	3.5	
	생산직	51	29.5	56.7			7.9	
	학생	99	32.2	50.6	4.1	7.1	1.0	
	주부	123	47.1	47.3			0.8	
	무직/기타	13	30.8	46.2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36.9	60.2				
	101-150만원	93	33.4	52.6	1.1	2.2	4.3	
	151-200만원	124	38.7	53.2		3.2		
	201-300만원	359	49.5	41.2	0.3	2.3	2.8	0.3
	301-400만원	433	45.0	44.1	0.9	2.8	1.6	0.5
	401-500만원	155	43.9	40.0	1.3	2.6	3.9	0.6
	501만원이상	86	51.2	32.5	2.3	3.5	7.0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45.6	46.4		2.3	2.3	
	중하층	487	45.1	45.8	0.6	2.7	1.8	
	중중층	604	45.7	42.9	0.8	2.5	2.8	0.3
	중상층	120	38.3	41.7	1.7	2.5	4.2	1.7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26.0	67.1	1.4	1.4	2.7	
	동북권	428	53.6	35.7	0.7	2.8	2.3	0.5
	서북권	158	39.0	47.1	1.9	1.9	3.2	0.6
	서남권	387	42.5	50.0		1.6	1.6	0.3
	동남권	254	42.3	41.1	1.2	4.4	3.9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45.2	41.3	1.0	3.3	3.0	0.4
	광역시	187	40.8	52.8	0.5	0.5	1.6	0.5
	중소도시	204	47.0	41.6	0.5	3.0	2.9	
	농어촌지역	238	44.6	47.4	0.4	1.7	1.7	

<부록표 1b> 주로하는 여가활동 1순위(주중)

		사례수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호회 활동	스포츠, 레저활동	놀이시설 방문	없음
			%	%	%	%	%
전 체		1300	0.7	0.2	3.9	0.1	0.1
성별	남자	636	0.6	0.2	3.9		
	여자	664	0.8	0.2	3.9	0.2	0.2
연령별	20대	320	0.9		4.1	0.3	
	30대	327	0.3	0.3	2.8		0.3
	40대	291	0.7		4.5		
	50대이상	362	0.8	0.3	4.4	0.0	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3.9		
	고졸	651	0.3	0.2	3.5	0.2	0.2
	대재	114	2.6		4.4		
	2년제대졸	153	2.0		4.6		
	4년제대졸이상	279	0.4	0.4	4.3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6	1.6		
	관리직	40					
	사무직	362	0.6		3.0	0.3	
	자영업	375	0.3		4.8		0.3
	판매서비스직	170	1.2	0.6	4.8		
	생산직	51			5.9		
	학생	99	2.0		3.0		
	주부	123	0.8		4.1		
	무직/기타	13	7.7		15.4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9
	101-150만원	93	1.1		5.4		
	151-200만원	124	0.8	0.8	3.2		
	201-300만원	359	0.6		3.1		
	301-400만원	433	1.2	0.2	3.7		
	401-500만원	155			7.1	0.6	
	501만원이상	86			3.5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1		1.1		1.1
	중하층	487	0.4		3.5		
	중중층	604	1.0	0.3	3.6		
	중상층	120			9.2	0.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4			
	동북권	428	0.2		4.2		
	서북권	158	1.9		3.8	0.6	
	서남권	387	1.0	0.3	2.6		0.3
	동남권	254	0.4		6.7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0.6	0.1	4.6	0.1	0.1
	광역시	187			3.2		
	중소도시	204	1.5	0.5	2.9		
	농어촌지역	238	0.8		3.4		

<부록표 2a> 주로하는 여가활동 1순위(주말)

		사례수	휴식	옥내활동	공연관람	영화관람	일반 유흥활동	특정테마 유흥활동
			%	%	%	%	%	%
전 체		1300	32.7	34.8	1.3	8.2	3.7	0.3
성별	남자	636	32.0	33.2	1.4	7.7	5.2	0.2
	여자	664	33.4	36.4	1.2	8.6	2.3	0.5
연령별	20대	320	21.3	29.3	1.3	22.2	7.8	0.3
	30대	327	33.6	33.3	1.5	7.4	2.8	0.6
	40대	291	37.1	36.4	2.1	2.4	2.1	0.3
	50대이상	362	38.6	39.8	0.6	1.1	2.2	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39.6	45.5				
	고졸	651	36.4	36.8	1.1	4.2	3.8	0.5
	대재	114	13.9	29.0	2.6	28.1	5.3	
	2년제대졸	153	33.7	28.4	0.7	13.1	2.6	0.7
	4년제대졸이상	279	29.1	32.1	2.2	9.3	4.7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23.7	30.4	4.7	12.8	6.3	
	관리직	40	32.5	22.5		7.5	7.5	
	사무직	362	30.6	33.4	1.1	9.4	3.0	0.3
	자영업	375	42.5	36.9	1.1	1.3	3.2	
	판매서비스직	170	30.0	35.2	1.2	12.4	4.7	
	생산직	51	21.4	43.3		7.9	7.9	2.0
	학생	99	14.0	29.4	3.0	29.3	5.1	
	주부	123	36.5	40.9	0.8	0.8		0.8
	무직/기타	13	38.5	23.1		7.7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39.8	37.3		2.9	2.9	
	101-150만원	93	30.2	44.0	2.2	4.3	5.4	
	151-200만원	124	28.2	47.5	0.8	4.0	2.4	1.6
	201-300만원	359	38.1	37.7	0.8	6.7	3.3	
	301-400만원	433	33.5	32.5	1.2	7.6	3.5	0.5
	401-500만원	155	28.3	27.7	1.9	12.9	3.9	
	501만원이상	86	22.1	18.7	3.5	20.9	5.8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37.6	39.6	1.1	1.1	3.4	
	중하층	487	38.5	38.0	1.0	6.2	2.3	0.6
	중중층	604	29.3	33.8	1.3	9.6	4.6	
	중상층	120	23.2	24.3	2.5	14.2	5.0	0.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23.3	54.8	1.4	6.8	1.4	
	동북권	428	44.2	28.9	0.9	5.8	2.3	0.7
	서북권	158	25.9	35.7	1.9	7.0	8.2	
	서남권	387	32.4	38.6	0.5	6.5	3.6	
	동남권	254	20.9	32.9	2.8	15.8	3.9	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33.2	30.1	1.2	11.0	4.9	0.4
	광역시	187	28.4	46.4	1.6	5.9	3.7	0.5
	중소도시	204	32.7	32.5	2.0	7.4	2.5	
	농어촌지역	238	34.9	41.1	0.8	2.6	1.3	

<부록표 2b> 주로하는 여가활동 1순위(주말)

		사례수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호회 활동	스포츠, 레저활동	놀이시설 방문	관광활동	없음
			%	%	%	%	%	%
전 체		1300	1.1	0.8	11.4	1.5	4.2	0.1
성별	남자	636	0.6	1.4	13.4	1.1	3.8	
	여자	664	1.5	0.2	9.5	1.8	4.5	0.2
연령별	20대	320	2.2	0.9	9.4	2.5	2.8	
	30대	327	1.2	0.3	12.6	2.1	4.3	0.3
	40대	291	0.3	0.3	13.4	1.0	4.5	
	50대이상	362	0.6	1.4	10.6	0.3	5.0	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1.0	10.0		3.9	
	고졸	651	0.6	0.8	11.7	1.4	2.6	0.2
	대재	114	4.4	2.6	8.8	1.8	3.5	
	2년제대졸	153	1.3		11.7	3.3	4.6	
	4년제대졸이상	279	1.1	0.4	12.2	1.1	7.9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6	1.6	7.9	4.7	6.3	
	관리직	40		2.5	20.0	2.5	5.0	
	사무직	362	0.3	0.6	14.1	1.9	5.2	
	자영업	375	0.5	1.3	8.3	0.5	4.0	0.3
	판매서비스직	170	1.8		11.2	1.2	2.4	
	생산직	51	2.0		11.8	2.0	2.0	
	학생	99	5.1	1.0	9.1	1.0	3.0	
	주부	123	0.8		13.8	0.8	4.9	
	무직/기타	13			15.4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1.5		2.9	2.9
	101-150만원	93	2.2		9.7	1.1	1.1	
	151-200만원	124	0.8	0.8	10.5	1.6	1.6	
	201-300만원	359	0.8	0.3	8.9	1.1	2.2	
	301-400만원	433	0.7	1.2	11.6	1.6	6.2	
	401-500만원	155	0.6	1.9	16.8	2.6	3.2	
	501만원이상	86	3.5		12.8	1.2	11.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1	1.1	9.1	1.1	3.4	1.1
	중하층	487	0.4	0.6	9.5	1.4	1.4	
	중중층	604	1.0	0.7	13.1	1.7	5.0	
	중상층	120	4.2	1.7	12.5	0.8	10.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4	1.4	4.1	1.4	4.1	
	동북권	428	0.7	0.7	8.7	1.4	5.6	
	서북권	158	1.3	0.6	13.1	1.9	4.4	
	서남권	387	1.0	1.0	11.6	1.3	3.1	0.3
	동남권	254	1.6	0.4	16.7	1.6	3.1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2	0.7	10.9	1.5	4.6	0.1
	광역시	187	0.5	0.5	9.6	1.1	1.6	
	중소도시	204	1.0	1.5	13.2	2.0	5.4	
	농어촌지역	238	1.3	0.4	12.6	1.3	3.8	

<부록표 3> 휴가여행 일수

		사례수	휴가를 가지 않았다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 이상
			%	%	%	%	%	%
전 체		1300	24.7	10.4	28.2	21.5	10.5	4.8
성별	남자	636	25.0	10.0	26.6	21.9	11.3	5.2
	여자	664	24.4	10.7	29.8	21.1	9.6	4.4
연령별	20대	320	18.0	10.0	27.4	23.8	14.3	6.6
	30대	327	19.9	9.8	28.6	25.4	10.1	6.1
	40대	291	24.7	10.7	30.6	21.3	9.6	3.1
	50대이상	362	34.9	11.1	26.7	16.0	8.1	3.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3.6	10.9	19.7	12.8	11.0	2.0
	고졸	651	28.1	10.6	30.3	18.0	8.7	4.3
	대재	114	19.9	7.0	26.4	22.0	16.7	7.9
	2년제대졸	153	17.3	12.5	31.1	23.5	9.8	5.9
	4년제대졸이상	279	15.6	10.0	25.8	31.3	12.2	5.0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4.2	11.2	19.2	27.0	14.2	14.2
	관리직	40	35.0	5.0	25.0	7.5	22.5	5.0
	사무직	362	16.7	12.1	29.8	26.5	10.4	4.4
	자영업	375	29.0	12.3	28.8	18.4	7.5	4.0
	판매서비스직	170	22.9	8.3	28.7	22.4	11.8	5.9
	생산직	51	47.0	5.9	27.5	7.9	7.9	3.9
	학생	99	22.0	7.1	26.4	23.3	15.2	6.1
	주부	123	33.5	7.2	28.5	21.9	8.1	0.8
	무직/기타	13	23.1	23.1	30.8	7.7	7.7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48.4	11.5	20.1	11.5	8.6	
	101-150만원	93	24.8	14.0	29.1	15.1	7.4	9.7
	151-200만원	124	33.1	11.2	24.3	17.8	8.9	4.8
	201-300만원	359	25.4	10.3	29.8	21.2	10.0	3.3
	301-400만원	433	23.3	12.3	29.1	22.4	9.2	3.7
	401-500만원	155	20.5	3.9	29.7	26.5	12.9	6.5
	501만원이상	86	12.8	8.1	23.2	25.7	20.9	9.3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52.3	6.8	23.9	9.1	4.5	3.4
	중하층	487	26.2	11.7	31.2	19.1	9.5	2.2
	중중층	604	22.2	10.3	27.0	23.7	10.6	6.3
	중상층	120	10.7	8.3	25.0	29.3	18.3	8.3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20.5	20.5	20.5	23.3	11.0	4.1
	동북권	428	27.7	8.4	27.0	18.5	12.4	6.1
	서북권	158	20.1	11.9	30.1	27.1	9.5	1.3
	서남권	387	24.1	10.8	29.7	20.9	9.0	5.4
	동남권	254	24.5	9.1	29.2	23.4	9.8	3.9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26.2	9.2	25.4	22.2	11.3	5.7
	광역시	187	12.9	12.8	33.7	25.2	10.2	5.3
	중소도시	204	23.0	9.4	25.4	26.0	12.3	3.9
	농어촌지역	238	31.1	12.6	34.5	12.6	6.7	2.5

<부록표 4> 여가활동 만족도

		사례수	여가활동 만족도 평가					종합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적	보통	긍정적
			%	%	%	%	%	%	%	%
전 체		1300	13.1	45.2	25.9	14.2	1.6	58.3	25.9	15.8
성별	남자	636	11.0	45.4	28.4	14.2	1.1	56.4	28.4	15.3
	여자	664	15.1	45.0	23.5	14.3	2.1	60.1	23.5	16.4
연령별	20대	320	6.9	42.0	31.8	18.1	1.3	48.9	31.8	19.3
	30대	327	12.9	47.6	25.7	13.2	0.6	60.5	25.7	13.8
	40대	291	14.8	48.5	23.0	13.1	0.7	63.2	23.0	13.7
	50대이상	362	17.4	43.2	23.1	12.7	3.6	60.6	23.1	16.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35.0	34.5	17.6	8.9	3.9	69.5	17.6	12.8
	고졸	651	14.3	50.6	21.8	11.8	1.5	64.9	21.8	13.3
	대재	114	1.8	38.5	38.7	21.0		40.3	38.7	21.0
	2년제대졸	153	6.4	49.9	31.9	11.2	0.7	56.3	31.9	11.8
	4년제대졸이상	279	10.2	36.6	30.2	20.9	2.2	46.8	30.2	23.0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9.5	35.1	30.0	17.5	7.9	44.6	30.0	25.4
	관리직	40	7.5	40.0	25.0	25.0	2.5	47.5	25.0	27.5
	사무직	362	9.2	41.1	30.4	17.4	1.9	50.3	30.4	19.3
	자영업	375	15.0	52.5	21.1	10.4	1.1	67.5	21.1	11.5
	판매서비스직	170	19.5	49.4	21.7	9.4		68.9	21.7	9.4
	생산직	51	25.8	43.0	21.4	5.9	3.9	68.8	21.4	9.8
	학생	99	2.0	36.3	38.5	23.2		38.3	38.5	23.2
	주부	123	14.0	45.5	24.2	15.5	0.8	59.5	24.2	16.3
	무직/기타	13	46.2	30.8	15.4		7.7	76.9	15.4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1.6	22.9	16.9	5.7	2.9	74.5	16.9	8.6
	101-150만원	93	25.8	38.7	24.7	7.5	3.2	64.5	24.7	10.8
	151-200만원	124	14.7	61.3	13.6	8.9	1.6	75.9	13.6	10.5
	201-300만원	359	11.8	53.2	24.5	10.2	0.3	65.0	24.5	10.5
	301-400만원	433	11.6	40.8	28.6	17.1	1.8	52.4	28.6	19.0
	401-500만원	155	8.3	39.4	31.0	19.4	1.9	47.7	31.0	21.3
	501만원이상	86	4.6	35.0	32.5	24.4	3.5	39.6	32.5	27.9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37.6	46.4	10.2	4.5	1.1	84.1	10.2	5.7
	중하층	487	15.9	51.8	21.7	9.9	0.8	67.7	21.7	10.7
	중중층	604	8.4	42.1	30.5	17.0	2.0	50.5	30.5	19.0
	중상층	120	7.4	33.4	30.8	25.0	3.3	40.8	30.8	28.3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7.8	49.3	26.0	4.1	2.7	67.1	26.0	6.8
	동북권	428	12.8	44.5	29.4	11.2	2.1	57.3	29.4	13.3
	서북권	158	13.8	56.6	15.7	11.3	2.5	70.4	15.7	13.8
	서남권	387	15.5	47.1	25.7	10.3	1.3	62.6	25.7	11.6
	동남권	254	8.0	35.2	26.4	30.1	0.4	43.1	26.4	3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0.6	41.6	31.2	14.6	2.1	52.2	31.2	16.7
	광역시	187	13.4	52.9	19.3	12.3	2.1	66.3	19.3	14.5
	중소도시	204	11.4	46.6	22.4	19.7		58.0	22.4	19.7
	농어촌지역	238	21.2	48.3	19.2	10.1	1.3	69.5	19.2	11.3

<부록표 5> 여가문화 관심도

		사례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도						종합 결과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 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높다	모름/ 무응답	관심 없음	보통	관심 있음	모름/ 무응답
			%	%	%	%	%	%	%	%	%	%
전 체		1300	2.2	15.4	26.4	39.5	15.9	0.6	17.6	26.4	55.4	0.6
성별	남자	636	2.7	16.9	26.3	36.8	16.5	0.8	19.6	26.3	53.3	0.8
	여자	664	1.8	14.0	26.4	42.0	15.4	0.5	15.8	26.4	57.4	0.5
연령별	20대	320		8.1	24.7	46.3	20.9		8.1	24.7	67.2	
	30대	327	1.5	11.5	24.7	46.7	14.7	0.9	13.0	24.7	61.4	0.9
	40대	291	2.7	19.9	28.5	33.3	14.8	0.7	22.7	28.5	48.1	0.7
	50대이상	362	4.4	21.8	27.6	31.8	13.5	0.9	26.2	27.6	45.3	0.9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10.8	21.7	26.8	29.9	10.8		32.5	26.8	40.7	
	고졸	651	2.4	18.0	27.7	38.2	12.6	1.1	20.4	27.7	50.8	1.1
	대재	114		4.4	24.6	46.4	23.7	0.9	4.4	24.6	70.1	0.9
	2년제대졸	153		19.4	29.9	38.3	12.4		19.4	29.9	50.7	
	4년제대졸이상	279	0.8	9.3	22.0	43.5	24.5		10.0	22.0	68.0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6	7.9	25.5	36.5	28.6		9.5	25.5	65.1	
	관리직	40	2.5	15.0	40.0	17.5	25.0		17.5	40.0	42.5	
	사무직	362	0.8	9.7	24.9	48.0	16.1	0.6	10.4	24.9	64.1	0.6
	자영업	375	4.3	22.9	25.5	31.7	14.9	0.8	27.2	25.5	46.6	0.8
	판매서비스직	170	2.4	19.3	24.0	38.4	15.9		21.7	24.0	54.3	
	생산직	51	3.9	19.2	31.4	33.7	11.8		23.1	31.4	45.4	
	학생	99		3.0	27.4	48.4	21.2		3.0	27.4	69.6	
	주부	123	0.9	17.0	30.9	43.1	5.7	2.4	17.9	30.9	48.8	2.4
	무직/기타	13	7.7	15.4	23.1	23.1	30.8		23.1	23.1	53.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4.3	5.7	22.9	34.1	22.9		20.1	22.9	57.0	
	101-150만원	93	4.3	17.1	32.4	28.9	16.1	1.2	21.4	32.4	45.0	1.2
	151-200만원	124	3.2	24.9	26.8	32.2	11.2	1.6	28.1	26.8	43.5	1.6
	201-300만원	359	1.4	15.8	31.0	41.6	10.3		17.2	31.0	51.9	
	301-400만원	433	1.9	13.9	23.1	42.7	17.3	1.2	15.8	23.1	60.0	1.2
	401-500만원	155	1.3	17.9	25.3	38.1	17.5		19.2	25.3	55.5	
	501만원이상	86	1.2	4.6	22.1	39.5	32.6		5.8	22.1	72.1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8.0	23.9	28.6	25.0	14.6		31.8	28.6	39.6	
	중하층	487	2.1	16.7	31.2	38.1	11.3	0.6	18.8	31.2	49.3	0.6
	중중층	604	1.8	14.9	23.4	41.3	17.9	0.7	16.7	23.4	59.2	0.7
	중상층	120	0.8	6.5	20.0	45.8	25.9	0.8	7.4	20.0	71.8	0.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4.1	34.2	28.8	20.5	12.3		38.4	28.8	32.9	
	동북권	428	2.6	9.6	28.0	40.3	18.2	1.2	12.2	28.0	58.6	1.2
	서북권	158	1.2	24.4	30.1	29.1	14.6	0.6	25.6	30.1	43.7	0.6
	서남권	387	3.1	16.9	22.5	44.9	12.3	0.3	20.0	22.5	57.2	0.3
	동남권	254	0.4	11.8	26.4	41.6	19.3	0.4	12.2	26.4	60.9	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4	11.5	27.6	40.6	18.5	0.4	12.8	27.6	59.1	0.4
	광역시	187	2.7	23.5	25.2	34.7	13.4	0.5	26.2	25.2	48.1	0.5
	중소도시	204	3.9	16.1	21.0	44.3	14.3	0.5	19.9	21.0	58.6	0.5
	농어촌지역	238	2.9	19.7	28.3	35.7	12.1	1.3	22.6	28.3	47.8	1.3

<부록표 6a>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주중)

		사례수	휴식	옥내활동	공연관람	영화관람	일반 유흥활동	특정테마 유흥활동
			%	%	%	%	%	%
전 체		1300	16.1	14.6	9.3	10.1	3.4	2.5
성별	남자	636	16.5	13.5	6.1	8.9	4.9	1.4
	여자	664	15.8	15.7	12.3	11.1	2.0	3.5
연령별	20대	320	11.6	14.1	11.9	15.0	5.0	4.1
	30대	327	16.2	12.5	10.1	9.5	2.8	2.4
	40대	291	17.2	14.8	9.3	8.2	3.8	2.1
	50대이상	362	19.3	16.8	6.2	7.7	2.2	1.4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23.7	18.7	2.0	7.9	1.0	1.0
	고졸	651	18.0	15.1	9.1	9.6	2.3	3.1
	대재	114	5.3	14.1	13.9	17.6	4.4	2.6
	2년제대졸	153	20.2	15.0	7.0	9.1	5.2	2.6
	4년제대졸이상	279	11.5	12.2	11.8	9.4	5.1	1.4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20.5	9.5	19.1	6.5	1.6	4.7
	관리직	40	15.0	2.5	5.0	10.0	7.5	
	사무직	362	14.6	17.7	8.2	7.1	4.5	3.6
	자영업	375	18.5	14.2	8.6	8.8	4.0	0.5
	판매서비스직	170	18.8	11.7	6.5	15.4	2.4	2.4
	생산직	51	15.3	19.6	7.9	7.9	2.0	3.9
	학생	99	6.1	12.2	14.0	19.3	3.0	3.0
	주부	123	17.8	15.4	10.6	10.5	0.8	4.1
	무직/기타	13	7.7	30.8	7.7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4.0	14.3	8.6	14.3		
	101-150만원	93	16.1	14.0	11.8	10.8	1.1	2.2
	151-200만원	124	15.2	17.8	4.9	8.8	2.4	1.6
	201-300만원	359	16.4	12.0	8.0	10.3	3.7	4.2
	301-400만원	433	17.1	16.1	10.9	10.4	3.7	2.5
	401-500만원	155	11.0	16.2	10.3	6.5	4.5	
	501만원이상	86	19.7	10.5	10.5	14.1	4.6	2.3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8.2	15.9	2.3	9.1	1.1	
	중하층	487	17.4	14.4	9.9	10.3	2.9	3.5
	중중층	604	15.6	14.4	10.5	9.6	4.0	1.7
	중상층	120	12.5	15.0	5.8	12.6	4.2	4.2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2.3	16.4	6.8	13.7	4.1	
	동북권	428	17.3	14.3	12.8	7.2	1.7	3.3
	서북권	158	11.4	9.5	7.5	11.9	5.7	5.7
	서남권	387	18.5	18.8	7.2	10.3	4.4	1.6
	동남권	254	14.6	11.4	8.4	12.3	3.1	1.2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6.1	15.0	10.1	10.4	3.4	2.5
	광역시	187	12.9	14.0	8.0	7.0	5.9	3.7
	중소도시	204	18.0	10.3	9.4	14.7	3.4	2.0
	농어촌지역	238	17.2	17.6	8.0	7.5	1.3	1.7

<부록표 6b>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주중)

		사례수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호회 활동	스포츠, 레저활동	놀이시설 방문	관광활동
			%	%	%	%	%
전 체		1300	10.6	1.8	18.0	1.7	12.0
성별	남자	636	9.6	2.5	23.1	1.4	12.0
	여자	664	11.6	1.1	13.0	2.0	11.9
연령별	20대	320	9.1	2.2	16.8	3.1	7.2
	30대	327	14.7	0.6	20.0	2.5	8.6
	40대	291	10.7	1.7	19.9		12.4
	50대이상	362	8.3	2.5	15.5	1.1	18.9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6.9	1.0	15.8	1.0	21.1
	고졸	651	10.0	1.8	16.9	1.2	12.9
	대재	114	8.8	1.8	18.4	5.3	7.9
	2년제대졸	153	10.4	2.0	18.0	1.3	9.1
	4년제대졸이상	279	14.4	1.8	21.2	1.8	9.4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6.3	3.2	11.0	1.6	16.0
	관리직	40	15.0	2.5	20.0		22.5
	사무직	362	11.1	1.9	17.7	2.5	11.1
	자영업	375	9.9	2.4	21.8	0.8	10.6
	판매서비스직	170	11.8	1.2	15.2	1.8	13.0
	생산직	51	5.9		19.6		18.0
	학생	99	11.1	2.0	16.1	6.1	7.1
	주부	123	11.5		14.7		14.6
	무직/기타	13	23.1		23.1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7		25.8		17.2
	101-150만원	93	8.6		20.3	2.2	13.1
	151-200만원	124	12.9	1.6	22.6	1.6	10.5
	201-300만원	359	10.9	1.9	17.8	0.9	14.0
	301-400만원	433	11.6	1.6	13.1	2.8	10.2
	401-500만원	155	10.3	3.2	25.0	1.3	11.6
	501만원이상	86	7.0	2.3	16.3	1.2	11.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9.1	1.1	23.9	1.1	18.2
	중하층	487	11.3	1.8	16.7	1.0	10.8
	중중층	604	10.4	2.2	17.4	1.8	12.4
	중상층	120	10.0		21.6	4.2	10.0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2.7	5.5	9.6	4.1	24.7
	동북권	428	11.4	1.2	15.9	0.5	14.4
	서북권	158	11.4	1.9	21.7	3.8	9.5
	서남권	387	9.8	2.3	19.3	1.6	6.1
	동남권	254	12.3	0.8	19.4	2.0	14.6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0.9	1.6	17.4	2.1	10.3
	광역시	187	16.1	2.7	15.9	1.6	12.3
	중소도시	204	9.3	2.0	18.0	1.0	11.8
	농어촌지역	238	6.7	1.3	20.9	1.3	16.5

<부록표 7a>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주말)

		사례수	휴식	옥내활동	공연관람	영화관람	일반 유흥활동	특정테마 유흥활동
			%	%	%	%	%	%
전 체		1300	8.7	6.1	7.3	7.3	1.6	2.6
성별	남자	636	9.2	6.9	4.6	6.9	2.4	2.0
	여자	664	8.1	5.3	9.9	7.7	0.9	3.2
연령별	20대	320	5.3	5.3	8.2	14.7	2.2	4.4
	30대	327	9.5	5.5	7.1	7.1	1.8	3.0
	40대	291	7.6	4.8	7.9	5.2	1.7	2.7
	50대이상	362	11.8	8.3	6.2	2.7	0.8	0.6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15.9	11.8	3.0	3.0	2.0	1.0
	고졸	651	9.8	6.3	7.0	6.7	0.9	3.1
	대재	114	3.5	5.3	10.4	15.0	0.9	3.5
	2년제대졸	153	7.8	5.9	8.3	5.2	2.6	1.3
	4년제대졸이상	279	6.1	3.9	7.9	8.3	2.9	2.6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1.0	4.7	9.5	9.6	1.6	1.6
	관리직	40	2.5		5.0	5.0		2.5
	사무직	362	8.0	6.1	8.3	5.8	2.8	3.3
	자영업	375	8.8	7.2	7.5	5.3	1.3	1.3
	판매서비스직	170	10.0	5.9	3.5	8.8	1.2	3.5
	생산직	51	11.6	9.8		9.8	2.0	2.0
	학생	99	2.0	6.1	9.9	14.2	1.0	5.1
	주부	123	12.2	4.9	9.8	6.5	0.8	2.5
	무직/기타	13	15.4		7.7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4.0	2.9	8.6	5.7		5.7
	101-150만원	93	10.8	7.6	3.2	5.3	1.1	2.2
	151-200만원	124	12.8	8.9	2.4	4.9		1.6
	201-300만원	359	8.6	4.2	7.2	6.4	1.7	3.0
	301-400만원	433	8.3	6.9	8.8	5.8	1.8	2.6
	401-500만원	155	6.5	8.4	10.3	12.9	1.9	2.6
	501만원이상	86	3.5	2.3	7.0	15.2	3.5	2.3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0.2	8.0	3.4	2.3	2.3	1.1
	중하층	487	13.1	5.7	6.6	7.2	1.2	3.3
	중중층	604	5.5	6.0	8.7	8.4	1.8	2.3
	중상층	120	5.8	6.7	5.8	5.9	1.7	2.5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5.5	6.8	6.8	5.5	1.4	1.4
	동북권	428	11.9	6.1	13.3	6.0		2.8
	서북권	158	5.1	1.9	2.5	5.1	0.6	1.2
	서남권	387	8.7	9.3	5.4	8.5	3.1	2.3
	동남권	254	6.3	3.5	3.2	9.5	2.8	4.0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8.2	5.7	7.6	8.2	1.9	3.3
	광역시	187	7.5	4.9	8.0	5.9	3.2	0.5
	중소도시	204	7.8	4.9	7.8	7.4	0.5	4.3
	농어촌지역	238	11.7	9.2	5.5	5.8	0.4	0.8

<부록표 7b>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주말)

		사례수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호회 활동	스포츠, 레저활동	놀이시설 방문	관광활동	없음
			%	%	%	%	%	%
전 체		1300	5.0	2.2	19.6	6.9	32.6	0.1
성별	남자	636	6.6	2.5	24.6	6.6	27.6	
	여자	664	3.5	1.8	14.8	7.2	37.4	0.2
연령별	20대	320	5.0	2.8	15.9	7.2	29.1	
	30대	327	6.4	1.2	21.2	8.5	28.2	0.3
	40대	291	4.8	2.7	22.7	6.5	33.3	
	50대이상	362	3.9	1.9	19.0	5.5	39.2	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3.0	1.0	11.8	2.8	44.8	
	고졸	651	5.2	2.2	19.9	7.2	31.5	0.2
	대재	114	6.2	2.6	16.6	6.2	29.9	
	2년제대졸	153	2.0	1.3	22.5	7.2	35.9	
	4년제대졸이상	279	6.1	2.9	21.5	7.9	29.9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4.7	4.7	18.9	1.6	32.0	
	관리직	40	2.5	5.0	25.0	7.5	45.0	
	사무직	362	6.1	1.4	21.2	6.6	30.3	0.3
	자영업	375	5.3	1.9	22.0	7.5	31.8	
	판매서비스직	170	4.1	2.4	19.4	7.6	33.6	
	생산직	51	3.9	3.9	13.7	9.6	33.7	
	학생	99	7.1	3.0	13.1	6.1	32.4	
	주부	123	1.6	1.6	14.6	7.4	38.2	
	무직/기타	13	7.7		23.1	7.7	30.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9	20.1	5.7	34.4	
	101-150만원	93	5.4	2.2	21.4	5.4	35.6	
	151-200만원	124	4.9	1.6	17.7	12.8	32.4	
	201-300만원	359	5.0	0.8	20.9	11.4	30.8	
	301-400만원	433	6.2	2.5	18.4	4.6	34.0	
	401-500만원	155	4.5	3.2	21.1	1.3	27.2	
	501만원이상	86	2.3	2.3	17.4	3.5	40.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3.4	3.4	17.0	3.4	45.5	
	중하층	487	4.7	2.1	18.6	10.1	27.2	0.2
	중중층	604	5.6	2.0	21.6	5.6	32.4	
	중상층	120	4.2	2.5	15.7	3.3	45.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4		9.6	11.0	50.7	
	동북권	428	6.5	2.1	15.7	2.1	33.4	
	서북권	158	4.4	1.9	24.3	18.2	34.8	
	서남권	387	4.4	3.1	21.9	5.7	27.6	
	동남권	254	4.7	1.6	22.8	8.7	32.4	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6.3	2.7	19.2	7.0	30.0	
	광역시	187	4.8	1.6	17.0	13.4	33.2	
	중소도시	204	3.4	3.4	18.1	4.8	37.0	0.5
	농어촌지역	238	2.9		24.2	3.4	35.9	

<부록표 8> 상대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

		사례수	본인 교육	자녀 교육	외식	문화 예술 활동	건강	레저/ 스포츠/ 여행	외모 가꾸기	기타	없음
			%	%	%	%	%	%	%	%	%
전 체		1300	5.9	40.9	11.4	3.5	22.1	7.7	8.2	0.2	0.1
성별	남자	636	5.8	36.8	13.6	4.1	22.3	11.8	5.2	0.3	
	여자	664	6.0	44.7	9.2	3.0	21.9	3.8	11.2	0.2	0.2
연령별	20대	320	15.2	8.0	17.1	9.3	10.3	14.4	24.7	0.6	0.3
	30대	327	4.6	55.3	10.7	3.7	14.8	7.3	3.4	0.3	
	40대	291	3.1	68.0	5.8	0.7	16.5	3.4	2.4		
	50대이상	362	1.0	35.0	11.3	0.6	43.7	5.6	2.8	0.0	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1.9	27.9	9.9	1.0	50.4	5.1	3.0	1.0	
	고졸	651	2.9	48.1	10.4	2.2	24.7	4.8	6.8		0.2
	대재	114	24.4	3.5	18.5	13.1	4.4	17.6	18.5		
	2년제대졸	153	6.4	31.1	12.8	5.2	16.4	13.7	13.0	1.3	
	4년제대졸이상	279	6.1	49.4	10.5	2.9	16.0	8.3	6.9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3.2	41.0	14.6	6.3	17.5	9.5	4.7	1.6	1.6
	관리직	40		57.5	10.0		15.0	15.0	2.5		
	사무직	362	6.0	49.4	9.9	2.5	16.4	7.2	8.3	0.3	
	자영업	375	3.2	45.9	12.4	1.6	28.9	5.1	2.9		
	판매서비스직	170	4.1	29.6	11.8	4.1	22.8	8.2	19.4		
	생산직	51	1.7	41.5	19.6	3.9	19.4	5.9	5.9	2.0	
	학생	99	25.1		15.2	14.1	6.1	20.3	19.3		
	주부	123	3.2	44.6	4.9	2.4	36.8	4.9	3.2		
	무직/기타	13	15.4	30.8		7.7	23.1		23.1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8.6	34.4	16.9		25.8	5.7	8.6		
	101-150만원	93	7.5	25.8	9.7	3.2	39.8	7.5	5.4	1.1	
	151-200만원	124	3.9	35.6	21.7	4.9	25.0	4.2	4.9		
	201-300만원	359	5.6	45.4	9.5	1.7	23.4	6.1	8.1		0.3
	301-400만원	433	5.2	44.3	8.5	3.4	20.0	8.5	9.7	0.2	
	401-500만원	155	7.1	39.4	14.0	5.8	14.3	11.0	7.8	0.6	
	501만원이상	86	9.3	34.8	14.1	8.1	15.1	9.3	9.3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2.3	30.7	9.1	1.1	39.6	5.8	10.2	1.1	
	중하층	487	4.7	42.6	12.5	3.3	24.8	5.3	6.8		
	중중층	604	6.6	41.0	10.6	4.0	19.2	9.6	8.6	0.3	0.2
	중상층	120	9.2	40.8	12.5	4.2	13.3	9.2	10.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4	46.6	19.2	1.4	20.5	4.1	6.8		
	동북권	428	5.1	45.0	8.2	3.5	19.1	10.1	8.7	0.5	
	서북권	158	5.1	35.6	14.5	7.0	22.1	6.3	8.9		0.6
	서남권	387	6.4	38.5	13.4	3.9	22.1	5.4	10.1	0.3	
	동남권	254	8.3	39.2	9.5	1.6	27.7	9.1	4.7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7.8	36.2	12.8	4.5	19.2	10.1	9.1	0.1	0.1
	광역시	187	5.4	43.2	11.8	2.1	20.4	7.0	10.2		
	중소도시	204	3.4	49.1	9.8	2.9	21.6	3.4	9.3	0.5	
	농어촌지역	238	2.9	45.0	8.3	2.5	32.4	5.1	3.4	0.4	

<부록표 9>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사례수	뉴스/시사 프로	다큐멘터리/교육 프로	쇼/오락 프로	드라마	영화	홈쇼핑	스포츠	없음	모름/무응답
			%	%	%	%	%	%	%	%	%
전 체		1300	40.7	4.5	15.0	29.1	4.1	0.2	5.7	0.3	0.3
성별	남자	636	56.5	5.0	15.0	7.7	4.5		10.8	0.3	0.2
	여자	664	25.6	4.1	15.0	49.6	3.8	0.5	0.8	0.3	0.5
연령별	20대	320	22.7	3.1	38.0	22.7	6.3	0.3	6.6	0.3	
	30대	327	41.4	5.5	13.3	27.3	5.5		6.4	0.3	0.3
	40대	291	46.0	6.5	4.8	32.0	2.7	0.3	6.2	0.3	1.0
	50대이상	362	51.5	3.3	4.5	34.1	2.1	0.3	3.9	0.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7.6	2.0	4.1	42.4			3.9		
	고졸	651	42.1	3.8	12.3	33.2	3.5	0.3	4.5		0.3
	대재	114	20.1	3.5	39.4	16.7	8.8		10.6	0.9	
	2년제대졸	153	34.2	6.5	22.2	23.4	6.5		6.5	0.7	
	4년제대졸이상	279	46.8	6.5	11.2	23.0	3.9	0.4	6.8	0.7	0.7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35.1	7.9	20.7	23.7	6.3	1.6	3.2		1.6
	관리직	40	62.5	2.5	2.5	12.5	5.0		12.5		2.5
	사무직	362	39.3	6.6	16.9	25.4	3.9	0.6	6.6	0.3	0.6
	자영업	375	58.1	3.5	5.9	25.1	1.8		5.1	0.5	
	판매서비스직	170	27.7	4.1	24.7	32.3	5.3		5.3	0.6	
	생산직	51	52.9	3.9	9.8	23.6	3.9		5.9		
	학생	99	21.2	2.0	41.3	15.2	10.1		10.1		
	주부	123	16.2	3.2	6.6	68.3	4.1		1.6		
	무직/기타	13	46.2	7.7	7.7	30.8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34.1		17.2	34.4	2.9	2.9	8.6		
	101-150만원	93	41.8	3.2	11.8	33.4	4.3		5.4		
	151-200만원	124	40.2	3.2	11.4	33.1	4.0	0.8	7.3		
	201-300만원	359	38.6	4.5	14.2	32.3	3.3		6.7		0.6
	301-400만원	433	42.5	5.8	16.6	26.1	4.6	0.2	3.5	0.5	0.2
	401-500만원	155	39.9	5.2	16.8	25.2	3.9		8.4	0.6	
	501만원이상	86	37.3	3.5	16.3	27.9	7.0		5.8	1.2	1.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51.1	2.3	12.7	23.9	2.1	1.1	6.8		
	중하층	487	42.4	4.5	13.1	31.1	3.5	0.2	4.9		0.2
	중중층	604	38.6	4.6	16.5	28.5	4.6		6.1	0.5	0.5
	중상층	120	36.6	5.8	15.8	28.3	5.8	0.8	5.8	0.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42.5	5.5	13.7	31.5	2.7		4.1		
	동북권	428	40.2	3.7	17.7	26.2	5.1		6.1	0.2	0.7
	서북권	158	38.2	3.2	11.4	35.2	4.4	1.3	5.7		0.6
	서남권	387	44.2	6.7	12.9	27.9	4.1	0.3	3.6	0.3	
	동남권	254	37.1	3.1	16.3	31.3	2.8		8.7	0.8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35.9	4.9	19.6	26.4	5.1	0.3	6.9	0.3	0.6
	광역시	187	42.1	2.1	11.2	37.5	2.1		4.3	0.5	
	중소도시	204	51.5	3.4	11.9	26.8	2.5		3.9		
	농어촌지역	238	43.7	6.3	7.6	32.0	4.5	0.4	5.0	0.4	

<부록표 10> 선호하는 영화 장르

		사례수	공포/호러	미스테리/스릴러	예술영화/다큐	드라마/멜로물	애니메이션	무협영화	액션/어드벤쳐	코미디	SF/판타지	기타	없음
			%	%	%	%	%	%	%	%	%	%	%
전 체		1300	5.5	9.8	7.4	36.7	1.2	2.5	26.2	8.4	2.0	0.2	0.2
성별	남자	636	6.4	11.8	9.0	12.8	0.8	4.6	41.5	9.7	2.7	0.2	0.5
	여자	664	4.7	7.9	5.9	59.5	1.5	0.5	11.5	7.1	1.4	0.2	
연령별	20대	320	9.1	14.7	3.8	28.0	2.8	2.2	26.6	9.6	3.1		0.3
	30대	327	6.1	12.4	4.6	29.7	1.2	1.5	33.7	7.7	3.1		
	40대	291	4.5	5.5	12.0	39.5	0.7	2.1	25.8	7.9	1.7	0.3	
	50대이상	362	2.8	6.7	9.5	48.4	0.0	3.9	19.3	8.3	0.3	0.3	0.6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1	3.9	7.9	6.9	53.3	1.0	4.1	13.0	7.9		1.0	1.0
	고졸	651	5.7	7.9	7.4	41.9	0.6	2.3	24.7	8.0	1.2	0.2	0.2
	대재	114	9.7	15.7	1.8	20.1	4.4	3.5	29.9	9.6	4.4		0.9
	2년제대졸	153	6.5	10.9	9.8	33.7	2.6	0.7	21.5	10.4	3.9		
	4년제대졸이상	279	3.6	12.2	8.7	26.9	0.4	2.9	34.9	7.9	2.5		
응답자직업별	전문직	63	4.7	4.7	14.4	33.3	3.2	4.7	27.0	3.2	3.2	1.6	
	관리직	40	7.5	5.0	5.0	25.0		2.5	22.5	25.0	7.5		
	사무직	362	5.2	13.5	9.2	32.0	1.1	2.5	27.4	6.8	1.9		0.3
	자영업	375	4.0	8.8	9.1	36.0	0.5	2.4	28.7	8.8	1.1	0.3	0.3
	판매서비스직	170	5.9	10.7	5.9	38.7	1.2	2.4	24.7	9.4	1.2		
	생산직	51	5.9	7.6	7.9	29.2		4.2	31.4	9.8	3.9		
	학생	99	13.2	13.1	1.0	17.1	3.0	3.0	33.4	10.0	5.1		1.0
	주부	123	3.2	4.1	2.4	72.2	0.8		11.5	5.8			
	무직/기타	13	15.4	7.7		46.2	7.7	7.7	7.7		7.7		
월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7	5.7	11.5	39.8		2.9	11.5	17.2	2.9		2.9
	101-150만원	93	5.5	13.1	6.5	38.6	1.1	2.2	22.5	5.4	3.2	1.1	1.1
	151-200만원	124	7.3	7.2	8.9	33.9	1.6	1.5	30.7	8.1	0.8		
	201-300만원	359	7.0	7.8	8.2	39.2	0.3	3.1	25.6	7.5	1.1		0.3
	301-400만원	433	5.1	12.6	7.9	34.7	0.7	2.1	26.1	8.0	2.8		
	401-500만원	155	3.2	7.7	4.5	34.8	4.5	3.2	29.1	9.7	2.6	0.6	
	501만원이상	86	3.5	10.5	5.8	37.2	1.2	1.2	29.2	10.5	1.2		
주관적계층인식별	하층	88	2.3	9.1	12.5	30.7	1.1	6.8	25.0	10.2	1.1	1.1	
	중하층	487	7.2	10.4	6.8	37.0	1.2	2.5	24.2	8.2	2.1	0.2	0.2
	중중층	604	5.0	9.3	6.7	37.9	1.2	2.0	27.5	8.4	1.8		0.3
	중상층	120	4.2	10.8	10.0	34.1	0.8	1.7	28.4	6.7	3.3		
거주지역별	도심권	73	9.6	6.8	15.1	47.9	1.4	1.4	13.7	2.7	1.4		
	동북권	428	3.5	8.5	4.1	35.5	1.6	3.3	32.8	9.3	0.7	0.5	0.2
	서북권	158	8.9	16.8	9.5	36.3	1.3		19.0	6.3	1.9		
	서남권	387	6.2	11.3	8.3	36.1	0.8	2.8	24.7	7.5	2.1		0.3
	동남권	254	4.7	6.3	8.3	36.4	0.8	2.4	25.3	11.1	4.3		0.4
18세이전거주지역별	서울	671	6.1	10.6	6.7	32.9	1.8	2.2	27.9	8.9	2.7		0.1
	광역시	187	8.1	8.4	8.0	47.1	1.6	1.1	19.8	5.9			
	중소도시	204	2.9	6.8	8.3	36.2		4.0	28.0	9.8	3.4		0.5
	농어촌지역	238	4.2	11.4	8.0	39.5		2.9	24.7	7.6	0.4	0.8	0.4

<부록표 11> 영화 관람 횟수(지난1년)

		사례수	0회	1회	2-3회	4-5회	6-11회	12회 이상	평균: (회)
			%	%	%	%	%	%	
전 체		1300	26.1	9.5	26.6	15.7	15.1	7.0	(4.3)
성별	남자	636	25.8	8.3	26.4	15.1	16.7	7.7	(4.5)
	여자	664	26.3	10.7	26.7	16.3	13.7	6.3	(4.1)
연령별	20대	320	4.3	1.5	12.4	23.1	37.4	21.2	(9.8)
	30대	327	16.5	8.9	34.1	19.6	16.0	4.9	(4.0)
	40대	291	27.1	15.1	34.4	15.5	6.2	1.7	(2.4)
	50대이상	362	53.0	12.7	25.9	5.8	1.9	0.6	(1.2)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63.6	13.8	18.6	1.0	3.0		(0.8)
	고졸	651	35.1	11.5	28.7	12.9	8.4	3.4	(2.9)
	대재	114	1.8	1.7	7.0	16.7	40.3	32.6	(11.4)
	2년제대졸	153	11.0	3.9	26.5	24.1	26.2	8.4	(5.8)
	4년제대졸이상	279	9.4	9.7	32.7	22.7	18.7	6.8	(5.2)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7.6	7.9	14.2	30.0	24.0	6.3	(5.2)
	관리직	40	32.5	7.5	25.0	20.0	12.5	2.5	(3.1)
	사무직	362	17.3	7.5	29.9	22.7	17.1	5.5	(4.9)
	자영업	375	42.4	12.8	26.4	7.7	6.4	4.2	(2.4)
	판매서비스직	170	15.9	9.4	30.5	14.2	23.5	6.5	(4.5)
	생산직	51	31.5	11.8	35.1	5.9	5.9	9.8	(4.5)
	학생	99	1.0	1.9	6.1	18.2	39.3	33.4	(11.8)
	주부	123	36.5	11.3	33.5	14.6	4.1		(1.9)
	무직/기타	13	30.8	23.1	15.4	15.4	7.7	7.7	(2.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42.7	8.6	20.1	14.3	14.3		(2.4)
	101-150만원	93	41.0	10.8	26.9	11.7	7.5	2.2	(2.3)
	151-200만원	124	37.9	13.7	22.5	12.9	8.9	4.0	(3.0)
	201-300만원	359	31.6	8.3	30.6	12.3	12.2	5.0	(3.4)
	301-400만원	433	21.3	10.2	25.6	17.6	16.1	9.2	(5.0)
	401-500만원	155	14.2	8.4	25.8	18.7	22.0	10.9	(6.0)
	501만원이상	86	5.8	5.8	24.4	26.7	28.0	9.3	(6.1)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46.7	14.6	21.6	6.8	9.1	1.1	(1.9)
	중하층	487	30.8	9.4	27.9	16.1	11.1	4.7	(3.5)
	중중층	604	22.8	9.3	26.1	15.5	18.0	8.3	(4.8)
	중상층	120	8.2	7.5	27.5	21.7	21.8	13.3	(6.4)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37.0	11.0	23.3	8.2	15.1	5.5	(3.4)
	동북권	428	27.4	10.5	25.9	14.7	16.3	5.1	(3.7)
	서북권	158	31.6	10.8	26.7	8.9	12.7	9.5	(3.8)
	서남권	387	22.9	9.0	26.3	16.5	17.1	8.3	(5.3)
	동남권	254	22.1	7.5	28.9	22.5	11.9	7.1	(4.3)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8.5	6.3	26.5	17.9	20.8	10.0	(5.6)
	광역시	187	36.4	9.6	21.8	18.2	8.6	5.4	(3.3)
	중소도시	204	31.8	9.3	27.3	11.3	14.3	5.9	(3.6)
	농어촌지역	238	34.2	18.8	29.8	11.3	5.0	0.8	(2.0)

<부록표 12> 독서권수(지난1년)

		사례수	0권	1-2권	3-5권	6-11권	12-23권	24권 이상	평균: (권)
			%	%	%	%	%	%	
전 체		1300	27.9	22.9	26.6	11.2	6.4	4.9	(6.7)
성별	남자	636	30.2	20.3	24.9	12.4	6.9	5.3	(7.4)
	여자	664	25.8	25.4	28.3	9.9	6.0	4.5	(6.0)
연령별	20대	320	12.2	19.7	30.2	18.1	11.1	8.8	(10.5)
	30대	327	21.4	23.8	29.1	12.0	7.6	6.1	(9.1)
	40대	291	29.2	22.3	32.0	10.7	3.4	2.4	(4.0)
	50대이상	362	46.7	25.4	16.9	4.7	3.6	2.5	(3.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59.4	28.6	8.0	2.0	2.0		(1.1)
	고졸	651	36.0	26.1	22.9	7.8	3.8	3.2	(4.2)
	대재	114	7.9	11.4	33.2	24.5	12.3	10.6	(14.1)
	2년제대졸	153	14.3	22.1	33.3	12.4	8.9	9.0	(10.1)
	4년제대졸이상	279	13.0	18.7	35.9	16.2	10.1	6.1	(9.5)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5.8	20.5	25.3	22.5	8.1	7.9	(14.1)
	관리직	40	25.0	25.0	37.5	7.5	2.5	2.5	(4.3)
	사무직	362	18.1	24.0	32.6	11.6	7.9	5.9	(7.6)
	자영업	375	40.8	21.0	24.1	6.7	4.5	2.9	(4.5)
	판매서비스직	170	32.2	24.1	21.3	11.2	5.9	5.3	(6.2)
	생산직	51	48.9	19.6	13.7	7.9	7.9	2.0	(3.4)
	학생	99	5.1	10.1	32.2	28.3	13.2	11.1	(14.0)
	주부	123	28.4	36.6	22.9	7.3	3.2	1.6	(3.3)
	무직/기타	13	30.8	15.4	23.1	7.7		23.1	(10.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7.0	22.9	5.7	5.7	2.9	5.7	(5.4)
	101-150만원	93	43.0	24.7	10.8	7.5	7.5	6.5	(6.7)
	151-200만원	124	44.3	18.5	21.0	8.9	4.0	3.2	(3.6)
	201-300만원	359	27.9	29.2	26.2	8.1	4.7	3.9	(6.6)
	301-400만원	433	21.5	21.1	31.6	13.4	6.2	6.3	(7.4)
	401-500만원	155	20.7	21.3	33.7	9.7	10.2	4.4	(6.6)
	501만원이상	86	19.7	12.8	26.7	24.5	11.6	4.6	(9.1)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53.4	18.2	12.5	9.1	3.4	3.4	(6.3)
	중하층	487	31.1	25.7	24.5	9.3	5.5	3.9	(4.9)
	중중층	604	23.7	22.8	29.1	11.4	6.9	6.0	(7.9)
	중상층	120	17.5	15.8	32.5	19.3	10.0	4.9	(8.0)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47.9	20.5	16.4	6.8	6.8	1.4	(4.0)
	동북권	428	28.5	20.4	27.3	12.1	6.9	4.7	(6.9)
	서북권	158	28.4	26.9	25.2	7.6	6.2	5.6	(6.0)
	서남권	387	27.2	23.2	24.3	12.1	7.0	6.2	(7.7)
	동남권	254	22.0	24.9	32.9	11.5	4.8	3.9	(5.8)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20.4	22.5	29.4	13.6	7.8	6.3	(8.6)
	광역시	187	34.3	24.0	25.1	8.0	4.8	3.7	(5.1)
	중소도시	204	29.3	26.4	27.5	9.9	4.0	2.9	(4.5)
	농어촌지역	238	42.9	20.1	19.4	8.0	5.9	3.8	(4.3)

<부록표 13> 주로 읽은 책의 분야

		사례수	문학/소설/수필	역사/예술/철학/종교 등 교양서적	경영/비즈니스	건강/취미/여성/생활	과학/시사	모름/무응답
			%	%	%	%	%	%
전 체		937	59.6	20.1	5.1	13.7	1.0	0.4
성별	남자	444	53.8	26.1	9.2	8.7	1.6	0.7
	여자	493	65.0	14.8	1.4	18.2	0.4	0.2
연령별	20대	281	70.9	16.7	2.8	8.9	0.7	
	30대	257	62.0	16.7	8.2	12.4	0.4	0.4
	40대	206	52.4	24.8	4.9	14.6	1.9	1.5
	50대이상	193	47.9	24.9	4.7	21.5	1.0	0.0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41	38.9	19.4	2.4	36.8	2.4	
	고졸	416	61.8	17.7	3.8	15.2	0.7	0.7
	대재	105	74.2	15.3	3.8	4.8	1.9	
	2년제대졸	131	64.5	14.4	6.1	15.0		
	4년제대졸이상	242	50.8	29.3	7.8	10.4	1.2	0.4
응답자직업별	전문직	53	52.9	26.2	3.7	13.4	1.9	1.9
	관리직	30	40.0	46.7		13.3		
	사무직	297	57.3	21.9	7.4	12.0	1.0	0.3
	자영업	222	59.0	22.5	6.8	9.9	0.9	0.9
	판매서비스직	115	72.1	7.8	3.5	16.6		
	생산직	26	61.5	15.4	3.8	15.4	3.8	
	학생	94	68.0	19.2	4.3	6.4	2.1	
	주부	88	58.9	9.0		32.0		
	무직/기타	9	22.2	55.6		22.2		
월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	15	73.3			26.7		
	101-150만원	53	58.5	22.6	5.7	9.4	1.9	1.9
	151-200만원	69	63.7	14.5	7.3	11.6	2.9	
	201-300만원	259	57.0	20.1	4.6	17.5	0.4	0.4
	301-400만원	340	60.0	20.8	5.3	12.4	1.2	0.3
	401-500만원	123	59.5	22.7	4.9	12.9		
	501만원이상	69	59.5	20.3	5.8	11.6	1.4	1.4
주관적계층인식별	하층	41	53.7	14.6	7.3	19.5		4.9
	중하층	335	60.6	17.0	4.5	17.3	0.3	0.3
	중중층	461	60.3	22.6	5.0	10.9	1.3	
	중상층	99	56.7	21.1	7.1	12.1	2.0	1.0
거주지역별	도심권	38	63.2	5.3	10.5	18.4		2.6
	동북권	306	62.0	18.9	3.6	12.9	2.0	0.7
	서북권	113	61.6	21.1	6.2	10.2	0.9	
	서남권	282	65.6	16.0	6.4	11.7	0.4	
	동남권	198	45.8	30.3	4.0	18.8	0.5	0.5
18세이전거주지역별	서울	534	62.3	18.3	6.0	11.7	1.1	0.6
	광역시	123	54.5	22.8	4.9	17.8		
	중소도시	144	60.4	21.5	4.2	12.5	1.4	
	농어촌지역	136	52.9	23.5	2.9	19.2	0.7	0.7

<부록표 14> 선호하는 잡지 종류

		사례수	여성 월간지	육아/ 유아지	시사교양 주간지	영화/ 연예 주간지	생활문화 정보지	즐겨보는 잡지가 없다
			%	%	%	%	%	%
전 체		1300	20.4	2.0	11.8	4.6	4.6	56.6
성별	남자	636	2.0	0.2	20.6	5.0	3.9	68.2
	여자	664	37.9	3.8	3.4	4.2	5.3	45.4
연령별	20대	320	22.4	2.8	9.9	12.7	4.4	47.8
	30대	327	22.9	3.1	13.5	3.1	5.8	51.7
	40대	291	21.0	2.4	14.1	1.0	4.1	57.4
	50대이상	362	15.8	0.0	10.3	1.7	4.2	68.1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17.7		5.9		3.0	73.4
	고졸	651	21.0	2.3	7.5	2.9	5.6	60.6
	대재	114	10.5		13.1	17.5	5.3	53.7
	2년제대졸	153	27.9	2.6	11.7	7.1	5.9	44.8
	4년제대졸이상	279	19.7	2.5	23.4	3.6	2.2	48.6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4.4	4.7	22.1	4.7	11.0	43.0
	관리직	40	5.0		22.5	2.5	2.5	67.5
	사무직	362	26.1	2.8	16.9	3.6	4.2	46.4
	자영업	375	13.9	0.3	11.5	2.4	4.5	67.5
	판매서비스직	170	29.5	1.2	4.7	4.7	5.3	54.6
	생산직	51	3.9	2.0	5.9	3.9	3.9	80.4
	학생	99	11.0		12.0	21.2	5.1	50.7
	주부	123	33.2	6.5	3.2		1.6	55.4
	무직/기타	13	23.1			7.7	15.4	53.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8.7		8.6		8.6	54.1
	101-150만원	93	16.1	8.6	6.5	2.2	8.6	58.0
	151-200만원	124	18.6	1.6	6.5	4.9	2.4	66.0
	201-300만원	359	20.2	1.4	10.3	3.1	3.9	61.1
	301-400만원	433	19.2	2.1	16.1	5.3	3.7	53.6
	401-500만원	155	21.9	1.3	11.6	5.7	6.5	53.0
	501만원이상	86	27.9		12.8	7.0	4.6	47.7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3.6	3.4	11.4	1.1	1.1	69.3
	중하층	487	20.0	2.9	10.9	3.9	5.8	56.6
	중중층	604	21.3	1.0	10.9	5.4	4.8	56.6
	중상층	120	22.4	2.5	20.8	5.0	1.7	47.6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24.7	1.4	4.1	4.1	6.8	58.9
	동북권	428	15.4	2.8	11.0	5.1	6.6	59.2
	서북권	158	21.2		8.2	1.9	2.5	66.2
	서남권	387	23.0	1.6	12.7	3.1	3.3	56.4
	동남권	254	23.0	2.8	16.5	7.9	3.9	45.8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20.5	2.1	12.5	5.8	4.0	55.1
	광역시	187	25.0	2.1	13.4	4.3	2.1	53.0
	중소도시	204	21.1	2.0	9.8	5.4	2.5	59.2
	농어촌지역	238	15.5	1.7	10.5	0.8	10.1	61.3

<부록표 15> 선호하는 음악 장르

		사례수	클래식	가요(댄스)	가요(락)	가요(발라드)	가요(트롯)	국악	오페라	영화음악	팝송	기타	없음
			%	%	%	%	%	%	%	%	%	%	%
전 체		1300	5.4	13.0	3.8	27.7	33.8	0.7	0.2	3.2	6.1	0.9	5.2
성별	남자	636	5.6	11.8	6.4	23.3	35.1	1.1		3.9	7.1		5.7
	여자	664	5.2	14.2	1.4	31.9	32.6	0.3	0.5	2.4	5.1	1.8	4.7
연령별	20대	320	4.4	24.5	10.9	39.9	2.8	0.3	0.3	4.0	10.6	0.3	1.9
	30대	327	6.5	17.4	3.7	39.7	14.1		0.3	6.2	6.7	0.9	4.6
	40대	291	5.8	7.2	0.3	27.5	46.7	1.0	0.3	2.4	3.4		5.2
	50대이상	362	5.0	3.6	0.6	6.1	68.7	1.4	0.0	0.3	3.6	2.2	8.7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1	1.0	5.9	1.0	4.8	74.3				1.0	2.0	10.0
	고졸	651	4.1	11.0	1.8	24.9	43.6	1.1	0.2	2.2	3.4	1.1	6.6
	대재	114	2.6	28.0	10.6	35.2	1.8			3.4	15.8		2.6
	2년제대졸	153	5.2	15.7	6.5	45.2	12.4			5.2	7.2		2.6
	4년제대졸이상	279	11.2	12.9	5.4	29.8	20.9	0.7	0.7	5.4	9.3	1.1	2.5
응답자직업별	전문직	63	16.0	11.2	6.3	30.0	12.9	1.6		4.7	9.5	1.6	6.3
	관리직	40	7.5	12.5	2.5	30.0	27.5			2.5	10.0	2.5	5.0
	사무직	362	6.9	13.4	4.1	35.3	23.8	0.3	0.6	3.3	8.3	0.6	3.4
	자영업	375	4.5	5.6	1.6	19.1	53.6	1.1		2.4	3.2	1.3	7.5
	판매서비스직	170	4.1	21.2	4.1	32.3	24.7		0.6	3.0	5.3	1.2	3.5
	생산직	51	2.0	13.5	5.9	13.5	39.6	2.0		5.9	3.9	2.0	11.8
	학생	99	4.1	26.1	13.2	33.4	1.0			5.0	14.2		3.0
	주부	123	2.4	13.1		24.5	55.2			1.6			3.2
	무직/기타	13		15.4		23.1	15.4	15.4		7.7	7.7		15.4
월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9	5.7	2.9	28.7	36.9	2.9		2.9			17.2
	101-150만원	93	3.2	10.8	1.1	24.7	44.1	1.1	1.1	1.1	6.5	1.1	5.4
	151-200만원	124	3.1	12.0	1.6	29.0	37.9			4.0	5.7	1.6	5.0
	201-300만원	359	6.4	14.7	3.6	29.8	29.6	0.3		3.3	4.7	0.6	7.0
	301-400만원	433	4.9	12.4	4.6	24.4	37.0	1.2	0.2	2.5	7.2	1.2	4.4
	401-500만원	155	3.9	14.9	4.5	35.9	28.5		0.6	3.2	6.5	0.6	1.3
	501만원이상	86	14.1	12.8	7.0	19.7	24.4	1.2		7.0	8.1	1.2	4.6
주관적계층인식별	하층	88	4.5	5.7	2.3	21.6	48.7	1.1		1.1	3.4	1.1	10.4
	중하층	487	3.5	12.1	3.7	31.0	35.0	0.4		2.9	6.0	0.4	5.1
	중중층	604	6.3	14.2	4.3	27.9	30.7	0.5	0.3	3.5	6.1	0.7	5.5
	중상층	120	9.3	15.8	3.3	17.4	34.2	2.5	0.8	4.2	8.3	4.2	
거주지역별	도심권	73	4.1	15.1	5.5	23.3	34.2			5.5	9.6		2.7
	동북권	428	4.5	12.3	3.3	27.3	33.5	1.2		3.0	6.1	1.2	7.8
	서북권	158	3.2	15.0	3.8	28.7	29.1	0.6		3.8	5.7	1.3	8.9
	서남권	387	6.7	12.1	3.6	31.2	35.7	0.3	0.5	2.3	3.9	0.8	2.8
	동남권	254	6.7	13.9	4.7	23.4	34.3	0.8	0.4	3.6	8.7	0.8	2.8
18세이전거주지역별	서울	671	4.8	17.1	4.9	32.0	25.2	0.3	0.3	3.4	6.9	0.9	4.2
	광역시	187	6.4	11.8	3.7	26.6	35.9	1.6		4.3	6.4		3.2
	중소도시	204	6.4	9.3	2.0	25.9	40.2		0.5	2.5	6.4	1.5	5.4
	농어촌지역	238	5.4	5.9	2.5	17.6	50.9	1.7		2.1	3.4	1.3	9.3

<부록표 16> 문화예술행사 관람률(평생)

		사례수	전통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공연	영화	무용공연	클래식오페라공연	미술전시회	뮤지컬
전 체		1300	41.4	54.1	45.4	90.0	16.6	22.0	46.5	30.7
성별	남자	636	39.5	52.1	44.7	90.0	14.4	20.7	43.3	27.8
	여자	664	43.2	56.1	46.0	90.0	18.8	23.1	49.6	33.4
연령별	20대	320	44.6	70.4	65.1	97.5	21.2	31.8	60.7	42.7
	30대	327	42.2	61.2	46.5	95.7	19.8	23.5	55.3	39.5
	40대	291	41.2	54.0	41.9	90.0	14.8	21.3	44.7	27.1
	50대이상	362	38.0	33.6	29.7	78.2	11.3	12.5	27.6	14.9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1	34.5	24.5	23.6	69.9	4.9	2.8	12.7	10.7
	고졸	651	35.7	44.5	36.6	87.7	11.3	12.3	36.9	21.5
	대재	114	51.8	81.5	74.6	99.1	23.7	40.4	66.7	50.0
	2년제대졸	153	49.5	70.7	63.6	98.0	27.9	30.4	62.2	42.3
	4년제대졸이상	279	49.0	67.3	52.1	94.6	24.4	39.5	65.0	45.3
응답자직업별	전문직	63	52.7	63.7	57.2	89.0	27.0	34.9	60.3	41.4
	관리직	40	45.0	62.5	57.5	90.0	27.5	35.0	55.0	40.0
	사무직	362	42.8	62.3	49.9	92.4	19.8	30.6	59.3	38.8
	자영업	375	36.9	42.5	33.8	85.5	10.1	12.2	34.9	16.0
	판매서비스직	170	35.1	49.3	47.0	92.9	15.2	15.3	38.8	25.8
	생산직	51	43.0	40.8	36.9	91.9	11.6	15.5	38.8	31.2
	학생	99	49.5	81.8	71.7	99.0	24.2	39.4	63.6	52.6
	주부	123	46.5	47.3	36.6	86.2	16.3	13.0	34.1	31.0
	무직/기타	13	38.5	61.5	53.8	76.9	23.1	30.8	46.2	30.8
월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	35	36.9	39.8	45.5	85.7	20.1	20.1	37.3	17.2
	101-150만원	93	34.2	45.0	36.4	78.3	11.7	12.9	35.4	20.3
	151-200만원	124	48.1	51.4	45.7	86.9	18.4	13.7	39.3	24.9
	201-300만원	359	35.7	51.0	42.1	89.9	10.0	15.0	38.1	26.4
	301-400만원	433	41.3	55.5	41.4	91.0	14.3	21.4	48.9	31.2
	401-500만원	155	45.9	56.0	54.8	96.1	22.5	33.5	58.6	36.2
	501만원이상	86	62.8	77.9	73.3	96.5	47.7	57.0	77.9	61.7
주관적계층인식별	하층	88	32.9	34.1	32.9	82.8	10.2	10.2	34.1	10.2
	중하층	487	39.9	51.1	40.3	88.8	15.5	16.4	40.6	26.3
	중중층	604	41.5	58.2	49.4	90.8	15.9	25.0	51.5	35.0
	중상층	120	52.5	61.7	54.3	95.8	30.0	38.3	54.2	41.8
거주지역별	도심권	73	45.2	39.7	47.9	90.4	8.2	11.0	43.8	9.6
	동북권	428	31.8	49.4	40.3	86.0	15.0	18.9	43.6	29.9
	서북권	158	45.8	55.2	37.7	91.1	9.8	11.8	38.1	22.5
	서남권	387	43.4	55.9	46.3	91.2	20.1	26.3	47.2	33.0
	동남권	254	50.7	62.9	56.5	94.1	21.0	30.0	56.6	39.6
18세이전거주지역별	서울	671	42.0	62.2	49.8	93.7	17.6	24.3	50.7	35.0
	광역시	187	44.9	50.7	48.0	88.2	18.1	21.8	43.7	24.0
	중소도시	204	43.1	52.9	45.1	85.7	16.7	24.5	48.1	32.4
	농어촌지역	238	35.5	35.2	31.0	84.6	12.9	13.4	35.7	22.2

<부록표 17> 공연 및 전시예술행사 관람횟수(지난 1년)

		사례수	전통 예술 공연	연극	대중 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전 체		1300	0.2	0.5	0.4	0.1	0.1	0.5	0.2
성별	남자	636	0.2	0.4	0.4	0.1	0.1	0.4	0.2
	여자	664	0.2	0.5	0.5	0.0	0.1	0.5	0.2
연령별	20대	320	0.3	0.9	1.0	0.1	0.2	0.7	0.3
	30대	327	0.2	0.5	0.3	0.0	0.1	0.6	0.2
	40대	291	0.2	0.4	0.3	0.2	0.1	0.4	0.1
	50대이상	362	0.2	0.2	0.3	0.0	0.1	0.2	0.1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0.2	0.1	0.1	0.0	0.0	0.1	0.0
	고졸	651	0.2	0.4	0.4	0.1	0.0	0.3	0.1
	대재	114	0.2	1.0	0.9	0.1	0.3	0.8	0.4
	2년제대졸	153	0.2	0.5	0.4	0.1	0.1	0.5	0.2
	4년제대졸이상	279	0.3	0.6	0.5	0.1	0.2	0.7	0.3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0.7	1.3	0.4	0.2	0.2	1.3	0.6
	관리직	40	0.1	0.1	0.3	0.0	0.1	0.5	0.0
	사무직	362	0.2	0.5	0.4	0.2	0.2	0.5	0.2
	자영업	375	0.2	0.3	0.3	0.0	0.1	0.3	0.1
	판매서비스직	170	0.1	0.4	0.4	0.0	0.0	0.4	0.1
	생산직	51	0.6	0.4	0.4	0.1	0.1	0.4	0.2
	학생	99	0.3	1.1	1.8	0.2	0.3	0.8	0.3
	주부	123	0.1	0.4	0.1	0.0	0.0	0.2	0.2
	무직/기타	13	0.2	0.9	0.4	0.2	0.2	1.0	0.5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0.3	0.3	0.2	0.2	0.1	0.6	0.1
	101-150만원	93	0.4	0.6	0.4	0.0	0.1	0.4	0.2
	151-200만원	124	0.1	0.3	0.2	0.0	0.1	0.3	0.1
	201-300만원	359	0.2	0.4	0.3	0.1	0.1	0.3	0.1
	301-400만원	433	0.2	0.6	0.5	0.1	0.1	0.5	0.2
	401-500만원	155	0.2	0.4	0.7	0.1	0.1	0.6	0.2
	501만원이상	86	0.3	0.7	1.0	0.1	0.3	1.0	0.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0.3	0.2	0.2	0.1	0.0	0.4	0.1
	중하층	487	0.2	0.4	0.5	0.0	0.1	0.3	0.1
	중중층	604	0.2	0.5	0.4	0.1	0.1	0.5	0.2
	중상층	120	0.4	0.8	0.5	0.1	0.3	0.9	0.2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0.2	0.3	0.3	0.0	0.0	0.4	0.0
	동북권	428	0.2	0.5	0.4	0.0	0.1	0.4	0.2
	서북권	158	0.1	0.7	0.2	0.1	0.1	0.3	0.2
	서남권	387	0.2	0.4	0.3	0.1	0.1	0.4	0.1
	동남권	254	0.4	0.4	0.9	0.1	0.2	0.6	0.2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0.2	0.6	0.6	0.1	0.1	0.5	0.2
	광역시	187	0.2	0.4	0.2	0.0	0.1	0.5	0.1
	중소도시	204	0.3	0.5	0.4	0.2	0.1	0.5	0.2
	농어촌지역	238	0.1	0.2	0.2	0.0	0.1	0.3	0.1

<부록표 18> 가장 만족한 예술행사 관람 이유

		사례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초대권이 생겨서/ 무료여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모름/ 무응답
			%	%	%	%	%	%
전 체		467	9.6	38.9	19.3	16.9	15.1	0.2
성별	남자	218	10.1	39.4	21.1	18.9	10.1	0.5
	여자	249	9.2	38.4	17.7	15.3	19.4	
연령별	20대	174	8.6	52.2	22.5	13.8	2.3	0.6
	30대	117	11.1	35.0	14.5	11.0	28.4	
	40대	100	12.0	28.0	12.0	19.0	29.0	
	50대이상	76	6.6	28.9	28.9	30.5	5.2	0.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6	12.4	24.8	18.6	31.9	12.4	
	고졸	175	8.0	35.4	18.3	18.3	20.1	
	대재	74	8.1	59.3	17.6	13.6		1.4
	2년제대졸	60	13.4	44.7	18.4	8.3	15.2	
	4년제대졸이상	141	10.6	31.9	21.3	19.1	17.0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35	11.7	45.4	5.7	22.7	14.5	
	관리직	8	12.5	37.5	12.5	25.0	12.5	
	사무직	150	6.6	34.6	26.0	14.6	18.1	
	자영업	94	13.8	31.8	18.1	20.2	16.0	
	판매서비스직	57	14.0	38.6	17.5	14.0	15.8	
	생산직	18		33.1	16.5	28.3	22.0	
	학생	64	7.8	60.8	14.1	15.7		1.6
	주부	31	9.7	32.3	22.6	9.7	25.8	
	무직/기타	7	14.3	42.9	14.3	14.3	14.3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9	22.2	11.1	11.1	44.4	11.1	
	101-150만원	34	11.8	32.4	11.8	17.6	26.5	
	151-200만원	33	9.1	45.5	12.1	15.2	18.2	
	201-300만원	105	9.4	37.1	22.8	17.3	12.4	1.0
	301-400만원	168	8.3	40.9	18.5	15.5	16.8	
	401-500만원	67	10.5	41.7	19.4	17.9	10.5	
	501만원이상	47	10.8	36.1	23.3	17.0	12.7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18	22.2	22.2	16.7	27.8	11.1	
	중하층	143	9.8	37.0	21.6	14.0	17.7	
	중중층	236	8.4	43.4	15.6	18.2	13.9	0.4
	중상층	68	10.4	30.8	27.9	16.2	14.7	
거주 지역별	도심권	19	15.8	57.9	5.3	5.3	15.8	
	동북권	152	8.6	39.9	13.8	20.6	17.1	
	서북권	48	12.3	27.3	16.8	27.0	16.5	
	서남권	145	9.0	44.1	24.1	13.8	9.0	
	동남권	104	9.8	31.9	24.1	13.5	19.7	1.0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281	10.6	42.2	16.4	16.4	13.9	0.4
	광역시	59	10.2	32.3	25.5	15.0	17.0	
	중소도시	72	5.7	37.3	29.0	15.4	12.6	
	농어촌지역	55	9.1	30.8	14.5	23.6	22.0	

<부록표 19>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

		사례수	예술행사의 내용	비용	유명도	행사 개최 장소	교통 편의	주의 사람의 평가	비평가들의 평가	기타	모름/무응답
			%	%	%	%	%	%	%	%	%
전 체		1300	34.6	31.1	8.1	5.6	7.2	11.8	1.4	0.2	0.2
성별	남자	636	36.0	29.9	9.4	5.3	7.5	10.4	1.1	0.2	0.2
	여자	664	33.3	32.2	6.9	5.8	6.8	13.1	1.7	0.2	0.2
연령별	20대	320	35.1	29.6	10.9	4.4	5.6	13.7	0.6		
	30대	327	38.0	27.8	7.3	6.2	7.1	11.5	1.9		0.3
	40대	291	35.1	29.9	8.9	5.2	8.9	9.6	2.1	0.3	
	50대이상	362	30.8	36.3	5.8	6.4	7.2	12.0	1.1	0.3	0.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27.7	42.6	4.9	3.0	4.9	13.0	2.0	1.0	1.0
	고졸	651	33.6	32.7	7.8	5.1	7.8	11.9	0.9	0.2	
	대재	114	29.8	36.9	8.8	3.5	4.4	15.7	0.9		
	2년제대졸	153	35.7	25.9	13.0	5.9	6.5	10.3	2.7		
	4년제대졸이상	279	41.1	23.4	6.8	8.3	7.9	10.3	1.8		0.4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63.5	9.5	11.0	4.7	4.7	3.2	1.8		1.6
	관리직	40	37.5	25.0	7.5	12.5	7.5	7.5	2.5		
	사무직	362	31.2	30.5	9.9	8.6	8.0	10.2	1.7		
	자영업	375	39.5	30.1	5.6	3.7	6.4	12.5	1.3	0.5	0.3
	판매서비스직	170	31.2	34.8	9.9	3.0	5.3	14.7	1.2		
	생산직	51	31.4	39.1	9.8	2.0	11.8	5.9			
	학생	99	27.3	40.4	9.1	2.0	3.0	17.1	1.0		
	주부	123	27.6	35.6	4.9	8.2	8.2	13.9	1.6		
	무직/기타	13	30.8	15.4	7.7		30.8	15.4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5.5	48.7	11.5		11.5	2.9			
	101-150만원	93	34.3	31.3	6.3	1.1	6.5	16.2	2.2	1.1	1.1
	151-200만원	124	29.9	37.6	8.9	2.4	7.3	13.9			
	201-300만원	359	32.3	35.5	7.2	6.9	5.6	10.5	1.7	0.3	
	301-400만원	433	35.6	26.0	9.0	6.5	9.0	12.4	1.4		
	401-500만원	155	40.1	25.8	11.0	4.5	7.1	10.9	0.6		
	501만원이상	86	38.5	31.4	3.5	8.1	4.6	10.5	2.3		1.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27.1	45.4	10.2		4.5	10.4	1.1	1.1	
	중하층	487	29.0	34.9	10.0	6.4	8.8	9.6	1.0		0.2
	중중층	604	38.9	26.8	6.8	5.8	6.5	13.1	2.0	0.2	
	중상층	120	40.9	26.7	5.8	5.0	5.8	14.9			0.8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31.5	47.9	2.7	1.4	8.2	6.8	1.4		
	동북권	428	39.1	24.6	7.5	2.6	5.6	19.0	1.2	0.2	0.2
	서북권	158	25.9	46.0	8.8	3.1	2.5	13.0	0.6		
	서남권	387	40.5	27.3	10.3	4.7	7.5	7.5	2.1		0.3
	동남권	254	24.5	33.6	7.1	14.7	11.9	6.7	1.2	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36.4	29.5	9.2	4.8	6.7	12.2	1.0		0.1
	광역시	187	30.0	34.1	7.0	9.6	9.1	9.1	0.5	0.5	
	중소도시	204	32.8	26.5	8.8	6.4	7.8	14.7	3.0		
	농어촌지역	238	34.8	37.1	5.4	3.8	6.3	10.1	1.7	0.4	0.4

<부록표 20> 문화예술행사 미관람 이유

		사례수	시간이 없다	자녀/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관심/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행사장까지 가기가 불편하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	모름/무응답
			%	%	%	%	%	%	%
전 체		1300	44.8	2.5	21.7	21.9	6.8	2.1	0.3
성별	남자	636	45.9	0.6	19.9	24.5	6.7	1.9	0.5
	여자	664	43.8	4.2	23.4	19.5	6.8	2.2	0.2
연령별	20대	320	33.6	4.1	29.7	21.1	8.4	3.1	
	30대	327	46.1	4.6	19.7	20.9	6.4	1.8	0.6
	40대	291	55.3	1.0	20.6	17.2	4.8	0.7	0.3
	50대이상	362	45.1	0.3	17.2	27.4	7.2	2.5	0.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1.8		30.6	18.7	6.9	2.0	
	고졸	651	49.2	2.6	19.0	20.9	6.1	1.8	0.3
	대재	114	14.9	0.9	36.9	34.2	8.8	4.4	
	2년제대졸	153	49.3	3.2	18.3	17.5	9.1	1.9	0.7
	4년제대졸이상	279	45.6	3.2	19.7	23.2	6.1	1.8	0.4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45.8	9.5	12.8	17.8	9.5	4.7	
	관리직	40	35.0		22.5	30.0	12.5		
	사무직	362	40.4	4.4	27.8	19.1	6.1	1.7	0.6
	자영업	375	57.6	0.3	13.6	21.8	4.5	1.8	0.3
	판매서비스직	170	51.3	1.8	18.2	22.3	5.2	1.2	
	생산직	51	57.2		19.4	9.6	7.9	5.9	
	학생	99	10.0		43.5	34.3	9.1	3.0	
	주부	123	39.1	4.9	19.4	23.7	12.2		0.8
	무직/기타	13	23.1		23.1	30.8	7.7	15.4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4.5		14.3	16.9	8.6	5.7	
	101-150만원	93	40.8	1.1	28.1	21.5	5.3	3.2	
	151-200만원	124	44.4	4.0	25.1	20.0	4.9	1.6	
	201-300만원	359	45.6	3.9	24.5	18.1	6.4	1.1	0.3
	301-400만원	433	45.9	2.0	22.2	21.3	6.3	1.8	0.5
	401-500만원	155	41.9	0.6	16.2	31.0	6.5	3.1	0.6
	501만원이상	86	38.3	1.2	10.5	31.5	15.1	3.5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51.0		28.6	14.8	3.4	2.3	
	중하층	487	43.4	3.3	24.9	18.6	7.4	2.5	
	중중층	604	44.1	2.2	19.6	25.6	6.3	1.7	0.7
	중상층	120	50.0	2.5	13.3	22.6	9.2	2.4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63.0	1.4	19.2	12.3	2.7	1.4	
	동북권	428	44.9	1.9	17.6	24.4	9.4	1.2	0.7
	서북권	158	50.9	3.1	19.6	17.6	2.5	6.2	
	서남권	387	46.4	2.3	25.0	19.8	4.9	1.3	0.3
	동남권	254	33.2	3.6	25.3	26.5	9.1	2.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43.3	2.4	21.8	22.9	7.2	1.9	0.6
	광역시	187	52.3	2.7	19.3	16.1	7.0	2.7	
	중소도시	204	41.6	2.5	24.1	25.4	4.4	2.0	
	농어촌지역	238	45.8	2.6	21.1	20.9	7.5	2.1	

<부록표 21>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사례수	전통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공연	영화	무용공연	클래식/오페라	미술전시회	뮤지컬	모름/무응답
			%	%	%	%	%	%	%	%	%
전 체		1300	12.0	13.0	21.8	25.3	1.0	9.8	4.8	11.8	0.5
성별	남자	636	13.4	11.6	21.9	30.8	0.5	6.3	5.0	10.0	0.5
	여자	664	10.6	14.3	21.7	20.0	1.5	13.3	4.5	13.5	0.5
연령별	20대	320	1.3	12.4	27.5	23.4	0.9	15.9	4.4	14.2	
	30대	327	6.0	11.6	17.5	27.8	1.2	11.9	5.5	17.5	0.9
	40대	291	14.8	18.2	19.6	22.7	0.3	7.2	5.2	12.0	
	50대이상	362	24.7	10.6	22.4	26.8	1.4	4.8	4.1	4.4	0.8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1	26.6	10.8	23.8	30.8	1.0		1.0	3.9	2.0
	고졸	651	15.3	12.8	19.8	28.5	1.2	6.2	5.1	10.6	0.5
	대재	114	0.9	15.7	37.8	15.8		14.0	3.5	12.2	
	2년제대졸	153	6.4	11.0	20.8	28.0	0.7	12.4	7.2	13.5	
	4년제대졸이상	279	6.2	14.4	19.8	18.3	1.1	18.6	4.7	16.5	0.4
응답자직업별	전문직	63	6.5	14.4	17.5	18.9		9.5	7.9	23.7	1.6
	관리직	40	5.0	15.0	15.0	25.0		2.5	10.0	27.5	
	사무직	362	7.8	14.0	20.7	21.9	1.1	15.8	4.7	14.0	
	자영업	375	19.4	12.1	20.6	28.0	0.6	6.4	4.0	8.5	0.5
	판매서비스직	170	9.3	9.4	22.4	34.1	1.8	8.2	5.9	8.3	0.6
	생산직	51	13.7	9.8	19.7	35.1	2.0	7.9	5.9	5.9	
	학생	99	1.0	15.1	37.5	14.2		15.1	4.1	13.1	
	주부	123	17.8	15.6	21.2	21.9	1.6	5.0	3.2	12.1	1.6
	무직/기타	13	23.1	15.4	15.4	30.8	7.7	7.7			
월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9.7	14.3	17.2	28.7	2.9	5.7	5.7	5.7	
	101-150만원	93	18.4	14.0	20.4	28.8	2.3	4.3	4.3	7.5	
	151-200만원	124	19.3	14.6	15.3	29.9	1.6	2.4	5.7	10.4	0.8
	201-300만원	359	12.5	9.8	21.5	26.7	0.6	11.4	3.3	13.3	0.8
	301-400만원	433	11.1	14.3	23.8	21.2	0.9	12.0	4.4	12.2	
	401-500만원	155	6.4	15.6	18.7	30.4		10.3	5.8	12.1	0.6
	501만원이상	86	2.3	12.8	28.0	22.1	1.2	11.6	8.1	12.8	1.2
주관적계층인식별	하층	88	17.0	9.1	20.4	36.4		3.4	4.5	8.0	1.1
	중하층	487	12.3	11.7	20.3	29.3	1.0	8.4	5.2	11.5	0.2
	중중층	604	11.6	13.4	23.9	20.7	1.2	11.4	4.3	13.0	0.5
	중상층	120	9.2	19.1	17.6	24.2	0.8	12.5	5.8	10.0	0.8
거주지역별	도심권	73	12.3	5.5	20.5	43.8	1.4	5.5	4.1	6.8	
	동북권	428	10.2	17.3	20.8	25.1	0.7	8.4	2.6	13.7	1.2
	서북권	158	16.9	11.2	19.6	28.5	1.9	6.1	6.3	9.4	
	서남권	387	14.4	12.1	21.2	23.1		13.2	4.7	11.1	0.3
	동남권	254	8.3	10.3	26.1	21.7	2.4	10.7	7.9	12.7	
18세이전거주지역별	서울	671	9.0	12.8	22.2	24.0	0.9	11.6	4.5	14.4	0.6
	광역시	187	13.3	12.9	25.7	25.7	2.2	7.4	4.3	8.0	0.5
	중소도시	204	13.6	11.3	22.1	22.6	1.0	9.8	6.4	12.7	0.5
	농어촌지역	238	18.1	15.1	17.2	31.0	0.4	6.8	4.6	6.7	

<부록표 22> 여가시설 이용률

		사례수	대규모 녹지공원	산	놀이공원	운동경기장	고궁
			%	%	%	%	%
전 체		1300	69.1	57.8	53.9	19.9	29.2
성별	남자	636	67.5	60.0	50.1	26.1	24.2
	여자	664	70.6	55.7	57.4	14.0	33.9
연령별	20대	320	81.6	45.8	79.5	32.7	33.4
	30대	327	76.2	57.9	69.6	22.3	32.2
	40대	291	62.9	60.8	47.8	16.2	25.1
	50대이상	362	56.6	65.9	21.9	9.4	26.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52.3	64.4	20.7	3.9	25.8
	고졸	651	62.0	59.1	44.1	12.9	25.4
	대재	114	88.6	44.7	80.7	35.0	36.0
	2년제대졸	153	76.7	54.8	69.8	24.8	28.7
	4년제대졸이상	279	79.8	59.4	69.0	33.1	36.7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79.3	66.9	63.5	31.9	47.7
	관리직	40	65.0	55.0	47.5	30.0	25.0
	사무직	362	76.2	60.3	66.0	25.4	34.6
	자영업	375	57.5	57.4	33.6	12.8	23.2
	판매서비스직	170	67.1	55.9	60.7	15.2	25.9
	생산직	51	64.4	66.6	39.1	19.6	27.6
	학생	99	88.9	45.4	81.9	36.3	35.4
	주부	123	68.2	58.3	52.1	8.1	22.7
	무직/기타	13	61.5	61.5	38.5	30.8	38.5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40.1	51.6	34.4	22.9	20.1
	101-150만원	93	59.0	68.7	38.7	15.1	32.3
	151-200만원	124	62.8	50.8	49.1	9.7	27.3
	201-300만원	359	67.9	57.7	54.3	17.5	27.3
	301-400만원	433	73.6	56.6	56.1	22.4	28.0
	401-500만원	155	74.2	58.9	58.2	22.5	32.3
	501만원이상	86	75.6	64.0	62.8	32.6	39.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53.3	58.0	32.9	10.2	25.0
	중하층	487	65.9	55.3	51.6	18.9	26.5
	중중층	604	73.4	58.1	58.1	20.1	29.1
	중상층	120	71.8	66.8	56.8	30.1	42.6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64.4	34.2	43.8	12.3	31.5
	동북권	428	56.0	58.8	48.6	16.6	27.9
	서북권	158	71.0	53.6	41.4	17.5	34.0
	서남권	387	71.4	58.2	56.5	22.0	29.4
	동남권	254	87.8	64.8	69.3	26.1	27.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73.3	55.8	59.6	23.1	30.0
	광역시	187	66.7	55.2	50.3	17.1	28.4
	중소도시	204	63.2	62.3	53.9	17.2	32.4
	농어촌지역	238	64.1	61.7	40.3	15.5	24.8

<부록표 23>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률

		사례수	대형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규모 미술관/화랑	공공 미술관/ 박물관	대학로 소극장
			%	%	%	%	%
전 체		1300	83.5	69.1	57.8	53.9	19.9
성별	남자	636	86.0	67.5	60.0	50.1	26.1
	여자	664	81.2	70.6	55.7	57.4	14.0
연령별	20대	320	72.5	81.6	45.8	79.5	32.7
	30대	327	83.8	76.2	57.9	69.6	22.3
	40대	291	87.3	62.9	60.8	47.8	16.2
	50대이상	362	90.0	56.6	65.9	21.9	9.4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91.1	52.3	64.4	20.7	3.9
	고졸	651	90.2	62.0	59.1	44.1	12.9
	대재	114	67.4	88.6	44.7	80.7	35.0
	2년제대졸	153	79.2	76.7	54.8	69.8	24.8
	4년제대졸이상	279	74.1	79.8	59.4	69.0	33.1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69.8	79.3	66.9	63.5	31.9
	관리직	40	92.5	65.0	55.0	47.5	30.0
	사무직	362	79.9	76.2	60.3	66.0	25.4
	자영업	375	91.2	57.5	57.4	33.6	12.8
	판매서비스직	170	82.9	67.1	55.9	60.7	15.2
	생산직	51	88.2	64.4	66.6	39.1	19.6
	학생	99	64.5	88.9	45.4	81.9	36.3
	주부	123	88.7	68.2	58.3	52.1	8.1
	무직/기타	13	84.6	61.5	61.5	38.5	30.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88.5	40.1	51.6	34.4	22.9
	101-150만원	93	83.9	59.0	68.7	38.7	15.1
	151-200만원	124	90.3	62.8	50.8	49.1	9.7
	201-300만원	359	90.0	67.9	57.7	54.3	17.5
	301-400만원	433	80.9	73.6	56.6	56.1	22.4
	401-500만원	155	78.7	74.2	58.9	58.2	22.5
	501만원이상	86	65.0	75.6	64.0	62.8	32.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89.8	53.3	58.0	32.9	10.2
	중하층	487	88.9	65.9	55.3	51.6	18.9
	중중층	604	81.3	73.4	58.1	58.1	20.1
	중상층	120	68.2	71.8	66.8	56.8	30.1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87.7	64.4	34.2	43.8	12.3
	동북권	428	86.5	56.0	58.8	48.6	16.6
	서북권	158	85.5	71.0	53.6	41.4	17.5
	서남권	387	79.8	71.4	58.2	56.5	22.0
	동남권	254	81.8	87.8	64.8	69.3	26.1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81.2	73.3	55.8	59.6	23.1
	광역시	187	82.9	66.7	55.2	50.3	17.1
	중소도시	204	84.2	63.2	62.3	53.9	17.2
	농어촌지역	238	89.9	64.1	61.7	40.3	15.5

<부록표 24> 문화예술관련 최대 지출 분야(1순위)

		사례수	연극관람	영화관람	대중음악 공연, 연예관람	예술관련 교육비/ 강습비	기타	해당사항 없음
			%	%	%	%	%	%
전 체		1300	1.2	26.3	1.2	0.5	0.1	31.3
성별	남자	636	0.9	27.0	0.8	0.2	0.2	30.4
	여자	664	1.5	25.6	1.7	0.8		32.2
연령별	20대	320	1.6	49.8	1.3			7.8
	30대	327	1.2	25.9	1.2	0.9		20.1
	40대	291	1.0	19.2	1.7	0.7	0.3	33.7
	50대이상	362	1.1	11.5	0.9	0.3	0.0	60.2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9.9		1.0	1.0	70.4
	고졸	651	1.4	17.2	0.9	0.5		42.6
	대재	114	1.8	57.0				6.2
	2년제대졸	153		40.1	2.0	1.3		10.4
	4년제대졸이상	279	1.8	33.3	2.5			12.3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6.3	26.8				11.3
	관리직	40		35.0	2.5			30.0
	사무직	362	1.6	30.6	3.1	0.8		20.3
	자영업	375	0.8	15.1	0.5	0.8	0.3	46.5
	판매서비스직	170	0.6	30.1	0.6			31.1
	생산직	51		21.6				45.2
	학생	99	2.0	57.5				5.1
	주부	123		17.0	0.8			44.6
	무직/기타	13		23.1				30.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8.6	2.9			54.1
	101-150만원	93	2.2	19.2		1.1		48.5
	151-200만원	124		14.6				38.7
	201-300만원	359	1.4	21.7	0.8	0.3		36.3
	301-400만원	433	1.4	27.6	1.2	0.7		25.9
	401-500만원	155	0.6	39.8	3.2	0.6	0.6	19.5
	501만원이상	86	2.3	48.8	2.3			15.1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5.8	1.1			53.6
	중하층	487	1.3	19.5	0.8	0.2		34.7
	중중층	604	1.3	29.8	1.5	0.7	0.2	27.8
	중상층	120	1.7	43.3	1.7	0.8		19.2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4	15.1			1.4	45.2
	동북권	428	0.7	26.5	1.7	0.2		36.3
	서북권	158	3.1	22.6	0.6			36.6
	서남권	387		29.9	0.5	1.0		29.8
	동남권	254	2.8	26.0	2.4	0.4		17.7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2	32.0	1.7	0.4		23.3
	광역시	187	1.6	24.5		0.5		32.1
	중소도시	204	1.5	22.6	2.5			35.6
	농어촌지역	238	0.8	15.0		0.8	0.4	49.3

<부록표 25> 성인 이전 학교 외 예술교육 경험

		사례수	아니다	그렇다
			%	%
전 체		1300	85.7	14.3
성별	남자	636	87.9	12.1
	여자	664	83.6	16.4
연령별	20대	320	68.8	31.2
	30대	327	87.2	12.8
	40대	291	88.3	11.7
	50대이상	362	97.2	2.8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96.1	3.9
	고졸	651	93.6	6.4
	대재	114	57.9	42.1
	2년제대졸	153	84.4	15.6
	4년제대졸이상	279	75.9	24.1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71.4	28.6
	관리직	40	85.0	15.0
	사무직	362	85.1	14.9
	자영업	375	92.0	8.0
	판매서비스직	170	88.8	11.2
	생산직	51	92.1	7.9
	학생	99	59.6	40.4
	주부	123	91.9	8.1
	무직/기타	13	69.2	30.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82.8	17.2
	101-150만원	93	87.1	12.9
	151-200만원	124	91.1	8.9
	201-300만원	359	90.0	10.0
	301-400만원	433	86.4	13.6
	401-500만원	155	78.1	21.9
	501만원이상	86	68.6	31.4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92.0	8.0
	중하층	487	90.1	9.9
	중중층	604	83.5	16.5
	중상층	120	74.3	25.7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86.3	13.7
	동북권	428	87.6	12.4
	서북권	158	85.6	14.4
	서남권	387	82.7	17.3
	동남권	254	87.0	13.0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80.7	19.3
	광역시	187	86.6	13.4
	중소도시	204	91.2	8.8
	농어촌지역	238	94.5	5.5

<부록표 26> 성인이전 문화예술관련 가정 환경

		사례수	부모님의 클래식 감상 경험	공연/전시회 동참 경험	여행중 문화유적 답사 경험	서점에서의 책 선물 경험	화가의 진품 그림 소유
			%	%	%	%	%
전 체		1300	18.3	15.5	43.8	39.3	8.5
성별	남자	636	17.6	12.4	42.6	38.5	8.8
	여자	664	19.0	18.4	45.0	40.1	8.3
연령별	20대	320	34.5	31.2	63.9	65.0	14.4
	30대	327	21.0	14.7	47.7	40.9	6.4
	40대	291	13.4	12.0	44.0	34.7	8.2
	50대이상	362	5.5	5.0	22.4	18.9	5.5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3.9	5.9	14.8	7.9	3.0
	고졸	651	9.3	9.4	34.2	29.8	4.5
	대재	114	46.4	41.3	72.7	77.1	15.0
	2년제대졸	153	22.6	16.3	52.1	46.7	13.7
	4년제대졸이상	279	30.9	22.3	60.4	53.5	14.8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39.6	27.2	52.4	39.8	17.7
	관리직	40	20.0	17.5	52.5	45.0	15.0
	사무직	362	24.2	17.9	54.9	48.2	9.1
	자영업	375	10.9	6.9	28.8	25.9	7.5
	판매서비스직	170	12.4	11.8	35.2	35.9	5.9
	생산직	51	3.7	11.8	31.2	17.5	9.8
	학생	99	44.4	42.5	72.6	80.7	14.2
	주부	123	4.1	9.7	43.8	30.9	1.6
	무직/기타	13	23.1	30.8	38.5	53.8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4.3	11.5	20.1	11.5	8.6
	101-150만원	93	7.5	7.5	28.9	24.7	6.5
	151-200만원	124	16.1	11.3	38.6	29.8	8.9
	201-300만원	359	13.9	10.1	40.0	39.1	4.2
	301-400만원	433	19.3	16.3	47.3	40.2	8.5
	401-500만원	155	26.9	23.3	54.3	53.4	11.6
	501만원이상	86	35.0	37.3	57.0	51.2	22.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6.8	6.8	23.9	11.4	5.7
	중하층	487	12.1	10.9	34.2	32.8	4.3
	중중층	604	22.3	17.5	51.6	46.1	10.0
	중상층	120	32.5	29.3	57.6	51.7	20.9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6.8	6.8	27.4	30.1	8.2
	동북권	428	19.5	14.0	42.5	40.8	7.0
	서북권	158	11.8	11.3	39.6	48.3	3.1
	서남권	387	18.6	14.7	46.4	35.9	10.9
	동남권	254	23.3	24.1	49.4	39.2	11.1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24.3	21.6	50.6	48.2	10.6
	광역시	187	16.0	10.7	41.8	43.2	8.0
	중소도시	204	18.2	12.9	43.3	34.9	8.4
	농어촌지역	238	3.3	4.2	26.7	15.1	3.4

<부록표 27a> 참여동호회

		사례수	해당사항 없음	운동	인터넷, 컴퓨터	등산	오락/게임	여행	기타	영화/비디오
			%	%	%	%	%	%	%	%
전 체		1300	68.5	14.0	8.8	7.5	3.8	3.0	2.7	2.5
성별	남자	636	62.3	18.2	11.8	8.8	5.8	3.1	1.4	3.0
	여자	664	74.5	10.0	5.9	6.2	2.0	2.9	3.9	2.1
연령별	20대	320	51.9	18.1	21.3	3.1	10.0	6.3	4.7	7.8
	30대	327	67.7	14.2	9.8	5.5	4.0	1.8	2.8	1.5
	40대	291	73.9	13.7	2.7	11.0	1.0	1.7	1.7	1.0
	50대이상	362	10.5	1.7	10.2	0.6	2.2	0.0	1.4	2.2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1	86.2	7.9		3.9		2.0	2.0	
	고졸	651	76.9	9.7	5.1	7.7	2.0	2.3	2.2	1.1
	대재	114	36.7	26.4	26.4		16.7	8.8	9.7	14.1
	2년제대졸	153	60.2	15.7	11.7	7.8	6.5	2.0	2.0	4.5
	4년제대졸이상	279	59.7	20.5	11.8	11.1	2.9	3.2	1.8	1.1
응답자직업별	전문직	63	57.0	17.5	12.6	9.5	7.9	1.6	9.6	4.7
	관리직	40	45.0	25.0	25.0	15.0	7.5	12.5	5.0	7.5
	사무직	362	67.6	13.9	9.7	11.1	2.8	3.0	1.9	1.7
	자영업	375	77.7	11.7	2.9	6.9	0.8	1.3		0.8
	판매서비스직	170	67.0	15.4	10.6	4.8	4.1	4.1	4.1	2.4
	생산직	51	64.7	15.7	5.9	13.7	5.9	5.9	3.9	
	학생	99	34.1	25.3	27.4		18.2	6.1	9.1	14.2
	주부	123	89.4	4.1	0.8	3.2		0.8	1.6	
	무직/기타	13	61.5	15.4						
월소득수준별	100만원이하	35	68.5	8.6	8.6	8.6	2.9		5.7	
	101-150만원	93	64.6	11.8	3.2	10.6	2.2	3.2	5.4	4.3
	151-200만원	124	77.5	7.2	6.5	1.6	2.4	3.2	4.9	2.4
	201-300만원	359	77.4	10.3	7.5	4.5	3.6	1.4	1.4	1.9
	301-400만원	433	67.6	15.3	9.2	9.3	3.9	3.9	2.1	2.8
	401-500만원	155	61.3	17.5	12.9	7.1	6.5	3.2	3.2	3.2
	501만원이상	86	44.1	27.9	13.9	13.9	3.5	5.8	3.6	1.2
주관적계층인식별	하층	88	79.6	5.7	4.5	5.7	2.3	2.3		
	중하층	487	73.1	10.7	7.0	6.4	3.1	0.6	3.3	1.8
	중중층	604	66.6	15.3	10.3	7.8	4.6	4.1	2.5	3.3
	중상층	120	51.6	27.5	11.7	11.7	4.2	7.5	3.4	3.3
거주지역별	도심권	73	76.7	5.5	1.4	8.2	2.7	2.7	4.1	2.7
	동북권	428	72.0	13.1	6.5	5.8	4.0	4.2	2.6	2.1
	서북권	158	65.2	13.3	11.4	4.4	0.6	3.8	5.1	1.9
	서남권	387	72.4	11.6	7.8	6.2	2.1	2.1	2.1	2.1
	동남권	254	56.4	22.2	14.6	13.8	8.7	2.0	2.0	4.3
18세이전거주지역별	서울	671	64.1	15.5	11.0	6.7	5.2	3.9	3.6	3.9
	광역시	187	72.1	11.8	9.6	4.8	4.3	1.6	1.6	1.6
	중소도시	204	71.4	14.3	7.8	9.3	2.0	2.9	3.0	1.5
	농어촌지역	238	75.7	11.3	2.5	10.0	1.3	1.7	0.8	0.4

<부록표 27b> 참여 동호회

		사례수	생활 취미활동	낚시	문학	미술	만화	서양 음악	모름/ 무응답
			%	%	%	%	%	%	%
전 체		1300	2.1	2.0	1.2	1.1	1.1	1.0	0.1
성별	남자	636	1.9	3.8	1.4	0.9	1.1	0.9	
	여자	664	2.3	0.3	1.1	1.2	1.1	1.1	0.2
연령별	20대	320	3.4	0.9	1.6	1.9	3.8	2.5	0.3
	30대	327	2.5	2.8	2.5	1.6	0.6	0.6	
	40대	291	1.0	2.1	1.0	1.0		0.7	
	50대이상	362	1.4	2.2				0.3	1.7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1.0					1.0	
	고졸	651	1.8	2.0	0.3	0.6	0.8	0.3	0.2
	대재	114	2.6	0.9	1.8	2.6	6.2	3.5	
	2년제대졸	153	2.0	1.3	3.3	2.0		2.0	
	4년제대졸이상	279	2.9	3.6	2.6	1.4	0.7	1.1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6	6.3	6.5	3.3	3.2	3.2	
	관리직	40		7.5	2.5				
	사무직	362	2.2	1.4	0.6	1.1	0.3	1.4	0.3
	자영업	375	1.9	2.4	0.5	1.1	0.3	0.3	
	판매서비스직	170	3.5	1.2	0.6		0.6	0.6	
	생산직	51		3.9			2.0		
	학생	99	3.0		3.0	4.1	8.1	3.0	
	주부	123	0.9		0.8				
	무직/기타	13	7.7	7.7	15.4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9				2.9	
	101-150만원	93	3.2	1.1	3.2	2.2	5.4		
	151-200만원	124	0.8	1.6	2.4	1.6	0.8	1.6	
	201-300만원	359	1.7	0.8	0.3	0.8	0.3	0.3	0.3
	301-400만원	433	2.3	2.5	0.9	0.7	0.7	1.2	
	401-500만원	155	1.9	2.6	1.3	2.6	1.3	1.9	
	501만원이상	86	3.5	4.6	3.6		2.3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2.3	1.1			1.1		
	중하층	487	1.2	1.2	1.2	1.2	1.0	0.8	0.2
	중중층	604	3.0	2.2	1.5	1.2	1.0	1.5	
	중상층	120	0.8	5.0	0.9	0.8	1.7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2.7			1.4	1.4		
	동북권	428	0.9	2.3	0.2	0.7	1.4	0.9	
	서북권	158	4.4	2.5	4.4	1.3	0.6	2.5	
	서남권	387	1.8	1.3	0.8	1.3	0.5	0.5	
	동남권	254	2.8	2.8	2.0	1.2	1.6	1.2	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2.3	2.1	0.9	1.3	1.8	1.2	
	광역시	187	3.2	1.6	2.1	1.1	0.5	1.6	
	중소도시	204	1.5	2.0	1.5	1.0		0.5	0.5
	농어촌지역	238	1.3	2.1	1.3	0.4	0.4	0.4	

<부록표 28> 클래식 음악 친숙도

		사례수	나는 클래식 음악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클래식 음악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	%
전 체		1300	58.5	41.5
성별	남자	636	60.1	39.9
	여자	664	56.9	43.1
연령별	20대	320	51.8	48.2
	30대	327	54.9	45.1
	40대	291	55.7	44.3
	50대이상	362	69.8	30.2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78.3	21.7
	고졸	651	65.7	34.3
	대재	114	43.1	56.9
	2년제대졸	153	51.9	48.1
	4년제대졸이상	279	43.9	56.1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39.5	60.5
	관리직	40	47.5	52.5
	사무직	362	51.5	48.5
	자영업	375	67.2	32.8
	판매서비스직	170	68.2	31.8
	생산직	51	70.5	29.5
	학생	99	37.5	62.5
	주부	123	62.6	37.4
	무직/기타	13	61.5	38.5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4.1	45.9
	101-150만원	93	72.2	27.8
	151-200만원	124	66.9	33.1
	201-300만원	359	59.3	40.7
	301-400만원	433	56.4	43.6
	401-500만원	155	56.1	43.9
	501만원이상	86	41.8	58.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70.5	29.5
	중하층	487	60.9	39.1
	중중층	604	57.2	42.8
	중상층	120	46.6	53.4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67.1	32.9
	동북권	428	53.8	46.2
	서북권	158	67.3	32.7
	서남권	387	62.8	37.2
	동남권	254	51.7	48.3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52.9	47.1
	광역시	187	60.0	40.0
	중소도시	204	65.6	34.4
	농어촌지역	238	66.9	33.1

<부록표 29> 뮤지컬 감상 선호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뮤지컬을 보고싶다	뮤지컬을 볼 돈이 있다면 다른 데 쓰고 싶다	모름/무응답
			%	%	%
전 체		1300	58.9	41.0	0.1
성별	남자	636	53.1	46.9	
	여자	664	64.5	35.3	0.2
연령별	20대	320	66.3	33.7	
	30대	327	63.5	36.5	
	40대	291	63.2	36.8	
	50대이상	362	44.9	54.9	0.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35.5	63.5	1.0
	고졸	651	54.1	45.9	
	대재	114	69.2	30.8	
	2년제대졸	153	65.7	34.3	
	4년제대졸이상	279	70.8	29.2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76.1	23.9	
	관리직	40	62.5	37.5	
	사무직	362	65.4	34.6	
	자영업	375	50.2	49.5	0.3
	판매서비스직	170	52.4	47.6	
	생산직	51	52.8	47.2	
	학생	99	69.6	30.4	
	주부	123	61.0	39.0	
	무직/기타	13	46.2	53.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1.6	48.4	
	101-150만원	93	46.2	53.8	
	151-200만원	124	50.8	49.2	
	201-300만원	359	57.3	42.4	0.3
	301-400만원	433	61.6	38.4	
	401-500만원	155	68.5	31.5	
	501만원이상	86	67.5	32.5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36.4	63.6	
	중하층	487	55.3	44.7	
	중중층	604	61.8	38.0	0.2
	중상층	120	75.1	24.9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38.4	61.6	
	동북권	428	58.8	41.2	
	서북권	158	39.7	60.3	
	서남권	387	69.5	30.5	
	동남권	254	61.0	38.6	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61.1	38.9	
	광역시	187	49.9	50.1	
	중소도시	204	61.9	37.6	0.5
	농어촌지역	238	57.5	42.5	

<부록표 30> 문화시설 확충 관련 세금 증대 태도

		사례수	더 많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데 반대한다	더 많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데 동의한다
			%	%
전 체		1300	69.1	30.9
성별	남자	636	68.1	31.9
	여자	664	70.0	30.0
연령별	20대	320	66.1	33.9
	30대	327	69.7	30.3
	40대	291	65.6	34.4
	50대이상	362	74.0	26.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80.4	19.6
	고졸	651	72.0	28.0
	대재	114	64.1	35.9
	2년제대졸	153	68.8	31.2
	4년제대졸이상	279	60.4	39.6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63.5	36.5
	관리직	40	62.5	37.5
	사무직	362	63.8	36.2
	자영업	375	71.4	28.6
	판매서비스직	170	73.6	26.4
	생산직	51	78.6	21.4
	학생	99	66.8	33.2
	주부	123	70.6	29.4
	무직/기타	13	92.3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88.5	11.5
	101-150만원	93	80.6	19.4
	151-200만원	124	74.3	25.7
	201-300만원	359	67.1	32.9
	301-400만원	433	66.8	33.2
	401-500만원	155	67.0	33.0
	501만원이상	86	62.8	37.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83.0	17.0
	중하층	487	71.5	28.5
	중중층	604	66.4	33.6
	중상층	120	62.5	37.5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67.1	32.9
	동북권	428	73.6	26.4
	서북권	158	66.0	34.0
	서남권	387	72.9	27.1
	동남권	254	58.1	41.9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67.3	32.7
	광역시	187	62.5	37.5
	중소도시	204	72.7	27.3
	농어촌지역	238	76.1	23.9

<부록표 31> 문화예술 단체 기부 의향

		사례수	문화예술 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내고 싶지 않다	문화예술 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	모름/무응답
			%	%	%
전 체		1300	66.5	33.4	0.2
성별	남자	636	67.6	32.4	
	여자	664	65.4	34.3	0.3
연령별	20대	320	64.5	35.5	
	30대	327	67.8	31.9	0.3
	40대	291	63.2	36.8	
	50대이상	362	69.6	30.2	0.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79.3	19.7	1.0
	고졸	651	68.9	31.1	
	대재	114	66.8	33.2	
	2년제대졸	153	60.9	39.1	
	4년제대졸이상	279	59.4	40.2	0.4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60.4	39.6	
	관리직	40	67.5	32.5	
	사무직	362	60.2	39.8	
	자영업	375	71.1	28.6	0.3
	판매서비스직	170	68.8	30.6	0.6
	생산직	51	76.4	23.6	
	학생	99	63.7	36.3	
	주부	123	65.9	34.1	
	무직/기타	13	84.6	15.4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82.8	17.2	
	101-150만원	93	73.1	26.9	
	151-200만원	124	76.6	23.4	
	201-300만원	359	67.7	31.7	0.6
	301-400만원	433	63.1	36.9	
	401-500만원	155	65.1	34.9	
	501만원이상	86	52.4	47.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84.1	15.9	
	중하층	487	70.6	29.4	
	중중층	604	62.3	37.4	0.3
	중상층	120	57.5	42.5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71.2	28.8	
	동북권	428	72.0	28.0	
	서북권	158	56.5	42.9	0.6
	서남권	387	73.1	26.9	
	동남권	254	51.8	47.8	0.4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63.5	36.3	0.1
	광역시	187	64.1	35.9	
	중소도시	204	70.5	29.0	0.5
	농어촌지역	238	73.1	26.9	

<부록표 32> 문화예술향유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태도

		사례수	문화예술향유는 개인적인 일이므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처지 관계없이 모든사람 문화예술 향유위해 정부 지원해야 한다
			%	%
전 체		1300	29.6	70.4
성별	남자	636	30.2	69.8
	여자	664	28.9	71.1
연령별	20대	320	28.0	72.0
	30대	327	28.8	71.2
	40대	291	30.2	69.8
	50대이상	362	31.1	68.9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30.7	69.3
	고졸	651	32.9	67.1
	대재	114	30.7	69.3
	2년제대졸	153	25.2	74.8
	4년제대졸이상	279	23.1	76.9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7.5	82.5
	관리직	40	17.5	82.5
	사무직	362	27.7	72.3
	자영업	375	35.0	65.0
	판매서비스직	170	29.3	70.7
	생산직	51	29.2	70.8
	학생	99	30.3	69.7
	주부	123	28.4	71.6
	무직/기타	13	38.5	61.5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22.6	77.4
	101-150만원	93	29.2	70.8
	151-200만원	124	31.4	68.6
	201-300만원	359	31.4	68.6
	301-400만원	433	28.0	72.0
	401-500만원	155	32.2	67.8
	501만원이상	86	24.5	75.5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32.9	67.1
	중하층	487	31.0	69.0
	중중층	604	28.4	71.6
	중상층	120	27.5	72.5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27.4	72.6
	동북권	428	23.7	76.3
	서북권	158	35.9	64.1
	서남권	387	33.0	67.0
	동남권	254	30.8	69.2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26.5	73.5
	광역시	187	33.7	66.3
	중소도시	204	30.8	69.2
	농어촌지역	238	33.7	66.3

<부록표 33>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남들과의 비교 태도

		사례수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해도 상관없다
			%	%
전 체		1300	53.0	47.0
성별	남자	636	52.9	47.1
	여자	664	53.0	47.0
연령별	20대	320	60.4	39.6
	30대	327	54.0	46.0
	40대	291	52.2	47.8
	50대이상	362	46.1	53.9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0.3	59.7
	고졸	651	51.6	48.4
	대재	114	63.0	37.0
	2년제대졸	153	59.9	40.1
	4년제대졸이상	279	52.9	47.1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52.4	47.6
	관리직	40	45.0	55.0
	사무직	362	53.4	46.6
	자영업	375	48.0	52.0
	판매서비스직	170	55.9	44.1
	생산직	51	64.6	35.4
	학생	99	63.5	36.5
	주부	123	54.4	45.6
	무직/기타	13	46.2	53.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45.9	54.1
	101-150만원	93	40.6	59.4
	151-200만원	124	50.8	49.2
	201-300만원	359	56.0	44.0
	301-400만원	433	55.2	44.8
	401-500만원	155	52.2	47.8
	501만원이상	86	54.7	45.3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43.0	57.0
	중하층	487	51.6	48.4
	중중층	604	56.6	43.4
	중상층	120	47.6	52.4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61.6	38.4
	동북권	428	43.2	56.8
	서북권	158	47.9	52.1
	서남권	387	56.5	43.5
	동남권	254	64.9	35.1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51.6	48.4
	광역시	187	57.7	42.3
	중소도시	204	56.9	43.1
	농어촌지역	238	49.9	50.1

<부록표 34> 음악전공과 부모의 재산 관련성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음악전공과 부모의 재산 관련성					종합 결과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매우 동의	모름	반대	동의	모름
			%	%	%	%	%	%	%	%
전 체		1300	1.9	6.7	37.4	52.3	1.7	8.6	89.7	1.7
성별	남자	636	2.4	8.5	37.1	49.8	2.2	10.8	86.9	2.2
	여자	664	1.5	4.9	37.7	54.6	1.2	6.5	92.3	1.2
연령별	20대	320	2.8	8.4	39.3	48.5	0.9	11.3	87.8	0.9
	30대	327	1.8	5.5	40.1	50.5	2.1	7.3	90.6	2.1
	40대	291	2.1	7.9	32.0	57.0	1.0	10.0	89.0	1.0
	50대이상	362	1.1	5.2	37.6	53.5	2.5	6.4	91.2	2.5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2.0	3.9	39.4	48.7	5.9	5.9	88.2	5.9
	고졸	651	1.8	6.9	36.1	53.5	1.7	8.8	89.6	1.7
	대재	114	4.4	7.9	41.3	46.3		12.3	87.7	
	2년제대졸	153	2.0	7.8	38.5	49.8	2.0	9.8	88.3	2.0
	4년제대졸이상	279	1.1	6.1	37.5	54.7	0.7	7.1	92.2	0.7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7.9	4.7	36.9	48.9	1.6	12.6	85.8	1.6
	관리직	40		5.0	42.5	47.5	5.0	5.0	90.0	5.0
	사무직	362	1.1	5.2	33.2	59.7	0.8	6.3	92.9	0.8
	자영업	375	1.6	8.0	35.8	52.5	2.1	9.6	88.3	2.1
	판매서비스직	170	1.8	7.1	41.1	48.9	1.2	8.8	90.0	1.2
	생산직	51	2.0	11.8	43.0	37.4	5.9	13.7	80.4	5.9
	학생	99	4.1	10.1	38.5	47.3		14.2	85.8	
	주부	123	1.6	3.2	45.5	48.1	1.6	4.9	93.5	1.6
	무직/기타	13			38.5	53.8	7.7		92.3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7	2.9	40.1	48.4	2.9	8.6	88.5	2.9
	101-150만원	93	3.2	4.3	36.7	50.4	5.4	7.5	87.1	5.4
	151-200만원	124	1.6	7.3	37.9	50.8	2.4	8.9	88.7	2.4
	201-300만원	359	1.1	5.8	40.7	50.5	1.9	6.9	91.1	1.9
	301-400만원	433	1.6	6.9	35.8	54.8	0.9	8.5	90.5	0.9
	401-500만원	155	2.6	8.4	33.7	54.7	0.6	11.0	88.4	0.6
	501만원이상	86	2.3	10.5	37.3	49.9		12.8	87.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5.7	10.2	39.6	38.8	5.7	15.9	78.4	5.7
	중하층	487	2.1	6.2	33.5	56.9	1.4	8.2	90.3	1.4
	중중층	604	1.3	6.4	39.3	51.6	1.3	7.8	90.9	1.3
	중상층	120	1.7	7.5	42.6	46.6	1.7	9.2	89.2	1.7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8.2	15.1	41.1	30.1	5.5	23.3	71.2	5.5
	동북권	428	1.6	6.1	34.5	56.4	1.4	7.7	90.9	1.4
	서북권	158	0.6	11.3	35.8	49.7	2.5	11.9	85.5	2.5
	서남권	387	2.6	6.7	43.0	46.1	1.6	9.3	89.1	1.6
	동남권	254	0.4	2.4	33.7	62.8	0.8	2.8	96.5	0.8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1.3	8.8	37.2	51.2	1.5	10.1	88.4	1.5
	광역시	187	1.6	7.5	33.7	55.0	2.1	9.1	88.8	2.1
	중소도시	204	1.5	2.9	38.7	55.9	1.0	4.4	94.6	1.0
	농어촌지역	238	4.2	3.4	39.9	50.0	2.5	7.6	89.9	2.5

<부록표 35> 예술에 대한 관심과 학력 간의 비례성에 대한 의견

		사례수	예술에 대한 관심과 학력의 비례성					종합 결과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매우 동의	모름	반대	동의	모름
			%	%	%	%	%	%	%	%
전 체		1300	5.7	20.7	46.8	21.8	5.0	26.4	68.6	5.0
성별	남자	636	5.7	22.8	44.8	22.6	4.1	28.5	67.4	4.1
	여자	664	5.7	18.7	48.6	21.1	5.9	24.4	69.7	5.9
연령별	20대	320	6.6	22.8	45.7	19.7	5.3	29.4	65.3	5.3
	30대	327	8.0	19.0	45.5	22.9	4.6	27.0	68.4	4.6
	40대	291	4.8	20.3	50.5	21.6	2.7	25.1	72.2	2.7
	50대이상	362	3.6	20.8	45.8	22.9	6.9	24.4	68.7	6.9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9	21.8	44.6	16.7	12.0	26.8	61.3	12.0
	고졸	651	6.5	20.6	43.9	22.9	6.1	27.1	66.8	6.1
	대재	114	4.4	26.4	53.4	13.2	2.6	30.8	66.6	2.6
	2년제대졸	153	3.9	17.7	47.2	26.6	4.6	21.6	73.8	4.6
	4년제대졸이상	279	5.7	19.7	51.2	22.2	1.1	25.5	73.4	1.1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20.5	12.8	38.3	25.3	3.2	33.3	63.5	3.2
	관리직	40	2.5	17.5	55.0	22.5	2.5	20.0	77.5	2.5
	사무직	362	3.6	19.6	47.2	26.2	3.3	23.2	73.4	3.3
	자영업	375	4.3	23.0	46.4	21.6	4.8	27.2	68.0	4.8
	판매서비스직	170	8.8	23.5	40.6	20.5	6.6	32.4	61.1	6.6
	생산직	51	11.8	23.8	33.4	21.2	9.8	35.6	54.6	9.8
	학생	99	4.1	25.3	57.4	10.1	3.0	29.4	67.6	3.0
	주부	123	3.2	13.0	56.1	19.5	8.1	16.3	75.6	8.1
	무직/기타	13	7.7	23.1	30.8	15.4	23.1	30.8	46.2	23.1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4.3	25.8	31.2	25.8	2.9	40.1	57.0	2.9
	101-150만원	93	3.2	23.7	46.4	13.9	12.9	26.9	60.2	12.9
	151-200만원	124	7.3	23.4	40.4	20.7	8.1	30.7	61.2	8.1
	201-300만원	359	5.3	19.0	46.8	23.9	5.1	24.3	70.7	5.1
	301-400만원	433	4.2	20.4	48.9	22.9	3.7	24.5	71.8	3.7
	401-500만원	155	7.8	22.0	47.0	21.2	1.9	29.8	68.3	1.9
	501만원이상	86	7.0	18.6	54.7	18.6	1.2	25.5	73.3	1.2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4.5	20.3	44.5	19.3	11.4	24.9	63.8	11.4
	중하층	487	7.2	19.6	44.8	22.1	6.4	26.7	66.9	6.4
	중중층	604	5.0	21.9	47.9	22.0	3.1	26.9	70.0	3.1
	중상층	120	4.2	20.0	50.1	21.6	4.2	24.2	71.7	4.2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5.5	21.9	37.0	27.4	8.2	27.4	64.4	8.2
	동북권	428	7.0	21.8	50.6	13.1	7.5	28.8	63.7	7.5
	서북권	158	7.0	22.8	36.9	23.9	9.5	29.7	60.8	9.5
	서남권	387	5.7	20.9	46.7	26.0	0.8	26.6	72.6	0.8
	동남권	254	2.8	17.0	49.4	27.3	3.5	19.8	76.7	3.5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6.3	20.5	46.3	22.3	4.6	26.7	68.7	4.6
	광역시	187	5.9	17.7	46.4	23.6	6.4	23.6	70.0	6.4
	중소도시	204	2.5	21.7	47.4	23.1	5.4	24.2	70.4	5.4
	농어촌지역	238	6.7	23.0	47.7	17.9	4.7	29.7	65.6	4.7

<부록표 36> 예술에 대한 조예와 부유한 환경의 관련성

		사례수	예술에 대한 조예와 부유한 환경의 관련성					종합 결과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매우 동의	모름	반대	동의	모름
			%	%	%	%	%	%	%	%
전 체		1300	6.0	25.4	44.4	19.7	4.5	31.4	64.1	4.5
성별	남자	636	5.3	26.5	44.4	19.5	4.3	31.8	63.9	4.3
	여자	664	6.6	24.4	44.4	19.8	4.7	31.0	64.3	4.7
연령별	20대	320	7.2	28.0	43.9	15.3	5.6	35.2	59.2	5.6
	30대	327	6.5	23.3	45.3	21.9	3.1	29.7	67.2	3.1
	40대	291	5.2	26.5	43.3	21.0	4.1	31.6	64.3	4.1
	50대이상	362	5.2	24.2	45.1	20.4	5.0	29.5	65.5	5.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9	22.0	45.2	21.9	5.9	26.9	67.2	5.9
	고졸	651	6.9	24.9	43.8	19.9	4.5	31.8	63.7	4.5
	대재	114	7.0	26.4	49.1	11.3	6.2	33.4	60.4	6.2
	2년제대졸	153	4.0	29.9	39.6	19.4	7.2	33.8	59.0	7.2
	4년제대졸이상	279	5.0	25.2	46.1	21.9	1.8	30.2	68.0	1.8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6.0	26.8	28.8	26.8	1.6	42.8	55.6	1.6
	관리직	40	7.5	20.0	52.5	12.5	7.5	27.5	65.0	7.5
	사무직	362	5.0	23.2	47.2	21.3	3.3	28.2	68.5	3.3
	자영업	375	4.3	25.1	44.2	22.4	4.0	29.4	66.6	4.0
	판매서비스직	170	7.6	31.2	40.7	14.1	6.5	38.8	54.7	6.5
	생산직	51	5.9	29.7	46.7	13.7	3.9	35.6	60.4	3.9
	학생	99	7.1	26.4	48.4	12.0	6.1	33.4	60.5	6.1
	주부	123	4.9	23.6	44.8	21.9	4.9	28.4	66.7	4.9
	무직/기타	13	7.7	30.8	23.1	23.1	15.4	38.5	46.2	15.4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1.5	17.2	40.1	25.5	5.7	28.7	65.6	5.7
	101-150만원	93	8.6	18.3	45.3	18.2	9.7	26.9	63.5	9.7
	151-200만원	124	5.7	24.3	44.1	16.3	9.7	29.9	60.4	9.7
	201-300만원	359	6.7	24.3	43.7	20.9	4.5	31.0	64.6	4.5
	301-400만원	433	4.6	27.3	46.2	19.8	2.1	31.9	66.0	2.1
	401-500만원	155	5.2	30.3	47.2	14.8	2.6	35.5	61.9	2.6
	501만원이상	86	5.8	27.9	36.1	25.5	4.6	33.7	61.7	4.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9.1	18.2	40.8	22.9	9.1	27.3	63.6	9.1
	중하층	487	5.7	24.5	44.4	19.6	5.7	30.2	64.0	5.7
	중중층	604	5.8	26.5	45.5	19.0	3.2	32.3	64.5	3.2
	중상층	120	5.0	29.2	42.5	20.8	2.5	34.2	63.3	2.5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8.2	13.7	56.2	13.7	8.2	21.9	69.9	8.2
	동북권	428	5.6	29.5	44.2	15.7	4.9	35.1	59.9	4.9
	서북권	158	6.3	29.0	36.3	23.9	4.4	35.4	60.2	4.4
	서남권	387	5.9	26.8	45.3	20.4	1.6	32.8	65.7	1.6
	동남권	254	5.9	17.4	45.1	24.4	7.1	23.4	69.6	7.1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5.5	25.9	45.6	18.1	4.8	31.5	63.8	4.8
	광역시	187	5.4	20.9	43.8	24.0	5.9	26.3	67.8	5.9
	중소도시	204	3.5	22.6	45.1	23.5	5.4	26.1	68.6	5.4
	농어촌지역	238	10.1	29.9	41.1	17.3	1.7	39.9	58.4	1.7

<부록표 37> 문화예술관련 공교육 강화 의견

		사례수	문화예술관련 공교육 강화 의견					종합 결과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매우 동의	모름	반대	동의	모름
			%	%	%	%	%	%	%	%
전 체		1300	0.7	13.2	47.7	35.5	2.9	13.9	83.2	2.9
성별	남자	636	0.9	13.5	48.6	34.4	2.5	14.5	83.0	2.5
	여자	664	0.5	12.8	46.9	36.5	3.3	13.3	83.4	3.3
연령별	20대	320	0.3	10.0	51.0	34.6	4.1	10.3	85.6	4.1
	30대	327	0.9	13.2	43.0	40.2	2.7	14.1	83.2	2.7
	40대	291	0.7	14.4	44.7	37.8	2.4	15.1	82.5	2.4
	50대이상	362	0.8	15.0	51.5	30.2	2.5	15.8	81.7	2.5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2.0	10.8	56.5	24.7	6.0	12.8	81.2	6.0
	고졸	651	0.9	14.3	47.4	34.7	2.6	15.2	82.1	2.6
	대재	114		11.4	53.5	31.6	3.5	11.4	85.0	3.5
	2년제대졸	153	0.7	11.7	47.9	35.2	4.5	12.4	83.1	4.5
	4년제대졸이상	279		12.9	43.2	42.4	1.4	12.9	85.6	1.4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3.2	41.3	52.4	3.2	3.2	93.7	3.2
	관리직	40		5.0	50.0	40.0	5.0	5.0	90.0	5.0
	사무직	362	0.3	11.3	45.1	41.7	1.6	11.6	86.8	1.6
	자영업	375	1.1	16.9	49.7	29.7	2.7	17.9	79.4	2.7
	판매서비스직	170	1.2	14.2	44.1	36.5	4.1	15.4	80.5	4.1
	생산직	51		15.7	37.4	41.0	5.9	15.7	78.4	5.9
	학생	99		10.1	54.5	32.3	3.0	10.1	86.8	3.0
	주부	123		13.8	61.8	22.8	1.6	13.8	84.6	1.6
	무직/기타	13	15.4	15.4		46.2	23.1	30.8	46.2	23.1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5.7	17.2	25.5	45.9	5.7	22.9	71.3	5.7
	101-150만원	93	3.2	8.6	54.8	28.0	5.4	11.8	82.8	5.4
	151-200만원	124		10.5	44.3	41.9	3.2	10.5	86.3	3.2
	201-300만원	359	0.8	12.8	50.1	34.0	2.2	13.6	84.1	2.2
	301-400만원	433		14.1	48.5	34.6	2.8	14.1	83.1	2.8
	401-500만원	155	0.6	17.5	39.8	40.8	1.3	18.1	80.6	1.3
	501만원이상	86		10.5	51.1	33.8	4.6	10.5	84.9	4.6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2.3	15.9	42.1	34.1	5.7	18.2	76.1	5.7
	중하층	487	0.6	12.8	49.4	34.2	3.1	13.4	83.6	3.1
	중중층	604	0.7	12.1	46.5	38.1	2.7	12.8	84.6	2.7
	중상층	120		18.3	50.7	29.3	1.7	18.3	80.0	1.7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13.7	39.7	39.7	6.8	13.7	79.5	6.8
	동북권	428	1.4	7.5	55.8	33.9	1.4	8.9	89.7	1.4
	서북권	158	0.6	25.3	36.3	35.4	2.4	25.9	71.6	2.4
	서남권	387	0.5	18.1	46.3	32.8	2.3	18.6	79.1	2.3
	동남권	254		7.5	45.8	41.2	5.5	7.5	87.0	5.5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0.9	10.3	47.8	37.7	3.3	11.2	85.5	3.3
	광역시	187	0.5	16.1	47.5	33.2	2.7	16.6	80.7	2.7
	중소도시	204	0.5	13.7	47.9	36.9	1.0	14.2	84.8	1.0
	농어촌지역	238	0.4	18.5	47.5	29.8	3.8	18.9	77.3	3.8

<부록표 38>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적 성공의 관련성

		사례수	문화예술활동과 직업적 성공의 관련성					종합 결과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매우 동의	모름	반대	동의	모름
			%	%	%	%	%	%	%	%
전 체		1300	4.9	28.2	45.4	14.2	7.2	33.2	59.6	7.2
성별	남자	636	5.0	28.6	46.3	13.3	6.8	33.6	59.6	6.8
	여자	664	4.8	27.9	44.5	15.1	7.7	32.7	59.6	7.7
연령별	20대	320	2.2	30.0	44.2	16.5	7.2	32.2	60.7	7.2
	30대	327	4.3	28.1	47.7	14.1	5.8	32.4	61.8	5.8
	40대	291	5.2	24.4	48.1	16.2	6.2	29.6	64.3	6.2
	50대이상	362	7.8	29.9	42.2	10.7	9.4	37.7	52.9	9.4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10.9	32.7	29.9	14.7	11.8	43.6	44.5	11.8
	고졸	651	5.7	29.0	44.8	12.6	7.8	34.7	57.4	7.8
	대재	114	2.6	29.0	52.6	14.0	1.8	31.7	66.6	1.8
	2년제대졸	153	3.3	24.0	46.1	19.5	7.2	27.3	65.5	7.2
	4년제대졸이상	279	2.9	27.0	49.0	14.7	6.5	29.8	63.7	6.5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4.7	22.3	38.1	23.8	11.0	27.1	61.9	11.0
	관리직	40	7.5	22.5	52.5	10.0	7.5	30.0	62.5	7.5
	사무직	362	3.6	23.7	51.2	15.5	6.1	27.3	66.6	6.1
	자영업	375	6.7	33.8	41.9	10.3	7.2	40.6	52.2	7.2
	판매서비스직	170	5.9	27.6	42.3	15.9	8.2	33.5	58.2	8.2
	생산직	51	3.9	33.7	41.0	15.5	5.9	37.6	56.5	5.9
	학생	99	3.0	27.4	52.5	15.1	2.0	30.4	67.6	2.0
	주부	123	3.2	26.9	45.5	15.5	8.9	30.1	60.9	8.9
	무직/기타	13	7.7	46.2	7.7	7.7	30.8	53.8	15.4	30.8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1.5	25.5	37.3	14.3	11.5	36.9	51.6	11.5
	101-150만원	93	13.0	23.5	42.0	9.7	11.8	36.5	51.6	11.8
	151-200만원	124	7.3	28.3	42.0	11.9	10.5	35.6	53.9	10.5
	201-300만원	359	3.9	31.2	43.2	13.4	8.4	35.1	56.5	8.4
	301-400만원	433	3.7	28.1	46.0	16.9	5.3	31.8	62.9	5.3
	401-500만원	155	3.9	24.7	56.1	12.8	2.6	28.6	68.8	2.6
	501만원이상	86	3.5	27.9	45.4	16.3	7.0	31.4	61.7	7.0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3.6	31.7	24.0	21.6	9.1	45.3	45.6	9.1
	중하층	487	4.3	30.4	44.3	11.5	9.4	34.7	55.8	9.4
	중중층	604	4.7	25.8	48.8	15.0	5.6	30.5	63.9	5.6
	중상층	120	2.5	28.3	48.4	15.7	5.0	30.8	64.2	5.0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4.1	35.6	30.1	19.2	11.0	39.7	49.3	11.0
	동북권	428	7.8	26.3	49.6	10.0	6.3	34.1	59.6	6.3
	서북권	158	5.7	35.9	33.3	13.1	12.0	41.6	46.4	12.0
	서남권	387	3.6	30.1	42.8	16.2	7.2	33.7	59.0	7.2
	동남권	254	2.0	21.7	54.1	17.5	4.7	23.7	71.6	4.7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3.7	29.0	45.7	14.3	7.3	32.7	60.0	7.3
	광역시	187	7.0	29.9	39.5	16.6	7.0	36.9	56.1	7.0
	중소도시	204	2.9	27.4	47.6	16.2	5.9	30.4	63.7	5.9
	농어촌지역	238	8.4	25.5	47.1	10.5	8.4	34.0	57.6	8.4

<부록표 39> 직장 선택시 여유시간 중시에 대한 의견

		사례수	직장선택시 여유시간 중시에 대한 의견					종합 결과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동의	매우 동의	모름	반대	동의	모름
			%	%	%	%	%	%	%	%
전 체		1300	4.1	23.9	50.2	18.9	2.8	28.0	69.2	2.8
성별	남자	636	4.4	23.7	48.8	19.8	3.3	28.1	68.6	3.3
	여자	664	3.8	24.2	51.7	18.0	2.4	27.9	69.7	2.4
연령별	20대	320	4.4	23.1	47.6	20.9	4.1	27.4	68.5	4.1
	30대	327	4.6	22.7	50.3	20.1	2.4	27.3	70.4	2.4
	40대	291	3.4	22.3	54.0	18.9	1.4	25.8	72.9	1.4
	50대이상	362	3.9	27.2	49.6	16.1	3.3	31.0	65.7	3.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101	4.9	25.7	49.6	12.8	6.9	30.7	62.4	6.9
	고졸	651	4.3	25.0	50.4	18.6	1.7	29.3	69.0	1.7
	대재	114	2.6	24.6	49.9	18.5	4.4	27.3	68.3	4.4
	2년제대졸	153	2.6	22.2	53.8	17.0	4.5	24.8	70.7	4.5
	4년제대졸이상	279	4.7	21.6	48.0	23.3	2.5	26.3	71.3	2.5
응답자 직업별	전문직	63	11.0	20.7	41.4	25.3	1.6	31.8	66.6	1.6
	관리직	40	2.5	17.5	65.0	12.5	2.5	20.0	77.5	2.5
	사무직	362	3.3	20.2	49.3	23.7	3.6	23.5	73.0	3.6
	자영업	375	3.7	27.7	49.6	16.6	2.4	31.5	66.2	2.4
	판매서비스직	170	6.5	22.9	50.0	17.1	3.5	29.4	67.1	3.5
	생산직	51	2.0	27.5	54.8	15.7		29.5	70.5	
	학생	99	3.0	24.3	47.3	21.3	4.1	27.4	68.6	4.1
	주부	123	1.6	26.0	58.6	12.2	1.6	27.6	70.8	1.6
	무직/기타	13	15.4	30.8	23.1	23.1	7.7	46.2	46.2	7.7
월소득 수준별	100만원이하	35	14.3	8.6	45.5	25.8	5.7	22.9	71.3	5.7
	101-150만원	93	14.0	22.6	43.0	11.8	8.6	36.5	54.9	8.6
	151-200만원	124	4.0	25.7	50.9	17.0	2.4	29.7	67.8	2.4
	201-300만원	359	3.1	23.4	55.5	15.8	2.2	26.5	71.3	2.2
	301-400만원	433	2.5	24.5	47.1	23.6	2.3	27.0	70.7	2.3
	401-500만원	155	1.9	26.6	50.2	19.4	1.8	28.6	69.6	1.8
	501만원이상	86	5.8	25.5	51.2	13.9	3.5	31.4	65.2	3.5
주관적 계층 인식별	하층	88	11.4	29.4	42.2	13.6	3.4	40.8	55.8	3.4
	중하층	487	3.5	24.0	50.9	17.3	4.3	27.5	68.2	4.3
	중중층	604	3.3	23.9	51.5	19.8	1.5	27.2	71.3	1.5
	중상층	120	5.0	19.2	47.6	25.0	3.2	24.2	72.6	3.2
거주 지역별	도심권	73	4.1	24.7	54.8	15.1	1.4	28.8	69.9	1.4
	동북권	428	4.4	26.5	46.3	19.9	2.8	31.0	66.2	2.8
	서북권	158	5.7	17.7	45.9	28.3	2.4	23.4	74.2	2.4
	서남권	387	4.4	27.5	52.3	13.4	2.3	31.9	65.7	2.3
	동남권	254	2.0	17.8	55.0	20.9	4.3	19.7	75.9	4.3
18세이전 거주 지역별	서울	671	3.4	24.8	48.3	20.4	3.1	28.2	68.7	3.1
	광역시	187	2.1	25.2	55.1	15.5	2.1	27.3	70.6	2.1
	중소도시	204	4.9	16.2	55.4	21.1	2.5	21.1	76.5	2.5
	농어촌지역	238	6.7	27.2	47.6	15.5	2.9	33.9	63.2	2.9

[부록3] 문화 예술행사 관람료 현황

○ 예술의 전당

	97년 4월	2000년 4월	2004년 4월
오페라 극장	• 유니버설 발레단 돈키호테(7-3만원) • 겨울나그네(뮤지컬, 5-2만원)	• 나비부인(10-2만원) 오페라갈라축제<프리마돈나 페스티발>(6-2만원) • 뮤지컬 <더 라이프> (5만-1만5천원) • 가족뮤지컬<피노키오> (4만-1만5천원)	• 맘마미아(13-3만원) • 나초 두아토<멀티 플리시티> (10-2만원)
토월 극장	• 서울라보엠 (오페라, 5-2만원) • 신데렐라 (뮤지컬, 3-2만원) 어-엄마 우스섯다 (무용, 3만원) • 백정희 창작무용(2만원)	• 손정미 음악회 (2만5천-1만5천원) • 우리춤빛깔찾기(2-1만원)	• 뮤지컬 고고비치(5-4만원) • 연극 갈매기(3-2만원)
자유 소극장	• 우리시대의 춤(2만원)	• 댄스컴퍼니 조박공연 <코로나>(1만 5천원) • 가족뮤지컬<꼬마마녀 위니>(8천원)	• 나윤선, 프랭크 뵈스터 듀오 콘서트(4만-3만5천원) • 뮤지컬 7인의 천사(3만5천-2만5천원)
콘서트 홀	• 서울아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4-1만원) • 이무지치 실내악단 연주회(6-2만원) • 핀커스 주커만 바이올린 독주회(7-2만원) • 뉴욕필하모닉 현악4중주 연주회(4-1만) •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2만-5천원) • 서울아트오케스트라(3-1만원)	•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2-1만원) • 교향악축제(2만-8천원) •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만5천-1만2천원) • 밥 제임스 & 잭리 재즈콘서트(6-2만원) • 강충모 바하 전곡시리즈(3-1만원) • 로마니아 국립 블랙씨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5-1만원) •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6-1만원)	• 교향악축제(3-1만원) • 2004 엘파 재즈 & 팝 싱어즈 내한공연(7-2만원) • 한국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5-1만원) • 코리안심포니정기연주회(3-1만원) • 부천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3-1만원) • 클래식음악과 쿠바 재즈의 만남(8-2만원) • 임형주 콘서트(10-3만원) • 서울 모테트 합창단 정기연주회(7-1만원) • 서울시향정기연주회(3만5천-1만원) •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3만5천-8천원)
참고	• 호두까기인형(97.12, 4-1만원)	• 호두까지인형(2000.12, 5-2만원)	• 호두까기인형(2003.12, 5-2만원)

○ 세종문화회관

	96년4.5월	2000년 4.5월	2004년 4,5월
대극장	• 96서울환경음악제(3만-5천원) • 어린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2-1만원) •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리골렛또> (1만원) • 애틀란타 발레단 초청 서울발레시어터 합동공연(5-1만원)	• 서울시립합창단-가스펠과 클래식의 만남(3만-5천원) • 서울시교향악단-라흐마니노프 축제(4-1만원) •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5-1만원) • 어린이 뮤지컬<우주전사 손오공>(3만-1만5천원) • 경기민요 뮤지컬<회심곡>(8-2만원) • 서울시향상임지휘자 취임콘서트(4-1만원) • 한국선교오페라단 정기공연(5-1만원) • 이미자데뷔 40주년 앵콜공연(10-3만원)	• 100주년 오페라 나비부인(30-5만원) • 추억의 빅콘서트 7080 캠퍼스 밴드(10-4만원) • 2004 머스 커닝햄 in Seoul(12-4만원) • 볼쇼이 발레 백조의 호수(20-5만원) •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노 No.0 한국초연(10-3만원) • 어린이 뮤지컬<정글북> (3만5천-1만5천) • 서울시향정기연주회 (3만5천-1만원) •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7-3만원) • 조흥동의 우리춤의 맥(3-1만원) • 금난새의 오페라 여행시리즈-베르디(4만-1만5천원) • 이미자 콘서트(15만-3만원)
소극장	• 소프라노 진귀옥, 바리톤 김범진 2인 음악회(1만원) • 자카르브론 초청 바이올린독주회(3-2만원)	• 서울시극단-샐러리맨의 죽음(1만5천-1만2천원) • 영미가곡연주회 정기연주회(1만원)	• 김옥현, 알렉산더 스뱌스킨 듀오연주(1만원) • 연극 피그말리온(2만원) • 한국기타협회 정기연주회(2만-1만5천원)
참고 (빅공연)	• 이태리 유명 10인의 테너초청공연(96.3, 15만-2만원) •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96.10, 14-3만원) • 조수미 콘서트(96.10, 6만-2만원)	• 알렉산드로프 레드아미 앙상블 초청공연(2000.6, 15만-2만원) • SBS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조수미 초청공연(2000.11, 8만-2만원)	•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2004.2, 35만-3만원)

○ 국제 비교

	영국	미국
오페라	• Royal Operahouse (£170-8, £75-4)	• Lincoln Center ($295-25)
클래식 음악	• Royal Festival Hall (런던필하모닉, £35-6)	• Lincoln Center (뉴욕필하모닉,$94-27) (재즈공연, $75-20)
발레	• Royal Operahouse (£42-3, £83-5)	• Lincoln Center ($155-20)
뮤지컬,연극	• 뮤지컬 : £45-22.5 • 연극 : £32.5-28.5	• 뮤지컬 : $80-25 • 연극 : $50-25